

우리 선현들의 사상과 그 당시의 다양한 전통문화 수록

장수 고문서 자료집

長水古文書集 해설_ 박수 섭



2009

장수문화원

장수 고문서 자료집

장수문화원

선현들의 사상과 전통문화가 담겨 있는...

책에는 영원불변의 진리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그 당시 사회의 생활상이나 문화, 습관, 풍습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는 저자의 사상이나 생각, 그 시대를 풍미했던 사회 사상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에도 옛 문헌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선현들의 사상과 그 당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전통문화들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전통 문화의 우수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고서들의 전체 영인본은 발간하지 못하지만 그 고서의 모양새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미 발간 고서를 중심으로 발췌하여 《장수 고문서 자료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체 내용을 담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깃털 하나로 봉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고, 고기 한 점으로 원 솔 맛을 알 수 있듯이 장수지역 고서의 일부분이지만 우리 문화유산을 짐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라도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간추린 자료집이 나오기까지 감수해 주신 박수섭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기회가 오면 이 고서들을 번역하여 완전한 자료집을 발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 우리 장수군의 선현들이 훌륭했음을 후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한 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12. 10

장수문화원장 **강 철 규**



06	1. 공부자 존영(孔夫子 尊影)
07	2. 지성선사공자상(至聖先師 孔子像)
08	3. 장수현읍지초
09	4. 창계서원지(愴溪書院誌)
13	5. 도암선생문집(陶庵先生文集)
19	6. 화산사 사적(華山祠 事蹟)
23	7. 자락정유고(自樂亭遺稿)
25	8. 사암, 강고, 낙파 3선생 자락정기서(思菴江阜洛坡三先生自樂亭記序)
26	9. 예의유집 禮疑類輯
31	10. 담허재집(澹虛齋集)
36	11. 명은고(明隱稿)
48	12. 유향(遺響)
50	13. 사례석의(四禮釋疑)
53	14. 동사촬요 하(東史撮要 下)
55	15. 청원문
65	16. 목재초(牧齋抄)
67	17. 양사재 답세 봉책(養士齋 畚稅捧冊)
69	18. 향교제복 제기 재복 서책기(鄉校祭服 祭器 齊服 書冊記)
70	19. 만촌연보(巒村年譜)
72	20. 사례홀기(四禮笏記)
74	21. 위학지방(爲學之方)
76	22. 요전경독사숙강록(堯田耕讀私塾講錄) 2권
78	23. 시학상·하(詩學上·下)
80	24. 무슬 3월 초3일 별향안(別鄉案)



81	25. 금재 선생서 (欽齋先生書)
83	26. 격몽요결(擊蒙要訣)
85	27. 용암유고(龍菴遺稿)
87	28. 서산유묵(瑞山遺墨)
92	29. 송오유시집(松塢遺詩集)
94	30. 시당유고(時堂遺稿)
95	31. 죽천유고(竹泉遺稿)
96	32. 구선동안(九仙洞案)
97	33. 전□□(前□□)
98	34. 계하사목(啓下事目)
100	35. 송희명 교지(宋希明 教旨)
104	36. 삼봉시집三峯詩集
106	37. 율가요람(律家要覽)
107	38. 양의원(梁義源)의 배(配) 하동정씨(河東鄭氏) 지식(誌石)
108	39. 장부총론(臟腑總論) 및 약성가(藥性歌)
109	40. 불설경(佛說經)
111	41. 요람일책(要覽一冊)
112	42. 요약대방(要藥大方)
113	43.九成궁예천명첩(九成宮醴泉銘帖)
114	44. 지차시학(只此是學)
115	45. 옥낭자전
116	46. 천문도(天文圖)
117	47. 원려재 차운(遠廬齋 次韻)



1. 공부자 존영(孔夫子 尊影)



공부자 존영

공부자 존영은 중국 원(元)나라에서 판본(板本)으로 낸 것이다. 당시에 얼마나 냈는지는 알 수 없으나 700년이 지나는 동안 본 향교 소장과 미국에 있는 1점만이 남아있다고 한다. 불행히 본 향교 소장본을 도난당하여 다시 모시게 되었는데 본 존영은 장수향교지에서 사진으로 찍은 것이다.

2. 지성선사공자상(至聖先師 孔子像)



지성선사공자상
至聖先師 孔子像

장수향교에 600년 동안 모셔왔던 공자영정(孔子影幀)을 2003년 末 선달에서 2004년(甲申) 정월 사이에 도난(盜難)당하였다. 이 영정은 원(元)나라에서 모셔온 판본(板本)인데 이 판본마저 미국(美國)에 있는 한 점과 함께 두 점만이 남아 있었던 보물(寶物)이다.

즉시 경찰에 신고되지 않아 결국 찾지 못했고, 다시 영정을 낼 수밖에 없게 되자 박수섭(朴洙燮)에게 화가(畫家)를 찾아 청(請)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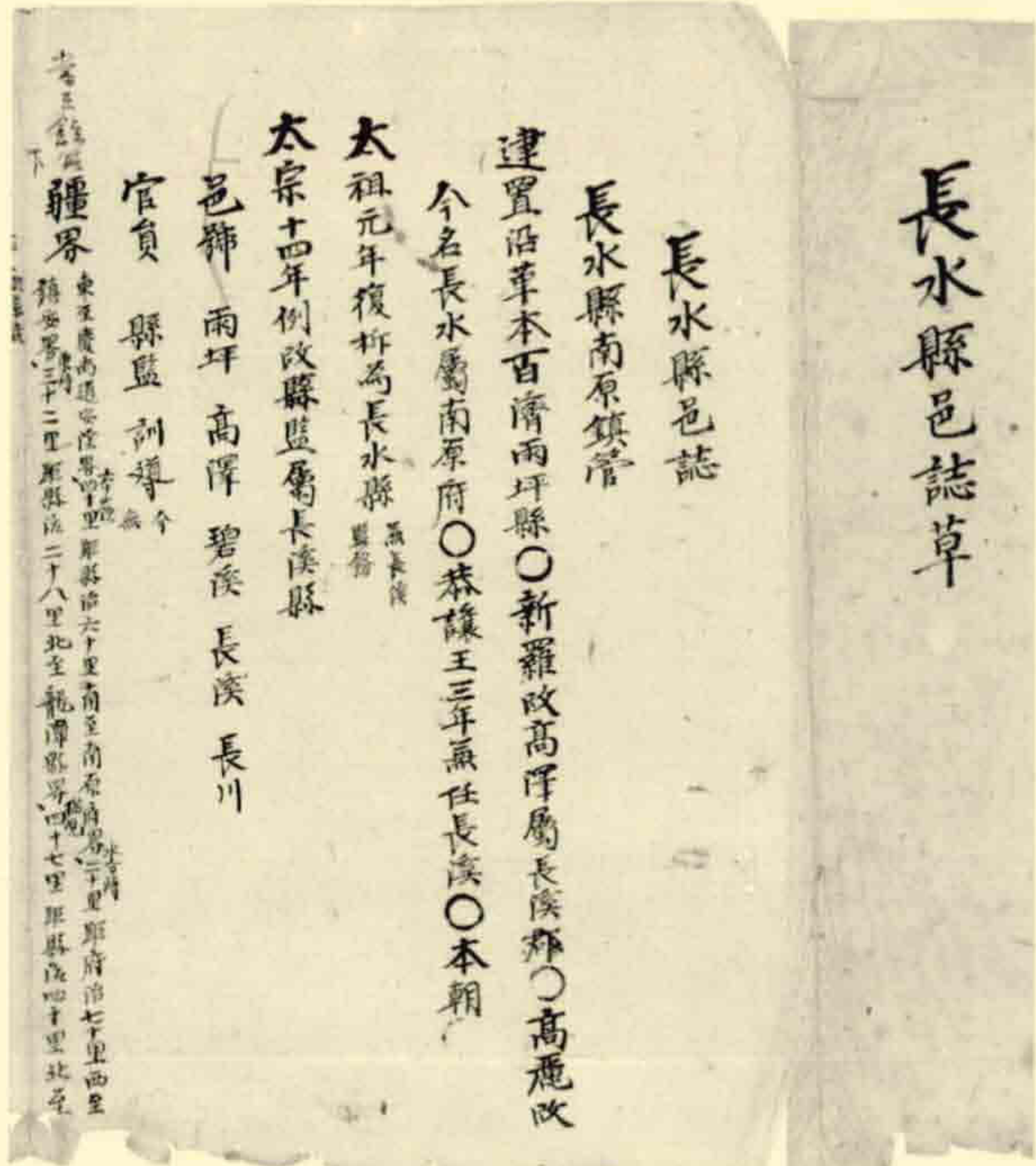
부탁을 받아들인 강진(康津) 김호석(金鎬石) 화백(畫伯)은 박수섭의 스승이신 염재(念齋) 김균(金鎭) 선생의 손자인바, 정부요청 6점 작업을 미루고 특별히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완성하고 재료비만 받는 성의를 보였다.

글씨는 신임전교(新任典校) 김두봉(金斗奉)의 요청으로 충주(忠州) 박광근(朴光根)이 썼다.

3. 장수현읍지(초長水縣邑誌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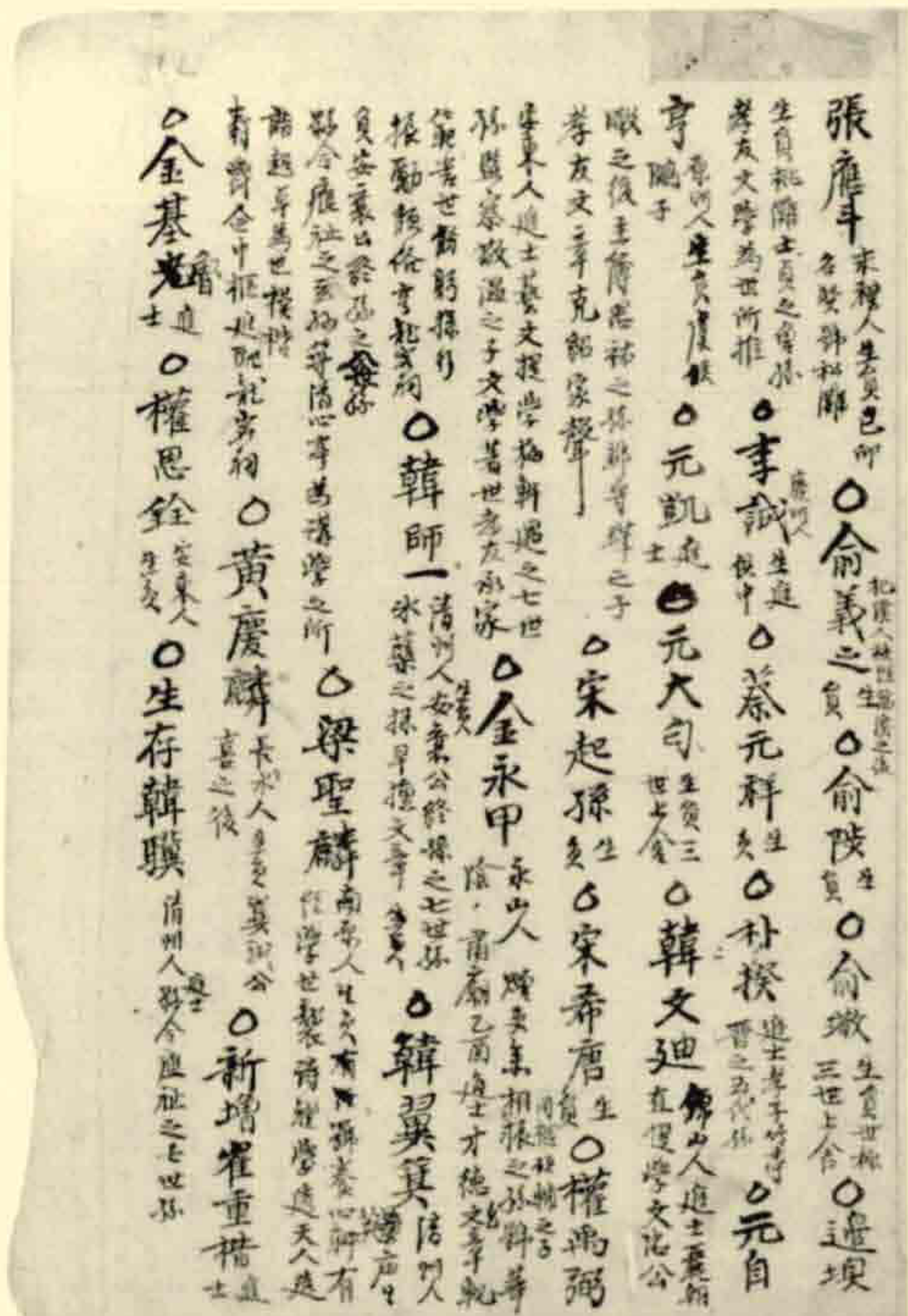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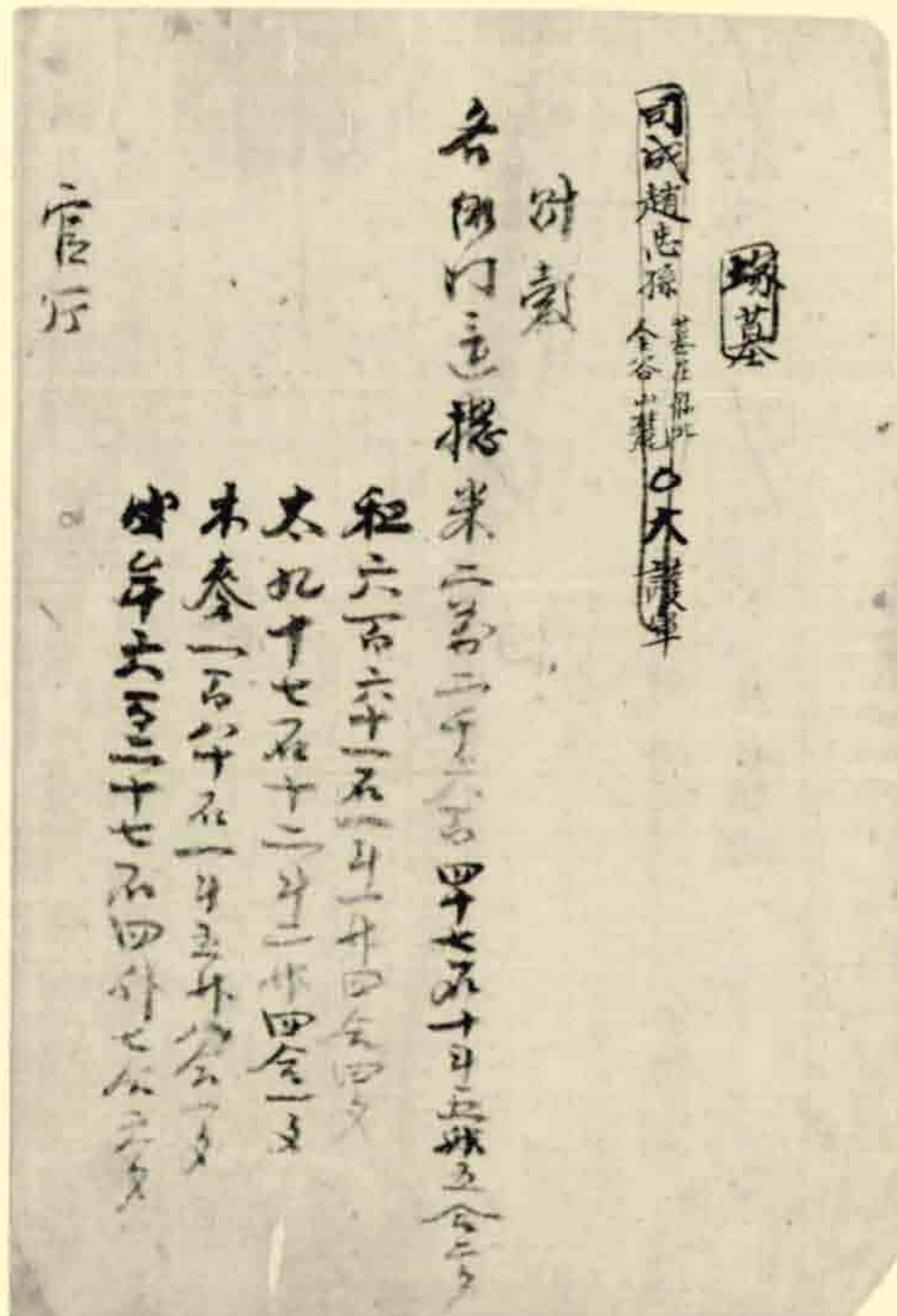
장수현읍지 초안으로 목차는 1928년에 나온 장수지와 비슷하나 진사(進士) 한기(韓麒)가 생존했을 때 초안으로 보아 약 100년 전인 1800년대 초에 쓴 것이다.

한기는 김삿갓과 절친하여 김삿갓이 자주 와서 창수(唱酬)하였다. 《장수향교지》 1,324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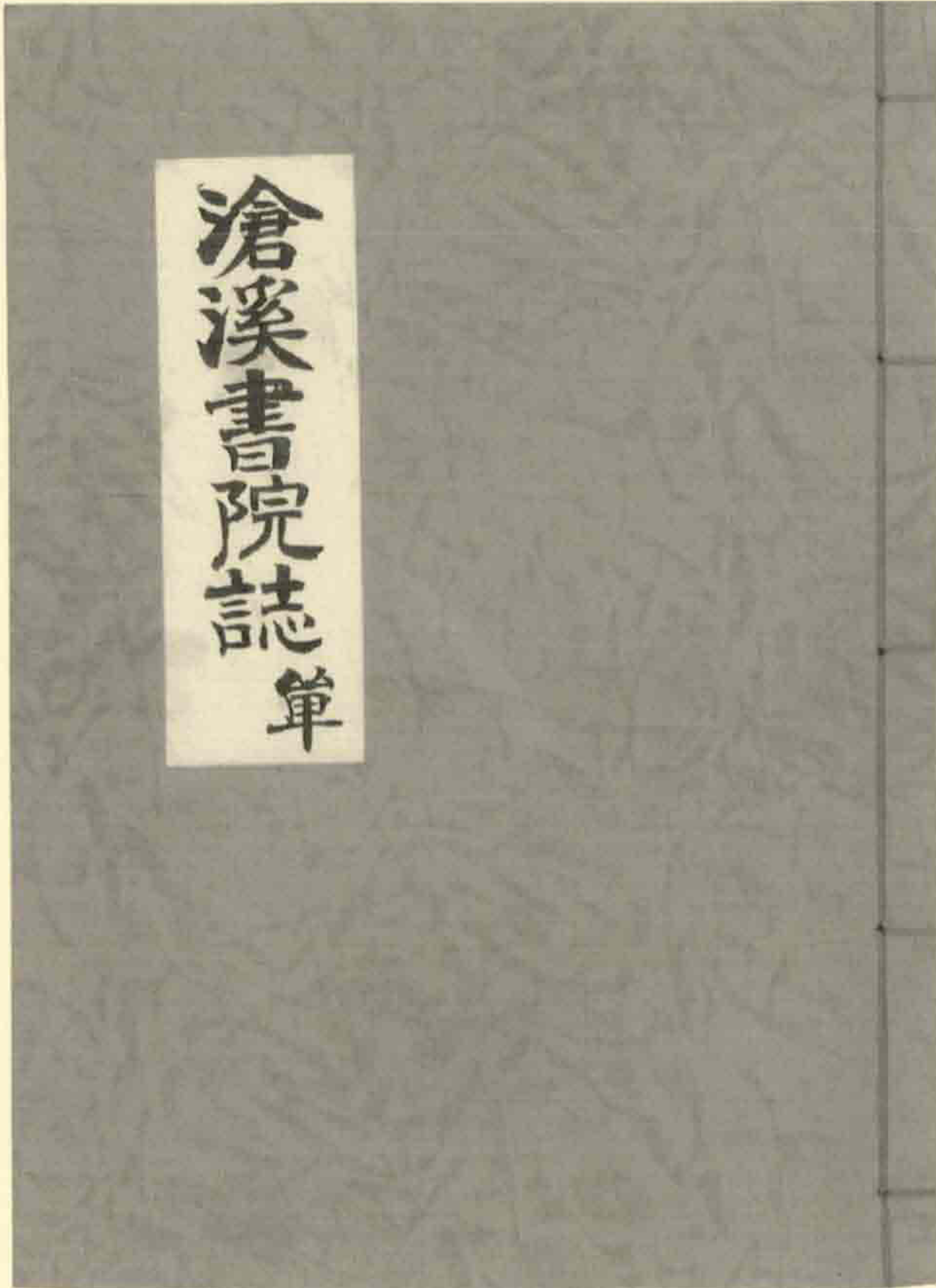


장수현읍지초 長水縣邑誌草

21×29.7 1책 12장



4. 창계서원지(滄溪書院誌)



창계서원은 1815년에 장수읍 선창리 566-1번지에 창건되었다. 익성공(翼成公) 방촌(龐村) 황희(黃喜), 열성공(烈成公) 나부(懦夫) 황수신(黃守身), 뇌계(濡溪) 유희인(俞好仁) 송탄(松灘) 장응두(張應斗) 네 분의 위패를 모셨는데 1868년(高宗 5년) 서원철폐령(書院撤廢令)으로 훼철(毀撤)되었으나 본군 유림의 정성은 막을수 없어 설단향사(設壇享祀)를 계속해 오다가 1958년(光復後戊戌)에 다시 복설(復設)하였고 십일 년째 되는 1968년에 무명재(無名齋) 강백진(康伯珍)을 뇌계 차위(濡溪次位)에 모셔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책은 동곡(東谷) 안종묵(安鍾默)의 글씨로 초안(草案)을 잡은 것인데 아직 인쇄는 되지 않았지만 원위(原委)는 대략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滄溪書院五先生行歷

庵村黃先生

先生諱喜字懼夫號庵村諡翼成長水人新羅時侍
中公諱瓊為遠祖至于麗末有諱均庵贈崇政大夫
議政府左贊成有諱君瑞贈議政府左議政行資憲
大夫判江陵府事祖興考也至正二十三年(高麗恭愍
王十二年)癸卯二月十日巳時止于松京可助里第自
幼時聰明絕倫稍長嗜學夜以繼日詩書百家無不通
曉識度深遠姿儀雄俊望之如泰山黃河中朝使者
嘗見公不覺致敬盡禮性且至孝躬供甘旨凡父母所

欲為不至不義則不敢違忤焉廢王十年癸亥中司馬試
己巳中文科 太祖二年癸酉選為世子右正字轉入翰苑
(一云革命之日先生與麗朝舊臣七十二賢同入杜門洞
諸賢以蒼生之望屬先生因出)歷平安江原兩道伯
及大曹判書 太宗十六年戊戌以讓寧世子廢事忤
旨謫于南原 世宗八年丙午陞右議政翌年陞左議
政戊申選清白吏 世宗十三年辛亥拜領議政辭疏
不允翌年入耆老所三十一年己巳年八十七以本職致仕
命給二品祿 文宗二年壬申八月日易簣于別第正寢享
年九十 上聞訃輟朝吊祭賻贈有加 命配享于

世宗廟度謚曰翼成思慮深遠曰翼為相克終曰
成 肅宗乙亥鄉儒建滄溪祠而俎豆焉

懦夫黃先生

先生諱守身字季孝號懦夫謚烈成公長水人翼
成公黃喜第三子公生于 太宗七年丁亥五月
十一日儀觀甚嚴德性寬厚聰穎絕倫一覽輒記
世宗元年翼成公謫居南原先生晝夜侍側竭力
奉養誠敬兼至與伯仲兄歡愛之情尤篤焉沉潛
經典百家諸書無不涉獵 世宗十三年辛亥陞
除宗廟副承兼司憲府監察三十二年拜嘉善大

夫同知中樞府事復為三軍鎮撫使 端宗二年
拜漢城府尹又為慶尚節度使法度甚密威令嚴
明 世祖即位策勲為推忠佐翼功臣封南原君
十二年丁亥陞領議政是歲五月二十五日卒于
正寢訃聞 上震悼輟朝三日遣禮官吊祭賻贈
特厚官庀葬事 肅宗乙亥享于滄溪祠

潘溪俞先生

先生姓俞氏諱好仁字克己號潘溪杞溪人新羅
時阿飡諱三宰為始祖曾祖諱信中領郎將考諱
蔭將仕郎公生于 世宗二十七年乙丑自幼聰

睿器宇天成年纔逾紀華聞已播壬午俱中司馬
兩試遊太學與梅溪曹偉受學于佔畢齋金先生
之門得其授受之嫡傳 成宗五年甲午先生偶
入宮苑當乘輦前 上曰汝能詩乎對曰粗解
上呼一句曰金玉非寶良臣寶對曰日月非明聖
主明 上大奇之特 賜文科旋擢弘文正字命
揀文臣賜暇讀書湖堂與許琛蔡壽權健楊熙止
寶膺其命世皆榮之歷博士修撰弘文校理司憲
府掌令以母老乞養 上手札諭銓曹曰好仁事
君之日長事親之日短不可不從其志 特除晉

州牧使銓曹啓以晉牧未滿六期拜樂安郡守公
以遠辭乃以陝川換之歸覲有詩曰北望君臣滿
南來母子同 成宗遣中使取覽極稱忠孝兩全
甲寅四月卒于官壽止五十 上聞訃震悼命優
賜賻物謚曰文禧有文集二卷享于咸陽瀝溪別
祠長水滄溪書院

無名齋康先生

先生諱伯瑜字子鞞號無名齋信川人侍中之淵
后枝尉惕子 世宗三十一年己巳生學於舅氏
佔畢齋先生文章節義為當世推重 成宗三年

壬辰居泮宮與南秋江諸賢作花山鄉約丁酉文
科榮親善山第畢齋以本伴出宴鄉老而贈詩曹梅
溪亦有詩可見光景庚子選補翰苑 成宗十七
年丙午拜禮曹正郎己酉為母乞便養出宰咸安
初鄉先生案而識之壬子秋畢齋易簪葺文集及
藝尊錄 成宗二十五年甲寅以司憲府掌令被
召遂朝歷弘文修撰議政府檢詳舍人丙辰出宰
興海治有聲蹟丁巳刊行藝尊錄有跋文尋拜司
諫院司諫燕山戊午與寒處諸賢同時被禍而杖
流朔州甲子加罪被刑享年五十六 中宗二十

一年丙寅靖國首雪戊甲之寃 贈大司諫謹曰文簡公 光復後丁未任實新安書院長永滄溪書院追配焉

松灘張先生

先生諱應斗字彥仲號松灘求禮人三韓統合功臣太師謚忠獻公諱貞弼為鼻祖九世祖諱彬有功於麗祖封木川君自此木川為貫祖諱孝禮行咸陽教授以曾孫冽衛聖勳 贈通政大夫刑曹叅議考諱自綱成均生員行順天教授與寒暄梅溪為道義之交以孫冽衛聖勳 贈資憲大夫戶曹判書松灘先生 中宗朝生員文科 宣祖壬辰功臣錄

券與春男等同列行守門將元良宣武原從功臣二等至大司憲吏曹判書從趙靜菴門修道義之契以子冽衛聖勳 贈統德補祿功臣崇政大夫判教寧府事封木原君以己卯名賢享于長水滄溪書院

滄溪祠事蹟 見儒夫黃先生文集中 (要前略)

滄溪書院在長水縣北三里柵嶺下西麓向禹之原村名仙倉前臨大野溪水源之自南而來故名焉本縣以黃氏姓貫翼成烈成兩公遺風餘韻尚有未泯至今子孫或在其地 肅宗朝乙亥士論齊發營建安靈之所邑中士人金碩輔縣宰閔鎮崇尹以徵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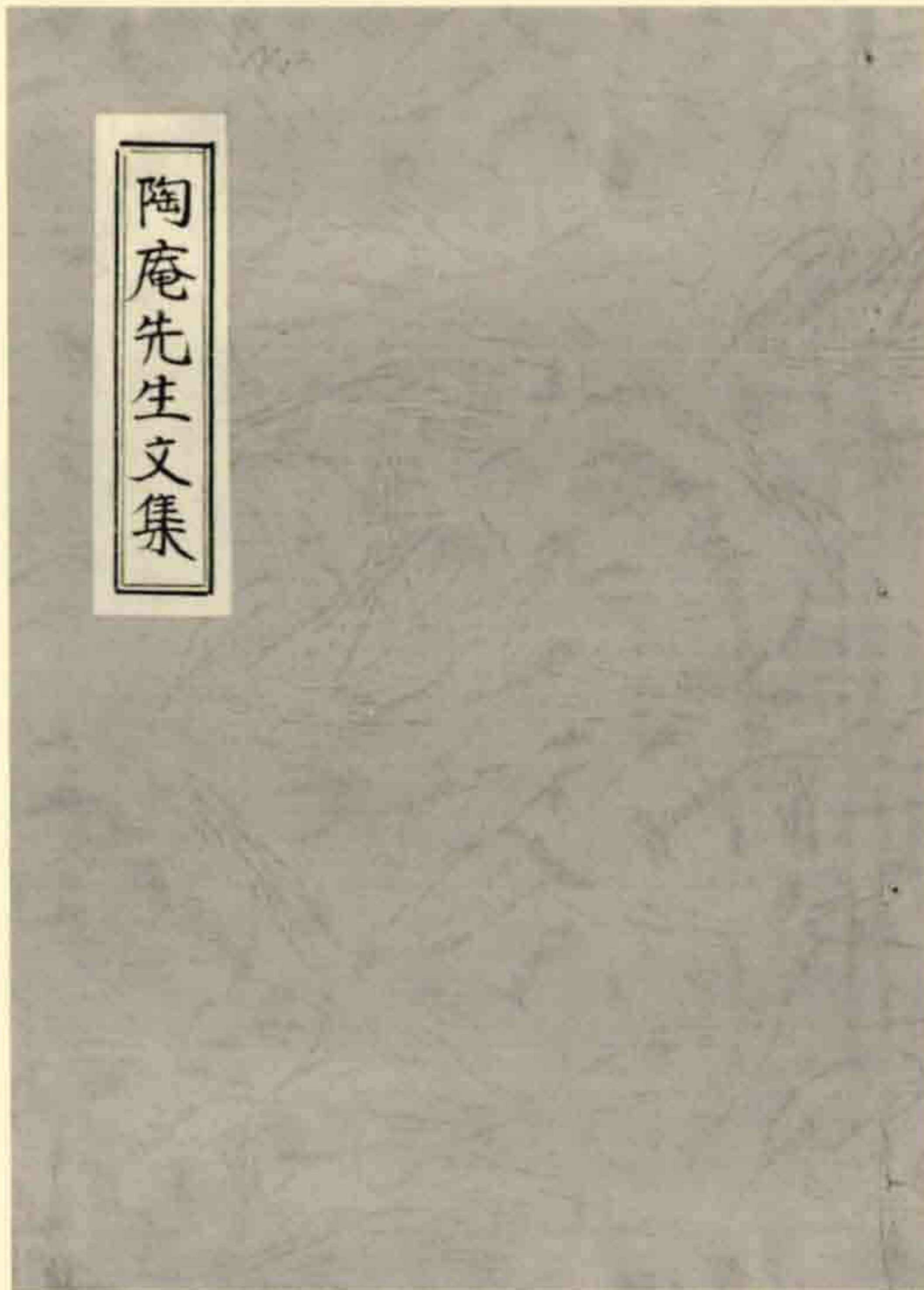
人有力焉翼成公位極在首享烈成公次之其後鄉人以俞滄溪好仁張松灘應斗並為追享兩人亦本縣人也

滄溪書院維持請願狀

伏以滄溪書院四先生偉烈碩德可以師表於士林維持乎世道其在邑有此先生之祠宇而既有恩渥又有影堂其所以崇奉於式之節出尋常萬之而顧此滄溪之院創設雖久而尚未得 恩渥影像雖奉而猶未營影堂亦有 聖朝致社之祭文而尚未及懸板者以其財力之苟艱士氣之凋殘也其為

士林之慨惜者為何如哉粵自創建之初春秋享祀祭需自官一依他賜額例逐一奉上而又以相峙加火田特為畫給永作本院補用之資而所謂火田風磨雨洗自甬崩頽茲以多士論報前官又以猪項村畧于山田充代其數以為其俎豆萬一之補圖而况又院宇凋殘講堂傾頽巍然道傍庶作一廢院矣雖欲重修而物力蕩盡百有思之拮据無策幸蒙我城主顧恤之恩澤優惠以公谷亦賜以役軍幾至於告訖其為德澤至矣盡矣乃者看審時城主教是猪項火田之執卜題下於該面掌任者雖未及洞燭其本

5. 도암선생문집(陶庵先生文集)



도암선생문집 陶庵先生文集

21×29.7 1책 43장

도암 이경광(陶庵李綱光 1563~1617) 선생 문집 오언절구(五言絶句), 칠언율시(七言律詩), 기(記), 설(說), 문(文)과 연보(年譜), 가장(家狀), 행장(行狀), 묘갈명(墓碣銘)으로 엮어진 단권 책(單券冊).

1862년 3월 후 보름에 통정대부 행 승정원 우부승 지 겸 경연참찬관(通政大夫行承政院右副承旨 兼 經筵參贊官) 허부(許傅)가 서문(序文)을 썼다.

陶庵先生文集題目	五言絶句	五言律	七言絶句	七言律	記	說	文	年譜	家狀	行狀	墓碣銘
----------	------	-----	------	-----	---	---	---	----	----	----	-----

도암서원 기초자료(道巖書院 基礎資料)

所在：長水郡 長溪面 西邊里

본 서원(本書院)은 조선 순조(純祖)15년 을해(乙亥, 1815)에 유림(儒林)이 창건하여 도암(陶庵) 이경광(李綱光), 정숙공(貞肅公) 분사(分沙) 이성구(李聖求), 강고(江臯) 유심춘(柳尋春) 삼현(三賢)을 모셨다.

그 후 고종(高宗) 5년 무진(戊辰, 1868)에 조령(朝令)으로 훼손되었다가 光復後 癸巳(1953)에 지방 유림의 발의로 복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陶庵先生 略歷

① 先生の 出生과 歷史的 背景

선생은 太宗大王의 아들 敬寧君 禔의 5대손으로 고조 植은 牟陽君이고 증조 承孫은 仙差君이고 조고 裕는 河東君이며, 知禮縣監 希讓과 龐村 黃喜 선생의 증손 引儀 翔의 女는 考와 妣 가 된다.

明宗18년 癸亥(1563) 7월 3일 京城 明禮洞에서 출생하니諱는 綱光, 字는 日章, 號를 陶庵이라 하였다. 용모 수려하고 말과 함께 문자를 알아 6세에 글을 잘 붙이고 의사 명민하여 기개 왕성하니 백부 判書 菊齋, 중부 贊成 淸澤 諸公이 칭찬하기를,

“우리 가문을 창성할 사람은 반드시 이 아이가 될 것이다.” 하였다. 10세에 정식으로 백부에게 수학하여 정진한 결과 15세에는 孝悌의 行과 學業의 工이 老成의 경지에 이르렀고, 16세에 安判書 桑溪公의 아들 縣監 彦容의 女에게 장가들었다.

28세 되던 宣祖23년 庚寅(1590)에 부친이 지례 현감으로 재직 중이어서 서울에서 省親을 다니는데 中路인 長水縣 任內面 陶旨村 外家를 찾아 산천의 수려함과 임석의 깨끗함을 보고 은둔할 뜻을 가지니 이때 이미 임진란이 올 것을 예견했던 것이다.

일찌기 방촌 선생은 讓寧大君의 폐세자 논의에 반대하였다 하여 太宗의 노여움을 사 도지촌에 유배되니 數代를 내려와 자연스레 외손인 도암 선생이 가대를 물려받게 된 것이다.

이듬해에 부친이 병으로 사직하자 모시고 서울 집으로 갔다가 다음 해인 壬辰(1592) 4월에 왜적이 부산포에 상륙하여 삼시간에 서울을 점령하자 처자를 처가에 부탁하고 와병중인 부친을 등에 업고 600리 길을 걸어서 長溪 三峯里 뒤에 있는 淨土山으로 들어가 평잡고 고기 낚아 성심 봉양하니 이때 전라도에는 왜적이 침입하지 못했었다.

한편 안씨 일가는 綜南山에 피난했는데 이듬해에 부인이 피난소에서 숙질(宿疾)로 서거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 달려가 뗏하고 임시로 안씨 선영 하에 장사지내고 아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이로부터 3년 후인 1596년에 白華山 남쪽 도지촌에 望華堂을 짓고 陶庵이라 自號하니 이로써 영구히 棲息할 곳을 얻게 되었고 얼마 후 居昌에 사는 蔚山府使 延安 李喜男의 女에게 再娶하여 가정을 안정시켰다.

② 野獸를 感動시킨 孝誠

선생은 하늘이 내리신 효자였다. 어려서부터 昏定晨省的 道와 愛親敬長의 義를 하나같이 小學에 따랐으며 兵亂蒼黃中에도 甘旨의 供을 모자람이 없게 하였다.

36세에 부친이 숙질로 위독하게 되자 온갖 정성을 다해 侍湯하고 손가락을 끊어 피를 입에 흘려 넣으며 대신 가게 해달라고 기원도 하였으나 노인 증세를 어찌하지 못하여 끝내 하세하였다. 天川面 朴谷 後麓에 安葬하고 3년을 侍墓하는데 大鹿과 猛虎가 와서 지켜주었다. 3년 동안 잠시도 廬幕 밖을 나가지 아니하니 草履 한 켤레가 떨어지지 않았다.

복을 벗자 또 모친상을 당하여 前喪과 같이 하니 이번에도 범과 사슴이 와서 길들인 듯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이 골짜기를 가리켜 孝廬洞이라 하였다.

③ 心性工夫와 學問交遊

선생의 공부는 한마디로 存心養性¹⁾에 歸結된다 하겠다. 著書 대부분이 유실되어 전하지 않지만 한 덩이 고기로 왼 술 맛을 알 듯이 殘篇 詩文으로도 족히 전체의 뜻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선생은 一身의 主가 곧 心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君子小人의 分이 一念의 善惡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主一無適²⁾의 敬에 이르도록 篤工精進한 흔적이 역력하니 이것이 선생의 선생되신 所以이며 끝없이 후학의 承양을 받는 理由일 것이다. 文章보다 道學을 重視하는 마음으로 繼往聖 開來學의 뜻을 품은 선생은 임금을 연모하고 고향을 그리는 심정으로 堂名을 望華(望京華)라 했으면서도 일체 벼슬 길은 외면했으니 司憲府 持平 등 三徵에도 終乃不就하였다.

선생의 道義交遊로는 同庚 從弟³⁾인 芝峯 李晬光 선생이 隨時來往하고 旅軒 張顯光 선생은 仁同에서, 愚伏 鄭經世 선생은 陝川에서, 그리고 本邑의 游軒 丁燾 선생, 晚軒 丁焞 선생, 三巖 朴以謙 선생, 秘巖 朴以恒 선생이 자주 와서 唱酬講討하였다.

1) 存心養性 : 자기의 본성을 가지고 본성을 기쁨 [孟子書心章].

2) 主一無適 : 일심으로 잡념이 없음.

3) 同庚 從弟 : 같은 나이의 사촌 아우.

④ 先生의 隱遯講學이 世敎에 미친 影響

이상과 같이 선생의 家門이 顯著華麗하고 학문이 精博하며 交遊 또한 當代名賢들이었다. 어려서부터 家庭之學을 물려받고 오묘한 道理를 마음에서 얻어 실천에 옮기는 實學으로 一世의 巨儒들을 長水僻地로 모여들게 하면서 55세를 一期로 下世할 때까지 오로지 講學에 心血을 기울였으니 이 재주와 포부로 주위의 권고대로 出仕했다라면 國家의 棟梁之材가 되고도 남았겠지만 그보다도 史上 未曾有의 大亂後에 解弛해진 儒風을 振作시키고 孝를 바탕으로 둔 身敎⁴⁾로서 후학을 양성한 世敎의 功은 이 지방 문화계발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이거니와 한 시대를 초월하여 길이 邦內儒林의 師表가 되고 彝性⁵⁾을 가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할 것이다.

(참고문헌 : 陶庵集, 道巖書院盥 省錄, 長水誌, 三綱錄)

2. 貞肅公 分沙先生 略歷

선생은 도암 이경광 선생의 종제가 되는 文簡公 芝峯 李晬光 선생의 子이다. 諱는 聖求요 字는 子異이며 號를 分沙라 하였다.

宣祖 17년 甲申(1584)에 京城 明禮洞 李氏 集姓村에서 태어났다. 왕족의 지친일 뿐 아니라 三公六卿이 즐비한 명문가에 태어나 약관 24세인 선조 41년 戊申(1608)에 文科에 급제하여 藝文官檢閱이 되었다. 2년 후 光海 2년 庚戌(1610)에 世子侍講院, 說書에 전임되고 다음 해 成均館典籍, 司憲府 監察을 거쳐 禮曹佐郎, 兵曹佐郎을 역임하고 知製敎를 겸임하였다.

광해군 5년 癸丑(1613)에 司憲府持平에 임명되어 鰲城府院君 白沙 李恒福 선생이 鄭浹의 문제로 모함을 받아 배척당하는 것을 구출하고 간당의 배척을 받아 파직되었으나 다시 庚申(1620)에 永平判官이 되었다. 백사 선생이 北靑의 配所에서 별세하자 선생은 포천에 花山書院을 세우고 백사 선생의 제사를 올렸다. 반대파들은 즉각 이를 무고하여 파직되어 물러나 있게 되었다.

1623년 癸亥에 仁祖反正이 되어 司諫院 司諫이 되고 江華府使로 전직했다가 인조 3년 乙丑(1625)에 承旨로 內職에 들어왔다. 禮曹, 兵曹參議를 거쳐 大司諫으로 승진되고 戊辰(1628)에 全羅監司로 나왔다가 辛未(1631)에 都承旨로 임명되었다. 吏曹參判을 거쳐 癸酉(1633)에 兵曹判書로 六卿의 지위에 올랐다.

大司憲, 京畿監司를 거쳐 吏曹判書가 되었는데 병자호란이 일어나 남한산성으로 왕을 호종하였다가 三田渡 항복으로 난이 끝나고 右議政으로 世子師傅를 겸하면서 謝恩使로 審陽에 다녀오기를 두

4) 身敎 : 몸으로 가르침.

5) 彝性 : 타고 난 떳떳한 본성.

차례나 하였으며 敦寧府領事, 中樞府領事を 거쳐 인조19년 辛巳(1641) 10월에 드디어 領議政의 막중한 직위에 올라 八道에 德을 퍼게 되었다.

그러나 선생은 항상 가문의 영화와 자신의 직위에 겸손하여 국태민안에 심혈을 기울였고 높은 자리에 오래 있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2년 만에 一人之下萬人之上의 자리를 사임하고 동대문 밖에 초가삼간을 지어 은거하다가 인조22년 甲申(1644)에 유명을 달리하니 貞肅公의 諡號가 내려졌다.

170년이 지난 순조 15년 乙亥(1815)에 유림의 발의에 의하여 조정에 장계를 올려 도암서원을 세우고 도암, 분사, 강고 三賢을 모신 것이다.

(참고문헌 : 道巖書院盟省錄, 長水誌, 行狀, 國史大辭典)

3. 江臯先生 略歷

선생의 姓은 柳요 籍은 豊山이요 諱는 尋春이요 字는 象遠이요 江臯는 그의 號이다. 領議政 文忠公 西崖 諱 成龍의 7대손이요 贈左贊成 諱 潑의 아들이며 右議政 靖憲公 洛坡 諱 厚祚는 그의 아들이 된다. 江臯, 洛坡 父子分이 長水縣監을 지냈고 함께 去思碑가 세워지기도 한 名門이다.

英祖 38년 壬午(1762) 8월 24일 尙州郡 中東面 干勿里에서 태어났다. 正祖 19년 乙卯(1795)에 공신의 후예로 추천받아 蔭輔로 承政院注書에 발탁되어 孝陵參奉, 五衛副司果를 역임한 다음, 외직으로 長水縣監에 부임하니 정조 21년 丁巳(1797)의 일이다.

이듬해 12월 15일에 아들 쌍둥이를 낳으니 형은 곧 厚祚이고 아우는 孝祚이다.

내직으로 들어가 世子侍講院 翊贊으로 純祖가 世子時에 講官으로 재직하였고 庚申(1800) 7월에 正祖가 승하하시고 純祖가 즉위하신 후 王世子の 侍講院 左翊贊으로 講官이 되었으나 이 분이 즉위하지 못하고 떠나자 뒤에 追尊하여 翼宗이라 하였으며, 憲宗을 世孫으로 책봉했을 때 世孫侍講院 左長史로 역시 尙官이 되었으니 순조, 익종, 현종 3대 임금의 시강원 스승이 되는 광영을 얻었다.

義城縣令, 固城郡守를 거쳐 순조 30년 庚寅(1830)에 正三品 堂上官인 敦寧府都正으로 발탁되고 癸巳(1833)에 龍驤衛副護軍으로 전직되었다.

선생이 순조 34년 甲午(1834) 3월 5일에 考終하니 享年 73세이다.

江臯集 10권, 東宮輔翼篇 2권, 儉說 1권 自銘錄 1권 등의 저서를 남겨 귀중한 문헌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현종 13년 丁未(1847)에 도암서원에 躋享하니 선생이 가신 지 겨우 7년 만의 일로서 遺愛鄉民의 숭앙하는 마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江臯集, 道巖書院盟省錄, 長水誌, 典故大方)

4. 書院設立目的과 繼承發展의 必要性

成均館이 國立大學이고 鄉校가 地方公立學校라면 書院은 私立學校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書院의 嚆矢는 朝鮮 中宗36년 辛丑(1541)에 周世鵬 선생이 豊基郡守로 부임하여 順興 竹溪에 白雲洞書院을 세워 이 지방 출신인 文成公 安珦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강당을 지어 후학 교육을 담당하는 복합구조로 시작하였다.

그 후 明宗3년 戊申(1548)에 退溪李滉 선생이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조정에 보조를 청하니 庚戌(1550) 2월에 紹修書院이라 賜額하고 書籍, 奴婢, 田土 등을 내려주었다.

이로부터 각처에 서원이 서게 되었는데 本邑 長水에도 肅宗21년 乙亥(1695)에 滄溪書院이 설립되었고 이어 5개 서원이 세워졌으니 本道巖書院도 그 중의 하나이다.

서원은 선현을 숭양하면서 학문을 익히는 매우 효과적인 교육기관으로 사회가 문란한 이 시대에 특히 계승 발전시켜야 할 필요를 느낀다. 아무쪼록 시설을 확충하고 학생을 모아 선현의 덕을 흠모하면서 충효례 교육의 전당으로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6. 화산사 사적(華山祠 事蹟)



華山祠事蹟目錄
 六先生行畧
 朴氏光州宗中通文
 長水鄉校通文
 開基祭文
 上樑文
 禮成時執事分定記
 奉安文
 常享祝文
 安樂齋儒會所通文

화산사 사적(華山祠 事蹟)

26.9×36.9 1책 55장

계남면 화산리(花山里)에 있는 화산사는 1961년(光復後辛丑)에 본군 유림(儒林)의 발의(發議)로 성균관(成均館)과 전국 각 향교(鄉校)의 호응을 얻어 창건되었다.

화산서원(華山書院) 위에 사당을 짓고 파은(波隱) 박수기(朴秀基), 문간공(文簡公) 눌재(訥齋) 박상(朴祥), 문간공(文簡公) 충암(沖庵) 김정(金淨), 안재(安齋) 박지견(朴枝堅), 문충공(文忠公) 사암(思庵) 박순(朴淳), 육류정(六柳亭) 박지효(朴之孝) 육현(六賢)을 모시고 있다. 전북문화재자료 34호로 지정되었다.

사적 목록(事蹟 目錄)은 사진으로 소개하고 6 선생 행략(行略)은 가계(家系)와 도학(道學) 문장(文章) 절의(絶義) 등을 줄거리만 적었다.

이 책의 글씨는 광주(廣州) 안종묵(安鐘默)이 썼다.

儒契收支簿一冊

院舊案及諸具物目一冊

叅謁錄一冊

時到記

◇波隱朴先生

諱秀基號波隱忠州人高麗副正諱英十代孫 我朝贈茶

議松隱諱養孫贈叅判諱忠誠第三子也宣德己酉世宗十一年

九月十三日生于湖西德津縣嘉藏洞 成廟朝歷散清顯

陞至東伯竭心盡職見燕山將淫昏解級勇退避跡于德裕

下碧溪濱素其華山居士金舍人公諱永浩誼有韋勉之問

華山祠儒契收單有司錄

華山祠儒會所通文

四長官及儒道會道本部答通

各郡鄉校答通

儒契案一冊

經任案一冊

聚精錄一冊

哀實錄一冊

祭官錄一冊

祠宇建築費收支簿一冊

◇文簡公訥齋朴先生

諱祥字昌世號訥齋 贈判書諱蘇孫 贈贊成諱智興子

波隱再從弟成化甲午成宗五年五月十八日生于湖南光州芳

荷洞生有神氣英爽早通經史學問淵博進士文湖堂歷盡

清要謹直聲溢以羣小隱謫在外恒多歷一縣二府三州錄

清白館中疏章必屬先生操紙立就文約意盡與靜菴冲菴

同德相濟羽翼斯文欲克濟君民被忌克者媒孽其間諸賢

力救先時為全羅都事杖殺昏朝孽人於錦城館 中廟反

正後在諫省論戚里越恣之罪會當考試之役辭以既不能

盡所職不敢承膺 上命下于理太學生上書訟之大臣交

而同策自學亭於杜陵之下為長往計口絕時事日共鄉秀

才講論性理著太極圖說理氣講說心性分說身體要說等

篇而燹於兵亂但燼餘收拾者序序律及不足詩二十八

絕畧曰世間知足有幾人舉世紛々不知足君子之足長自

足小人之足長不足又序畧曰酩酊醉倒萬天民芳擊壤而

歌帝力何有兮自靖終世壽八十二其再從任思菴文忠公

作亭記有曰清介志操名節學問之實暨夫文章德行昭如

日星世子師侍江皋柳公尋春曰介潔自持特學博覽無所

不通尤究於義理柳相公厚祿曰貞烈之操明哲之見卓然

有無云是數君子之言發揮其遠學卓志之緊要也

王恬若古井壽五十七 贈吏曹判書諡文簡杖屨所歷立祠祀之

文簡公冲菴金先生

諱淨字元冲號冲菴慶州人版圖判書諱將有六代孫 贈 恭判諱處庸孫 贈判書諱孝貞子成化丙午_{成宗十九年}九月 丁未日生于湖西報恩治東聲足里生有異質聰穎絕人 綴 學語便知文字六歲口號詠物九歲已通四書一經於文無 所不通嘗慨然語同隊兒曰大丈夫生斯世偏小邦安能有 所為至有登東山之志常曰科文不足學也遂沉潛聖賢書 生員文湖堂錄清白歷盡顯要陞至刑曹判書先時與訥齋

救得解與冲菴合辭抗疏請復立慎妃仍論三勳臣等罪言 甚痛切李荇等啓請拿鞠禍將不測鄭相國光弼救解徒配 于南平島林驛後蒙宥與靜菴冲菴合同請削靖國濫勳自 是群奸搆已印禍哀貞等用事神武禍起同時濟流已竄無 餘先生憤嘆具疏欲進子弟親戚以事無益力諫止先生喟 然遂焚蓋朱子過脈之意也與金十清世弼金慕齋安國討 論性理見王陽明文字東來傳習片以禪學 正廟教先生 詩文曰奇壯濃郁不失三百篇之遺意退溪曰元佑完人河 西曰不待言傳口授而啓發其良心重峰曰力護善人終身 被斥危菴曰學識精明立朝風骨聿為度程錦谷曰瑩如寒

之後人追慕名曰判書井園嚴尹鳳朝文以記之 蠟機連發 命賜自盡享年三十六後 贈領議政諡文貞後改諡文 簡退溪曰冲菴學問高人一等申象村欽曰冲菴氣像如峨 峴千仞雪色淨潔兩湖儒生數千人合疏請從祀文廟者凡 五度而未蒙 允

安齋朴先生

諱枝堅初諱成堅字君達號安齋汝隱先生第三子也弘治 辛酉_{燕山七年}十二月二十日生于長水之箕山性資溫雅孝友 植天宗族鄉黨盡其和睦從師栗谷與牛重諸先正有道義 交與從傍訥齋六峯思菴迭相過從穩叙花樹討論性理

稱名上疏請復立漢氏極論三勳臣等罪徒配恩津舍琳驛 鄭相國趙靜菴力救蒙 宥其靜菴啓請罷三清殿設賢良 科以額俊又罷昭格署以正祀典刊行鄉約以教民彝以克 辟君民為己任因哀貞景舟等構誣杖配錦山哀貞等以走 肖為王等語恐動 上聽密開神武門以入逮先生與靜菴 外諸賢致于闕庭將殺之鄭相國光弼牽裾泣諫 上意稍 解太學生幾千人及坊里鄉約諸人爭詣闕庭號哭聲徹 大內并下獄移配珍島以羣凶連啓拿鞠裂衣上疏陳情特 命減死安置濟州州俗尚淫祀矇於禮先生述哀祭儀 以導之州俗一變島中文教之興自此始謫虛傍鑿一井飲

訥齋先生侄也嘉靖癸未中宗十年十月日生于羅州村舍安
 稟絕異色夷氣清金精玉潤幼與群兒遊戲輒為揖讓進退
 之節八歲詠物吐辭驚人進士文湖堂文衡繼歷顯要終至
 台昇歷事四朝三入政府十年輔相屏黜元凶復枉死之官
 凡蠹國病民之弊一皆洗滌引進群賢挽回世道為己責朝
 著清明民生安樂先生既受庭學從師花潭得聞性理又事
 退溪消息盈虛無不與同與栗谷論理氣冲漠大小闔關之
 妙文章則以班馬韓柳李杜為本道學則以小學心經近思
 錄為楷梯嘗赴京師華人聞雅才沿途索詩者甚眾及入朝
 外國進奏皆由夾門先生爭之由正門入遂為正式華使曰

中廟朝招薦行天文隸習讀修盡當職見時禍將起勇退
 歸鄉築室於花山扁之以安樂取諸榮聲期三樂之意而
 序之又取簞瓢之樂而記之與鄉士友日事講論以喻掖
 後進為己任學問德行為時推詡迨遠造門不能容膝戒
 學徒文畧曰為學之要須立志單祛舊愆乃復初心而
 發奮確守做去庶入聖賢閭闕何患之有又有家訓以忠
 君孝親夫婦兄弟宗族鄉黨安貧守節分條遺戒享年八
 十四

◇文忠公思菴朴先生
 諱淳字和叔號思菴 贈領議政六峯先生諱栝第二子

義四方學子聞風企集厚舍不能容當壬亂松溪公與其從
 弟咸悅縣監梅軒諱希壽募義旅出戰于錦山先生率門徒
 三百餘人聚石于南平砥石江此絕頂上乘倭寇過江此投
 石捕殺百餘人賊乃潰散隣近數邑賴而全之時南平城陷
 本倅輯某被殺空官以先生權除南平亂平後辭任歸家因
 與學徒謀日讀書一夜大雪盈尺不意簞笠透出庭中雖在
 向日孤忠四字于笋程面人皆異之曰是忠所格天必感應
 咸以謂寶藏尚今傳至于宗孫家先生嘗上疏請廢忠祠賜
 顯蒙 允考終于 仁祖辛巳享年八十九

◇朴氏先外宗中文

及散襟青鶴白鶴培等名號冬在溪上上疏辭職 上史官
 諭之又以病狀聞 遣醫齋藥前後使召至三終不起放述
 山水已丑七月享六十七而終及屬蟻天兩雷鳴白氣漫天
 光芒燭地晃若明月計 聞命撤朝三日 賜諡文忠歲湖
 建祠俎豆合辭上疏以先生與清陰請從祀文廟終未蒙
 允

◇六柳亭朴先生

諱之孝字子敬號六柳亭松溪諱大壽長子思菴先生再從
 孫嘉靖癸丑明宗八年生于光州芳荷洞從師高齋峯以司僕寺
 正判官司憲府監察持平累徵不就晦跡林下日事講磨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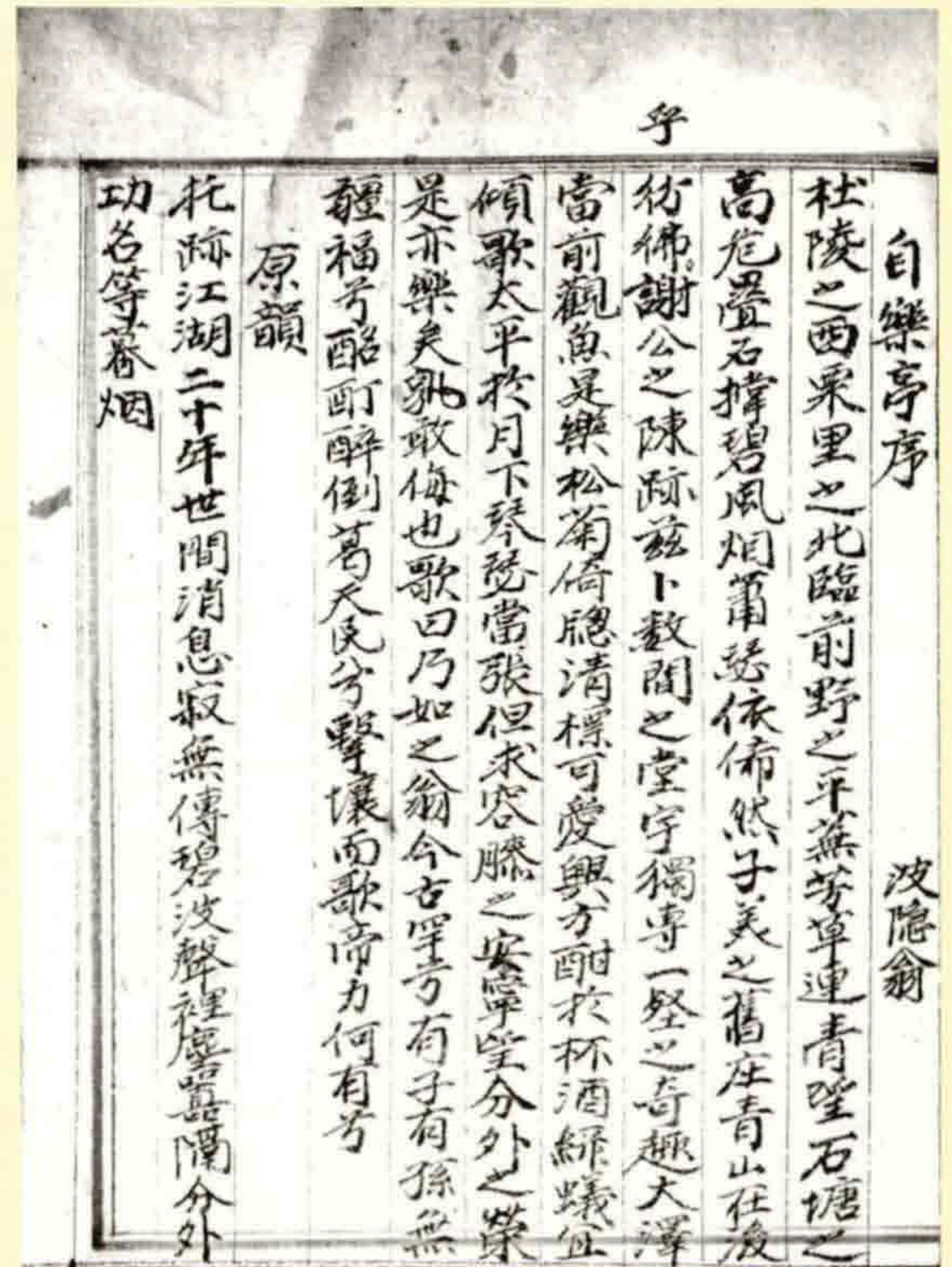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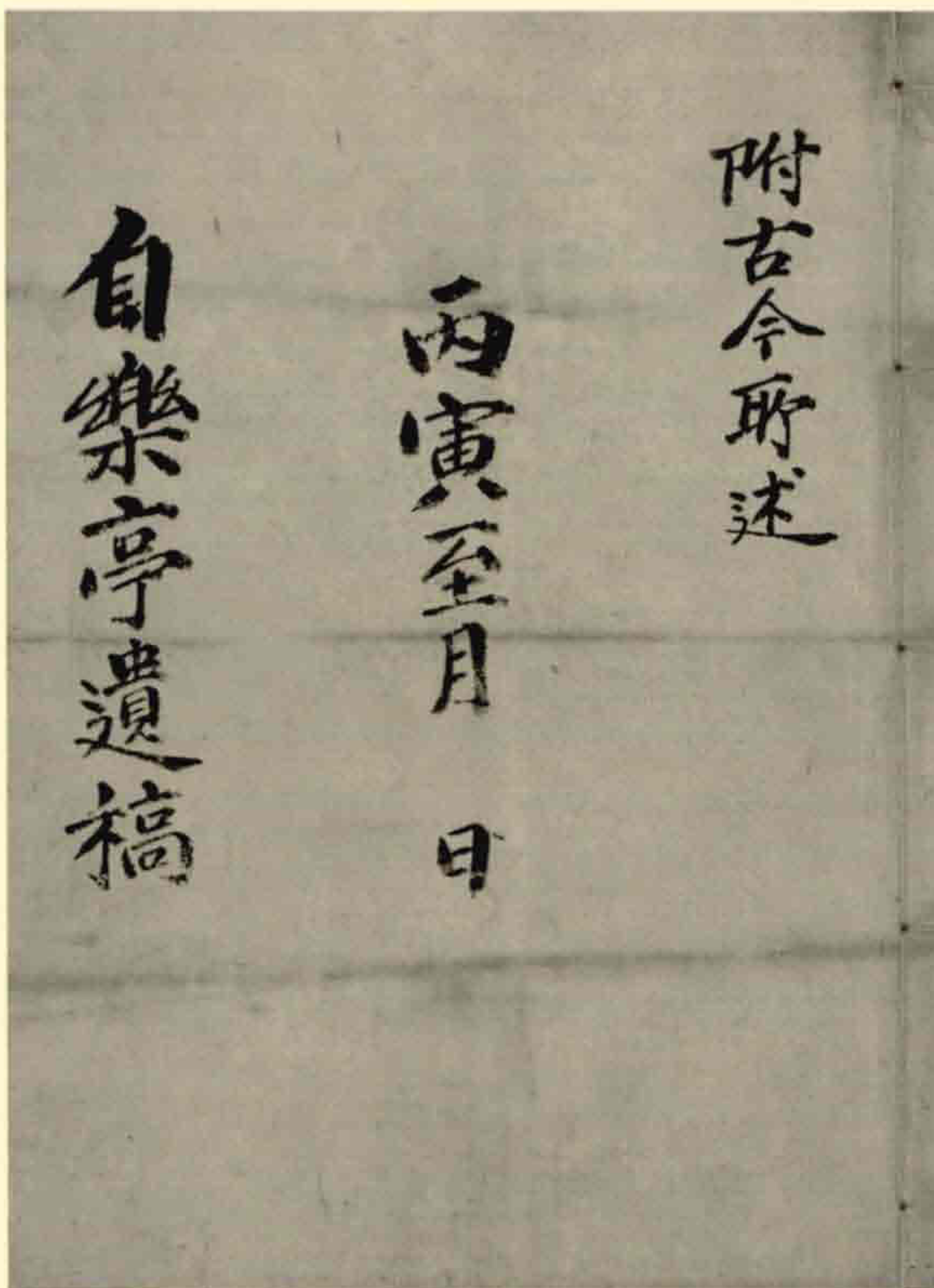
宋人物唐詩諷 上教曰松筠操退陶常稱與朴共相對
 炯如一條清冰覺神魂頓爽高峯亦言剖竹義理明辨切
 吾所不及及癸未禍起時論謂淳即潭潭即珥終始三人貌
 異心一 上教曰相從善類何傷於道以予為珥潭之黨可
 也先生三告乞光 不許又陳劄力辭軌論不許批荅畧曰
 正色立朝允矣鎮物之喬岳忠勤許國展也濟川之舟楫後
 又再啓力辭 上遂引見而論不許又引入告疾至三終不
 許丙戌乞暇就浴於永平椒井永辭京華因卜築白雲溪上
 蕭然出塵與村氓野老挈榼對飲若將爭席學子來講輒忘
 寒暑所居有拜鶴窩二養亭白雲溪清冷潭吐雲牀卷玉屏

7. 자락정유고(自樂亭遺稿)

1926년(丙寅) 11월에 화계 박상석(朴相錫)이 그의 12대조인 파은(波隱) 박수기(朴秀基)의 자락정서(自樂亭序)와 원운(原韻), 족부족시(足不足詩)를 수록하고古今소술(古今所述)을 붙여 한 책으로 하였다.

사암(思菴) 박순(朴淳)의 기(記)와 차운(次韻), 풍산(豊山) 류심춘(柳尋春)의 기와 차운, 지현(知縣) 류후조(柳厚祚)의 기와 차운이 순서대로 실려 있다.

다음에 1828년(純祖戊子) 여름에 본읍(本邑)에서 순제(旬題=제목을 내어 10일 만에 채점하는 것) 자락정유허기(自樂亭遺墟記)로 향시(鄉試)를 보였는데 이 중 2하(二下) 정옥현(丁玉鉉), 2하(二下) 오익신(吳翊臣), 3상(三上) 이삼묵(李三默) 3편이 남아 있어 실었고, 끝으로 안동(安東) 권순명(權純命)의 중건기(重建記)를 실었다.



자락정유고 自樂亭遺稿

22.2×28.2 1책 15장

築自樂亭咏不足

波隱翁

世間知不足幾人舉世紛々不知足君子之足長自足小人之足長不足不足之足何以足足又足矣帝不足高樓傑閣粉牆裡安居肆意猶不足黃金珠玉庫有餘用之猶云患不足金鞍駿馬珊瑚鞭大道橫馳著不足車馬僕從教如雷使令於前亦不足冬衣豹鼠夏綳絡寒暑置衣履不足大官名宦位蓋高富貴盈門恐不足肉如丘兮酒如河厚味嗜肥慾不足燕姬越女顏如玉嬌語月態娛不足繁華到處笙歌咽象輿油々衣不足不足者何時足不厭之足難充足顏回陋巷一簞瓢志在好學樂且足曾子甕牖衣以褐安貧樂道亦云足子殆禮祀陋孤貉九月被裘自謂足鴉衣百結卜子夏老而固窮安分足辛叢把釣嚴子陵晦跡桐灘肆

自樂亭遺墟記 二下。純祖戊子夏本邑旬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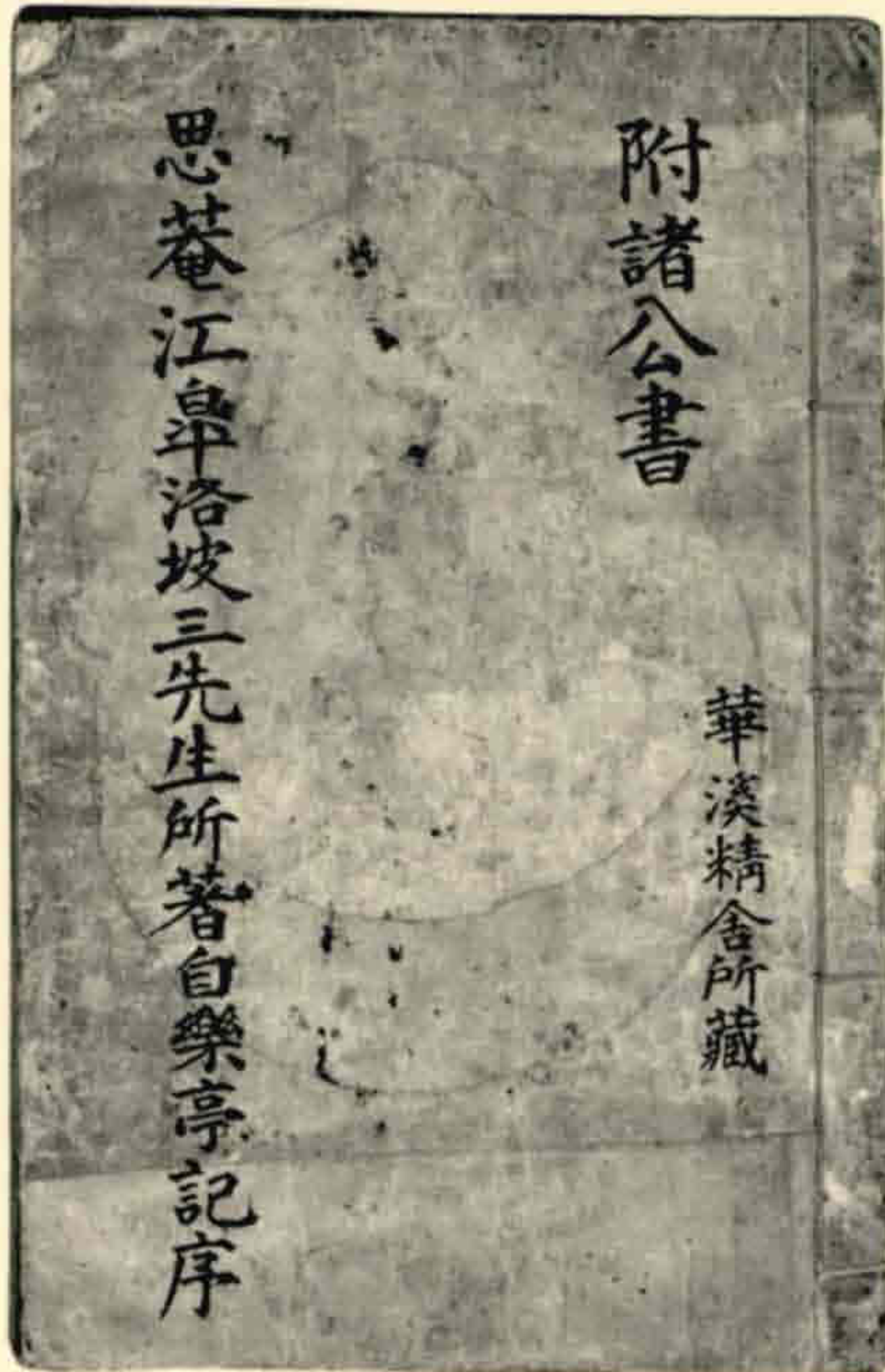
竹樓朽矣而元之之遺名不朽蘭亭已矣而羲之之令名不已則古君子遺風餘韻可見於嘯咏棲息之所矣余過碧溪之東溪山秀麗林石清絕地隔湖嶺之間山控茂長之境於是立馬徘徊南望栗里東瞻杜陵庶幾有隱君子肥遯之地遂尋微路緣溪而行有一小墩巋然獨存而奇巖如築碧波縈洄余乃攝衣而上彷徨若不能去有樂而忘歸底意思顧瞻前後周視上下則基址完如遺礎尚存意欲聞其蹟不可得適有老翁持杖而過其下余揖而問之曰此墟清勝未知何許高士考盤之遺址耶是翁听然而笑曰子未聞否故江西觀察使朴公

志足悌隱野服陶淵明葛巾漉酒逍遙足羅浮洞隱葛稚川不貴八珍黎藿足是與不足皆如此不足難足是者足吾年五十能知足人謂不足我云足長溪躬谷有故廬高枕安卧聞事足鑿井田生計樂流水雲林幽趣足開戶閒居全性命滿屋圖書玩理足靜中觀物得天真老後讀書知樂足醉倒久斷塵間夢詠詩長留閑中足春去春來任徜徉清風明月幽興足我足既足何不足足且足分江波之亭兮我獨樂兮乾坤謂我分爾足何求於人何待於外哉

自樂亭記

余觀夫湖南山水之美此縣最名由縣而言曰德裕山曰碧溪水其尤也必若自得仁智之樂者如有其人則亦可逍遙於此乎

8. 사암, 강고, 낙파 3선생 자락정기서(思菴江臯洛坡三先生自樂亭記序)



이 책은 1583년 계미(癸未)에 사암(思菴) 박순(朴淳)이 지은 자락정기(自樂亭記)와 봉사손(奉祀孫) 참봉(參奉) 이휴(頤休)가 써서 보내준 편지를 필두로 강고(江臯) 류심춘(柳尋春)의 기(記)와 편지, 낙파(洛坡) 류후조(柳厚祚)의 서(序)와 편지가 수록되고, 뒤에 제공(諸公)의 편지가 붙여졌다.

사암, 강고, 낙파 3선생 자락정기서
思菴江臯洛坡三先生自樂亭記序

20×29.7 1책7장

自樂亭記

余觀夫湖南山水之美此縣最名由縣而言曰德裕山曰碧溪水其尤也右石自得其仁智之樂者如有其人則亦可適遠於此乎山之上下溪之上有層巖積附深淵臺者或徑年或透若鳥石巖誇奇於怪有若龍躡龜踞之形抑又烟霞之浮沉魚鳥之上下隨時愛幻迭相呈形而其餘千狀萬態難窮厥像也惟我

成廟朝文科進階嘉義大夫行江原道觀察使 講秀基致隱公覽其法山而悅之遂休退于茲又就始上而卜筮一亭以爲終老之所焉扁楹曰自樂蓋取諸仁者樂山智者樂水之樂而自得於心者也倚歟盛哉 公天資穎異清介有志操名節之高學問之實暨夫文章德業之盛昭如日星而官隆任重修盡當職晚筮避肥遯跡于江湖之上

而不復求榮利之名深究乎義理之學詠詩有托興江湖二十年世間消息寂無傳者句云蕭然有出塵之想而日事釣採間以吟嘯是乃 公之所自樂歟吁一出一處一進一退固非閔世道之治亂陰陽之消長則 公之名亭寓趣尤著出處進退之義也公之胤子習讀成聖氏持 公之所延而未訪于草莽之中要余記之余於再從叔任間情誼既厚不可無一言以識其事故畧叙其際謹書而記之時萬曆十一年癸未也并次原韵日

經繪自樂幾多年杖屨遙遠晚歲傳世外雲山留別墅興隨魚鳥與風烟
歲萬曆十一年癸未春二月下澣大匡輔國崇祿大夫行文館大提學成均館
大司成議政府領議政再從任思庵朴淳謹記

9. 예의유집(禮疑類輯)

이 책은 산서면 오산리 야옹(野翁) 권윤수(權潤壽 : 1849~1936) 선생이 필사(筆寫)한 것이다. 15책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시종 한마음으로 정성을 들인 선비의 자세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예의유집은 조선영조 때 밀양인(密陽人) 겸재(謙齋) 박성원(朴聖源 : 1697~1757)이 사례(四禮)에서 의문되는 예(禮)를 분류수집한 것으로 목록(目錄) 2책과 본문(本文) 13책으로 되어 있다.

겸재는 도암(陶庵) 이재(李穡)의 문인(門人)으로 문과(文科)에 올라 세손(世孫 : 後日五祖) 강서원 유선(講書院 諭善)이 되어 세손을 보도(輔導)하였으며 참판(參判)을 지냈고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증직(贈職)되었다. 시호(諡號)는 문헌(文憲)이다.

예(禮)는 정(情)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대따라 응변(應辯)이 있게 마련이고 의례(疑禮)가 나올 수밖에 없다.

원래는 잠계(潛溪) 이유철(李唯哲)이 전고예론(前古禮論)을 엮어 사례집설(四禮集說)을 만들고, 사계문해(沙溪問解), 우암예의(尤庵禮疑), 남계예설(南溪禮說)을 취하여 별도로 1부(一部)를 만들면서 장차 널리 중설(衆說)을 채록(採錄)할 뜻을 가졌었는데 2책을 끝내지 못하고 별세하자 그의 아들 희정(希正)이 유명(遺命)으로 박성원에게 부탁하였다.

성원은 도암(陶庵) 선생에게 여쭙고 가르침을 받아 3책을 정리하고 또 널리 채록하니 무릇 29가(家) 37서(書)이다.

분조정목(分條定目)은 동문우(同門友) 유언집(兪彦鏞)의 도움을 받아 십수 년의 정력을 허비하여 원서(原書) 24편, 부록 2편을 탈고하였다.

1758년 5월 후보름에 서문(序文)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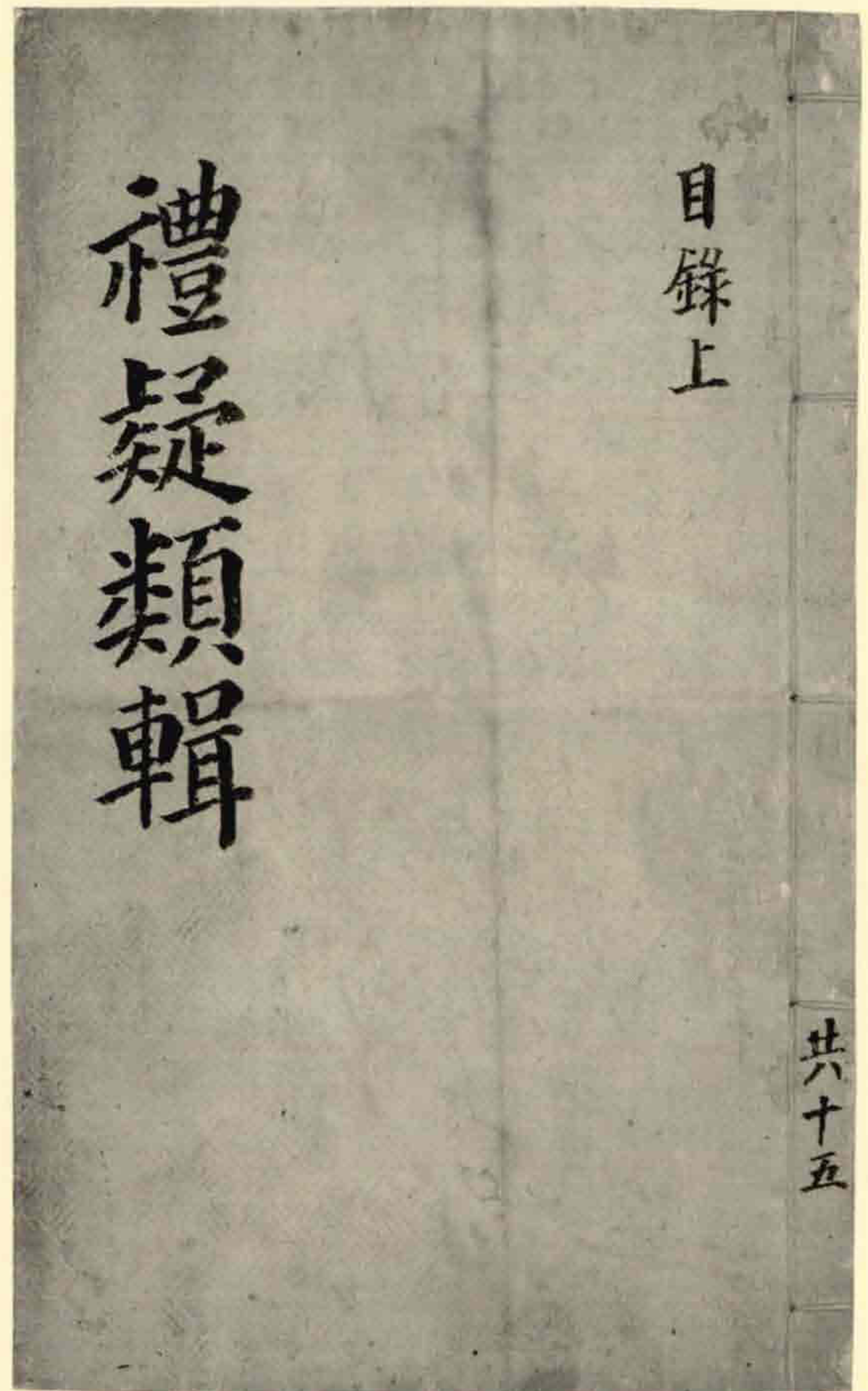
그후 1783년 10월 초9일에 정조대왕 어제서(御製序)를 신(臣) 서정수(徐鼎修)가 받들어 썼는데 왕의 서문이기 때문에 앞에 실렸다. 끝에 보이는 낙관은 규장지보(閨章之寶)이다.

●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1권 관례(冠禮), 2권 혼례(昏禮), 3권~15권 상례(喪禮), 16권~19권 상변례(喪變禮), 20권~23권 제례(祭禮), 24권 제변례(祭變禮), 부록상하(附錄上, 下).

● 목록은 아래와 같다.

목록상 42장, 목록하 61장, 1책 40장, 2책 34장, 3책 40장, 4책 41장, 5책 61장, 6책 37장, 7책 39장, 8책 56장, 9책 51장, 10책 56장, 11책 43장, 12책 48장, 13책 25장.



예의유집 禮疑類輯 표지
20.8×28.7 15책 67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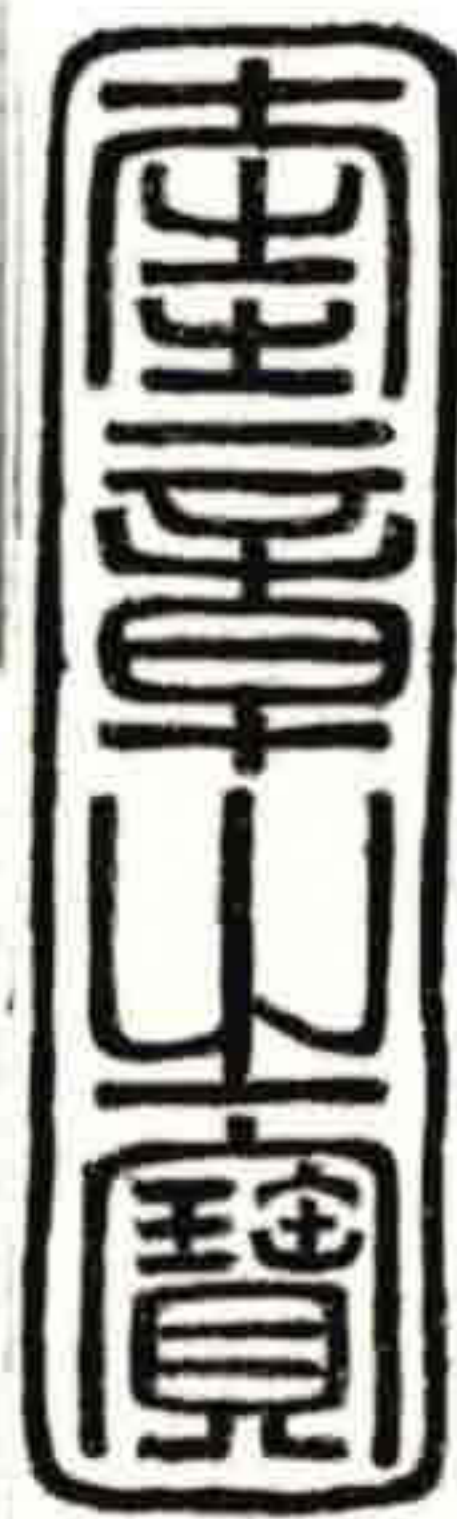
御製禮疑類輯序

禮惡乎本本乎情情惡乎發發乎性性惡乎受受乎
 天天之理賦於人而為性性之欲應乎物而為情情
 之致歸而見諸事者節其中得其所安則禮也子思
 子曰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發而皆中節謂之和
 和也者天下之達道也是故即是道而文之曰禮由
 是禮而行之曰道道即禮禮即道其實一也道也者
 不可須臾離可離非道也自夫日用飲食起居之節
 以至事君父序上下尊天地賓鬼神是道是禮夫豈
 有一物之遺一息之間哉人能順遂其性而求適乎

情之所安則庶幾無待於外而自合乎禮也惟其情肆性鑿迷亂而不識其宜故先王制禮以詔天下後世斯即修道之爲教也禮儀三百威儀三千其爲教也備矣而天下之事變無窮故所以應之者亦無窮自曾子設問於夫子其後賢儒隨其所遇之變而各有論說雖未必盡合於聖人而要之補經傳之闕遺以助時王之教者也遠史稱朝鮮有箕子遺俗緣情制宜隱然有尚質之風夫能緣情制宜則其於禮固幾矣暨我朝 列聖作興儒教彬蔚三百年來士之以知禮名者無慮四五十家凡於古訓之疑晦難明

時變之舛互不齊者皆有所反覆質問援引闡發而茅患其言散見卒難搜考故論善朴聖源乃盡取諸家之書會粹分彙以冠婚喪祭爲目附以宗法雜禮凡若干卷名曰禮疑類輯予覽而嘉之亟命芸館刊布雖窮僻孤陋之士得是書而有之則當其遇事起疑庶可開卷瞭然有所據依而行之其有補於禮教宜云少哉雖熱儒先論禮之說非有他也即按其情之所安而爲之節承以合乎本然之性而已學者能因其說而究其理有得手性情之微則其言之所不及亦可以推類而義起苟無所自得而祇以考据而

已則事變之無窮其盡於是書乎易曰精義八神以致用也利用安身以崇德也合內外之道也徒博而不能約則禮云乎哉予故溯其本而論之使學者知所務云爾予即祚之七年癸卯孟冬初九日奎章閣原任直閣通政大夫守原春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原州牧使知製教臣徐鼎修奉 教謹書



禮疑類輯序

有家日用之禮莫重於冠昏喪祭而常變不一則曾子問一篇辨析詳矣古今異宜則朱先生家禮參酌盡矣然天下之事變愈無窮前人之議論或不到者亦不能無待於後也我東賢儒輩出禮學大明疑而有問問而有解又或有自爲著說雖其詳略同異之不齊而要皆爲參互援據之資蓋曾子之所未問家禮之所未載者亦多所發明其有補於禮經大矣顧其爲說各成一書而或散出於諸家文集窮鄉之士既無以盡蓄卒遽之際又難乎遍考是以人遇無

於古之愛禮者雖有先輩所已論而輒自矜然或於一書得其說而不知諸書又有他說卒無以參證而折中焉所以書雖多而用則闕學者常病之潛溪李公惟哲氏承家學淵源而尤致意於禮既編前古禮論為四禮集說又取我東沙溪閔解元庵禮疑南溪禮說而合錄之別為一部其意蓋不止此將以博採衆說次第收八而二書俱未了公遽即世矣其胤希正甫以公遺命屬聖源說工聖源惟不克承當是懼嘗以是稟于我陶庵先生先生教以集說因為家禮羽翼然猶不如東賢禮論之寂切於應變又近而可

易微也遂謹就其合編三書者刪其繁複定其次第又博考諸集攬摭要語凡二十九家三十七書逐條補八一如原例而若其分條定目實與同門友俞彥錄士精共之蓋費十數年精力而書始脫藁原書二十四編附錄二編總名之曰禮疑類輯於是乎上下數百載間許多疑變之禮同異之說一開卷瞭然庶幾人之有疑莫證臨卒難考者有以證之詳而考之便嗚呼此實潛溪公所以始手用力者而亦賴我先師指導卒底于成覽者尚可以知厥功之所自也顧此衰病已甚精神都耗更無餘力可及於集說無以

盡副李公遺托是為可愧也已
崇禎紀元後三戊寅仲夏下浣凝川朴聖源書

禮疑類輯引用書目

晦齋集 文元公所著
河西集 文麟公所著
退溪集 文純公所著
退陶言行 文漢門人所錄
頤庵集 文端公所著
蘇齋集 文簡公所著
高峰集 文憲公所著
栗谷集 文成公所著
擊蒙要訣 文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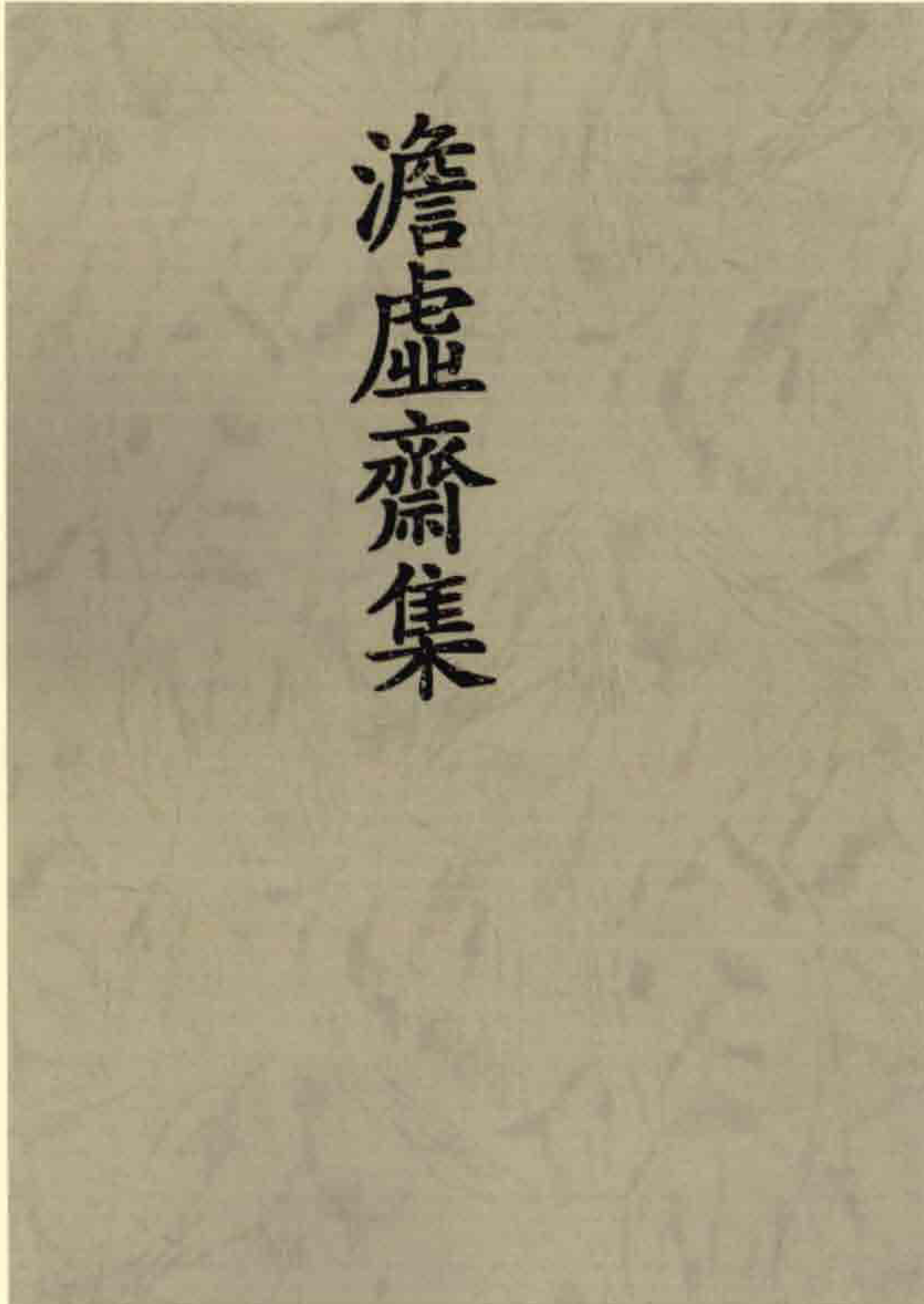
牛溪集	文簡公成 潭所著
松江集	文清公鄭 澈所著
龜峰集	宋翼弼 所著
寒岡集	文穆公鄭 述所著
西厓集	文忠公柳 成龍所著
沙溪集	文元公金 長生所著
家禮輯覽	同上
喪禮備要	同上
疑禮問解	同上
朽淺集	文令黃宗 海所著

旅軒集	文康公張 顯光所著
愚伏集	文莊公鄭 經世所著
續疑禮問解	文敬公金 集所著
浦渚集	文孝公趙 翼所著
冶谷集	文令趙克 善所著
澤堂集	文靖公李 植所著
尤庵集	文正公宋 時烈所著
萃陽語錄	文憲門人 崔慎所錄
同春集	文正公宋 浚吉所著
市南集	文忠公俞 際所著

引用書目

南溪禮說	文純公朴 世采所著
三禮儀	同上
靜觀齋集	文貞公李 端相所著
遂庵集	文純公權 尚夏所著
農庵集	文簡公金 昌協所著
芝村集	文廟公李 喜朝所著
陶庵集	文正公李 緯所著
四禮便覽	同上

10. 담허재집(澹虛齋集)



담허재집 澹虛齋集

22×29.3 6권 205장

이 책은 조선 효종(孝宗)시대의 학자(學者) 부안인(扶安人) 담허재(擔虛齋) 김지백(金之白, 1623~1671)의 목활자본(木活字本) 문집(文集)이다. 처음 저자(著者)를 사숙(私淑)한 유계(幽溪) 정재흥(丁載興)의 발의(發議)로 증손 급(筮)과 5대손 수민(壽民) 등이 수집편차(差輯編次)하였고 그후 1895년에 후손 낙린(洛麟) 낙리(洛鯉) 종술(鍾述) 등에 의해 간행(刊行)되었다.

공의 아버지 도촌공(陶村公) 연(沈)은 1617년에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했으나 모후(母后)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서궁(西宮)에 유폐(幽閉)시킨 광해군(光海君)의 패륜(悖倫)에 항의하여 출사(出仕)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의리사상을 가르쳤고, 병자호란에 의병(義兵)을 일으켜 여산(礪山)까지 진격했으나 굴욕적인 강화소식을 듣고 통곡해산하고 돌아와 학문연구에 몰두, 도촌유고(陶村遺稿)를 남겼다.

이러한 존주의리(尊周義理) 사상은 직접 공에게 영향을 끼쳐 1648년(仁祖26)에 생원시(生員試)에 급제하고서도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본성(本性)을 찾는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 일관하였다.

공의 연원(淵源)을 살펴보면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을 사사(師事)하고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동춘(同春) 송준길(宋浚吉)을 추종(追從)하였다.

1667년(顯宗 8) 우리 연해로 표류해온 한인(漢人) 임인관(林寅觀) 등 90여 명을 청(淸)나라로 압송(押送)할 때 그의 중형(仲兄)인 백암공(白岩公)과 함께 소(疏)를 올려 명(明)나라에 대한 배신행위임을 극간(極諫)하니 조정(朝廷)에서 모두 그 대의(大義)에 감복(感服)하였다.

1798년(正祖 22)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에 추증(追贈)되고 승정연호첩(崇禎年顛帖)을 하사(下賜)받았다. 뒤에 칠절사(七節祠)와 요계서원(蓼溪書院)에 배향(配享)되었다.

滲虛齋集卷之二

疏

請栗谷牛溪兩先生從祀文廟疏

伏以 殿下嗣位克艱續服圖治率追乎前功丕承
手舊烈宅商宗之憂而致恭默之思盡周王之孝而
勤訪落之意于斯時也萬像趨新八方聳聽莫不翹
首拭目行見至化之盛則誠所謂大有為之會也民
生之有困悴則 殿下已發宣惠之政矣言路之有
壅蔽則 殿下已恢翕受之量矣至如紀綱之陵夷
法度之解弭莫非 殿下初服之所軫念則 殿下

滲虛齋集卷之二 三十三

이 책은 미발간고서(未發刊古書)를 수집하는 금번 취지와는 다르지만 그 희귀성과, 특히 공의 의리 사상(義理思想)을 높이 평가하여 다루는 것이다.

1권 시(詩), 2권 소(疏), 3권 서(書), 4권 잡저(雜著), 5권 서기발축문제문(序記跋祝文祭文), 6권 행장(行狀), 그리고 부록(附錄)으로 되어 있다.

1989년에 12대손 종원(鐘元)이 다시 간행(刊行)할 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순범(張舜範) 전문위원은

“이 저서(著書)는 우리나라 학계(學界), 특히 철학(哲學)이나 문학분야(文學分野)의 새로운 연구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평가(評價)하고 있다.

註: 본 해설은 12대손 종원(鐘元)의 간행사와 장순범(張舜範)의 해제(解題)를 참고하였음.

足滯血額天不避僭越之嫌焉 殿下稱道之不已者也伏願 殿下斷自宸衷快副多士之請則即命有司速舉從祀之典使人人知 殿下褒崇獎勵之意出於尋常萬萬則其為斯文之幸國家之福夫豈淺鮮而已乎 臣等無任激切肩營之至謹昧死以聞 請勿執送漢船於北燕疏

全羅道南原通德郎前行童蒙教官 臣金之白誠惶誠恐頓首頓首謹百拜上言于 皇上殿下伏以 山野賤跡性本樸愚只知守分素昧時務杜門塊處甘與鹿豕為伍惟是愛君憂國之忱出於天性傷時難

世之懷激於目前輪困抑鬱日夜輝輝於方寸間仰而觀之則天譴極矣俯而察之則民命殆矣 九重惻怛之憂藹然於十行閔災之札 臣伏在田野奉讀聖旨尤不覺涕淚之交頤也 殿下有何上嗚於天心而逢罰之此極也惟天降災祥莫不由於人事則無乃人事之大乖者已在於目前而人未之察耶即今鄉曲黎民豈知朝廷之利害得失而側聞漢船漂到耽羅自朝廷方欲執送北京云雖愚夫愚婦莫不惘然驚心曰 國家其何忍此乎 明朝昔我父母之國也吾人不滅至今莫非其恩則 國家何忍

益懷揚而已今上心經家禮兩段間目乃冬間疾病未甚前所割錄者也今偶逢便未及整理仍以草本奉稟自揆僭率俟罪俟罪天氣向和更乞為道自重以慰瞻仰謹不備伏惟

別紙 家禮問目 禮儀 禮問 禮辭 禮儀 禮問 禮辭

為四龕小註有曰有大宗而無小宗者皆適則不立小宗也有小宗而無大宗者無適則不立大宗也蓋世子之親弟是為小宗則所謂皆適云者世子之親弟多而更無孽弟也謂之無適則只有孽弟而無親弟者耶家禮於他處未嘗以嫡庶論則似不必於此

滄虛齋集卷之三

書

上慎獨齋金先生 戊子正月二十日

獻歲發春伏惟 燕息益相體候萬福區區慰賀不任遠誠之曰窮鄉晚進擿埴迷方自分為小人之歸矣幸於年來累承 函丈問不倦之誨耳提面命不啻諄諄以至今日粗得有一二分開發者無非大君子誘掖之賜也庶幾夙夜勉勵無負獎導之盛心而舊蠲沉痾首尾累年昧於攝理新症層生精神氣血耗竭殆盡斯乎工夫亦未免全廢廢開靜指初心只

當然而如顏子之短命正如罔之宜死而或免者也

右論語語記疑

易卦坤復動靜辨

或問於余曰朱先生答呂子約書以易之純坤為至靜之象而不可以復卦之有所知覺者合為一說中或問亦嘗云云又谷張敬夫書則以復之見天地之心為靜中之動而屬之於靜前後之說何若是相左乎愚答曰不然方其靜時事物未至思慮未萌只有寂然之體則果為純坤之象也然寂然之中萬象昭森知覺之理炯然不昧故朱先生又以知思聞聽見視之別

滄虛齋集卷之四

雜著

讀書劄記

子思子曰道也者不可須臾離也可離非道也故君子戒慎乎其所不覩恐懼乎其所不聞竊意不覩不聞者正謂其事物未至於眼前思慮未萌於心上絕喜怒之備無云為之用此易所謂寂然不動者而亦非塊然不動絕無知覺者之謂也其所以用工者則主一而不二不三無適而不東不西寂寂無紛起之患惺惺無昏昧之失戒慎恐懼喚醒在此而其中寂

益懷惕而已今上心經家禮兩段問目乃冬間疾病

未甚前所劄錄者也今偶逢便未及整理仍以草本

奉稟自揆僭率俟罪俟罪天氣向和更乞為道自重

以慰瞻仰謹不備伏惟

別紙 家禮問目禮儀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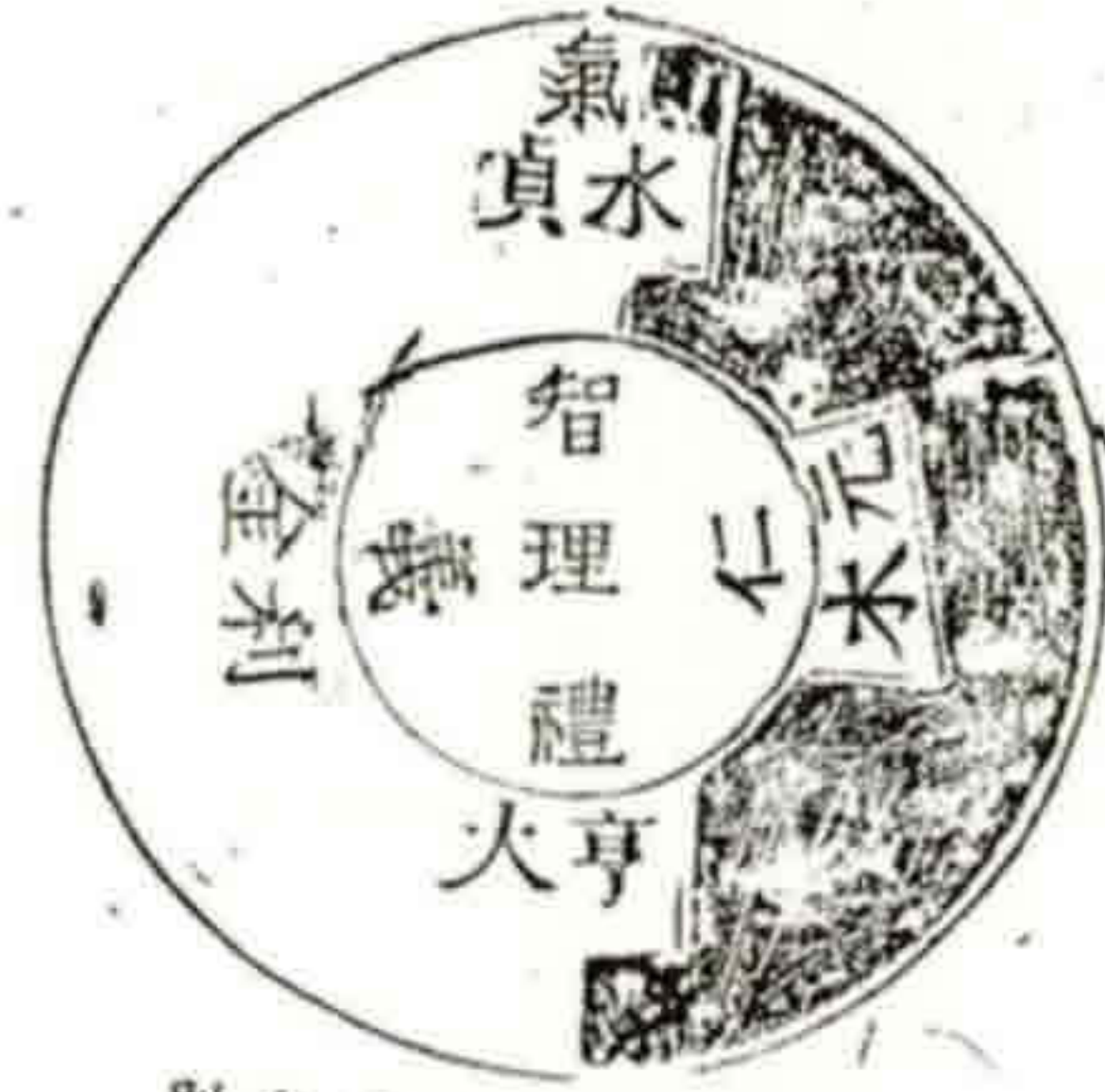
為四龕小註有曰有大宗而無小宗者皆適則不立小宗也有小宗而無大宗者無適則不立大宗也蓋世子之親弟是為小宗則所謂皆適云者世子之親弟多而更無孽弟也謂之無適則只有孽弟而無親弟者耶家禮於他處未嘗以嫡庶論則似不必於此

屬動亦可不待推而了然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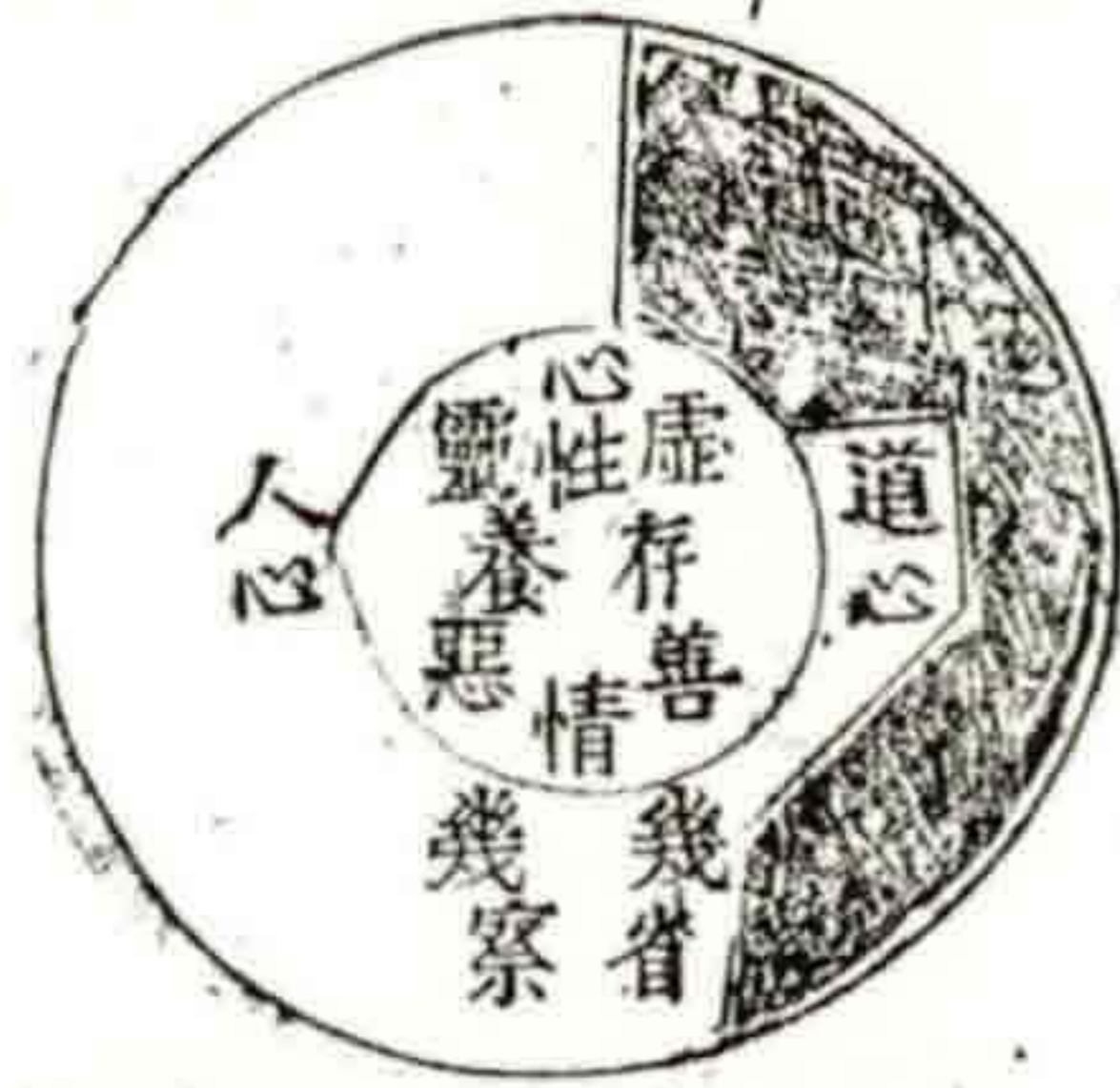
心統性情說

一箇腔子裏天下之萬物備焉太極渾然之體森具於寂然不動之中其綱領統繫有五曰仁義禮智信是已非所謂性本於天者乎事物之來隨感即通一本所發萬殊之用分焉具各歸大槩有七曰喜怒哀樂愛惡欲是已非所謂情發於性者乎該貯此性於寂然之中發出此情於感通之際者亦必有主宰者存焉非所謂心統性情者乎雖然性無不善而情則有善有惡者何也以其氣稟之或異也何以言之夫

又嘗聞及其成功則一也聖人豈欺我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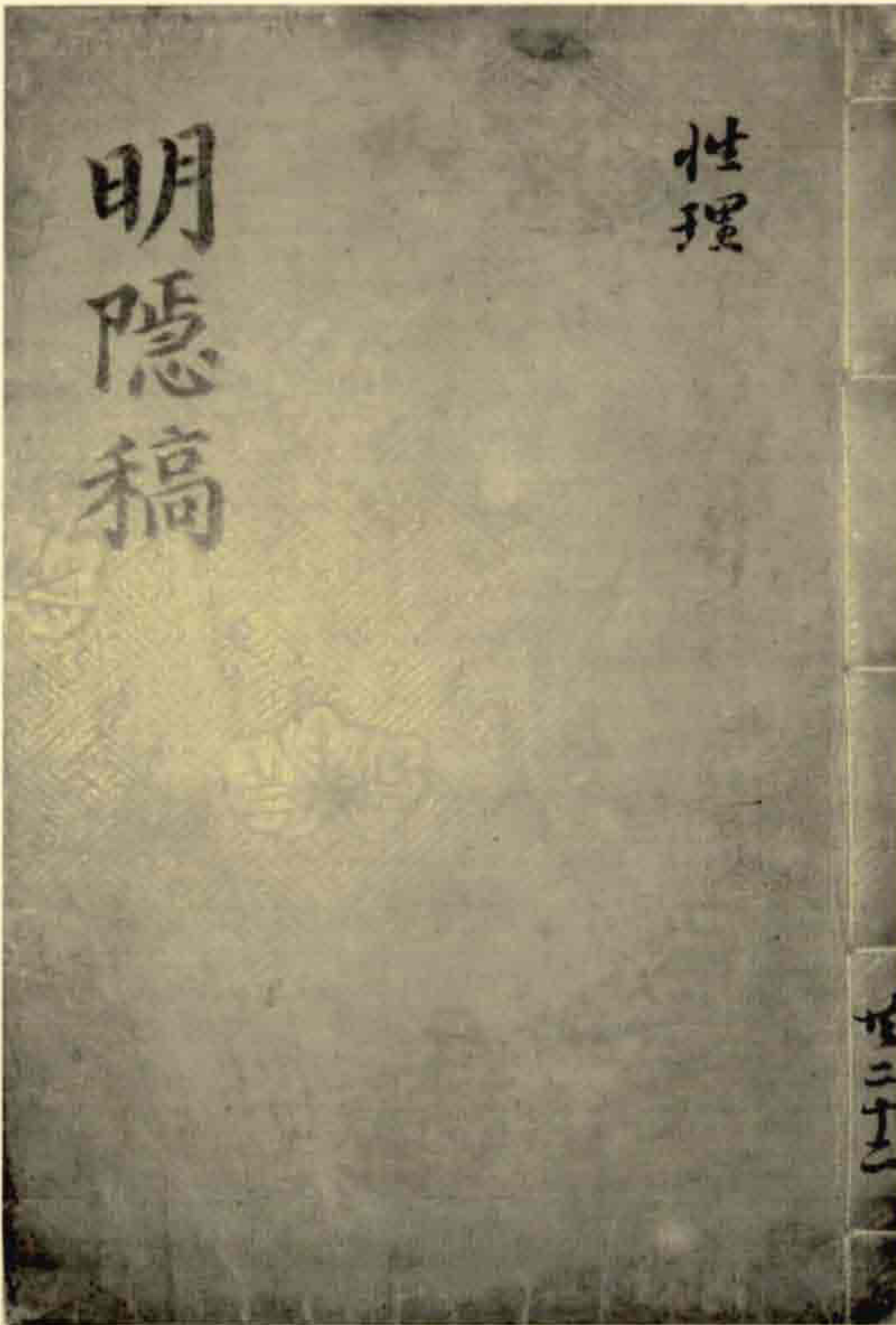
理氣絪合化生萬物然而成形者氣也其所以然者理也此所謂氣以成形理亦賦焉者也聖人純乎理使氣隨命於理學者治其氣求復乎天理及其成功則一也合理氣則心



惟是心之體情是心之用心者性情之主性情皆發於心故先善心字於上兩旁天君人心體本有虛靈和覺一而已業也切察人心道心之苗雖惟其有理故發而為人道心惟其有形故發而為人此心亦何來而發人心生於氣而和是理則此心亦何自而生既曰人心道心則官四攝中攝存其中意在其間商

妄將已見參以先覺之說不揆愚俗別作兩圖如右正所謂手不知應掃之節而口談天理者也上

11. 명은고(明隱稿)



명은고 明隱稿
20.8×29.3 22권 22책

명은고(明隱稿)는 명현(名賢) 부안(扶安) 김수민(金壽民 : 1734 英祖甲純祖辛未) 선생의 유고(遺稿)이다.

이 책이 필사본(筆寫本)으로 편집 정리된 것은 손자(孫子)인 병조참판(兵曹參判) 제곡(梯谷) 한익(漢益)에 의해서였다. 제곡공이 김해부사(金海府使)로 있을 때 필사본으로만 정리하고 발간(發刊)을 하지 않은 것은 점필재(僎畢齋) 김종직(金宗直) 선생의 조 의제문(弔義帝文)과 더불어 세조(世祖)의 왕위찬탈(王位贊奪)을 풍자(諷刺)한 단 두 편의 작품(作品)으로 전하는 내성지(奈城誌) 때문이었다. 조 의제문은 항우(項羽)가 초희왕(楚懷王)을 죽인 중국 고사(故事)를 비유한 것이고, 내성지는 명 태조(明太祖) 주원장(朱元璋)의 손자인 건문황제(建文皇帝)와 그의 숙부(叔父) 연왕(燕王 : 明太祖四子)과의 관계를 비유한 것이다. 즉 이 소설(小說)에는 똑같이 숙부에게 죽임을 당한 단종(端宗)과 건문황제가 강원도 내성(奈城 : 寧越)에서 양국(兩國) 충신열사들을 위한 연회(宴會)를 베풀자 줄을 잇는 참석희망자에 대해 입장(入場)시킬 자격을 심사하는 형식을 통해 역사상에 등장하는 그들의 자잘못을 뚜렷이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면 사화(士禍)의 발단(發端)이 되고 자손에게 화(禍)가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간행을 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필사본으로 내려왔다. 애

석한 것은 6·25때 12, 13, 14권 3책을 누군가가 빌려가 아직 찾지 못한 일이다.

이 책의 수록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권 = 홍윤승(洪允升)과 성대중(成大中)의 서문(序文)과 함께 시(詩) 683수 및 남의 시 13편.

2권 = 시 409수 및 남의 시 2수.

3권 = 장편시 234수, 은자(隱者)로서의 사상과 감정 등 생활상이 형상화된 것이 많음.

4~5권 전반부 = 기동악부(箕東樂府)로 고조선에서 조선 후기까지의 영사시(詠史詩) 387편과 남의 시 11인데 단군(檀君)부터 당시의 인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소재를 취하고 있음. 이를 시대별로 나누어보면 고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의 대상을 읊은 시 41권, 고리(高麗) 39편, 조선 307편임.

5권 후반부 = 명(銘), 기타 103편.

6~7권 경희조대(經義條對)로 6권에 6건 35편, 7권 7건 31편인바 이 글은 1798년(正祖 22년)에 왕이 사서오경(四書五經) 중 의심되는 부분을 조목별로 유학자들에게 물은 어제(御製)에 대해 공의 의견을 쓴 것임.

7권 후반부 = 당의론(黨議論), 효묘유사(孝廟遺事).

8권 = 도설(圖說), 향약조목(鄉約條目)으로 113도와 도설과 기타 4편.

9~10권 = 성리(性理)로 9권에 20편, 10권에 80편.

11권 = 소(疏) 7편.

15권 = 유산록(遊山錄) 8편, 성(性) 38편, 예(禮) 22편 등 68편.

16~17권 = 주역차기(周易筮記)로 16권에 서(序) 기타 4편과 주역차기 30편, 17권에 주역차기 34, 기타 5편과 아들 복현(復鉉)의 서문.

18권 = 지(識) 6편, 이중 내성지(柰城誌)는 충간포핍의식(忠姦褒貶意識)을 담고 있어 주목됨.

19권 = 설(設) 서(序) 발(跋) 등 잡저(雜著) 89편.

20~21권 = 천리문해(天理問解)로 20권 천리문해 25, 기타 1편, 21권 천리문해 57, 기타 4, 추록(追錄) 7권.

22권 = 잡저(雜著) 82편과 외손(外孫) 이치백(李致白)의 발문(跋文) 등 남의 글 6편.

전체적으로 시문(詩文)을 나누어보면 각종 시 1,814수, 자작 시조(自作時調) 1수를 비롯 시조 3수 및 남의 시 25수와 문(文) 도표(圖表), 기타 693편 및 남의 글 21편 등 총 2,500여 편에 이른다.

이와 같은 방대한 시문을 통해 선생의 학문과 사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시종여일 필사(筆寫)한 정성 또한 대단하다 할 것이다.

선생이 흠모한 인물은 한(漢)의 엄준(嚴遵)의 촉(蜀)의 제갈양(諸葛亮), 당의 도련명(陶戀明)이었고 미호(美糊) 김원행(金元行)의 문인(門人)으로 우암(尤庵)을 존경하였다.

1855년(哲宗乙卯)에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承政院左承旨 兼 經筵參贊官)에 증직(贈職)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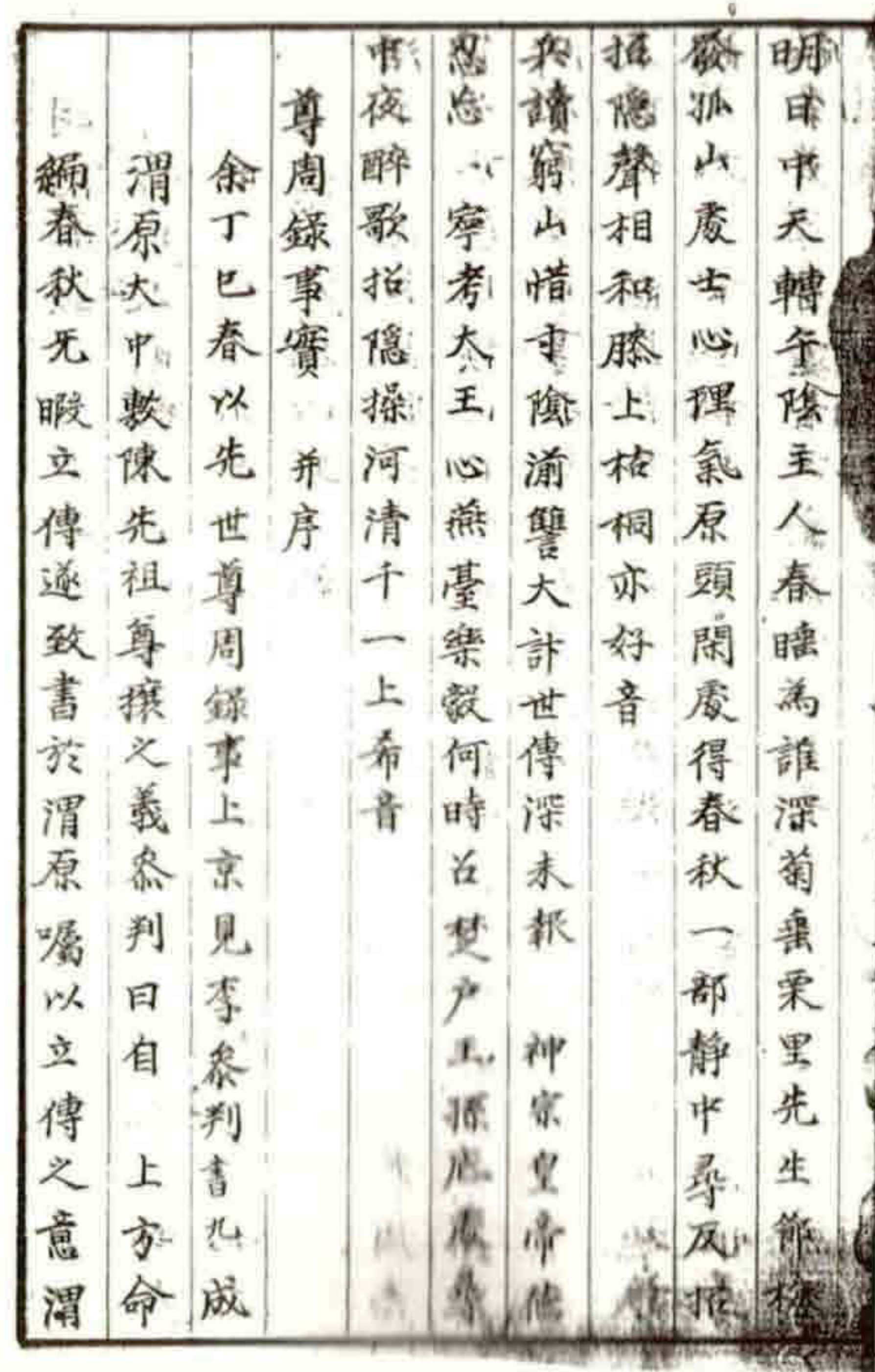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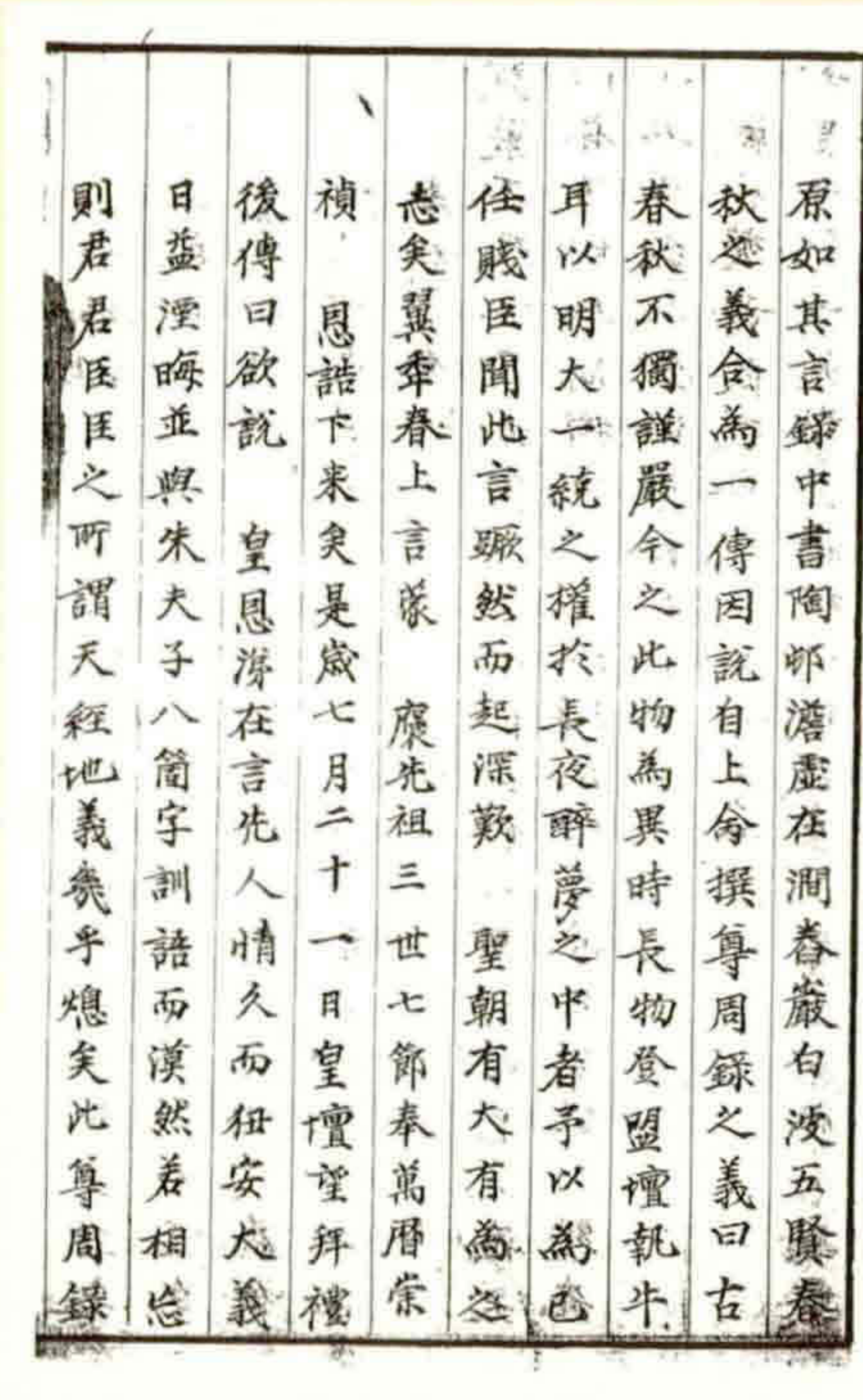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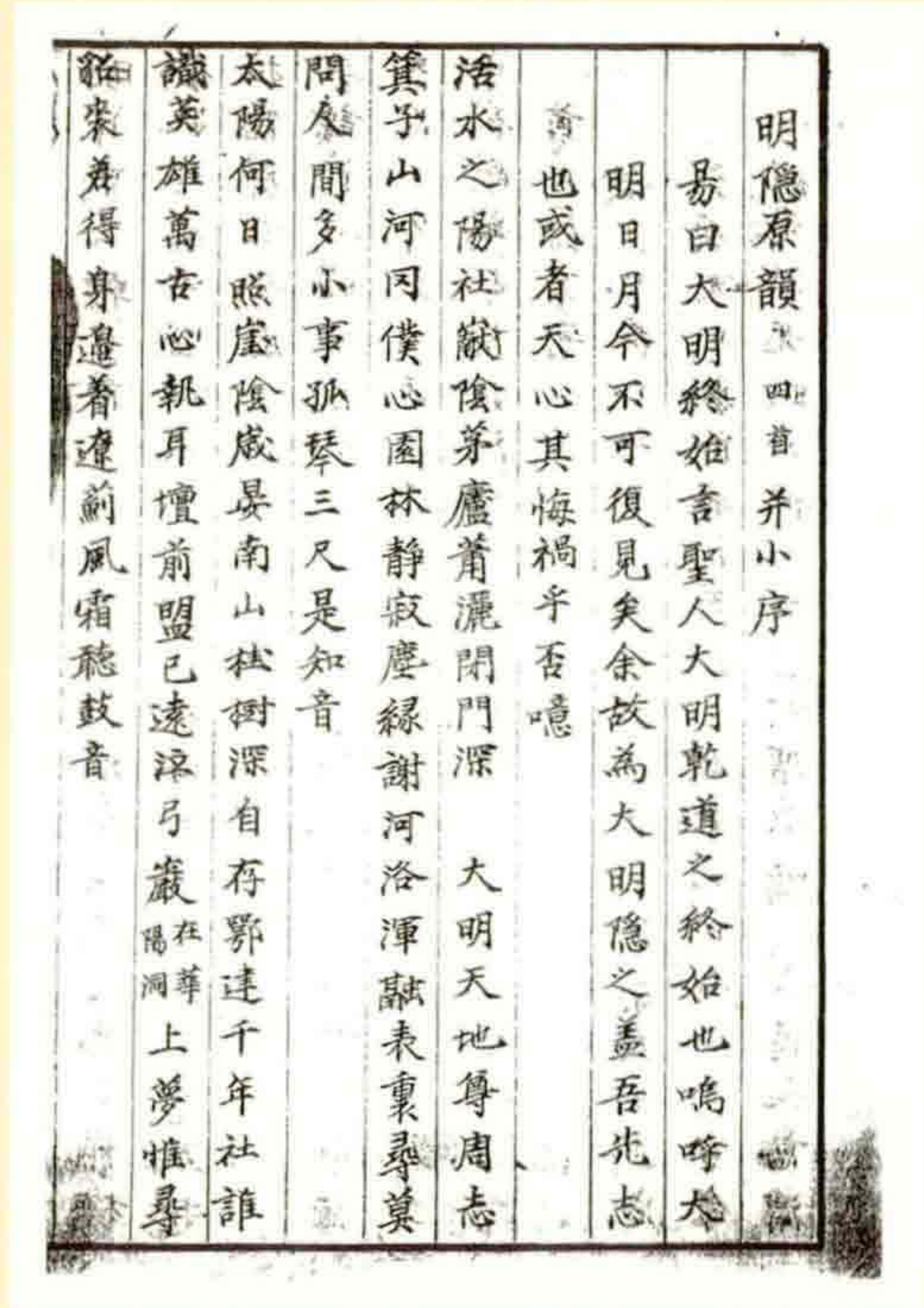
행장(行狀)은 홍문관 부제학(弘文館 副提學) 김근순(金近淳)이 짓고 묘비(墓碑)는 척재(惕齋) 이서구(李書九)가 지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구복(鄭求福)교수는

“비록 시골에 살면서 관직에 나가지 않은 무명(無名)의 선비였지만 그의 학문은 학계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라고 평가하였다.

註：본 해설은 7대손 중원(鍾元)의 간행사와 정구복(鄭求福)의 명은집 해제(明隱集 解題)를 참고하였음.



箕東樂府

震壇歌

禮君

震壇初一變。天降神人太白山巔。開國扶桑紅日下。國號曰朝鮮。記元戊辰歲。唐克廿五年。命彭吳奠山川。木食穴居舊風俗。教民編髮五常全。送子扶婁會奎山。筐篚玉帛通八埏。觀化商王戊子甲子歲。阿斯達山為神玄又玄。武言讓位授師有如唐虞天。傳世不知幾。曆年曾過千。

箕子操

曰若稽古箕子。特叙洪範九疇。我因為臣僕。東渡溟水。尋守救丹峰頭。中國五千人。詩書禮樂陰陽卜筮醫巫。拯於

之所以編輯也。荏苒遷就汗青無期。令內閣知委。較

正諸臣。俾即傳悉完篇。聖上尊周獎節之義。至矣

盡矣。未知天心悔禍乎。否成渭原。騰出傳教為余

道之如。是其在激勸之道。不可不識。故登即書。紀而

奉讀。皇壇傳教感吟四律曰

謹嚴不獨古。春秋辨史今。時復見修人事。詭吟思大漢。從

心眷依命尊。周攬滂皇壇。添刻骨中傳。內閣促甄。甄先

世五賢。編入錄鴻恩。編感報无由。

風谷焚黃後。感吟一律。要和諸名勝。

於皇七節。一天擎三世。相承倡義聲。聖上貽康知異數。

區井田畫。教民八條修。永明嶺嵩山高。大同江黃河流。龍
歸既曰明夷。白馬何曾朝周。祇今遺澤三千秋。小中華信
不誣。仲尼欲居九夷。其有由。

朝鮮侯

朝鮮侯。伐燕欲為尊。周室大夫。何事諫而止。豈守罔僕
故家節。黃金治高燕。必強。或恐本國宗祧絕。當書大綱歸
之疏。恐是史氏失。

三韓曲

馬韓猶承緒。辰弁詎可論。衛論自是秦亡卒。乃敢求逐箕
子孫。何事東界古基址。不徵於滿。滿又與濕。祇今古都

金馬空嘶雲

新羅曲

今慶州

新羅國。三姓相禪。惟擇賢。三歪揖遜。唐吳風。官一國一千
年。金城月城。瞻星垣。行人駐馬。看可憐。金鍾古國響。玉笛
異代傳。四十八王。今安在。年。芳草鎖寒烟。

居西干

關川之上。揚山麓。浮。異氣雲霄際。嬰兒剖破大卵殼。如
粉。姓朴以為系。裕乎川上。先彩麗。鳥獸孳舞人異狀。十三
為君。受命上帝。號曰居西干。長。龍女開英。為仇儂。外
內治輔。稱二聖。六十年。太平世。朱蒙建國於卒本。扶餘。

今威號為高句麗。溫祚建都於慰禮城南。今樓稱為前百濟。二國自是屬國。當以新羅正統緒。

昔脫解

波那國王娶女國王女。生卵不祥不可鞠。置摺浮海粟以高。老媪開摺見兒。有鳥隨之鳴鶴。省鶴字姓以昔高。子王女虫欲禪。讓位儒理不肯即。甯人多齒要相誅。啜餅儒理多齒既。儒理先立脫解緒。相讓高風千載傳羨績。

金闕智

金城西始林間。鳴白鷄掛金槽。翁公奔告王。有男美如玉。王曰都。天啓我胤作。賜姓金名闕智。鷄林曉日回春色。味

鄒之後卅七代。家傳室統承昔朴。古來神智皆如此。君不見玄鳥郊大人跡。

駕洛國歌

身昔龍峰之上。曰有異氣降神靈。金盒中六金卵。箇一割殺兒香馨。始出為王五伽伽。建國駕洛之汀。南天竺國。海天苗苗高神聆。王女于歸家邦之刑。首出廢物。一國咸寧。至五百年。波晏東溟。

高句麗謠

當在下新廟合衆上

鯤湖之上有小兒。金色鮭。娶于河伯女。枝優漸水。名柳花。日影照忽有娠。生卵破壳兒奇嘉。七歲能善射。邦國干

御製條問

經書義起條對

正宗戊午

臣壽民對敬。按經書起義窮伏惟。聖學高明當君師之任。有此下問。橫說豎說。左右逢原。反覆俯詢。便同自已問答。發顯呈露。無復餘蘊。如臣愚昧。只是癡鼓一箇。問兩漢止耳。雖或有管見。蠡測終未得一斑之窺。則其何以仰對萬一政。如造化翁設洪爐於太和之中。形色。體物不遺。而物各付物。後來畫工以疎才拙筆。難欲摸寫無異。字撈摸水月。而不知其移步。搜形此真吾人所以下殿頓首而賀陛下江山已定者也。只依訓述條議陳如左。

城又介牙。建都沸流水上。國號句麗。山上高字加。跨驥上朝天。朝天石留江之涯。

竹長陵

當在駕洛國上

伊西國。道。攻金城。攻城急。王親征。號風驟。兩神兵。駟。皆。併竹葉。求助兵。破賊如破竹。箭。觸地。塵。清。忽然野曠。天晴。無戰聲。味鄒王陵。竹葉。數萬積。冥佑陰。助何神明。號曰竹長陵。

歌長州于歌

并提上 詞祇三時

賢哉歌長州于。為君貞忠。靡所不用。好問。賢于高句麗。末斯。欣。簡于倭國。王思二。弟如失。左右手。中朝發。歎息。仗

西中疏

正宗大王臨御西中先生與柳達等上疏

全羅道幼學臣柳達等誠惶誠恐頓首謹百拜上言于
主上殿下伏以臣等跼伏窮鄉忍飢看書者四十有餘年
此莫非先大王生成化育之賜也未有消埃之報據抱
寘天之痛臣等如喪身有其極苟有啓沃君心裨益世道
者極盡所蘊不避僭越乃報先王而忠殿下之職分
者也茲敢千里累足相率拜進唯殿下垂察焉殿下
在春宮之時潛心養德一無聞焉矣及至代理御極之
初前後綸音至誠惻怛大公至正而初政有出百王萬
興情於眾心欣悅安若恭華重若昇呂有如披雲霓而

周易七條

易之為易理數與象占而已天地間唯一理也聖人因其
理而畫為卦以象之目其象而著為爻以占之知往者順
而致之知來者逆以推之故曰神以知來知以藏往漢儒
以象辭之剛柔往來而主卦爻以繫辭之雜物撰德而主
中互以數言易者楊子雲而已宋儒以時位消息而論義
理以健順中正而論性命以數言易者邵堯夫而已程子
謂得其理則象數在其中然易固不當混於象數而非象
數則理亦無所掛搭此朱子啓蒙所以作而懸之乎先天
象數之說也試觀于楊帝二家之起數則始於三方中於

秦城誌

皇明永曆間有姓金無名子者為人感慨好讀春秋書仰
觀天時之來往俯察人事之得失履賤與棄潛究乎筆削
之間以為經世之藥房又遠游名山大川以廣其骨次嘗
曰夫子登東山而小魯登泰山而小天下蓋地位漸高耶
見益廣大然泰山頂上已不屬泰山上面更有天光在儘
知道體之無窮也余匪仁智者偶然愛山水於山見蓬萊
方丈以象靜體之尊嚴於水觀東溟西海以象動體之流
行至若神州匪無五嶽江漢之勝焉堯封已廢禹畀
河清幾時岐鳳不聞則此夫子之所以不到秦也乃

觀白日際旱天而逢甘雨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是皆
秉彝之天不期然而自然者矣有規乎此則自秦漢以後
至于唐宋不能行三代之治者誠虛語耳人君苟有至聖
至誠之德則其化之速不啻若桴鼓之應草偃之化也然
人君之政莫難於謹始而尤莫難於善終故詩曰靡不有
初鮮克有終易曰有始有卒者其唯聖人乎蓋國風之語
隆人心之休戚皆繫於始終之謹不謹如何耳殿下亮
陰之中恭默之憂想必有及乎此而若以已知而不行則
是有違於庸學之無言終始而并舉知行之訓也是以召
公訓王先之以初服之誠仲虺作誥申之以慎終之

蹊腥羶之地手探穢貂之窟乎哉素聞奈城山水之勝以
 一匹蹇驢一箇書僮啓行於秋八月望日於是先登太華
 山在郡南十六里幽澗深林懸崖絕壁無不歷覽而遂作一絕曰采
 采將誰贈華山十丈蓮西方美人遠日暮鎖雲烟於是又
 登刁山在郡南五里望錦漳江在郡東誦鄭樞詩而贊其妙曰刁
 山繚繞松杉月錦水清漪草樹烟不待主人披鶴氅風流
 堪作畫圖傳者真有聲畫也遂吟曰錦水濯如錦刁山割
 似刃腸斷江頭水嗚咽去何朝咏訖自金鳳洲逾梁山在郡
 一丑二十憩于陰谷泉在郡北二咏一絕曰冽風高崗振寒
 泉枕下鳴誰吹鄒子律陰谷陽春生還登鉢山在郡北五

過 魯陵時佳城蕪沒衰草荒涼乃嘔唏而嘆曰此程伯
 子所謂水不忍廢地不忍荒者也士有曠百世而相感者
 余不自知其何心於是虔誠肅拜於 陵前作金縷詞
 闕以吊之曰憶昔吞聲哭悵人間花有榮枯墓翻新局律
 先刁山抱錦水萬愛烟霞觸目美到了幾成陵谷白馬
 王孫何處去恨孤魂萬古愁幽獨心一丘淚千斛南歸客
 子迷歸宿但梅竹樓前隱暎疎籬茅屋可惜年口芳草綠
 借問誰榮誰辱獨清冷水去不復萬事如今良已矣嘆垂
 生不平何時足樽有酒聊且屬又吟一絕曰錦水幽愁殘
 日低 魯陵樹老草萋口忍過明月樓前路淚灑東風杜

宇啼過子規樓敬步晦翁子規詞三疊韻曰空山初夜子
 規鳴聲口上訴徹三清春谷落花芳草節不堪野老哭吞
 聲又曰空山中夜子規啼毛羽蕭條衰衣莫向青天歸
 蜀道漢陽花月不如歸又曰空山後夜子規號河漢三更
 轉覺高天寒月落清冷浦千古遺臣獨嘯皋此尤翁所謂
 月白山空聞冤禽之一二聲則凄然泣下不覺清興之翻
 成感緒者矣又登觀風樓在客時微月初生明河西轉東
 臨錦漳江南望金鳳洲江之外有尚德村茅屋疎籬隱暎
 於桑柘之間又有密積浦樹木葱鬱村烟水氣掩靄而霏
 微望若畫畵乃咏黃公喜錦江亭詩曰軒高能却暑簾豁

易為風老樹陰垂地遙岑翠掃空者可見斯人之骨次矣
 即次曰良宵萬籟寂抱月納涼風百尺元龍屹利見上碧
 空又曰遠山朝乙旨深水謁清冷越中三讓地寒對九疑
 青遂繫馬於樓下使書僮沽酒於江村滿酌三杯而醉忽
 於夜半車馬驂口之聲自遠漸近燈燭熒煌人物駢雜儀
 威甚儼恪心神恍惚屏身而息及至樓下紗籠兩行侍衛
 前導一人穿龍袞衣頂翼善冠坐於樓上有六臣者或為
 宗宰或為總管或以銀臺玉堂列侍左右無名子知其為
 王者攝衣起拜於樓下 王曰中宵邂逅莫相訝也寡人
 只卜其夜未卜其晝乃拜謝而退與六臣等相揖而坐

王顧左右曰噫湖山如古風景不殊但時移歲換有周覽
古都之恨矣然月白風清如此良夜何爾等取茶醴而乘
歌以侑酒以滌不平之懷可歎左右應命而退俄而守門
關者奔告曰 建文皇帝自中原白雲卷翅次于本郡矣
王驚聞撰衮衣具朝服等候境上時 皇帝着赭黃袞龍
袍御通天犀帶左右隨黃傘一柄威儀呵殿之聲較 大
王之行充謹嚴矣於是左右以七寶鼓床奠樓上正間
皇帝乃御位 王以臣禮朝之 皇帝曰陞 王以義不
敢 皇帝曰無辭也 王不獲已從階而上 皇帝乃
言曰咨爾朝鮮國王聽予語朕以 太祖高皇帝之孫懿

文太子之長子粵洪武三十一年戊寅五月十六日辛卯
即 皇帝位敬受寶統不墜緒業方欲文治天下以四
古之治不幸遭家不淑燕王以 太祖第四子二十四王
中最高傑黠不謝朝廷之恩妄有不軌之心與妖僧通符
及逆臣丘福張玉李友直金忠等潛謀密計而至於磨瓦
墜地及一白帽子之詭殊極狡譎建文元年己卯七月癸
酉燕兵動於瀋先抵通州時指揮房勝以城降予遣長興
侯耿炳文率師三十萬秋八月征于真定亦敗績而還一
舉而失永平耳舉而失德州時朝廷猶謂燕王不足為慮
只為文治不為武備二年庚辰四月燕兵渡玉馬河是夜

大雨平地水深三尺金鉞瑋口旁皆鳴宣知上天之
災若是歟四年壬午燕兵據于浦子口遂犯金天門天運
已傾杜稷將覆謀臣噤口猛將束手事到這東勢出無奈
縱火焚宮慶服跳去時京師傳言 皇帝崩即是年六月
十三日也詳明史及記畧嗚呼使無辜生靈塗炭羣臣就戮而身
著袈裟手持度牒流落江湖者四十有餘年或自湖湘入
蜀或入雲南或遊廣西羅永等山雪袖形容雲遊蹤跡殊
極可笑末年雖遇岑瑛說金川門事召入內侍話擲齋舊
事而得歸老宮中然每於禁城月色之夜新浦細柳之時
六宮猶望翠華之臨野老猶存吞聲之哭則嗚呼予心寧

不悲哉千秋萬世陟降鬱悒頃聞卿以王室之宵有治世
之姿而所遭不淑者與予同嗚予不勝山川之險道路之
艱特地降此者要與卿討緒耳卿其悉陳小無諱焉 王
起旋四拜膝席而對曰今聞 陛下之教實與臣之處變
間不容髮臣請建白之臣以 康獻王臣某之玄孫 恭
定王臣某之曾孫 莊憲王臣某之孫 恭順王臣某之
長子生於正統六年辛酉 莊憲王臣二十三年七月二
十三日丁巳景泰三年壬申即 恭順王臣二年也是年
五月十四日臣以遺命結嗣翼年景泰四年即臣之元年
癸酉也蓋臣 太祖與 高皇帝同時撫運回軍威化

應天順民踐位於洪武二十五年壬申 高皇帝字小藩
邦特錫朝鮮之徽號故世之事大恪守使度時八大君強
盛人心危疑臣幼冲之年承艱大之業以皇甫仁金宗瑞
等為顧命大臣欲守成緒業以先臣 太祖勦業之功不
幸奸臣權韓明澮申叔舟等畜不臣之心推戴臣叔父
首陽大君潛謀於羣下其中最奸者覽明澮也覽出入邸
下日晏不退故宮人目之以寒羹即明澮則雖夜深之後
八言其謀以繩繫宮奴林芸之臂垂其端於戶外引之而
使通竒故東閣朝廷漠然不知且臣以病寓於鄭悰
之家敬惠公主 王后之女 下嫁 顯德 豈料奸臣革陰面如此不軌之事

耶時稱以靖齋使楊汀洪達孫柳洙等先殺皇甫仁金
宗瑞和之子李穰義安君閔仲趙克寬等二十餘人臣雖處
上位威福下移景泰六年即臣之三年乙亥也貴而無位
下而無輔沒奈何禪位於壽康宮移居于昌德宮粵明年
正月鄭麟趾等上啓請速決無留故臣出居于錦城大君
瑜之家瑜亦臣之叔父也春秋所謂天王出居鄭者何以
異此是年丙子五月臣之臣成三問生時神人於空中等
謀復臣位而皆被禍六月十八日臣降封魯山君安置手
寧越西江清冷浦寧越即此地也臣每登此樓及梅竹樓
使人吹笛悲歌至於曉岑殘月之時春谷落花之節時聞

杜鵑聲則淒然泣下而已矣景泰八年丁丑十月錦城大
君又謀復臣位而究死時禁府都事持藥而來不忍獻之
一貢生以弓絃繫頸而絕即是月二十四日酉時也臣之
冤枉皇天上帝之實所監臨故是夕雷雨大作烈風拔木
黑霧迷空經夜不散貢生九竅流血而即斃詳兩言訖汪
然淚下 皇帝亦為之攬涕曰以年代考之則其間幾何
王對曰自 陛下元年乙卯至臣之元年癸酉則五十有
五年自 陛下遜位之年壬午計臣禪位之年乙亥則五
十有四年當時思恩州 陛下與奉瑛說金川門事則乃
正統五年庚申而臣於明年辛酉始生也 皇帝曰噫地

之相距千有餘里歲之相後五十有餘生并一世所遭厄
運若合符契天何生朕與卿於天王家也昔人願不生者
政為今日準備也有頃六臣及無名子以陪臣之禮見
皇帝曰為誰也 王對曰臣之臣成三問朴彭年李壇河
緯池柳誠源俞應亨也彼白衣者乃今日從臣者也 皇
帝曰咨爾六臣汝能戮力報主捨身殉國真忠臣烈士也
六臣皆扣頭四拜而退 王曰敢問 陛下侍衛之臣誰
也 皇帝曰此乃漢中教授方孝孺禮部侍郎黃觀翰林
修撰王叔英親國公太子少傅徐輝祖兵部尚書鐵鉉歷
城侯盛庸也彼即衡府紀善周是脩大理丞鄒瑾御史魏

公冕給事中龔恭御史葉希賢蘇州知府姚善也於是六
臣輩與方孝孺等皆相揖而坐 皇帝乃下命曰汝本
朝羣臣及東土陪臣今大小國君臣咸會真千古一盛事
可於今夜設大宴以為會同之樂乎僉曰唯 皇帝又命
曰今日之會大小朝臣民必有聞此而至疇若來僉曰都
方孝孺其人 皇帝若曰俞咨汝孝孺汝其守東門惟是
本朝羣臣來朝者汝皆掌之惟忠是奸毋用其私徃欽哉
孝孺拜手稽首應而命退 皇帝申命曰孝孺以大邦之
人不知東土羣臣之誠否惟汝陪臣中孰能當厥職僉曰
都成三問其人 皇帝若曰俞咨汝三問汝其守西門惟

是東土羣臣來會者汝皆掌之以明忠奸以用黜陟徃欽
哉三問拜手稽首應命而退俞應孺獨抗手而進曰臣與
三問等謀復臣之 上王也 進賜請宴天使於 上王
之宮臣乘其時欲以雲鈞用事三問等苦止之故事遂不
成以致誅戮之禍當時若用臣言事可諧矣豈重泉之下
有此今夕之煩冤耶彼不過一豎儒不足以與謀 江表又
何敢承當大任伏望 陛下小垂察焉 皇帝曰無多言
是豈智謀之不足耶天實為之為之奈何應孺乃默然而
退 皇帝申命方孝孺成三問等特錫黃鉞方斧彤弓胡
矢等物於是方孝孺鎮東門左執黃鉞右執方斧而衣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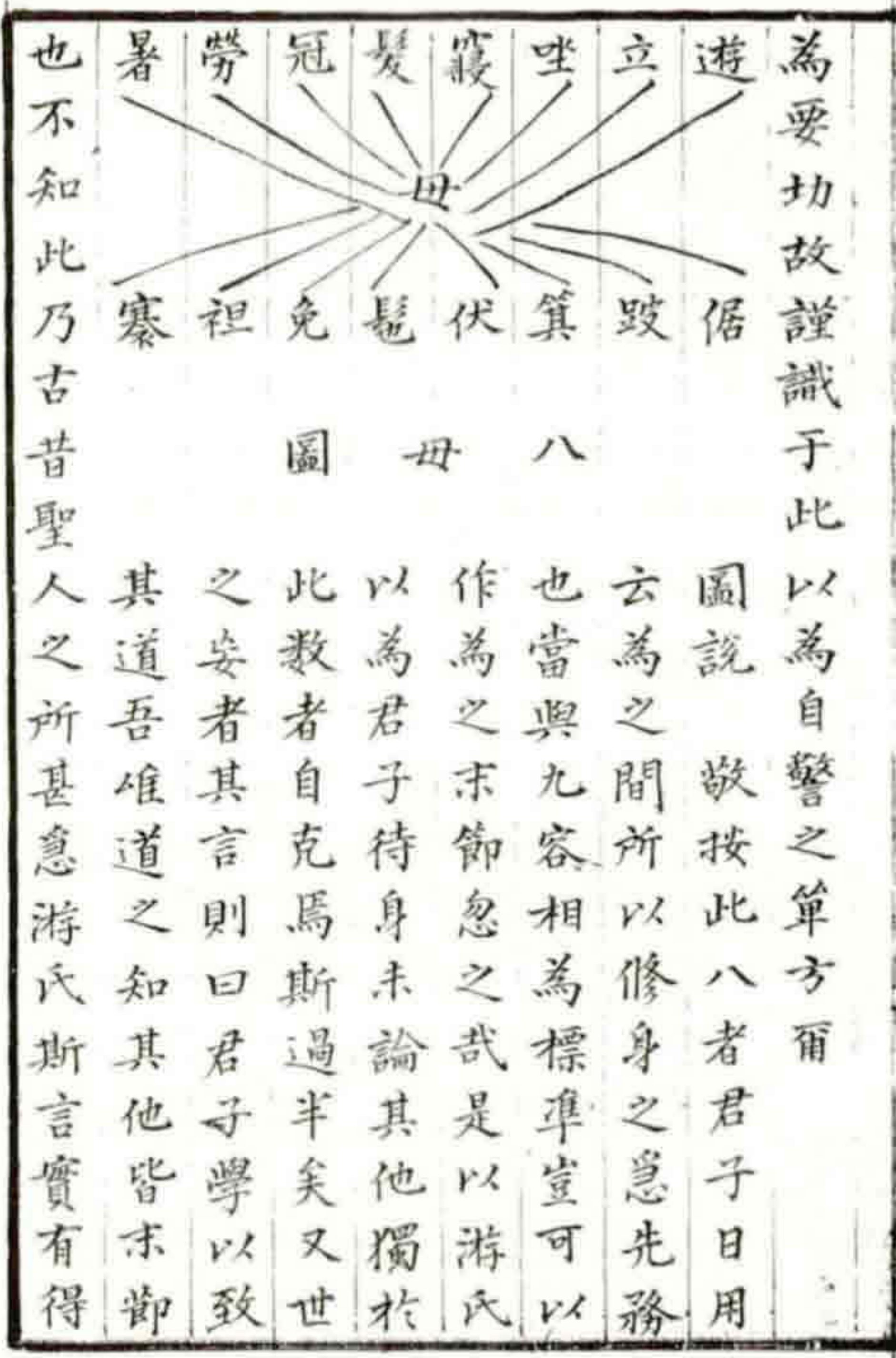
衣青袍以象東方青帝之色成三問左執彤弓右執胡矢
而衣白衣白袍以象白帝之色其餘軍容旗幟各隨其方
而色不同焉俄而東門關者告曰兵部尚書齊恭太常卿
黃子澄來矣方孝孺曰吾聞之主憂臣辱主辱臣死此乃
天地之常經古今之通義也當其金川門之失守也君臣
當同為死生而齊恭奔廣德州黃子澄奔蘇州是時 皇
帝太息曰事出汝輩今皆棄我去乎因徘徊殿庭長呼不
已真朱子所謂悄悄獨處乎明先者也此豈人臣之所忍為
者乎黃子澄厲言曰當初以燕王上書之故雖罷官職然
實主兵事陰為畫策故燕王奸臣榜二十九人中吾等為

首終不免族誅之禍豈有一毫悖義之道耶孝孺曰昔崖
山之敗陸秀夫先殺妻子負帝入海文天祥六載燕樓足
不履地以此方之孰是孰非且昔子思子居於衛有齊寇
或曰寇至盍去諸子思曰如彼去君誰與守此君子之言
也今公等臨危棄主獨為全身之策則皆棄於子思者也
何敢抗言齊恭等默不答關者又告曰沛縣顏伯瑋來矣
孝孺曰是真唐忠臣顏真卿之後時君不識何狀而吾
皇帝已識面矣伯瑋曰噫當時余知沛縣而指揮王顯迎
降余送子出城戒曰還家白大人吾不能盡子職遂冠帶
升堂北面慟哭自縊而死余子不忍去還把余尸亦自刎

而主簿唐清典史王謙亦同日不屈而死孝孺曰父死於忠子死於孝公無愧為忠臣之後而于先有先矣公之子及唐清王謙至乎曰在於門外於是并皆許入有頃西門關者告曰領議政皇甫仁左議政金宗瑞右議政鄭萃右贊成李穰吏曹判書閔伸兵曹判書趙克寬軍器判事尹慶恭繕工副正李命敏李石貞柳仲門宜春君李友直安大君之子池貞元規趙藩等右等皆先朝宗瑞之胤十四人來矣成三問即開門笑迎曰不見公等久矣雖無今日之會長衛君側而縱遊於何處也金宗瑞曰昨日東鶴寺寺在龜龍山朝廷為寬死人設施供故有籍設施供故吾輩暫游於此不意今日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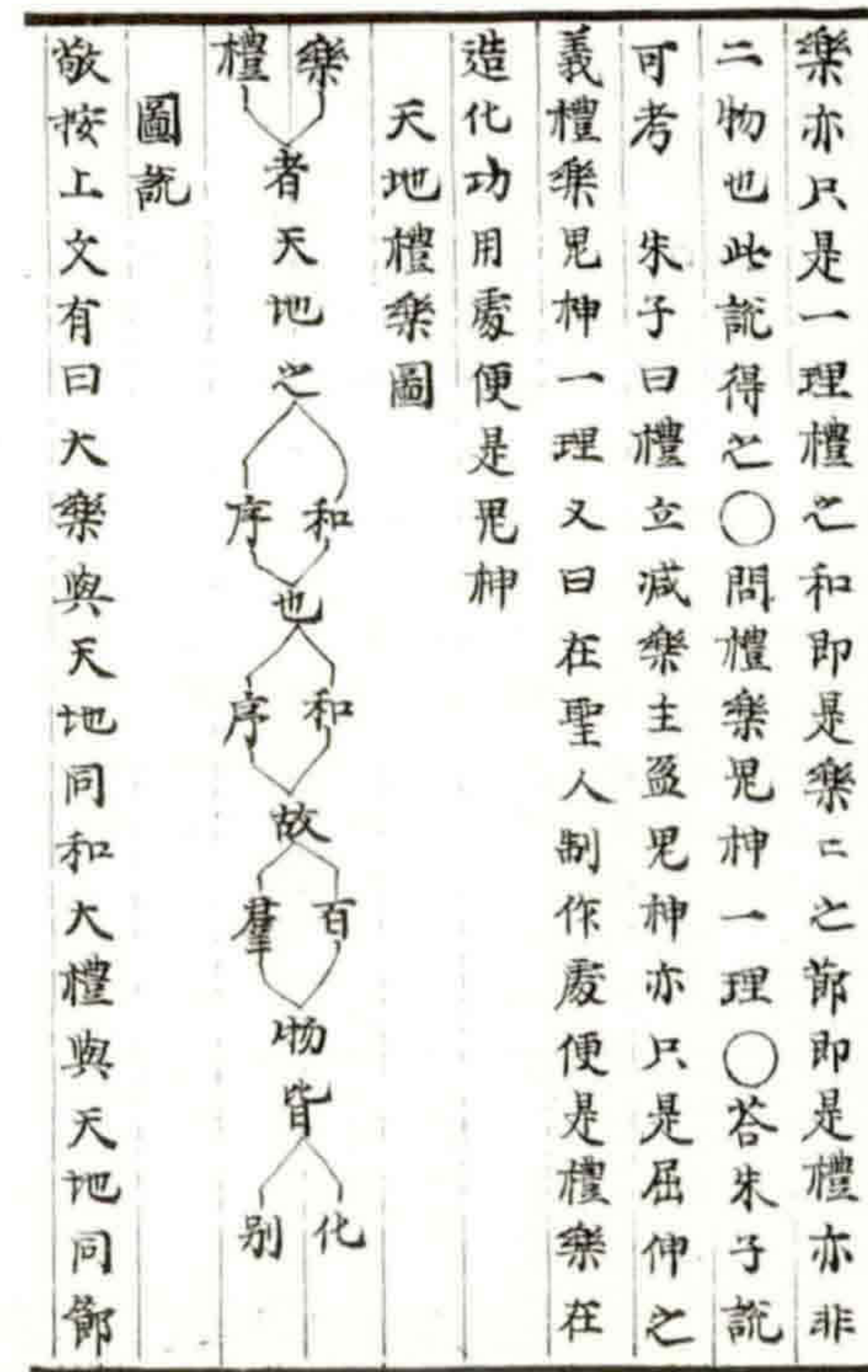
會同矣關者又告曰咸吉道節制使李澄王鍾城府使李耕暉平安道觀察使趙遂良忠清道觀察使安完慶及內官金衍韓崧來矣三問曰李澄至則雖忠然移書野人有楡大金皇帝將定都于五國城在人臣之道詎敢出此不經之說耶李澄王曰余初守富居柵屢立戰功五鎮之役世宗朝置鎮於此尤有功焉當乙亥之變余時為咸吉道觀察使朝廷密遣朴好問輕騎疾代余曰節制重任好問匿聲來代何也遂懲番鄙之事稟甲趁好問營聲言有議事遂擊殺之移書野人者宜有他端只欲人心之附合也設置官屬刻期越江行至鍾城會日暮陷於判官鄭棕之計遂為

寬死詳李綱類編西征錄余之心事金宗瑞知之時金宗瑞獨奇異之三問曰公之心事余豈不知直戲之耳遂皆許入東門關者告曰有行遜者在於門外孝孺曰問其人行遜者曰吾以建文遺臣亂後過峨嶺亭題詩云一箇忠誠九族殃全身遠害亦天常夷齊死後君臣薄力為君王固首陽孝孺聞其詩即開門而迎關者又告曰翰林編修程濟來矣孝孺問曰金川門相失之後不知公之死生今日相逢不亦悅乎程濟曰噫當初洪武戊寅間熒惑守心余時以教諭上書言北方有兵氣期在明年朝廷以余妄言牢囚于獄及期燕兵果至 皇帝捨余為翰林及金川門之失守也從



天理問解小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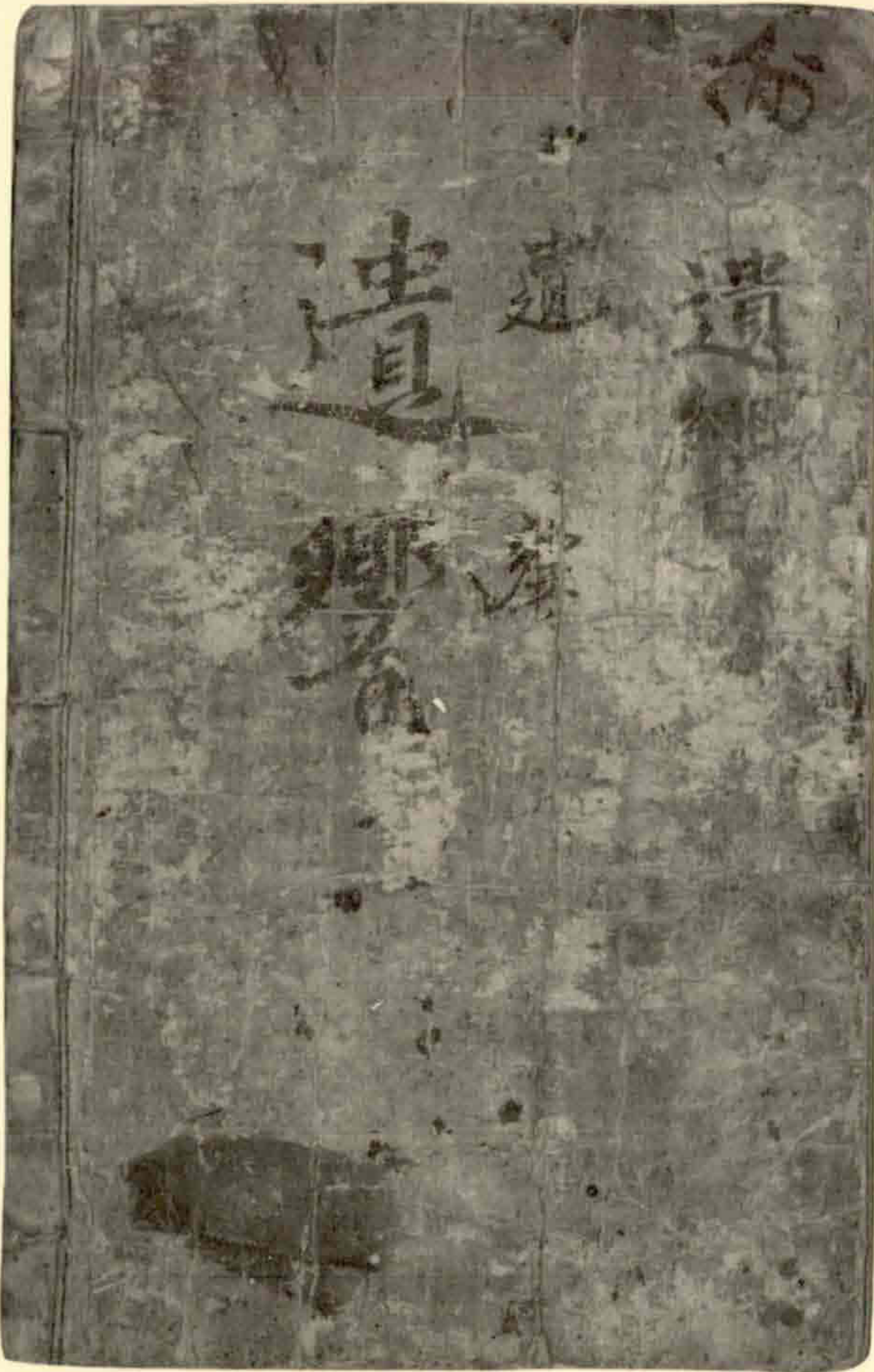
禮者天理之節文是禮也五性之一而同稟於天賦之初而節文斯四者如事親仁事君義是也仁義雖關鍵乎禮而及其節文則反有資於禮先儒所謂禮者性命之成體者正謂此也然則人事之懿則合於理者是禮而禮即天理也天理之在禮所生焉故記曰天高地下萬物散殊而禮制行矣禮制雖有三千三百之散殊而渾合為天理則此非統體一太極乎是以先儒有言曰前聖緒天立極之道莫大於禮信哉言乎走於禮甚生疎如何說到這裏真所謂手不



人不過陽翟大賈且潛娠納秦生政襲位則雖有月令之可補恐不當編次於禮記也○答漢儒之不以人敵其言也○問孟春之月當曰日月會營室而偏言日在營室者何也○答方氏說得之註每一歲而十二會焉日與月會而此獨稱日者蓋陽以成歲為事而陰特從之故以日為主○問昏參中朝尾中皆以星在南方之中為言十二月之星中皆舉此指之歟○答曰然書春言星鳥夏言星火秋言星虛冬言星昴此亦南方之中彼以時言此以月言

四時日星圖

12. 유향(遺響)



유향(遺響)

15×24 1책 85장

유향은 당음(唐音)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원(元)의 양사공(梁士宏)이 당시(唐詩)를 시기별로 구분, 편찬한 것으로 시음(始音) 1권은 왕발(王勃), 양형(梁炯), 노조뉴(盧照紐), 낙빈왕(駱賓王) 등의 작품이고, 정음(正音) 6권은 성당(盛唐), 중당(中唐), 만당(晚唐) 시인(詩人)의 작품이고, 유향 7권은 여러 대가시(大家詩)에 여인(女人)들과 승려(僧侶)의 시까지 합한 것으로 시의 발췌가 구차스럽지 않아 많은 호평을 받았다.

당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연대는 미상이나 1505년(燕山 11년) 5월에 교서관(校書館)에 명하여 당음을 간행하게 한 기록으로 보아 오래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소화하기

어렵다하여 오언절구(五言絶句)만을 뽑아 가르치기를 많이 하였다.

우리나라 시의 사조(思潮)는 송시(宋詩) 중에서도 주로 동파(東坡) 소식(蘇軾)의 시풍(詩風)을 따랐었는데, 사암(思菴) 박순(朴淳)이 당시(唐詩)의 우월함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시풍의 전환점이 된 바, 그 대표적 작가로 손곡(蓀谷) 이달(李達),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 기봉(岐峯) 백광홍(白光弘)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세칭(世稱) 삼당시인(三唐詩人)이다.

이 책의 특징으로는 주(註)를 달고, 그 밑에 다시 국한문 혼용 해설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책 위에 “전라 명필 김아무개가 자월에 쓰기 시작하여 축년에 마쳤다.(全羅名筆金某書始子月終於

喜賦辭佳永乾
 石先如鏡映清
 香齋學法
 贏得幾德林枝瘦
 真珠百斛去誰收

全罪名筆公 恭書 始子月 終於丑年

傳之無窮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行路難

賀蘭道明

行路難者賢士遇君之路難也遇君之難有似乎婦人久別其夫而難遇故以婦人之怨思為比而蘇軾之下皆做此

君不見門前柳
 榮輝幾時蕭索久

喻人之易老

君不見門前柳已不見古詩云榮輝明則蕭索喜則榮輝也

又不見陌上花
 狂風吹去落誰家

與上句同意上下句為對謂之

陌上花是上句外時下句狂風吹去言下辭家

隣家思婦見之歎
 蓬頭不梳心歷亂

孰不恨老而思夫之心尤切蓋夫過其夫容色比老故也詩曰首如飛蓬

隣家思婦古詩云思婦蓬首如飛蓬

盛年夫婿長別難
 歲暮相逢色凋換

少時久別其夫時雖相逢而色已凋則惟心小矣奈何前君子志後學遇君精力衰亦難行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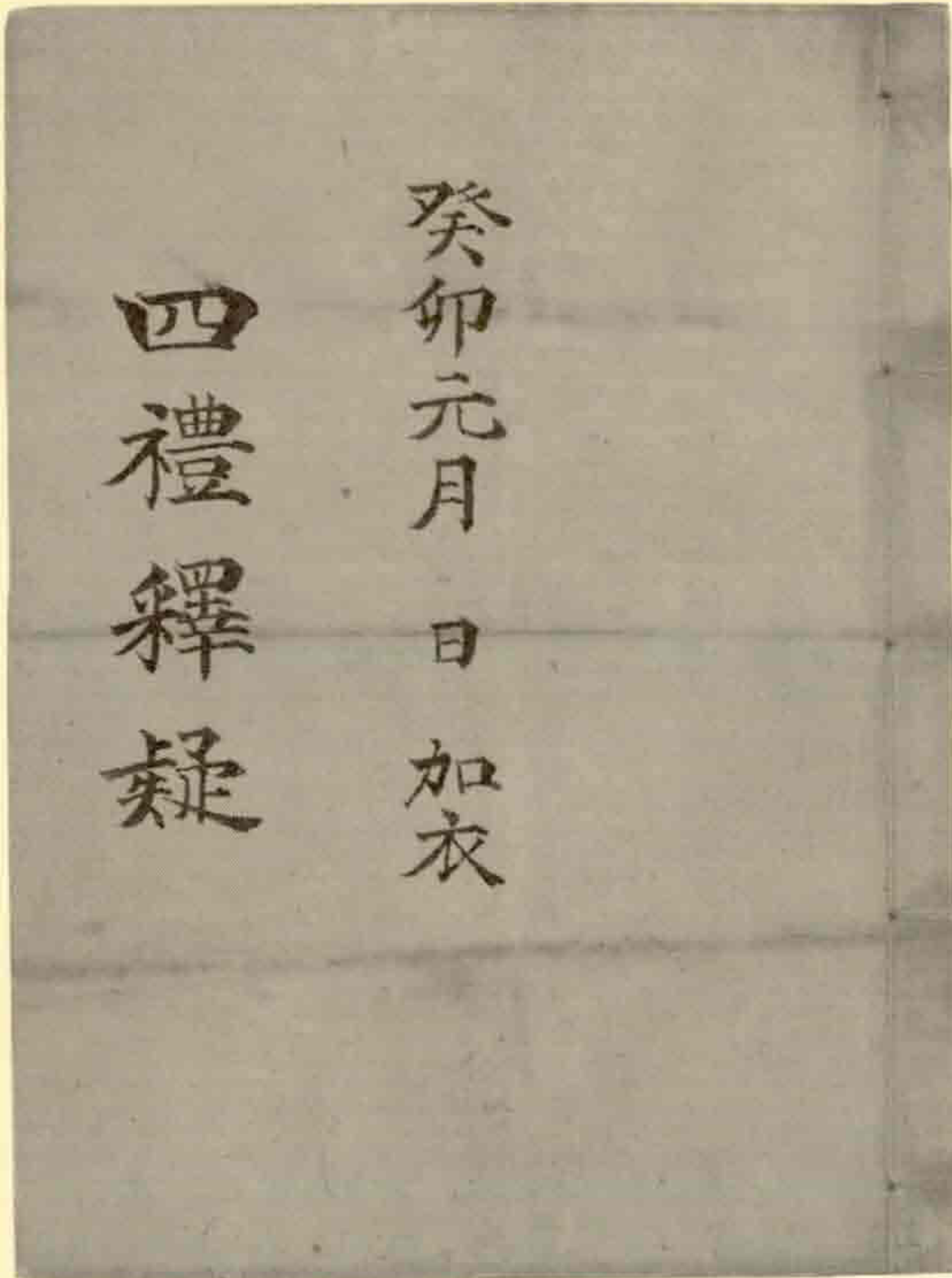
盛年夫婿長別難色凋換

丑年”고 쓰고, 밑에 아무개의 책(冊)이라고 썼다가 다시 이름을 지워버렸다.

다음에 또 “무궁토록 전해가라(傳之無窮)”라 써놓고 “이세, 삼세, 사세, 오세, 육세(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이렇게 써 둔 것을 볼 수 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사암 선생께서 좋아하셨던 당시(唐詩)가 명필의 손을 빌어 방손(傍孫)의 세전보물(世傳寶物)이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듯하다.

13. 사례석의(四禮釋疑)



사례석의 四禮釋疑

23x30 1책 73장

사례석의는 관혼상제(冠婚喪祭) 사례(四禮)에서 의심(疑心)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례를 문답식으로 기술한 것이다.

화계(華溪) 박상석(朴尙錫)이 아들들에게 쓰면서 익히게 하기 위하여 책을 펴놓고 들며나며 필사(筆寫)하게 하니 1963년(癸卯)의 일이었다. 뒤에는 영지(影紙)가 보인다.

冠禮	婦子婦	師友服	合葬	禘祭	納後	蒸祭	時祭
禮	婦人	改葬	禘祭	祭	祭	祭	忌日
喪禮	喪	權葬	禘祭	祭	祭	祭	忌日
喪	喪	虛葬	禘祭	祭	祭	祭	忌日
入棺	喪	題主	禘祭	祭	祭	祭	忌日
成服	喪	返哭	禘祭	祭	祭	祭	忌日
並有喪	喪	虞辛夷	禘祭	祭	祭	祭	忌日
代喪	喪	耐祭	禘祭	祭	祭	祭	忌日
奠後	喪	練祭	禘祭	祭	祭	祭	忌日
收養	喪	大祥	禘祭	祭	祭	祭	忌日

冠禮

問冠禮三加既未能統用吉禮則當用何冠服耶沙溪曰無幅巾則以程冠為初加笠子為再加儒巾為三加未知何如

問將冠而遇喪則如之何沙溪曰禮記曾子問曰將冠子冠者聞齊衰大功之喪如之何孔子曰內喪則廢外喪則冠而不醴即位而哭如冠者未至則廢註冠者賓與贊禮之人也若是大門內之喪則廢而不行喪在他處則可以加但三加而止不醴之乃即位而哭又禮曰將冠子而未及期日而有齊衰大功之喪則因喪服而冠註齊衰以下可因喪服而冠軒衰不可雜記曰以喪冠者雖三年喪可也云云當酌古參今做而行之耳

所由後神主亦設

問出緇在於小祥前則當於小祥日緇而大祥日除服耶抑以出後日為制服之始耶荀子以為出後晚異於聞喪晚稅服也應以七月為固不當以出後日為制服始此說如何沙溪曰當以出後日為制服之始雖過小祥後緇後亦當更制二十五日之服通典中司馬標之言父子之命於受命之辰加崇之恩起於辭親之日假令練後出緇被喪雖殺我重始更制遠月於義何偏云此可為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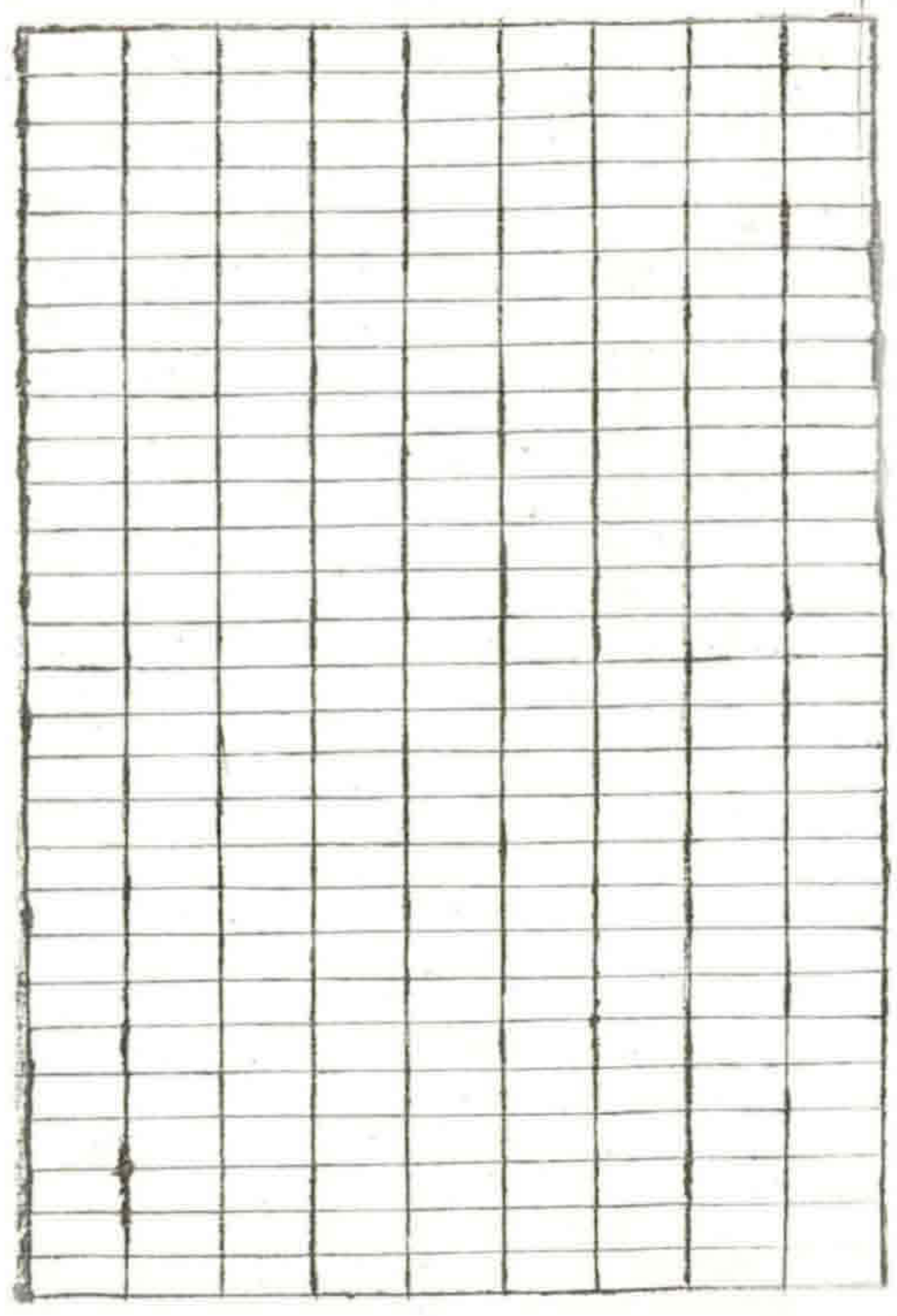
問為人後者在所後父喪聞生母喪奔喪則在途當服何服耶沙溪曰在途只以斬衰服行而至彼行喪服之禮似可蓋重喪遭喪則當其

矣

入棺

問世俗必於棺內厚填衣服高出棺上加蓋之際不其未安歟澤堂曰世俗於棺內厚填衣服加蓋之際猶五六寸或令數十人登踏或狹木智司而後方得合蓋此必有背摧腸陷之患矣貧家衣服多者綿絮雖不妨一二寸厚厭貴家則衣服皆單挾錦段豈以厚厭而分寸減殺也其意本欲行喪防翻尸乃歸於毀尸之慘俗習之謬至此可痛

問冬月死者以槨裹棺然後可免屍凍之患否澤堂曰冬月死者俗制必以厚槨裹棺然後細切草埋棺以丘以防尸凍也余嘗疑其不然不免



室者皆服本服而不當降也惟子以下不敢床則否沙溪曰凡服相報長子於童子已遞減其服則童子於長子亦遞減以報似當

問禮袒父母喪女雖適人不降以此推之於祖父母亦當不降也其在兄弟諸父之喪則隨其年遞減月教恐為得之未知如何愚伏曰遞減月教之亦恐不當有知則有哀、則有服何可以己之年少減月教耶沙溪曰祖父母曾祖父母依女雖適人不降之義童子似亦不降也

問童子未冠者世俗例加首經可乎愚伏曰童子首經禮無所據不服首經可也寒暄曰禮有童子不杖之文而無不經之文沙溪曰經首象緇巾之項也童子未冠何結項之有守或以為婦人雖未冠有經童子亦當有經然婦人經固有明文童子之經不見諸書恐不當經也

14. 동사촬요 하(東史撮要 下)



동사촬요 하 東史撮要 下
20.4×22.5 1책 48장

황서(黃鼠=戊子) 청룡(靑龍=甲辰) 백마일(白馬日=庚午日) 조양재(朝陽齋) 간필(看畢)이라 쓴 것을 보면 동사를 쓴 이가 누구인지 모르나 조양재 주인이 감수를 해 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상권(上卷)이 따로 있었는지 또는 상중(上中) 2권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

또 말미(末尾)에는 동사촬요 하종(東史撮要 下終)이라 쓰고, 적서(赤鼠=丙子) 계하(季夏=6월), 획린(獲麟) 아무 서(書)라 한 것으로 보아 획린이 써서 13년 만에 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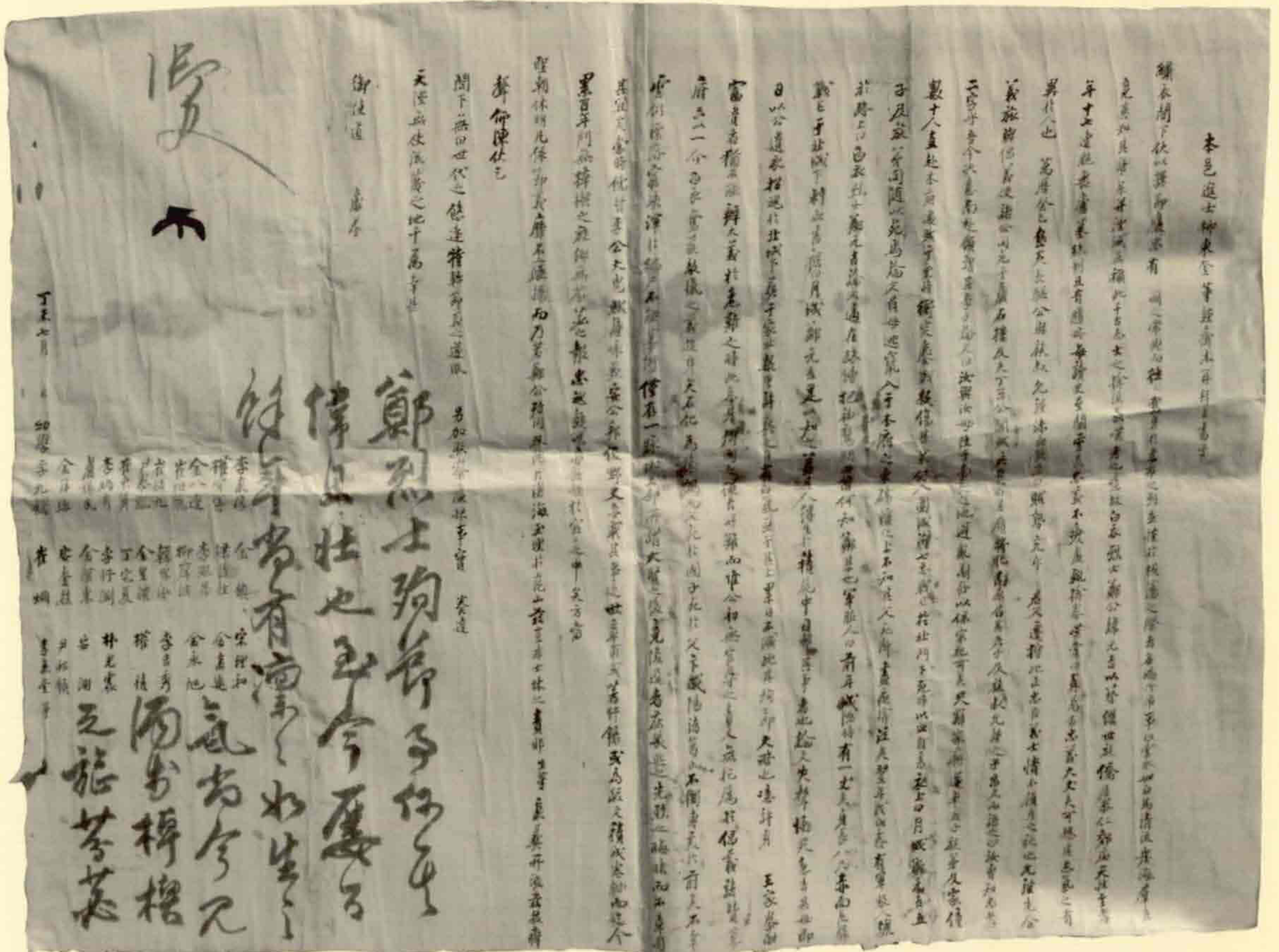
이 책은 정종공정대왕 말(定宗恭靖大王 末)부터 시작하여 숙종현의대왕(肅宗顯義大王)까지의 역사서로 21cm×21cm 한지 48장으로 되어 있다.

앞 속 가의(加衣)에는 “국가지흥폐존망(國家之興廢存亡)이 재어인륜지명불명(在於人倫之明不明)하니 가불심신여(可不審慎歟)야”하고 우포(又圃)라 호를 썼다. 이는 ‘국가의 흥폐존망이 인륜의 밝고 밝지 못한 데에 있으니 살피어 조심하지 않으랴!’ 하는 우포의 글씨이다.

또 뒷 가의 안쪽에는 “동방(東邦)은 예의 최성재(禮義 最盛哉)인지 문물소명 요당(文物昭明堯唐)”

15. 청원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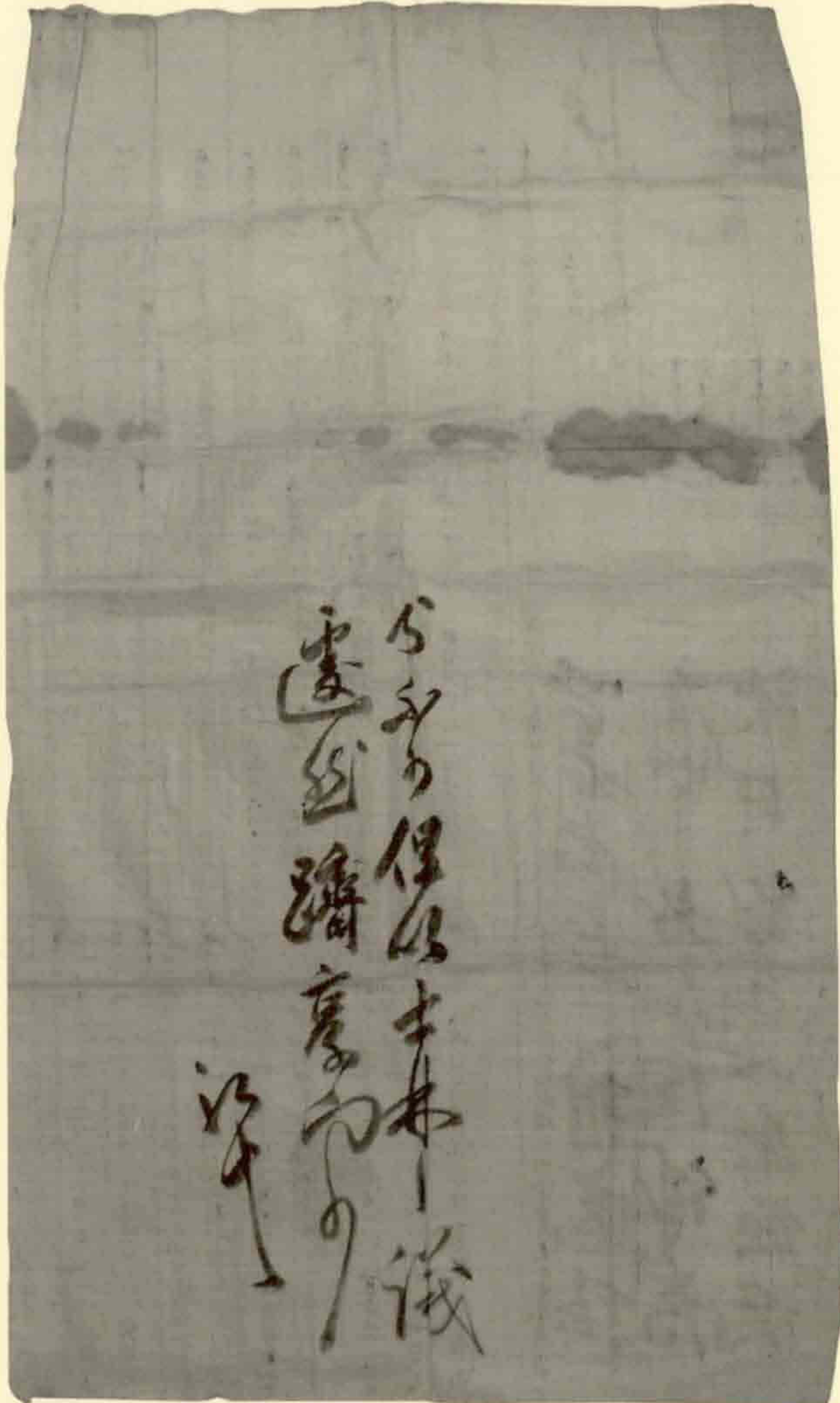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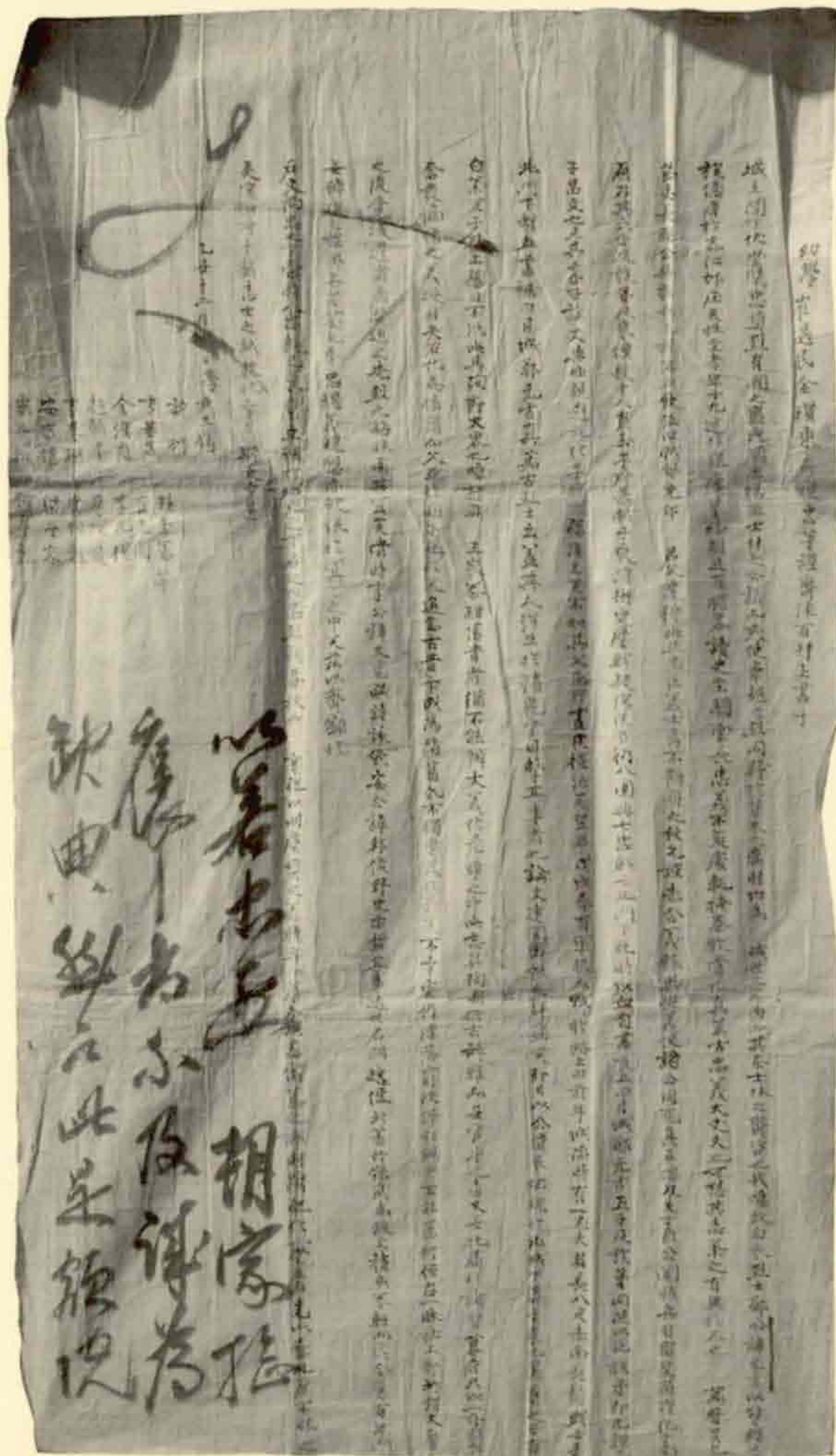
정미(丁未)년(조선 헌종 13년, 1847, 추정) 7월에 남원유생(南原儒生) 진사(進士) 류동규(柳東奎) 등 32인의 연서(連書)로 어사(御史)에게 올린 등장(等狀=陳情書)으로 선조(宣祖) 30년 정유재란 때 남원 전투에서 전사(戰死)한 열사(烈士) 정원길(鄭元吉) 등의 충절(忠節)에 대해 표창해 줄 것을 청원(請願)하는 문서이며 어사는 판결문을 통해 정원길 등의 충절을 가상히 여김과 동시에 임금에게 직접 청원(임금이 다니는 輦路에 와서 진정함)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권유한 것이다.



Handwritten text in vertical columns on aged paper. The text is written in a cursive style. The right side contains several columns of text, including the characters '國' and '家'. The left side contains a signature and a date, likely '壬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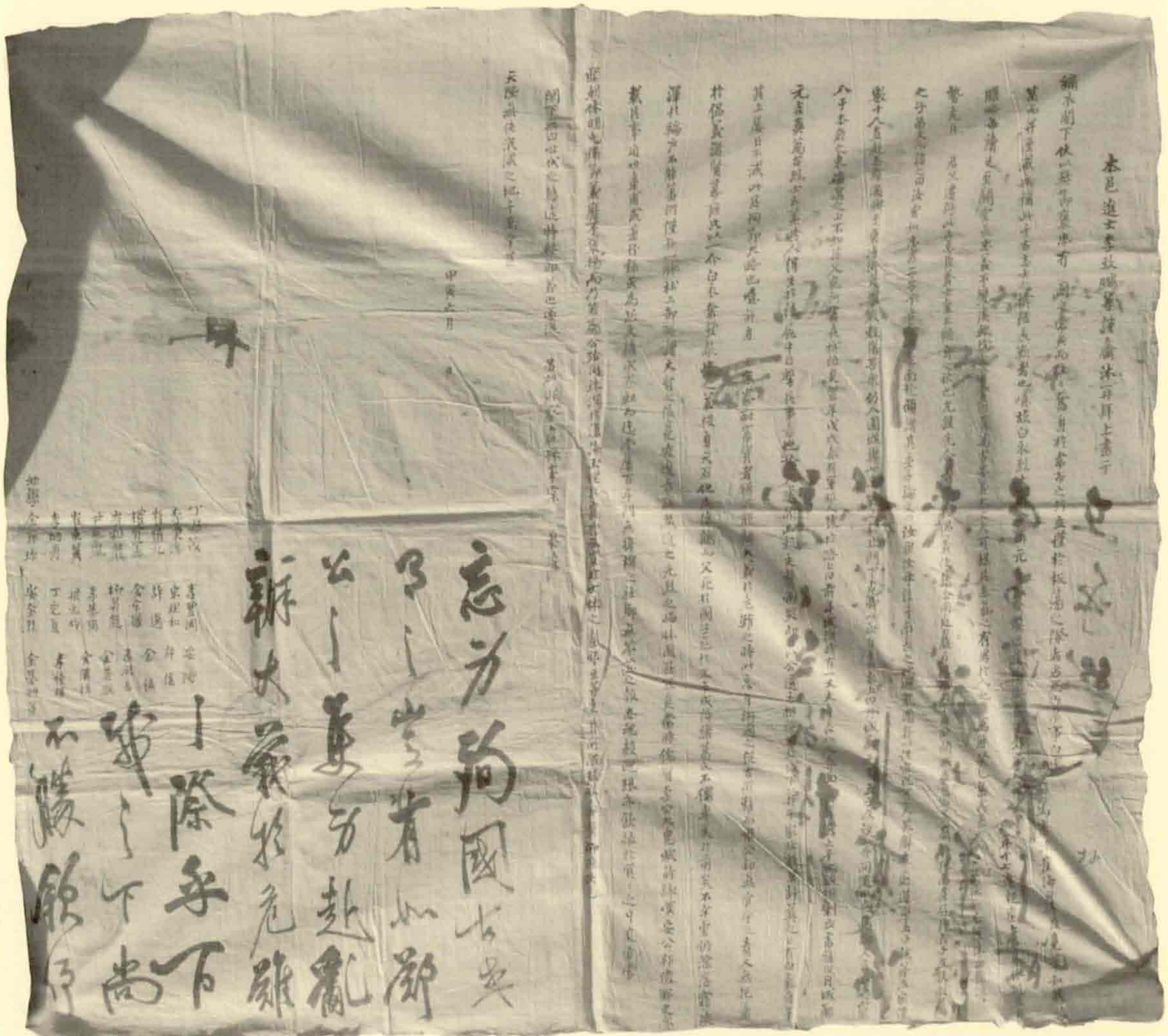
청원문(2)

을축(乙丑) 12월에 유학(幼學) 최우민(崔遇民) 등 18인이 성주(城主)에게 올린 진정서로 백의 열사(百衣烈士) 정원길(鄭元吉)의 정려(旌閭)와 사당(祠堂)이 없어 충혼의백(忠魂義魄)이 명명지중(冥冥之中)에 음한(飲恨)하리니 충열사(忠烈祠)에 제배(躋配)토록 해 달라는 요지이며, 성주는 비답(批答)에서, “결전(缺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청원은 불가(不可)하니 다만 사림(士林)의 의논으로 빨리 제향(躋享)할 일이다.”라고 하였다.



청원문(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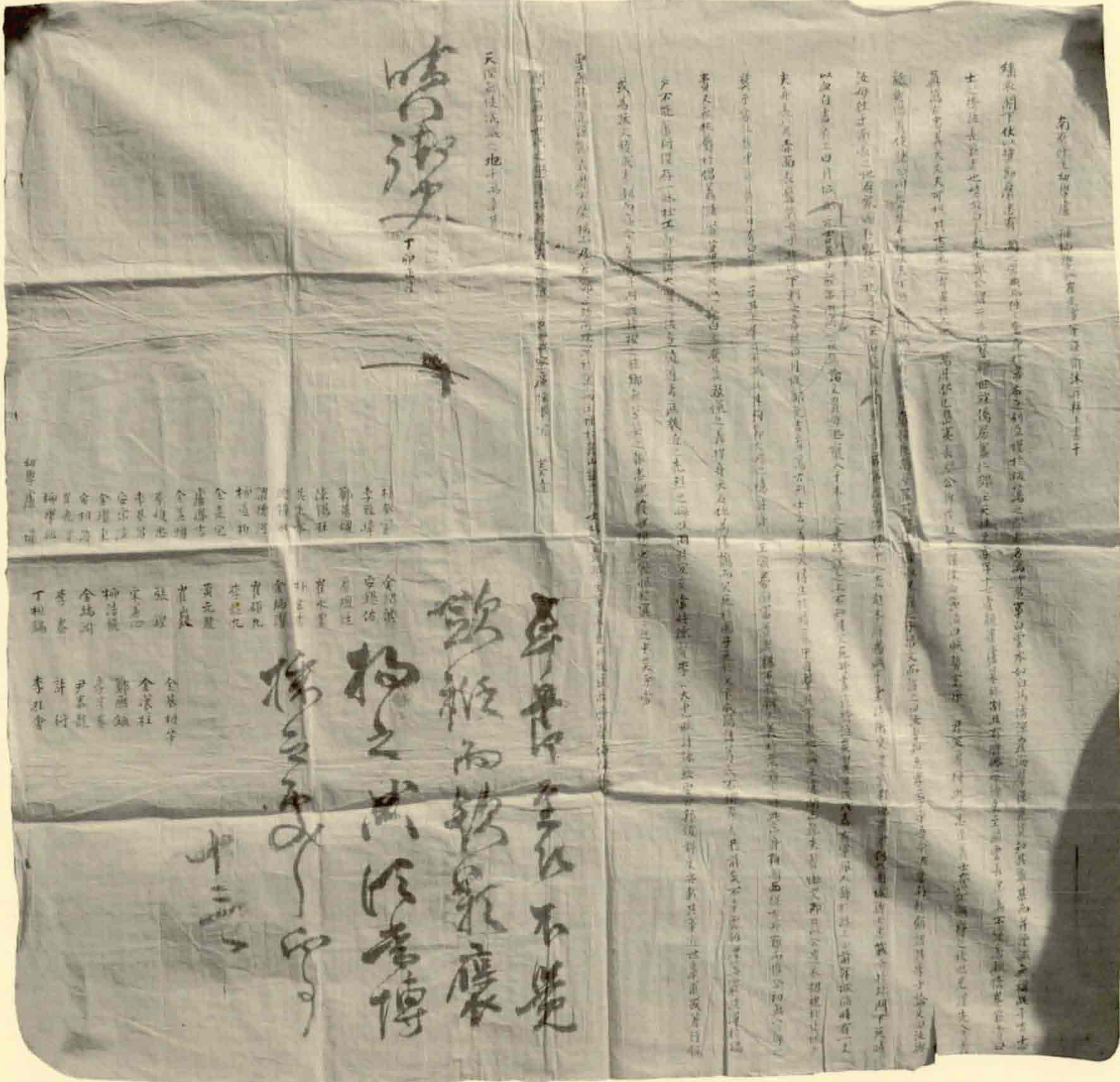
갑인(甲寅) 6월에 남원 진사(進士) 이치봉(李致鵬) 등 26인이 어사(御史)에게 올린 등장(等狀)으로 백의열사(白衣烈士) 정원길(鄭元吉)의 순국사실(殉國事實)을 널리 캐어 임금에게 주달(奏達)하여 묻혀지지 않게 해 달라는 내용이며, 어사(御史)는 비답(砥柱)하기를, 정공(鄭公) 같은 대의(大義)가 옛날 인물 얼마나 있겠는가! 흠앙(欽仰)해 마지않는다고 하였다.



청원문(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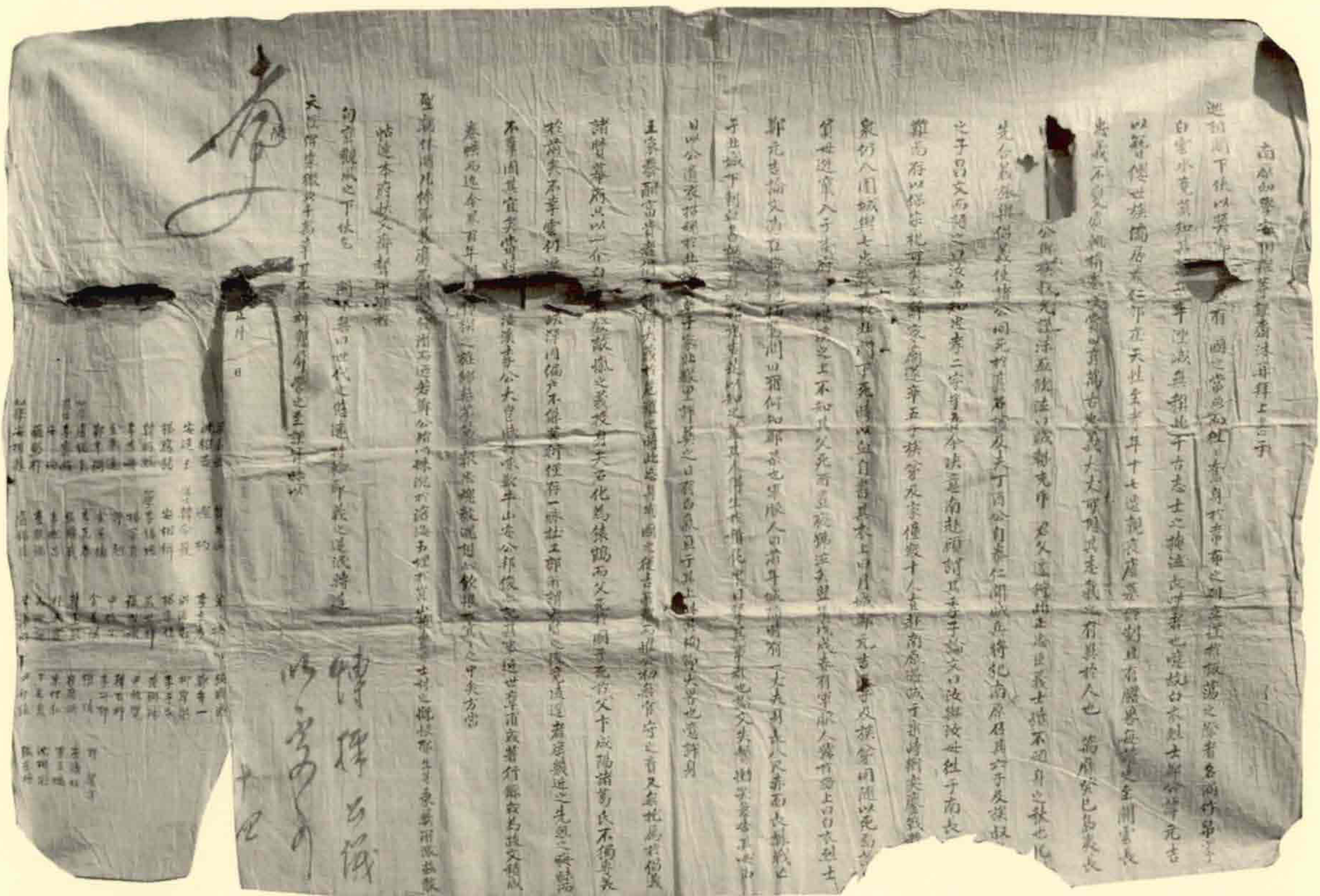
정묘(丁卯) 1월에 남원 유생(儒生) 유학(幼學) 노용(盧壩) 등 42인이 연명(連名)으로 어사(御史)에게, 정원길(鄭元吉)의 충절을 세대(世代)가 오래되었다고 하지 마시고 임금에게 주달(奏達)하여 민멸(泯滅)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올린 글이며, 어사는 답하되,

“높은 절개를 옷깃을 여미고 흠탄(欽歎)하며 포양(褒揚)하는 전(典)은 마땅히 널리 캐어 처리할 일이다.” 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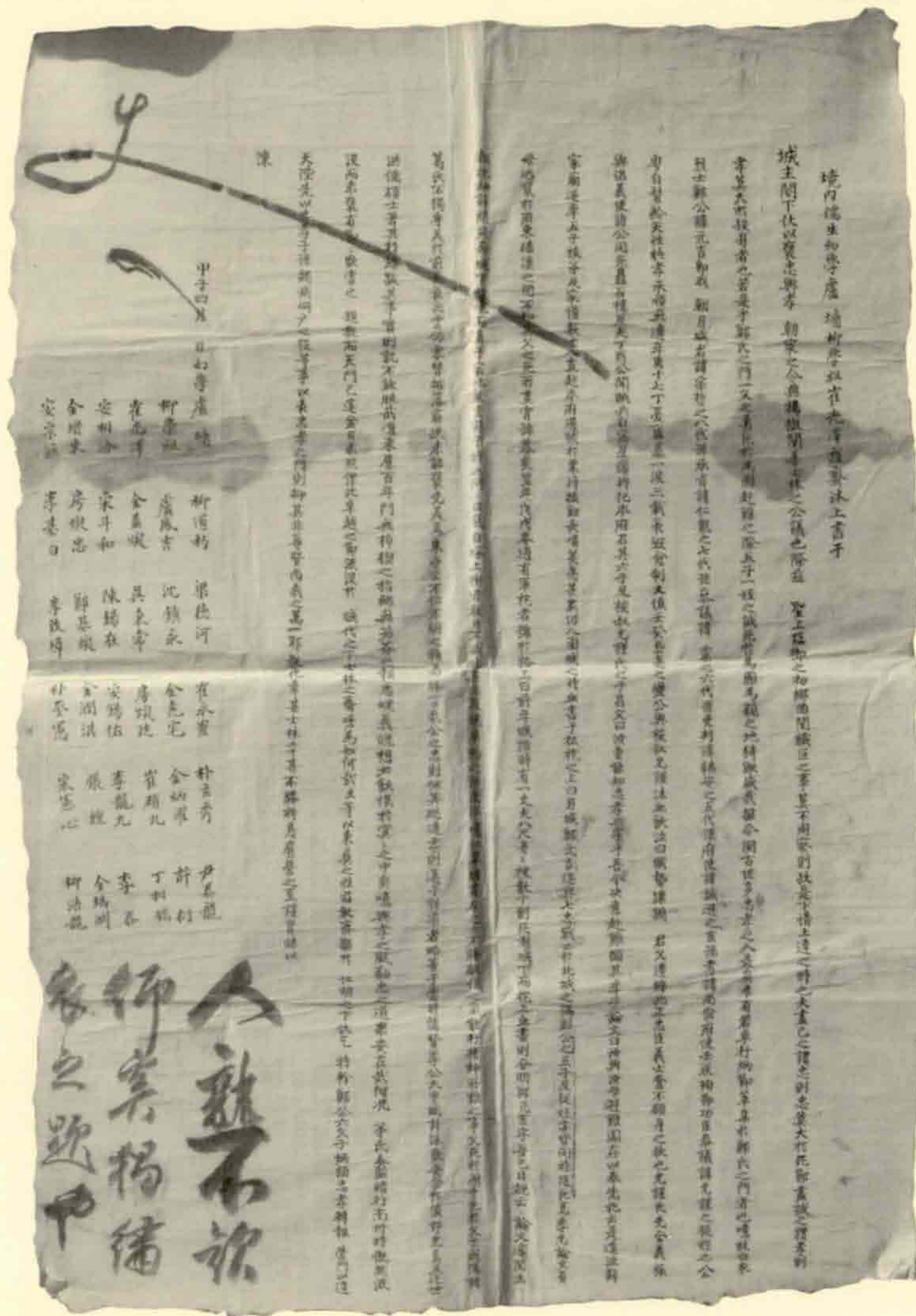
청원문(5)

○○ 정월(正月)에 남원 유학(幼學) 안상정(安相鼎) 등 56인이 연서(連書)하여 순상(巡相)에게 올린 진정서(陳情書)로 백의열사(白衣烈士) 정공(鄭公) 휘(諱) 원길(元吉)이 순국(殉國)한 지 수백 년이 지나도록 문(門)에는 정려(旌闥)가 없고 고을에 사당(祠堂)이 없어 충혼의백(忠魂毅魄)을 보답할 길이 없으니 임금에게 전달(轉達)하여 휘전(徽典)을 받게 해 달라는 내용이며 순상은 비답(砥答)을 통해, “널리 공의(公議)를 캐어 처리함이 가(可)하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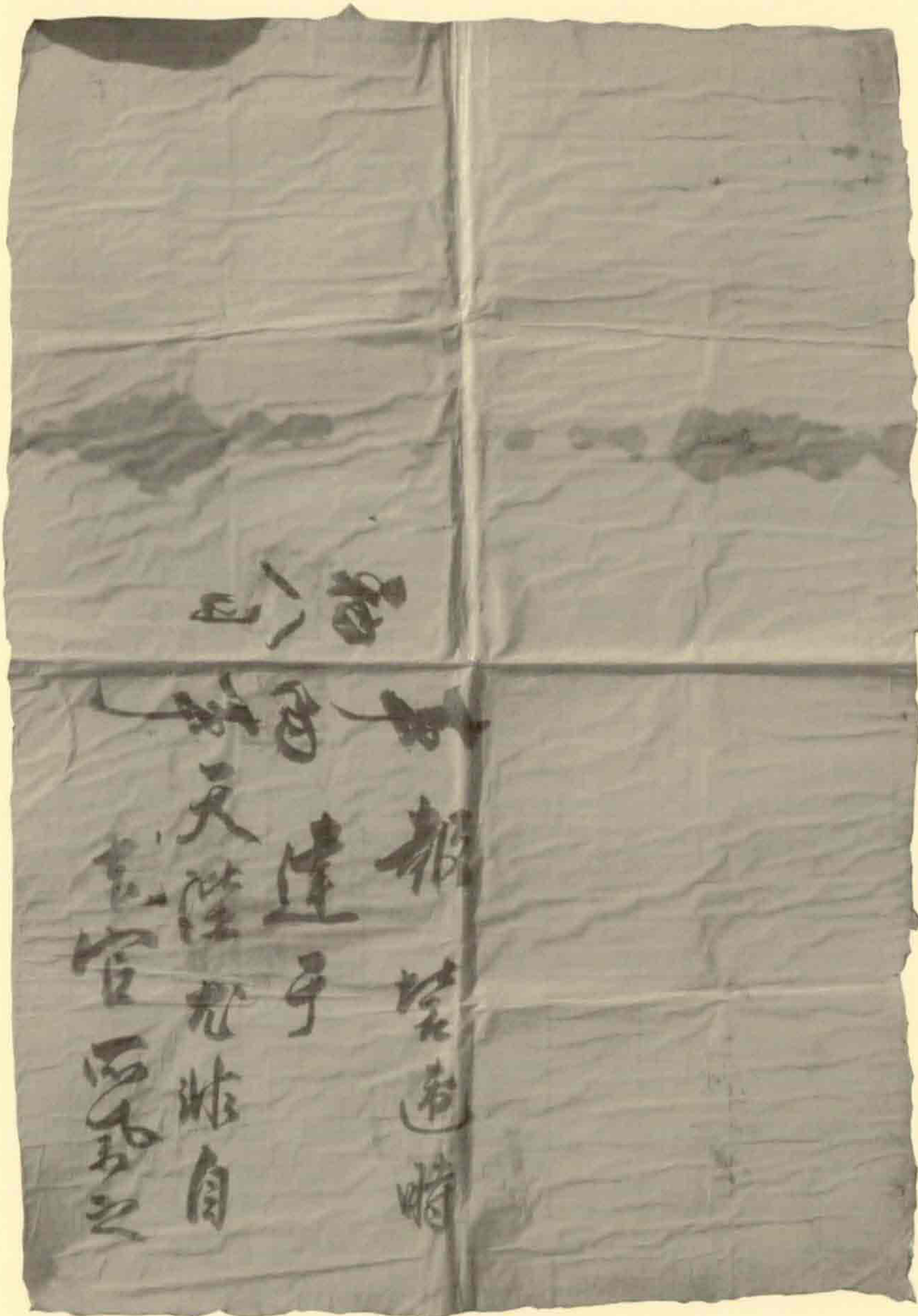
청원문(6)

갑자(甲子) 4월에 경내유생(境內儒生) 유학(幼學) 노용(盧壩) 등 36인이 성주(城主)에게 올린 진정서로 임금께서 임어(臨御)하신 처음을 즈음하여 향곡간(鄉曲間) 작은 일이라도 두루 살피시니 바로 하정(下情)을 상달(上達)할 때이니 백의열사(白衣烈士) 정원길(鄭元吉) 6부자의 충절을 영문(營門)에 전달(傳達)하여 임금님께 아뢰어 충효자손(忠孝子孫)에게 부역(夫役) 등의 일을 감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며, 성주는 답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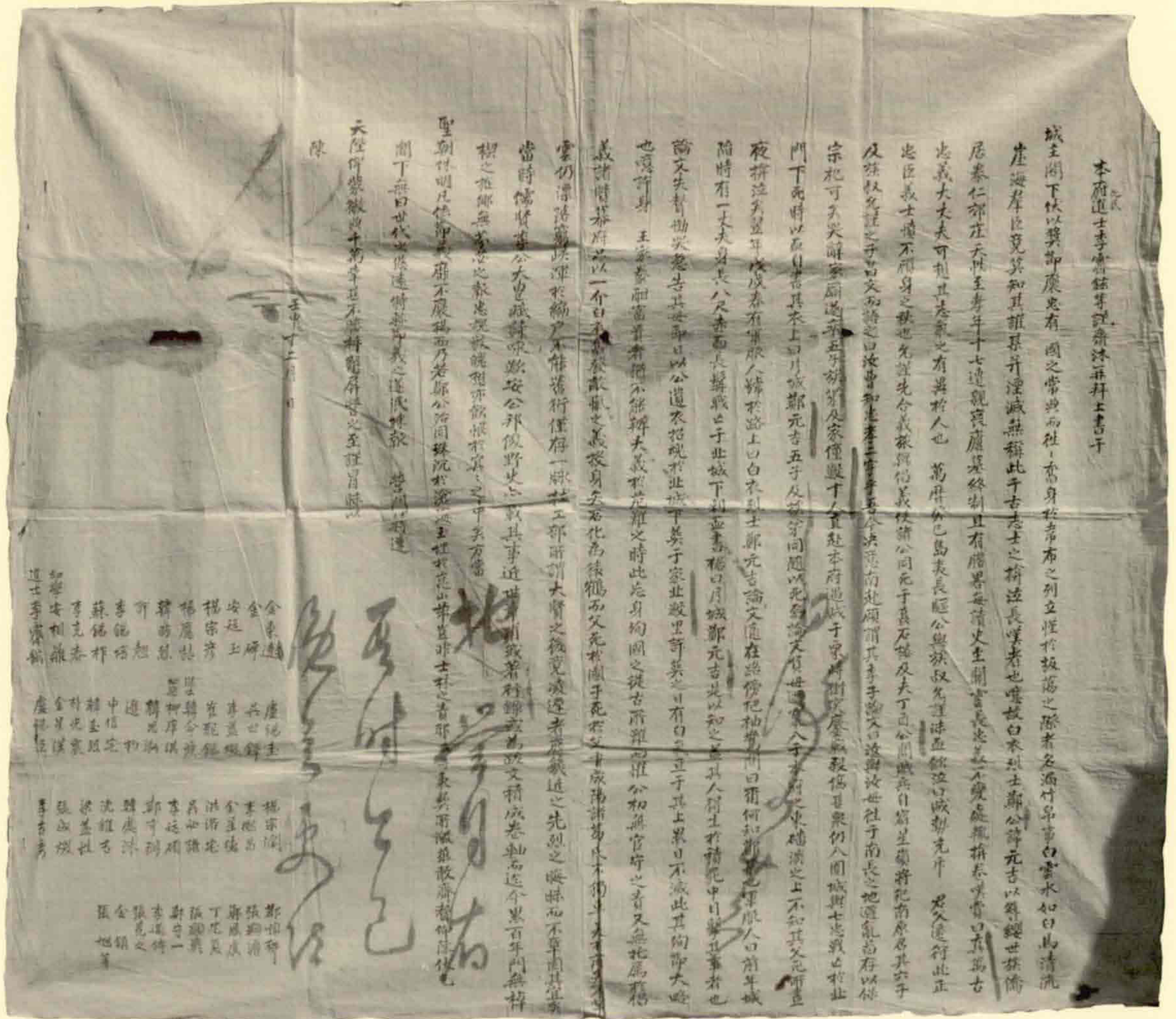
“뉘가 흠앙(欽仰)하지 않으리요, 어찌 홀로 어사(御史)의 제(題)이겠는가!”

그러나 영문(營門)에 보고할 때가 어긋났는데 임금님께 품달(稟達)하기는 더욱 본관(本官)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청원문(7)

임신(壬申) 12월에 본부화민(本府化民) 진사(進士) 이제현(李霽鉉) 등 47인이 성주(城主)에게 올린 진정서로 백의열사(白衣烈士) 정원길(鄭元吉) 등의 충절(忠節)을 당시 유현(儒賢)李大胄(李大胄)가 시(詩)로 읊고 안방준(安邦俊)이 야사(野史)에 실었으며 근세 선비들이 행록(行錄) 발문(跋文)을 지어 책이 되었는데 수백 년이 되도록 정려(旌閭)와 사당(祠堂)이 없어 충혼의백(忠魂毅魄)이 상상컨대 음한(飲恨)하여 휘전(徽典)이 내리도록 해달라는 청원이며, 성주는 비답(砥答)에서, “세월이 그 때가 있는 것이니 지금은 이미 늦었다. 다시 일후(日候)에 청하도록 하라.” 하였다.



청원문(8)

정사(丁巳) 12월에 본읍진사(本邑進士) 이치봉(李致鵬) 등 22인이 어사(御史)에게 올린 진정서로 열사(烈士) 정원길(鄭元吉) 등의 충절(忠節)을 임금님께 주달(奏達)하여 묻혀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請願)이며, 어사는 비답(砥答)을 통해,

“분발적개(奮發敵愾)한 대의(大義)는 듣자니 머리가 쭈뼛거리고 소름이 돋는데, 현회(顯晦)가 운수(運數) 있는 것이니 선비들이 감절이나 힘을 쓰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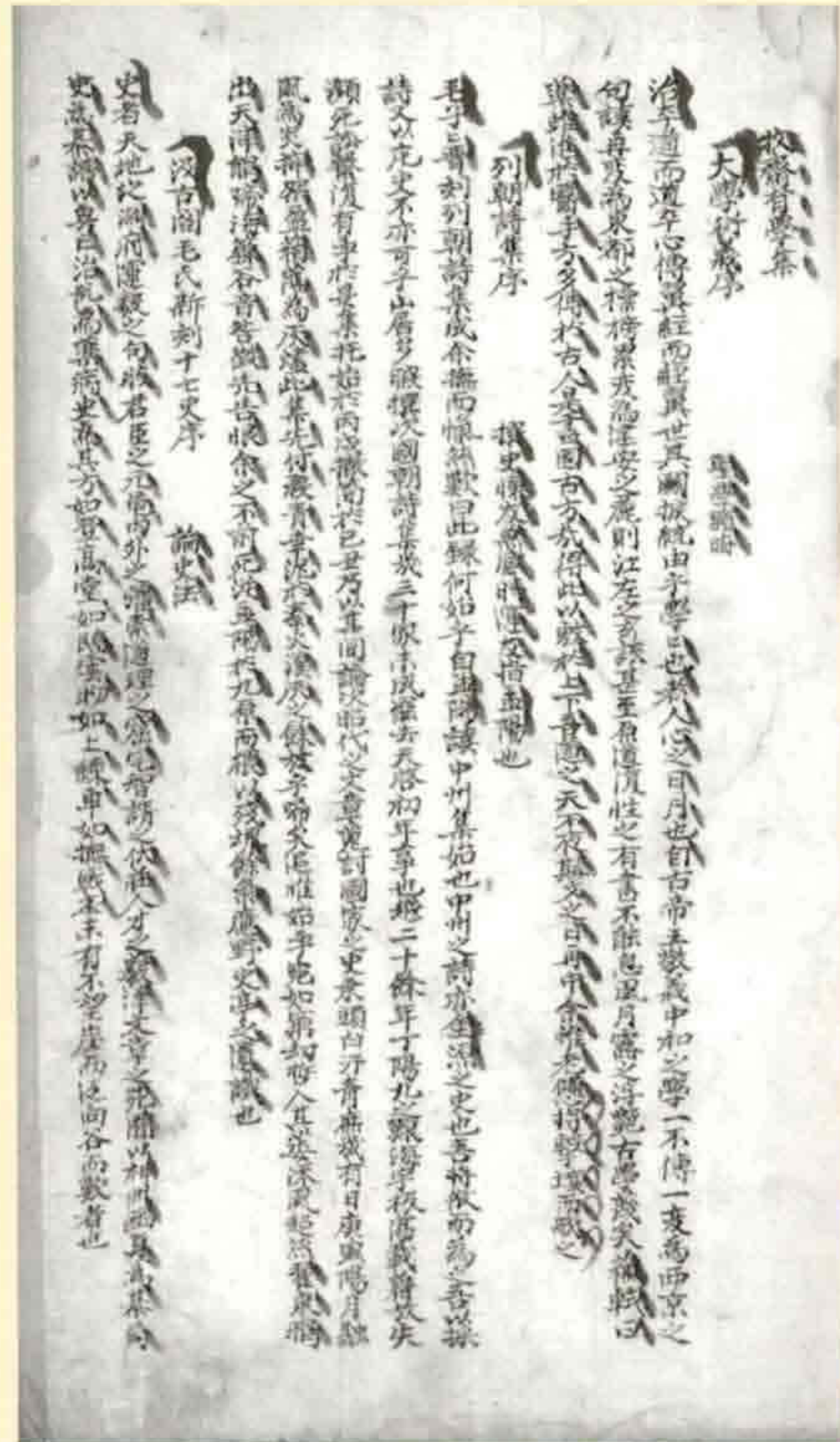
공(公)이 가신 지 수백 년이 흘러 2008년에 드디어 남원 충열사(忠烈祠)에 모시게 되어 천추(千秋)의 한(恨)을 풀게 되었다.



16. 목재초(牧齋抄)



목재초 牧齋抄
15×23.5 1책 62장



목재문집(牧齋文集) 중에서 뽑은 책.

성(姓)은 전(錢), 명(名)은 겸의(謙宜), 자(字)는 수지(受之). 중국 명(明)나라 말 인물이다. 태학사(太學士)로 갑신변(甲申變) 후에 절간에 몸을 위탁하여 1663년 청(淸) 강희 계묘(康熙癸卯)에 80여 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고, 이 책은 1685~1686년간에 간행되었는데 이미 1664년에 범양(范陽) 추전(鄒鐫)이 서문(序文)을 쓰면서 집대성(集大成)한 것을 내세웠다.

이 책은 서(序), 발(跋), 제(題), 서(書), 기(記), 설(設), 전(傳), 인(引), 소(疏) 등이 실려있는데, 수사(手寫)한 이는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깨알처럼 정성껏 쓰고 일일이 타점(打點)해가며 독공(篤工)한 흔적이 경탄(驚嘆)을 금치 못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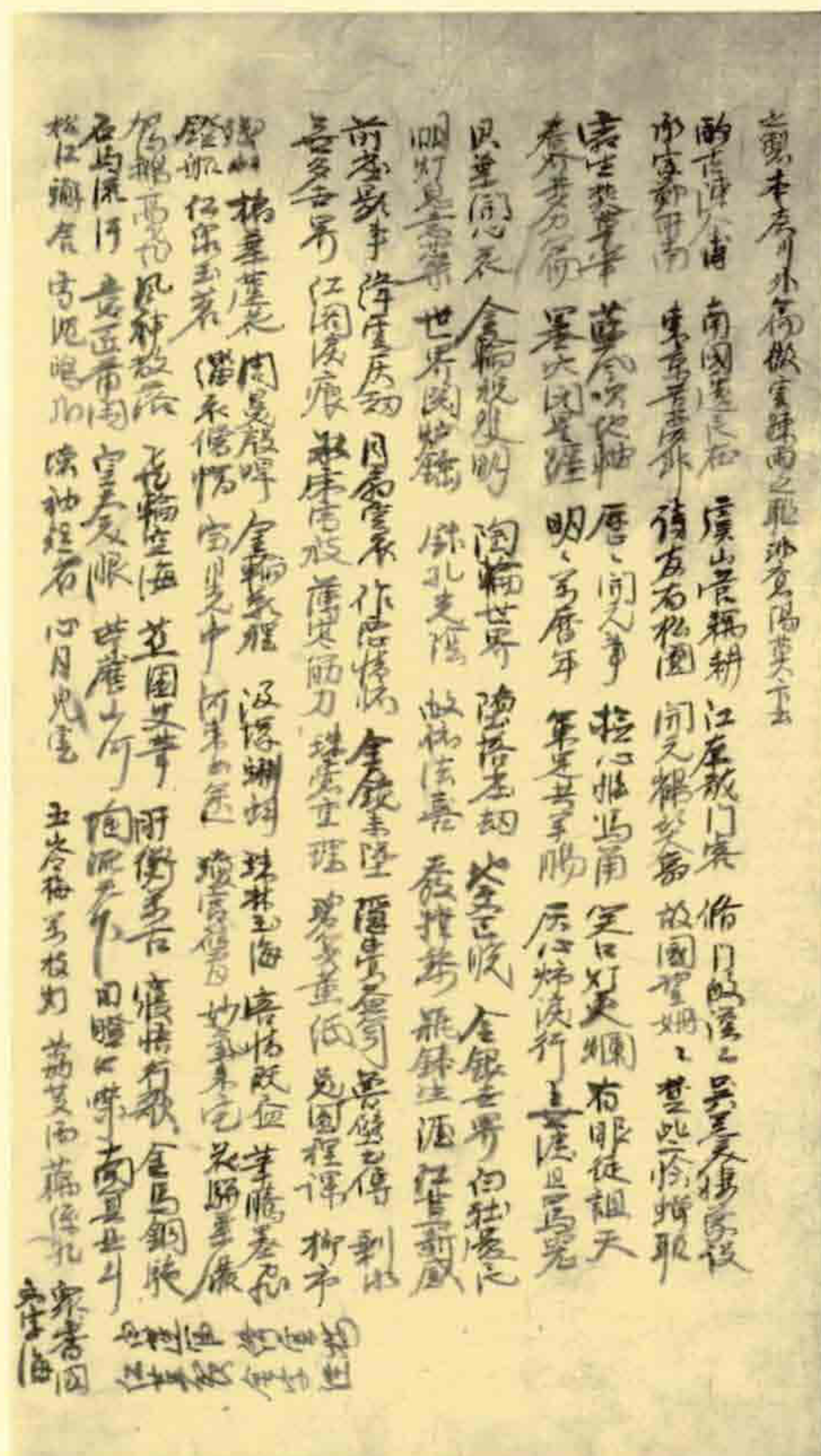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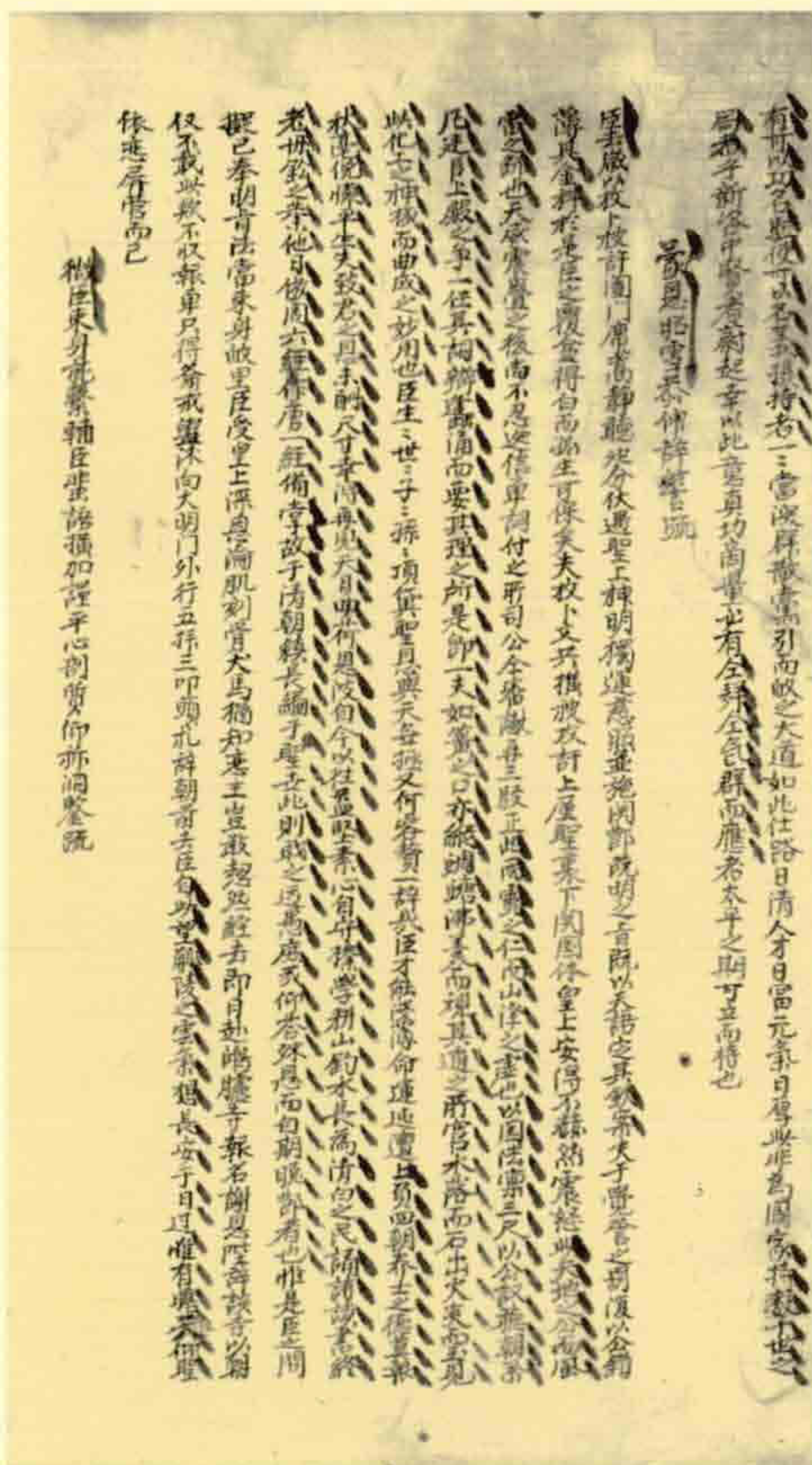
성학현회(聖學顯晦)를 논한 대학연의서(大學衍義序)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

다스림은 도(道)에 근본하고 도는 마음에 근본하며, 전(傳)은 경(經)을 돕고 경은 세상을 돕는 것이니 그 관련됨이 모두 학(學)으로 연유하나니 학이란 인심(人心)의 일월(日月)이다. 예로부터 제왕(帝王) 경의 중화(敬義中和)의 학이 하나도 전해지지 않으니, 한 번 변하여 서경(西京)의 구두(句讀)가 되고 두 번 변하여 동도(東都)의 표방(標榜)이 되고 여러 번 변하여 건안(建安)의 여칙(麗則)과 강좌(江左)의 현담(玄談)이 되며 심지어 원도복성(原道復性)의 글이 나와 풍월(風月)이 부염(浮艷)해 마지않으니 고학(古學)이 없어졌도다.

소식(蘇軾)이 말하기를,

“약이 비록 의사 손에 가지만 처방은 고인(古人)에게 많이 전했으니 이 책이 진실로 옛 처방인저!

이를 얻어 상하(上下)에 퍼면 오도(吾道)의 하늘이 어둡지 않고 사문(斯文)의 태양이 다시 맞으리라. 나는 늙고 고달파 장차 농사나 지으리라.(將擊壤而之)” 하였다.



17. 양사재 답세 봉책(養士齋畚稅捧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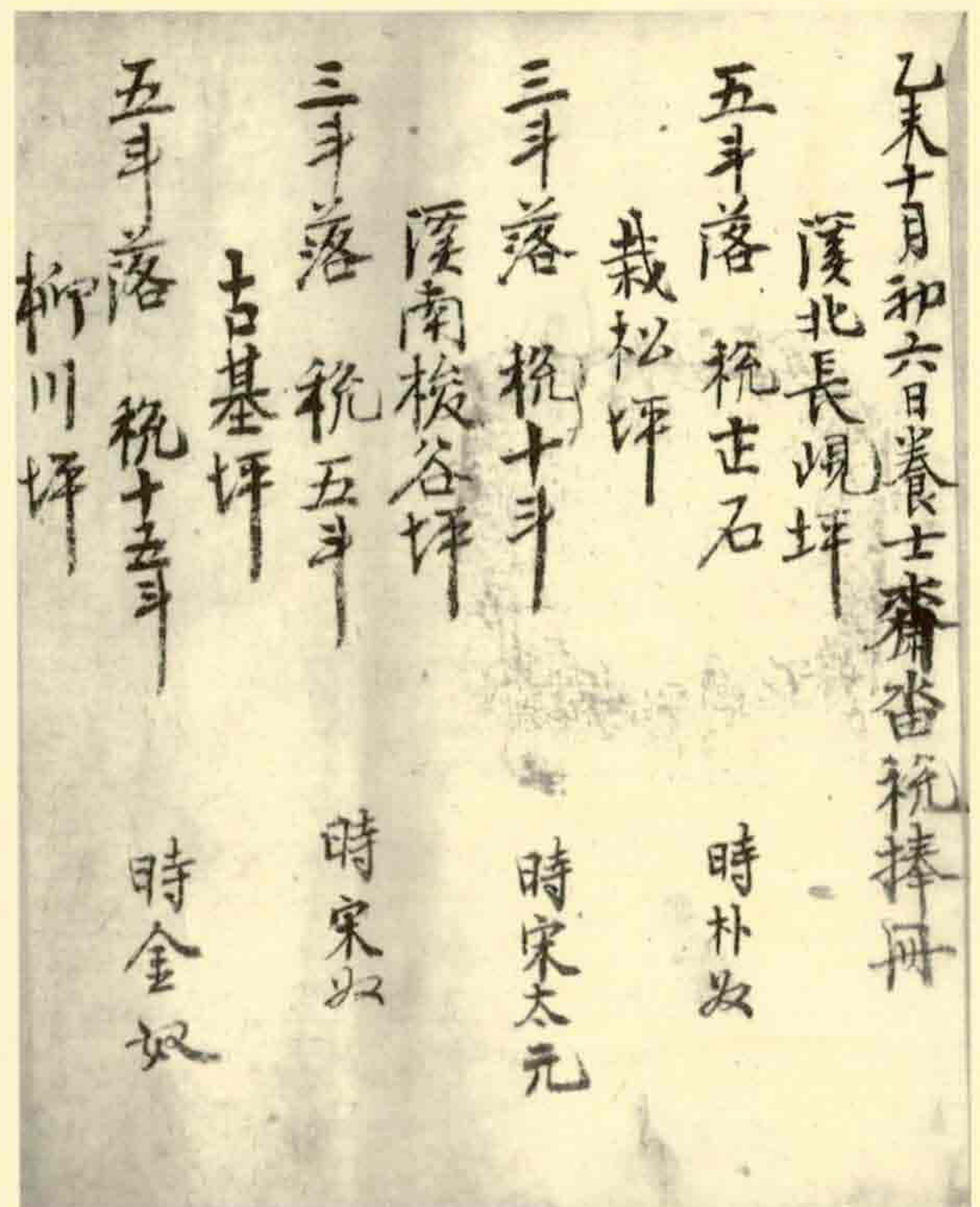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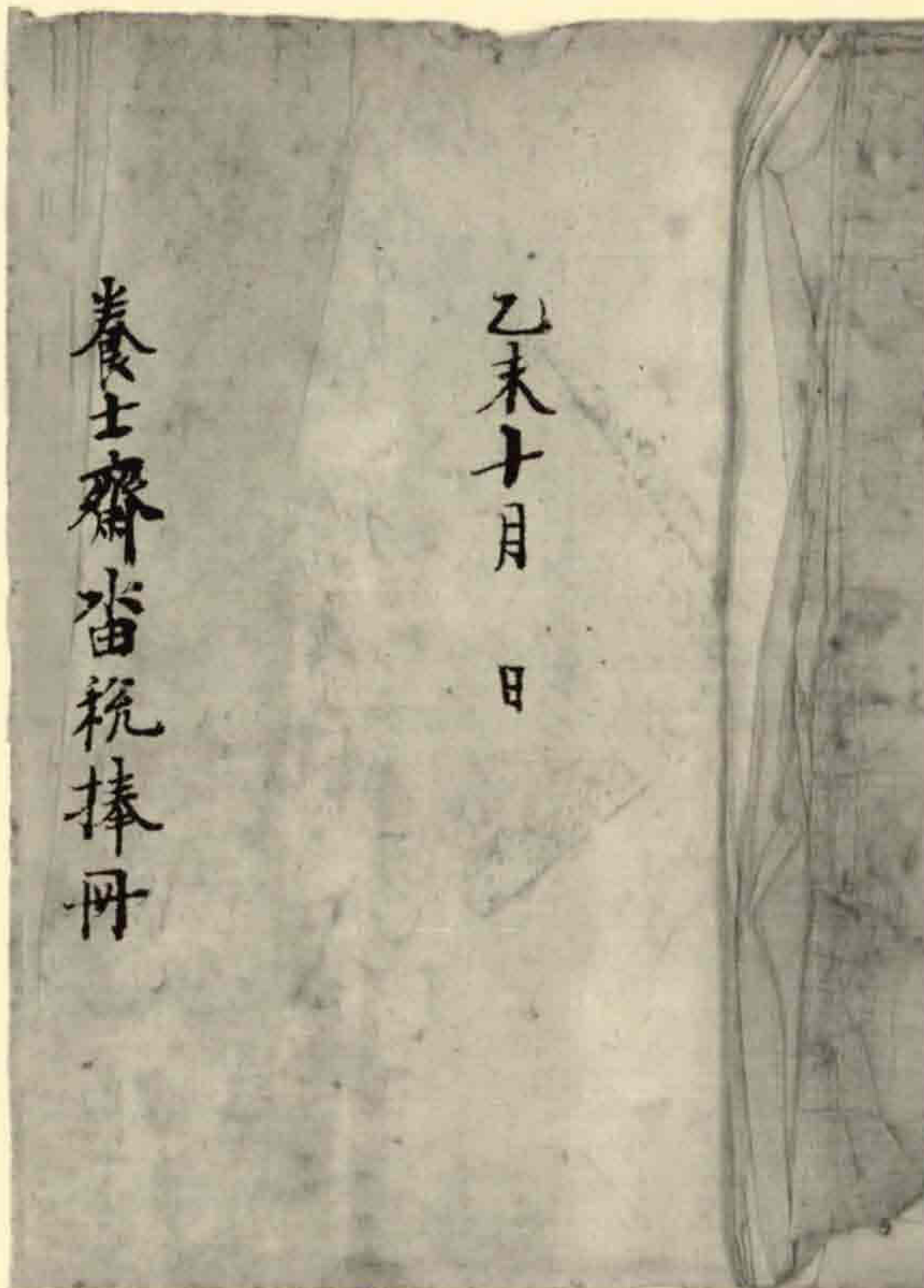
이 책자는 장수향교 양사재에서 1955년(乙未) 10월 6일 날 수봉(收捧)한 당해년도 수세이다. 이 책자를 통하여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양사재 논이 50년 전만해도 107두락이 있었다는 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도합(都合) 19석 9두를 받아들인 기록이 끝에 보인다.

그리고 향교 논처럼 각 면에 산재했던 점도 알 수 있다.

둘째 당시 소작인을 종(奴) 또는 가(哥)로 표시할 만큼 순진했던 것도 재미있다. 그러나 반드시 끝에는 관장(館長)의 수결(手決)을 받는 것이 상례(常例)였다.

이상으로 미루어보아 유일한 교육기관인 향교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였는가 하는 점을 깨닫게 한다.

끝에는 양사재 서책기(書冊記)도 보인다.



양사재 답세 봉책 養士齋 畚稅 捧冊

17.3×19.6 1책 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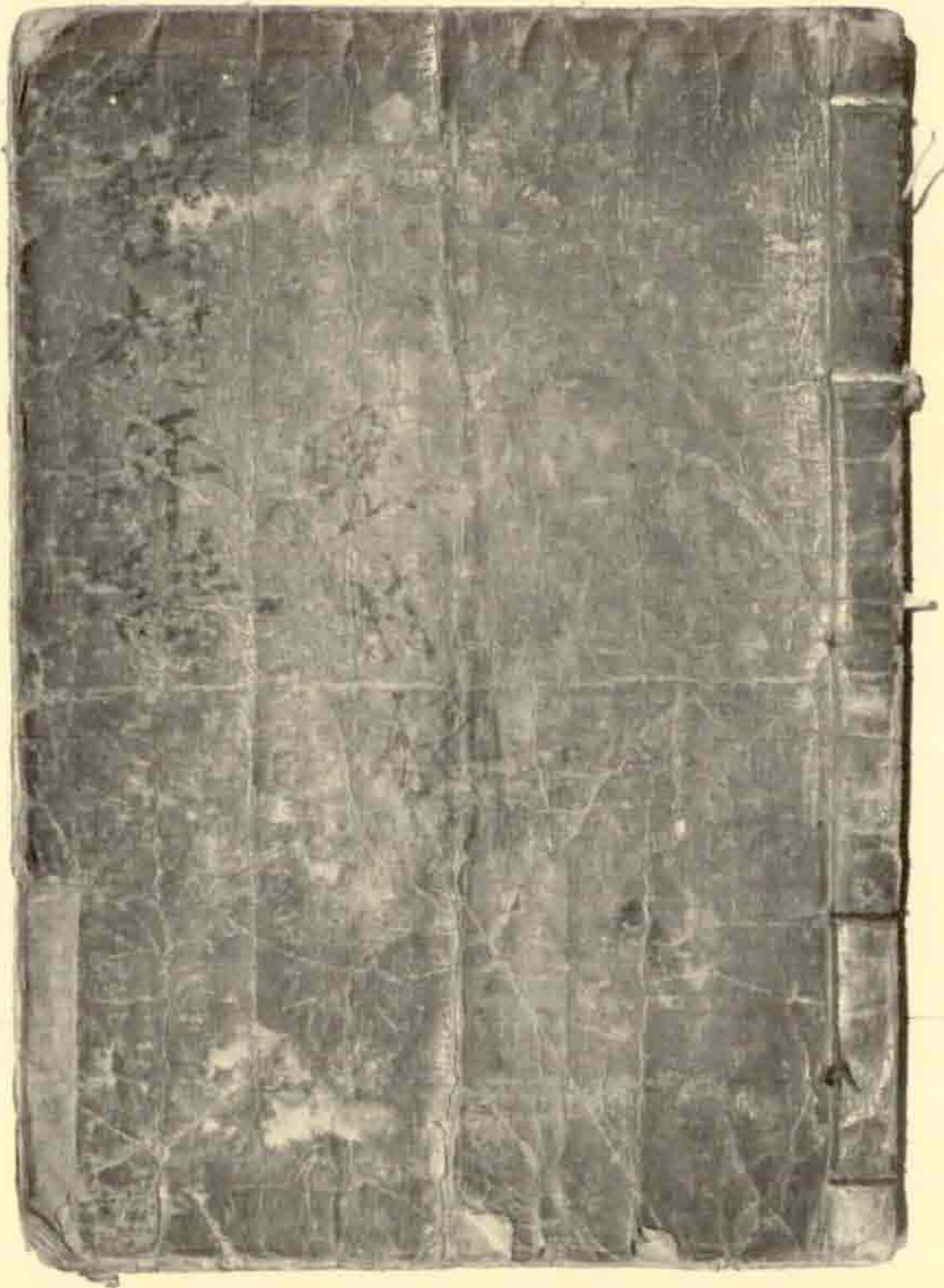
陶幕坪
 四斗落 梳正石五斗 時吳哥
 三斗落 災
 三斗落 梳正石 時自承老
 栗谷坪
 四斗落 梳正石 時成系
 舊校坪
 二斗落 梳十五斗 時成系
 已上都谷租十九石九斗

官 冊

書丹記

養士齋節目一卷
 養老堂節目一卷
 居接錄 一卷
 忠孝徑 二卷
 農政教篇 四卷
 文書 二十丈
 完文 一丈

19. 만촌연보(巒村年譜)



만촌연보巒村年譜

21×29 1책 43장

만촌은 조선 영종조(英宗朝) 수충 갈성 결기 효력 분무공신(輸忠 竭誠 決幾 效力 奮武功臣) 충주인(忠州人) 박동형(朴東亨)의 호(號)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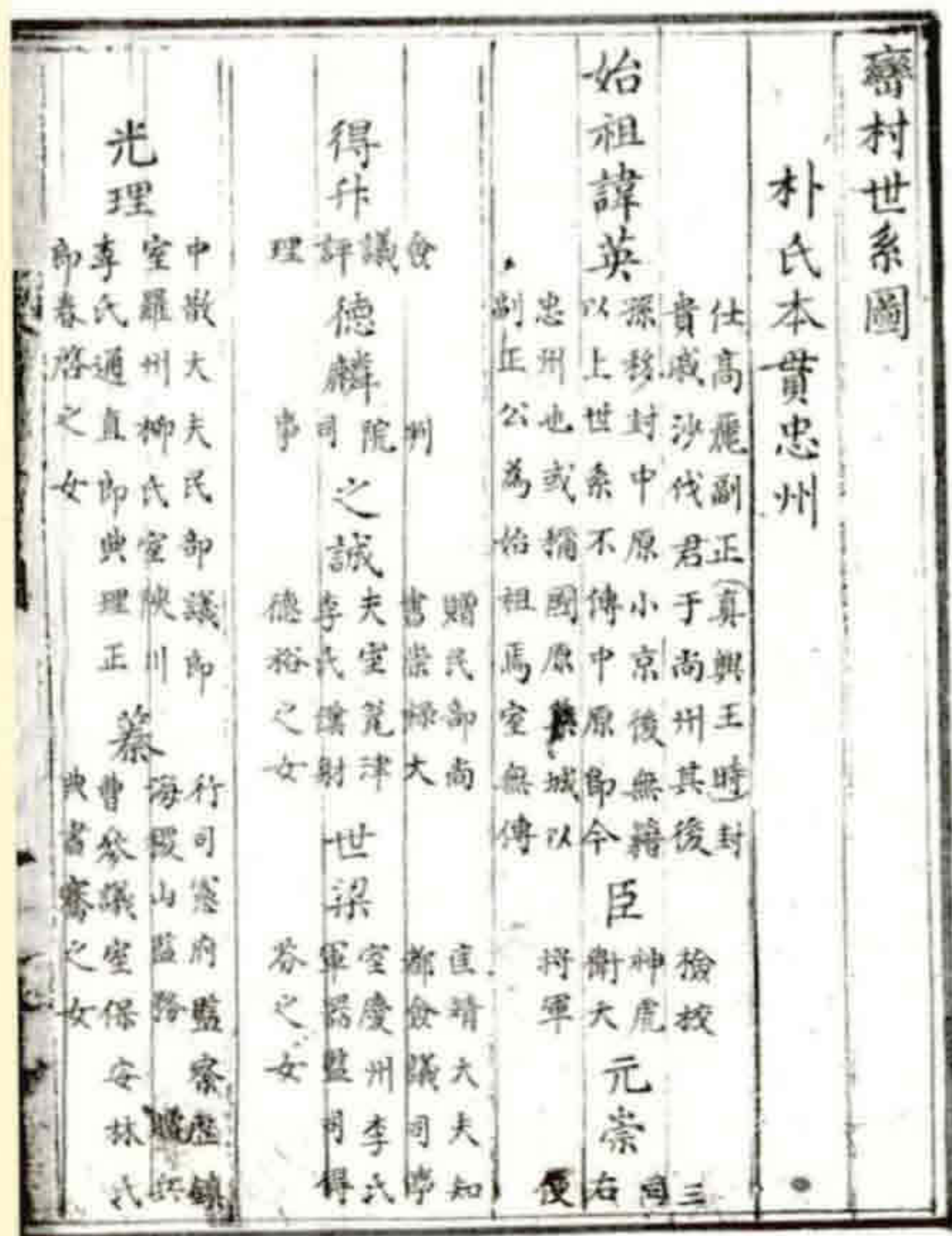
만촌은 1695년(肅宗乙亥)에 태어나 1739년(祿己未)에 졸(卒)하기까지 44년간의 짧은 생애였지만 충효(忠孝)로 일관(一貫)한 실학자였다.

이 책은 그의 아들 대호군(大護軍) 朴完臣이 2권을 손수 써서 고향 장수(長水)로 1권을 보내준 것이다.

만촌은 파은(波隱) 박수기(朴秀基)의 8대 종손(宗孫)으로 공조판서(工曹判書)를 증(贈)하고 충원군(忠原君)을 봉(封)하였으며, 부조묘(不祧廟)를 명(命)하였다. 그리고 선고(先考)는 덕은군(德恩君)에 봉(封)하고 조고(祖考)는 좌승지(左承旨)를 증(贈)하였다.

첫 장을 보면,

“숙종대왕 21년 을해(乙亥) 7월 초 3일 신시(申時)에 공이 상주 남면 송영리 집에서 태어났다.” 하고 주(註)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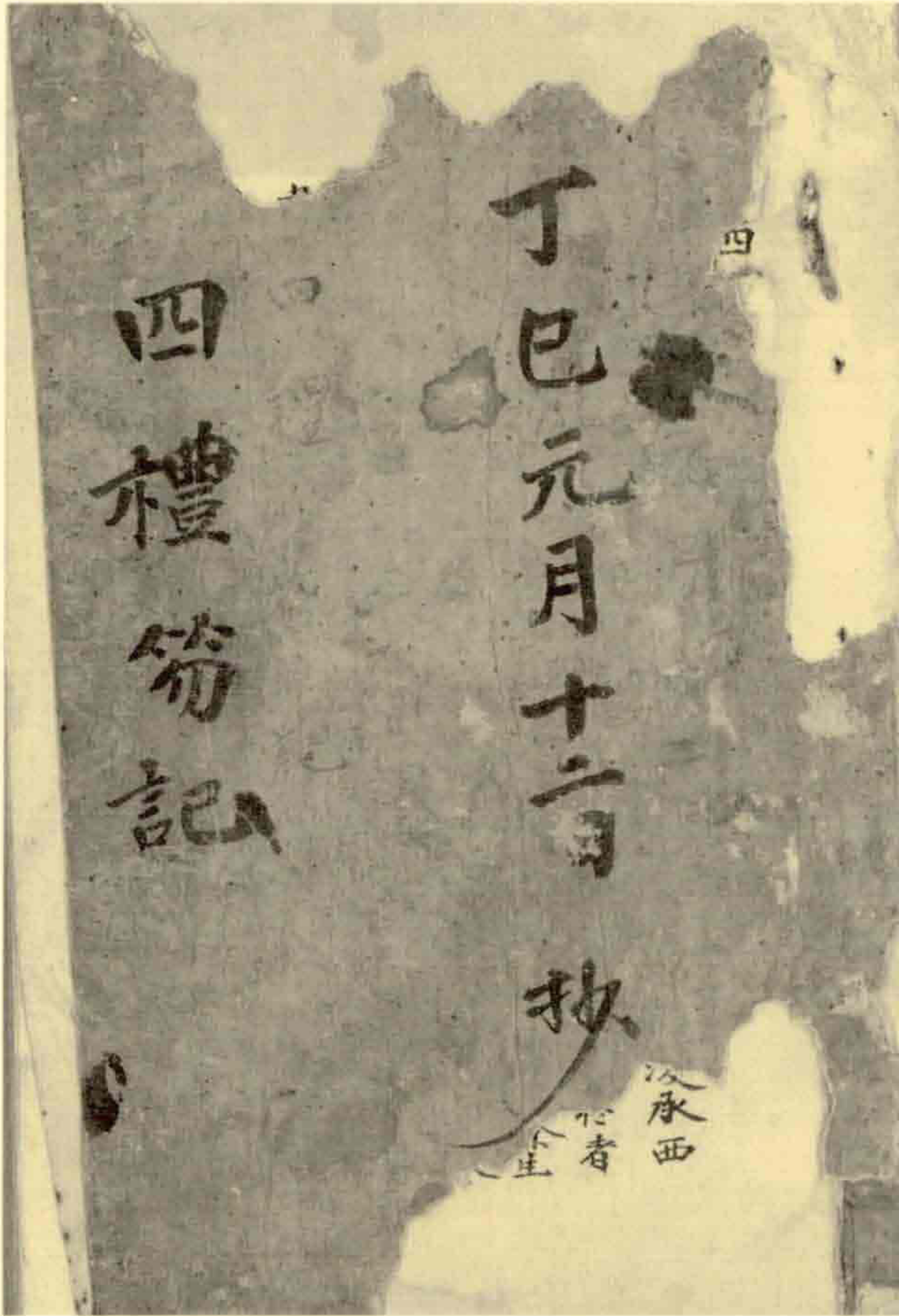
齋村行狀

贈資憲大夫工曹判書無知義禁府事五衛都
 摠府都摠管行翰忠竭誠揚武功臣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忠原君朴公行狀

公諱東字秀夫號密村系出太原始祖諱英高麗
 副正歷數世入我朝諱泰兵曹叅議於公九代祖
 也是生諱忠誠戶曹叅判生諱秀基嘉善大夫江原
 道觀察使至公高祖諱命南號蒼崖公廉剛直有性
 理之學曾祖諱擥 贈司僕寺正祖諱文昌 贈左
 承旨考諱世華文科正即歷五郡 贈禮曹判書兼

“공의 선조는 대대로 장수현(長水縣)에서 살았고, 공의 고조(高祖)가 상주(尙州)로 옮겨 살았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잉태할 때 어머니 꿈에,
 “황룡이 대들보를 휘감았더니 태어나 용모가 뛰어났다.”고 씌어 있다.
 끝에는 하산(夏山) 성이홍(成爾鴻)이 지은 행장(行狀)을 붙였다.

20. 사례흘기(四禮笏記)



사례흘기 四禮笏記

18.5×28 1책 6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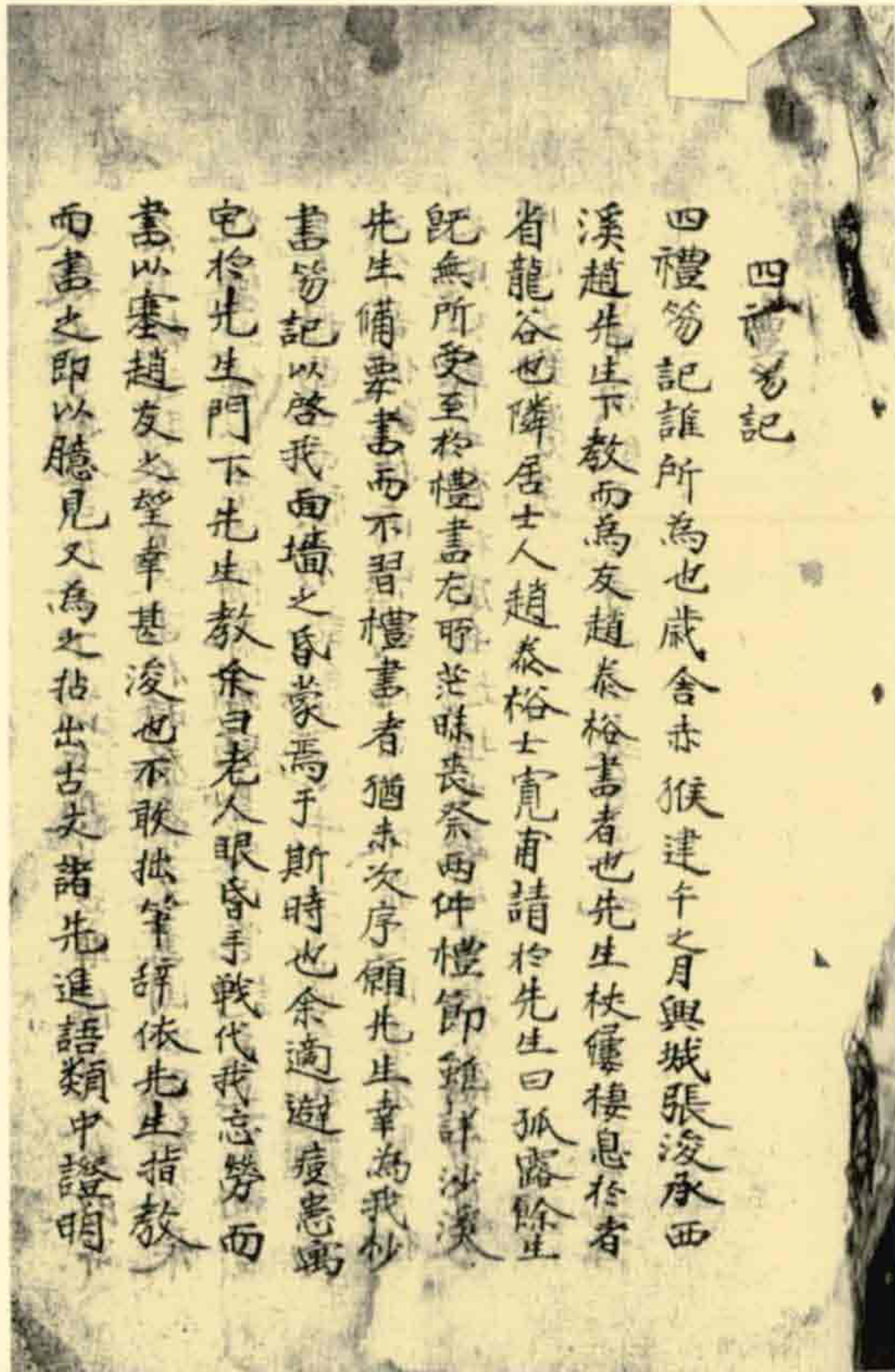
이 책은 흥성인(興成人) 장준(張浚)이 쓴 것이다. 서계(西溪) 조선생(趙先生)이 성룡곡(省龍谷)에 서식(棲息)할제 이웃에 사는 조태유(趙泰疏)가 선생에게 관혼상제(冠婚喪祭) 사례흘기(四禮笏記)를 뽑아 주실 것을 청(請)하였고, 때마침 장준이 역질[痘患]을 피하여 선생 문하에 붙여 살게 되어 가르침에 따라 쓰고, 또 자기 역견(臆見)으로 고문(古文)에서 뽑아 조하(條下)에 쌍서(雙書)하는 등 보입(輔入)한 부분들이 있다.

예서(禮書)로서 아주 귀중한 책이며 붉은 색으로 표시한 곳은 중요한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숭정기원후 재병신(崇禎紀元後再丙申) 5월 일 기(記)라 했으니 곧 1715년(肅宗丙申) 여름 5월에 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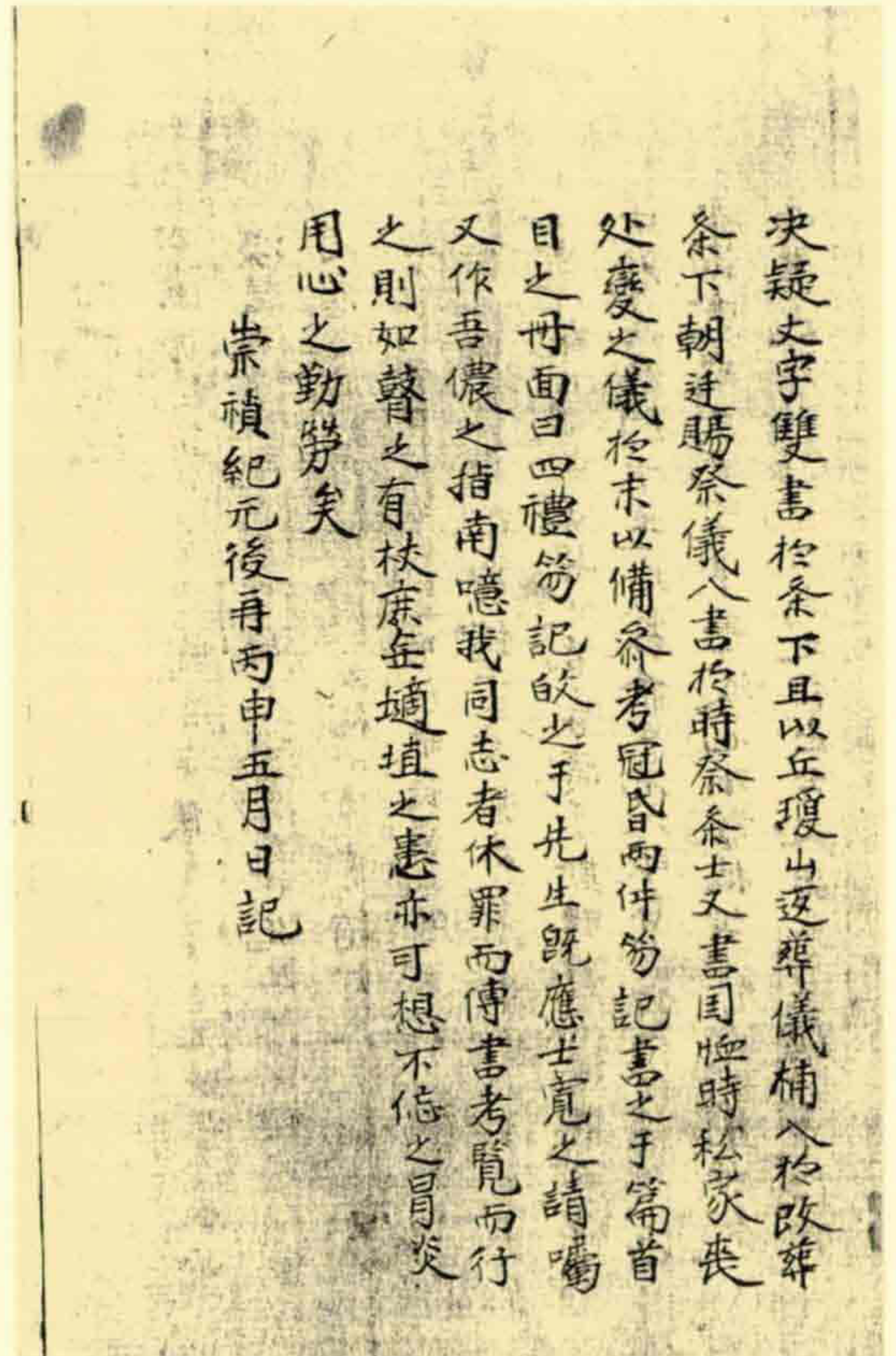
가의(加依)에 사례홀기(四禮笏記), 정사원월 12일 초(丁巳元月十二日抄)라 쓰고, 끝장에 책주(冊主) 임수원(林洙源)이라 쓴 다음 병진 계동(丙辰 季冬) 7일에 어필(語畢)이라 했는데 이는 임수원의 글씨로 보이며 책주가 바뀐 동기는 알 수 없다. 임수원의 연대를 알면 어느 병진인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 속에 오자 낙서가 가끔 많이 있으니 보는 이가 살펴보라.(此卷之中誤字落昔間間有之看者察也)” 한 것은 장준의 글씨이다.



四禮笏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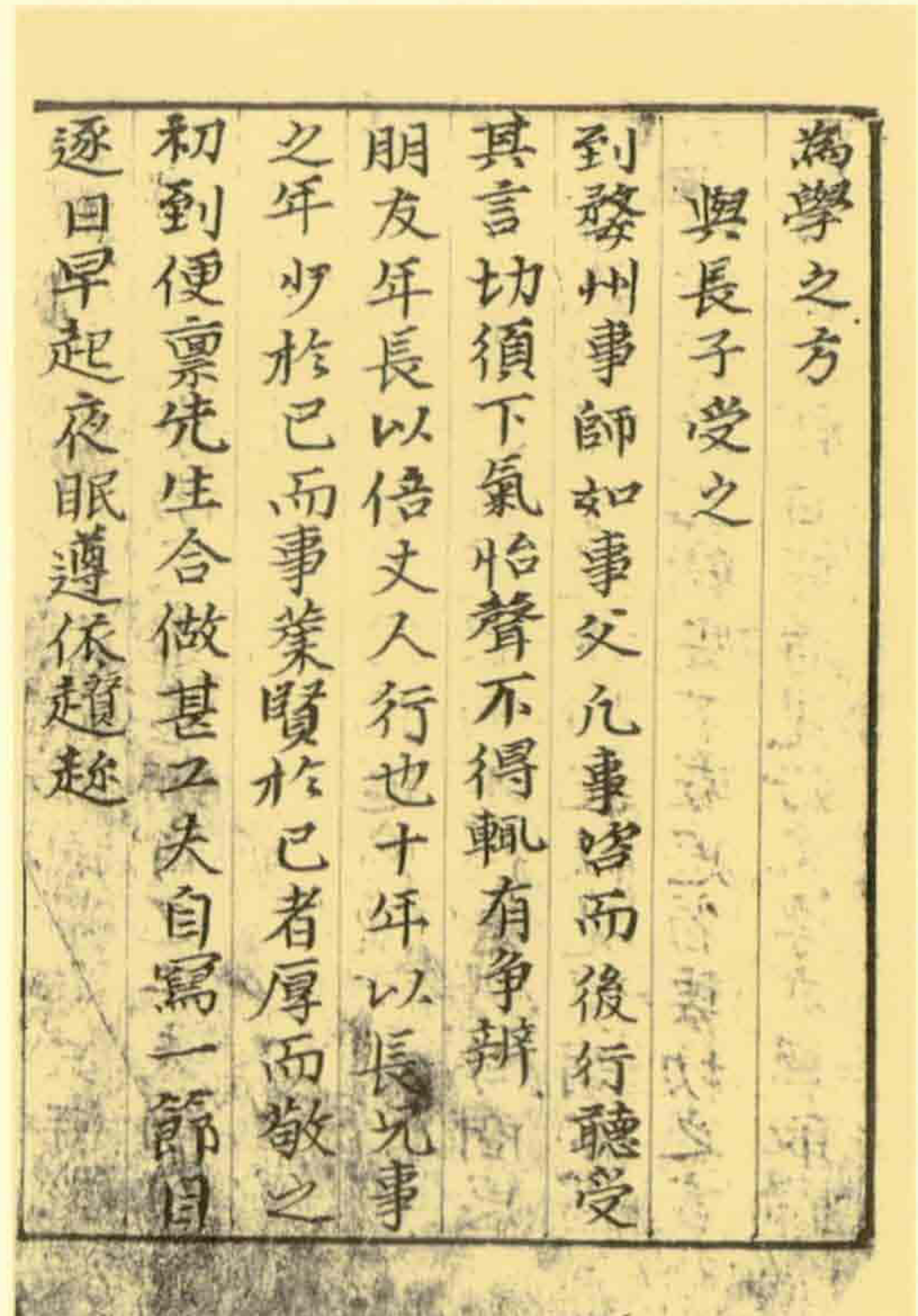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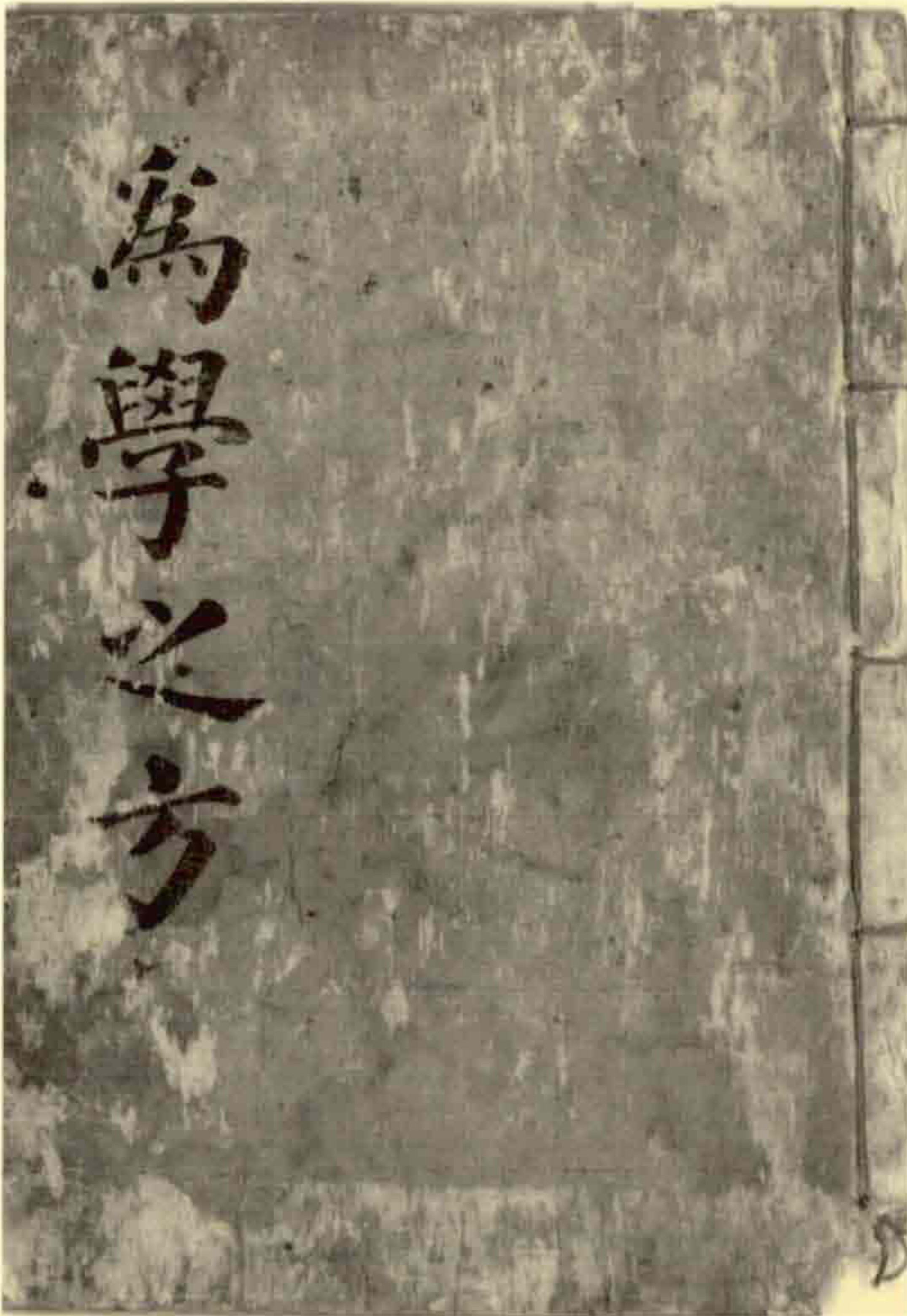
四禮笏記誰所為也歲舍赤猴建午之月與城張浚承西溪趙先生下教而為友趙泰裕書者也先生杖屨棲息於省龍谷也隣居士趙泰裕士寬甫請於先生曰孤露除生既無所受至於禮書尤茫然昧喪祭兩件禮節雖詳沙溪先生備要書而不習禮書者猶未次序願先生幸為我抄書笏記以啓我面牆之昏蒙焉于斯時也余適避疫患寓宅於先生門下先生教余曰老人眼昏手戰代我忘勞而書以塞趙友之望幸甚浚也不敢拙筆詳依先生指教而書之即以聽見又為之拈出古丈諸先進語類中證明



决疑文字雙書於条下且以丘瓊山返葬儀補入於改葬条下朝廷賜祭儀入書於時祭条士又書因恤時私家喪处慶之儀於末以備參考冠昏兩件笏記書之于篇首目之丹面曰四禮笏記故之于先生既應士寬之請囑又作吾儂之指南噫我同志者休罪而傳書考覽而行之則如瞽之有杖庶在墮填之患亦可想不佞之冒炎用心之勤勞矣

崇禎紀元後再丙申五月日記

21. 위학지방(爲學之方)



위학지방 爲學之方

16×23.2 1책 30장

학문(學問)하는 방법(方法)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 주자대전(朱子大全)에서 뽑은 것이다. 은봉(隱峯) 안방준(安邦俊)이 우계(牛溪) 성훈(成渾) 문하(門下)에서 얻어 남쪽으로 돌아와 인쇄하여 학도(學徒)에게 준 것인데, 병술(丙戌)년 봄 3월에 관곡노포(寬谷老圃)가 위생(魏生)에게 써준 글이 뒷장에 붙어 있다. 관곡(寬谷)은, 처음 배우는 선비가 더욱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여기에 동의하면서 군부사제(君父師弟) 가릴 것 없이 세인 필독서(世人必讀書)로 권하고 싶다.

내용을 보면, 보낸 편지 2, 답장 15, 편전주차(便殿奏劄) 1, 독서지요(讀書之要) 1, 창주정사(滄州精舍)에서 학자(學者)를 깨우는 글 1, 또 학자를 깨우는 글 1, 어록(語錄) 일부, 문인(門人) 황간(黃幹)이 지은 행장(行狀) 2단이 실려 있다.

글씨는 여러 사람의 합작품(合作品)이다.

한편 주문지결(朱門旨訣) 1책이 나왔는데 내용은 위학지방(爲學之方)과 똑같고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발(跋)이 있다. 여기에 보면 우계(牛溪)가 겸손한 마음으로 제목을 붙이지 않은 것을 후인(後人)이 주문지결이라 했다고 했는데 후인은 우암 자신을 말한 것으로 본다.

可票輕以害德性以謙遜自牧以和敬待
人凡事切須謹飭無故不須出入少說閑
話恐廢先陰勿觀雜書恐分精力早晚頻
自點檢所習之業每旬休日將一旬內書
溫習數過句令心少有放逸則自然漸近
道理講習易明矣

便殿奏劄

為學之道莫先於窮理窮理之要必在於

讀書讀書之法莫貴於循序而致精而致
精之本則又在於居敬而持志此不易之
理也夫天下之事莫不有理為君臣者有
君臣之理為父子者有父子之理為夫婦
為兄弟為朋友以至於出入起居應事接
物之際亦莫不各有理焉有以窮之則自
君臣之大以至事物之微莫不知其所以
然與其所當然而無纖芥之疑善則從之

朱門旨訣跋

牛溪先生手抄此書凡有學者必先使度讀有以立門庭知趨向然後授以他書
蓋先生門法路脉正而科級嚴故其教人者如是爾學者苟以是為入頭下手處
則知要盡博微上徹下而作聖之功無以易此矣蓋先生之學專尚考亭不惟以
訓示學者而取以告於君者亦未嘗外此不幸世道壞破反以為病至有上疏力
詆其說豈謂今日紛紛本非為程氏者耶此書行世已久而當初先生嫌以纂
述自居故未嘗有題目今取補朱門旨訣者後人之所加也
崇禎丙午孟冬後學愚津朱時烈謹跋

甲辰孟冬秋子華溪精舍

此書乃隱峰安先生得之牛溪之門南歸鏡
板以授學徒者也謹按此書不惟為學之方
而人之日用常行至急最切之要法也朱文公
平昔喫緊用工處不外乎此此初學之士尤不
可不知者而兩賢所以抄出而入梓傳授學徒
其意豈偶然哉

丙戌春三月日寬谷老圖書贈魏生

22. 요전경독사숙강록(堯田耕讀私塾講錄) 2권

1930년 경오(庚午)에 화계(華溪) 박상석(朴尙錫)의 주간(主幹)으로 동민(洞民)과 인근 유지들이 합심창건(合心創建)한 요전경독사숙에서 삭망강(朔望講)을 기록한 것이다.

경오(庚午)와 신미(辛未) 2년의 기록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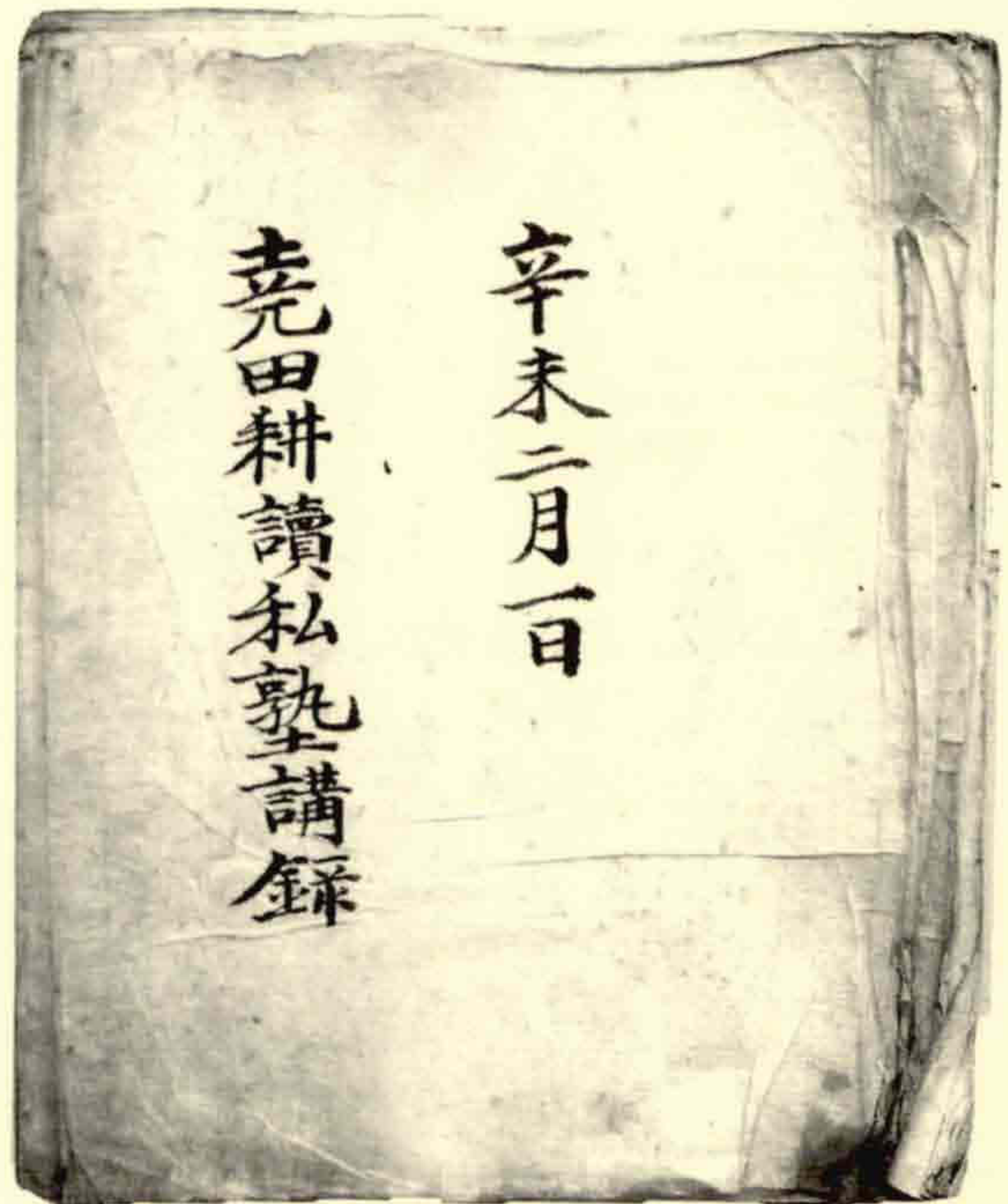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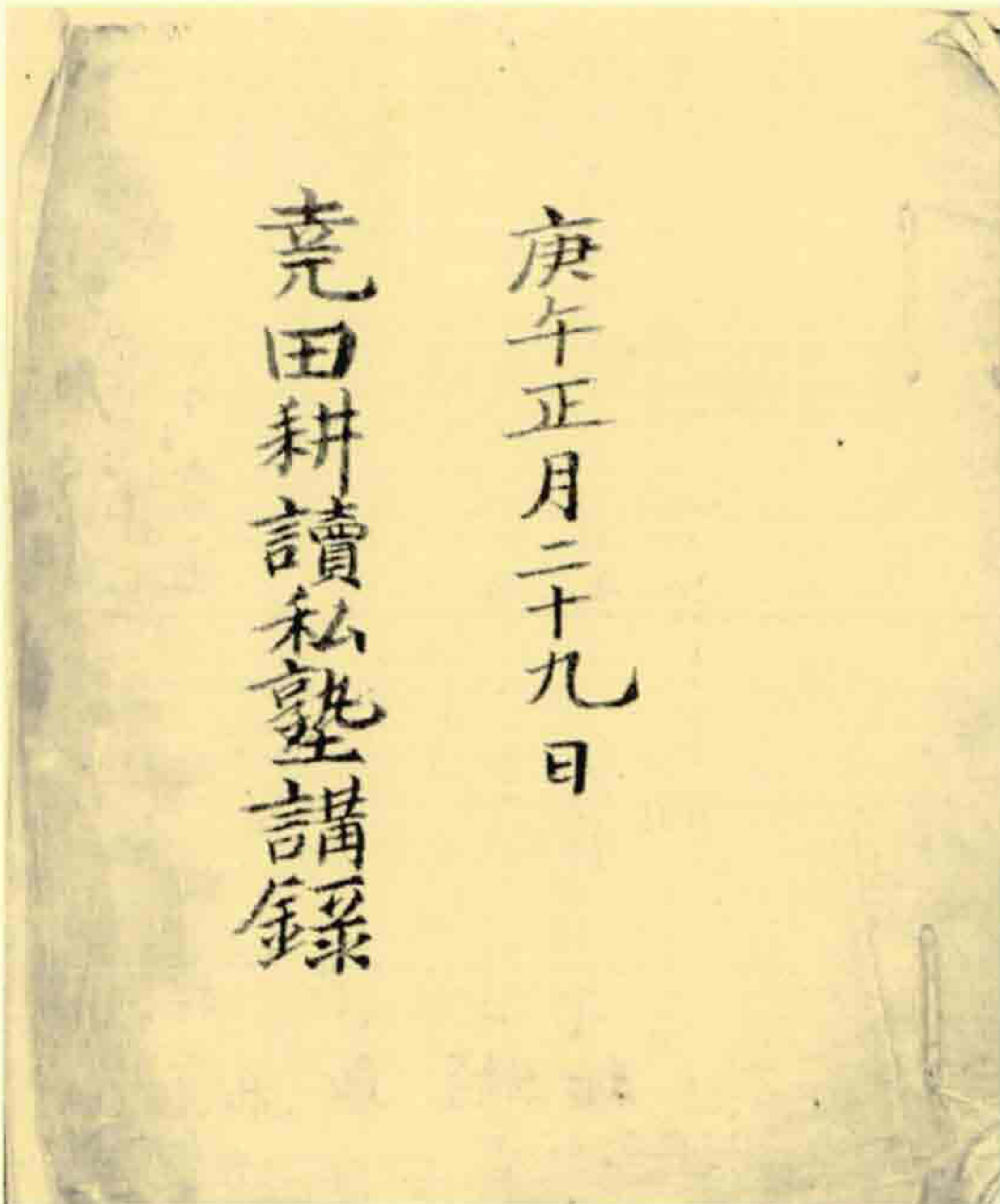
당시는 일제 강점기여서 낮에 펴놓고 국어, 국사, 한문, 윤리 등의 교육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더러 낮에는 농사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강록을 보면 성명(姓名) 밑에 음(音)과 의(義)와 자(字)가 있는데, '음'은 보름 동안 배운 것을 외우는 것이고 '의'는 뜻을 이름이고 '자'는 글자를 써 보는 것이다.

이것을 순통약조불(純通略粗不)로 채점하는데 요즘의 '수우미양가'와 비슷한 것이다.

화계(1894~1974)는 존화양이(尊華攘夷)의 정신으로 가혹한 일정(日政)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교육을 통하여 국혼(國魂)을 지키려 하였다. 요전리에 와서 1년만 머슴살이를 해도 축문(祝文)을 쓸 수 있도록 하였고, 광복(光復) 후에도 성인교육을 철저히 시켜 전국 수석을 하였다. 남녀노소 모두 만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독사숙은 그의 아들 박수섭이 이어오고 있다.



요전경독사숙강록 堯田耕讀私塾講錄 1, 2권

21×20 1책 2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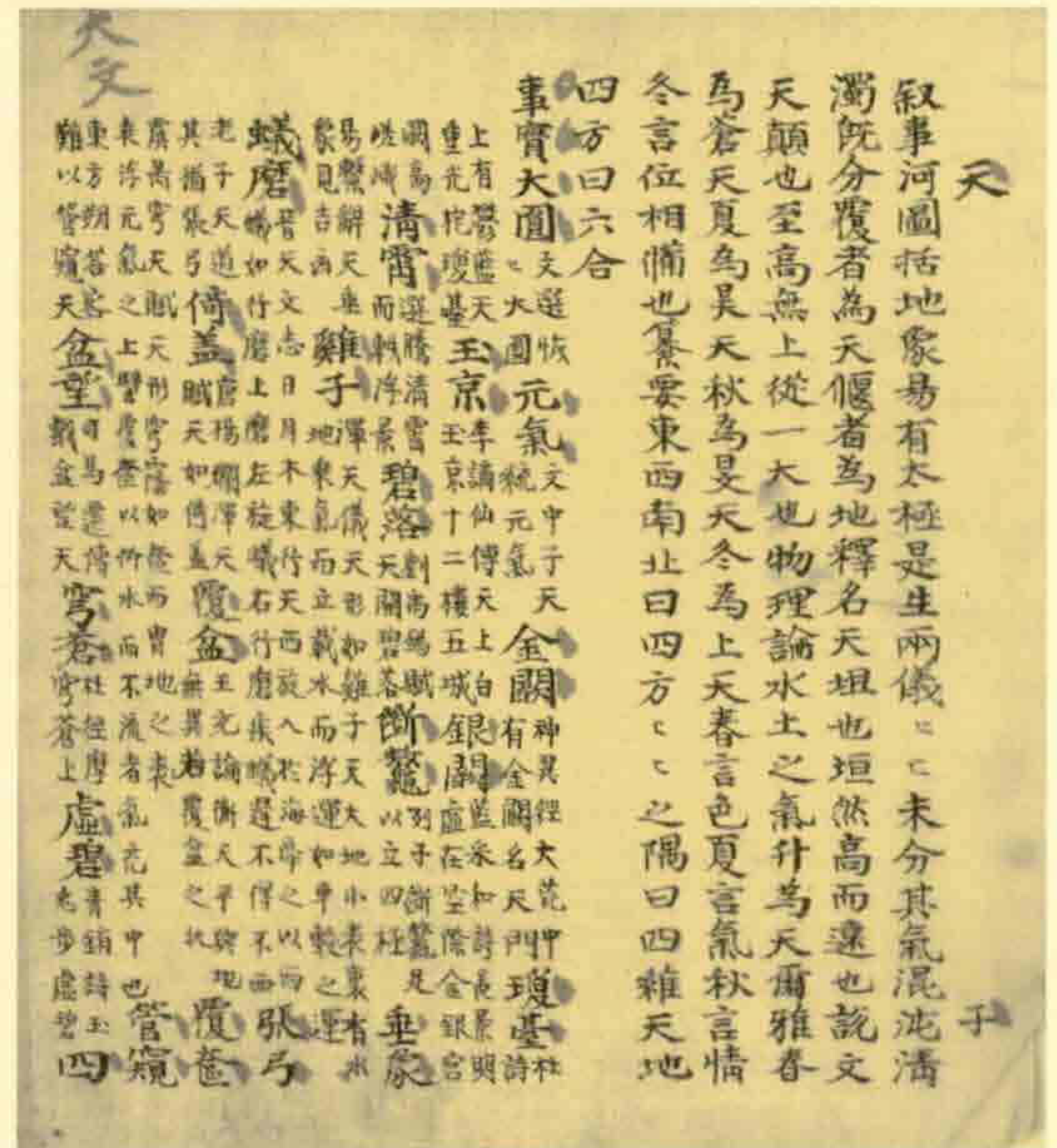
庚午正月十五日講錄

韓彩淵	李重範	韓琮淵	朴洙皓	朴宅根	韓昌淵	宋濟萬	韓共淵	朴洙烈
音通	音通	音通	音通	音通	音通	音通	音通	音純
義通	義通	義通	義通	義通	義通	義通	義純	義純
字通	字通	字通	字通	字通	字通	字通	字純	字純

辛未二月一日講

韓琮淵	韓昌淵	康甲年	朴靈出	李幸範	裴奉根	李敬五	朴重根	朴洙烈
音通	音通	音通	音通	音通	音通	音通	音通	音通
義通	義通	義通	義通	義通	義通	義通	義通	義通
字通	字通	字純	字純	字通	字通	字通	字純	字純

23. 시학 상·하(詩學上·下)



시학 상 詩學 上

23×23.2 상 90장

시(詩) 공부를 하는 이는 이 책 2권을 열람할 필요가 있다. 천지(天地)를 시작으로 시를 지을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매 제목마다 서사(徐事), 사실(事實), 품제(品題), 대의(大意)를 써서 작시(作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경자(庚子)년에 쓴 것으로 보이는 책으로 누구의 솜씨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종여일(始終如一) 한 획도 방필(放筆)하지 않고 타점(打點)해 가면서 정성을 쏟은 고인(古人)의 독공(篤工)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하권 말미에는 신축(辛丑)이라 씌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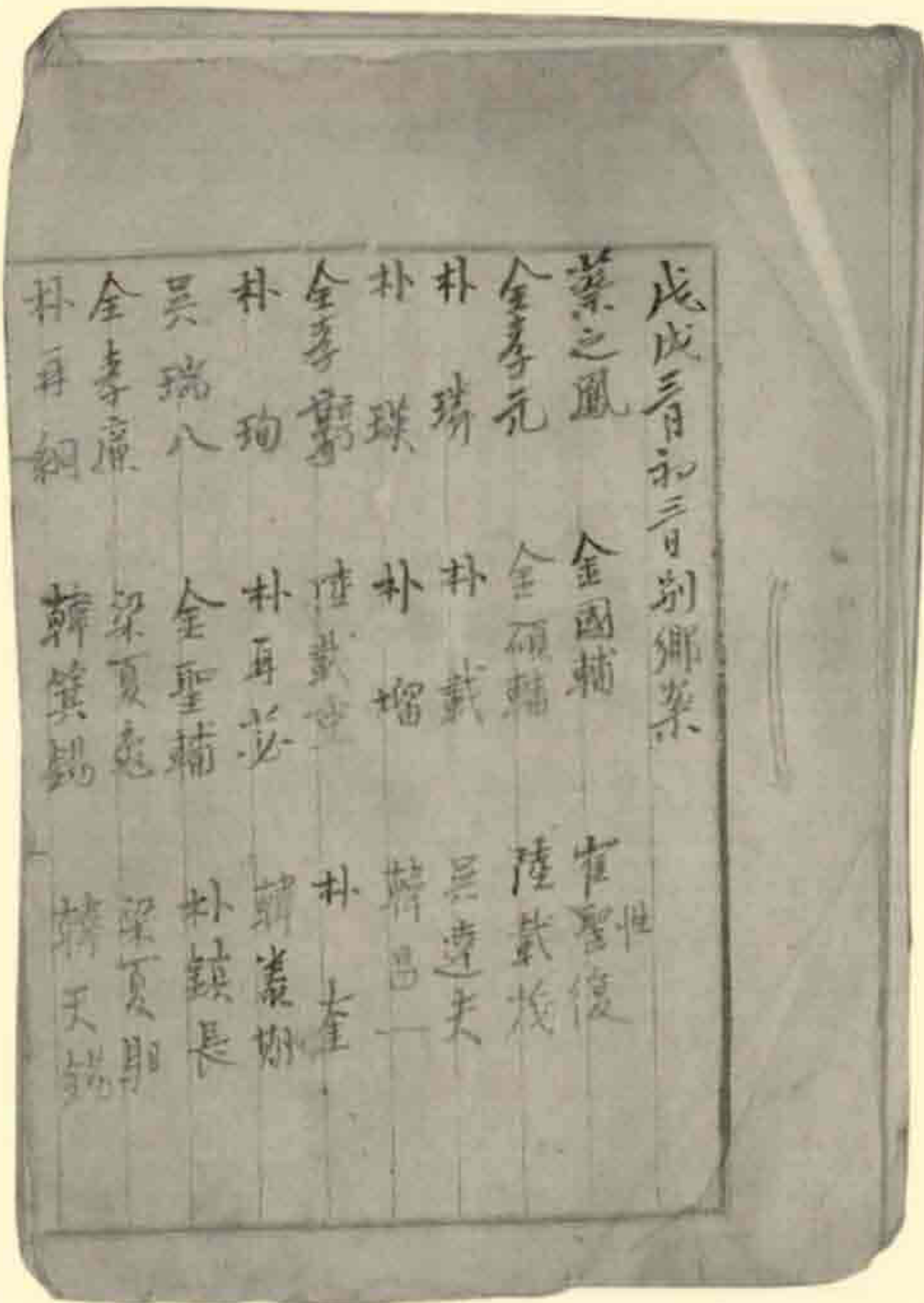


시학 하詩學下

23×23.2 하 81장

百花門 蓮花
 叙畢爾雅荷芙蓉也其莖茄其葉荷其花莖皆其實蓮其根藕
 其中的格物叢話荷花其莖茄其葉荷其花莖皆其實蓮其根藕
 有晚起朝日夜卧其水者目曰睡蓮
 車寶朱筆 曹子建 紅膩 十里 拾遺記 漢 昭帝 遊 神 池
 內 雲錦 坡 詩 陸 羽 天 鐵 一 霞 標 宋 一 同 秋 蓮 賦 夕 而 察 之
 花十丈 韓 文 大 華 等 類 玉 月 嬌 欲 語 李 白 荷 花 一 主 人 淨 如 拭
 杜 荷 花 搖 白 羽 杜 江 蓮 蓋 明 鏡 白 根 天 紅 浦 如 步 齊 東 野 語
 花 貼 地 生 她 行 其 上 似 六 郎 唐 裴 君 崇 以 雲 錦 寺 楊 昇 忠 曰
 花 也 身 解 語 花 天 實 遺 事 太 淡 池 闊 千 葉 蓮 花 中 興 地 花 心
 君子 周 子 發 蓮 純 水 誰 岸 清 之 花 可 愛 者 甚 香 子 獨 愛 蓮 出
 香 遠 益 清 亦 不 與 凡 荷 同 蓮 一 也 發 同 子 荷 何 人 蓮 一
 丘 瘦 山 詩 亭 不 帶 泥 泥 異 家 芳 好 風 雲 錦 標 同 國 色
 嬌 約 芳 姿 似 六 郎 子 為 乘 闌 酒 花 野 香
 起 句 風 一 番 雨 送 美 蕉 十 里 香 蘇 軾 蘇 東 坡 蘇 東 坡 蘇 東 坡
 蘇 軾 蘇 東 坡 蘇 東 坡 蘇 東 坡 蘇 東 坡 蘇 東 坡 蘇 東 坡 蘇 東 坡
 蘇 軾 蘇 東 坡 蘇 東 坡 蘇 東 坡 蘇 東 坡 蘇 東 坡 蘇 東 坡 蘇 東 坡

24. 무술 3월 초3일 별향안(別鄉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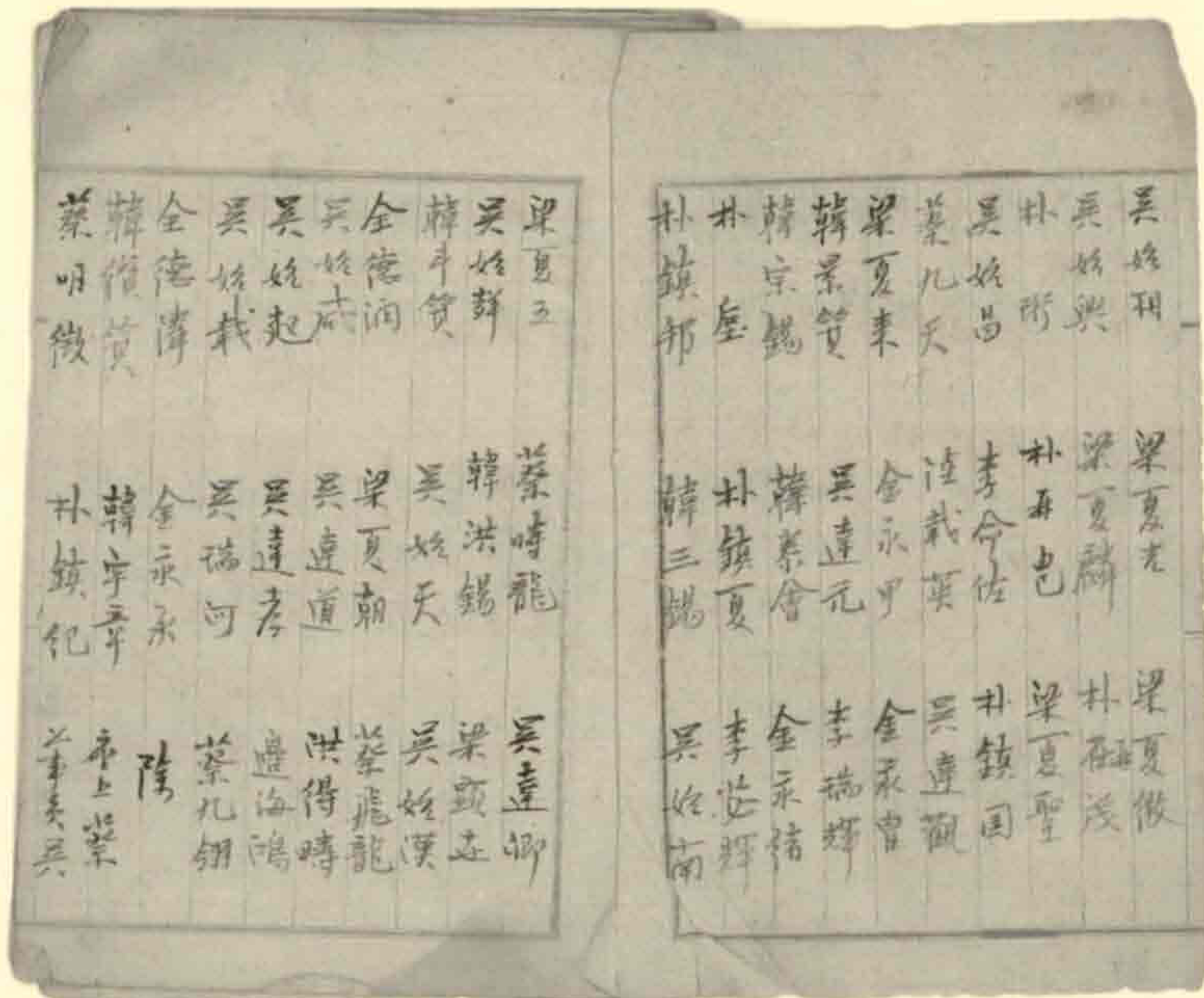


내용 연도(年度)가 가의(加衣)에 씌어 있을 뿐 이것은 책 이름이 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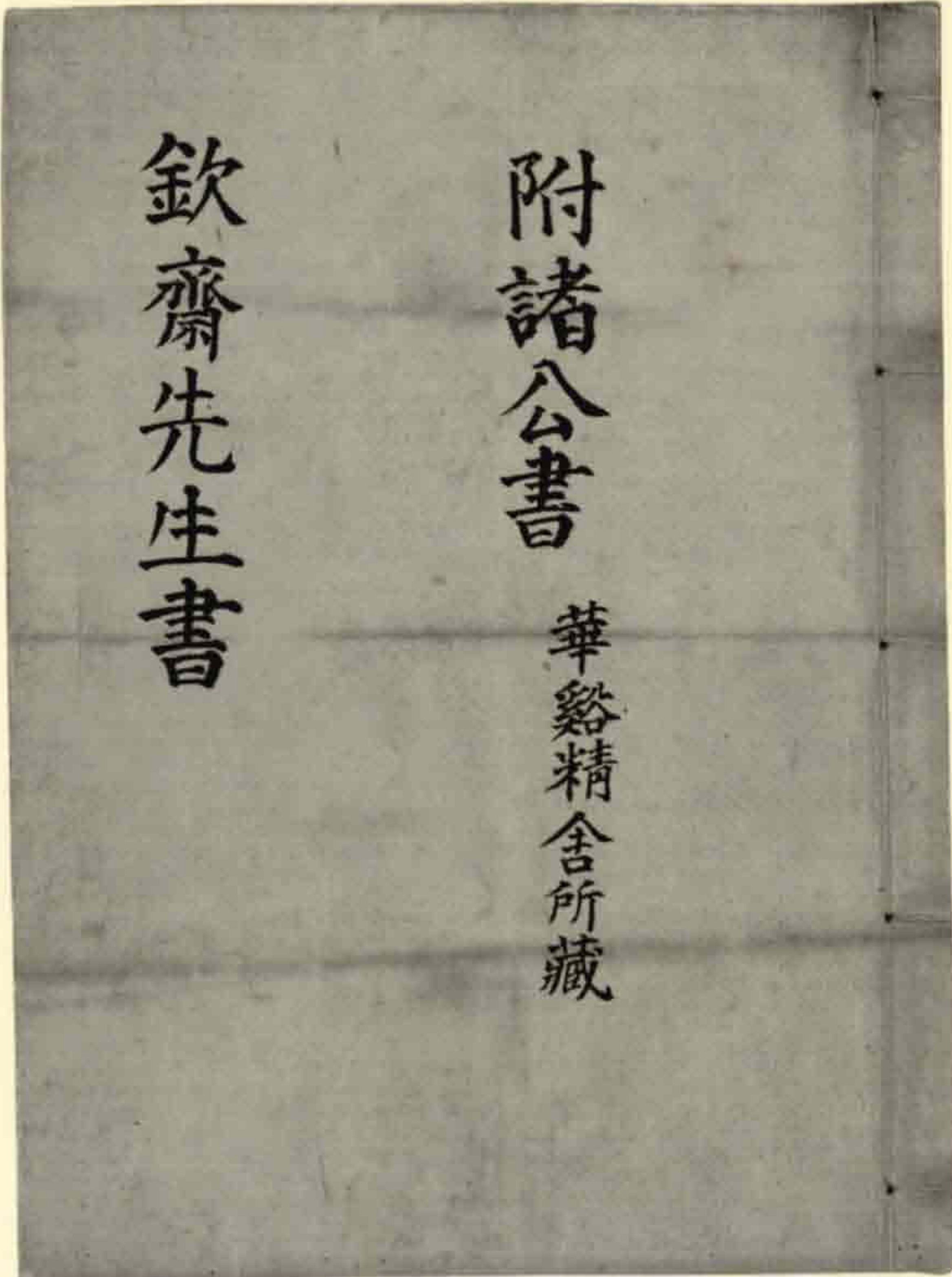
또 뒷부분에는 선안수정(仙案修正)도 있다. 선(仙)은 돌아가신 분을 말한다. 향교에서 참고 삼아 써 온 것으로 보인다. 많은 책 중에서 일부분을 써 온 것이다.

무술 3월 초3일 별향안別鄉案

15.8x22.6 1책 14장



25. 금재 선생서(欽齋先生書)



금재 선생서 欽齋先生書

36×53.5 1책 16장

금재(欽齋) 최병심(崔秉心) 선생은 한말유종(韓末儒宗) 간재(艮齋) 전우(田愚) 선생의 수제자(首弟子)이다.

여기에는 그의 고제(古弟) 박상석(朴尙錫)에게 보낸 서신 6편이 실려 있다.

뒤에 제공(諸公)의 서신을 붙였는데 그 중 묵재(默齋) 김정중(金定中) 선생은 역시 박상석의 스승으로 성균궐주(成均祭酒)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선생의 문인이다.

言生道文純
 拾揚四好於金石
 救世出年
 古物主智大原字精
 以筆到以圖為志
 而止此祝都閣文
 祝
 吉禧
 辛巳仲夏
 大崔秉心
 只書流益
 吾雁卷來
 讀隨力次
 達區餘石
 靈筆霧潤
 天筆如揮
 任如不事
 居不何問
 廣不何問
 有中國山
 來交青歡
 原交青歡
 學蹟業新
 山越自明
 中夏秋祈
 高詩多手
 大崔秉心

有性
 先所君在事出於子為夢外夫何
 言大何言 惠保確沈解而誌著有
 惠且否
 來者幸殊與意克至其生至矣遠
 至未斯以謂以村宜少爾引之不暇而
 一級應同亦故有人非時世相主情
 理何保託者大保寸為七信終進送也
 之有偏是相愛過、之望兵不望經
 於月元月八日 金定中拜狀
 相禮
 今再秋報復大喪中驚惶何其佳報為厚有道
 變之世者惟將此湖西而之喜亦感不多得而
 况蒙說既深和知初德不致論人牙痛惟而已
 難秋秋多病者惟安臨臨臨臨臨臨臨臨臨臨
 之考五年六月心誠性至果德故所極思靈社之
 靜中休來德思一字以臨先玉勸學報德也
 法字元制祝 報德所出可法德德德德德德
 此學德居是則主是信已夢承 其亦能此濟
 疾則保信保信保信保信保信保信保信保信
 勢急保信保信保信保信保信保信保信保信
 傷心累遠頭口故年 其何免少食有可保必性生
 中其有九元公不允以安送新開不保性
 朴頂士 大青 天前
 大崔秉心

26. 격몽요결(擊蒙要訣)



격몽요결 擊蒙要訣

16×24.5 1책 24장

격몽요결은 울곡(栗谷) 이이(李珣) 선생(1536~1584)이 42세 되던 선조정축(宣祖丁丑) 12월에 해주(海州)에서 초학필독서(初學必讀書)로 지었다.

선생은 주자후일일(朱子後一人)으로 평가받는 성리학자(性理學者)요 정치가요 교육자였다. 말년에 해주에서 강학(講學)하면서 학도들을 위하여 지었지만 후학을 위하는 마음도 겸했으리라고 본다.

이 책은 경오(庚午) 8월에 덕곡재(德谷齋)에서 썼는데 어느 경오년인지 알 수 없고 필사자(筆寫者)도 알 수 없다.

화계(華溪) 박상석(朴尙錫) 선생은 이 책으로 소학(小學) 전에 필히 읽는 교과서를 삼았다.

이 책은 입지(立志)에서 처세(處世)까지 모두 10장(章)으로 되어 있고 현토(懸吐)는 이두토(吏讀吐)를 사용하였다.

뒤에는 제의초(祭儀抄)를 부록으로 하였다.

茶儀抄

出入

凡出入必告祠堂。若近出則入大門。瞻禮而行。故亦如之。若經宿庭則焚香拜林。故亦如之。若遠出則開中門拜林。非堂焚香告云某將適某所。故告。又拜拜而行。故亦如之。但告云某今日。故自某所。故見諸子異居者。近出則不必拜辭。若遠出則須跪祠堂拜辭。如上儀。但不開中門。時主人外餘人拜辭。祠堂東階謂之阼階。惟主人登。祭非降。由阼階。主婦及餘人雖尊長必由西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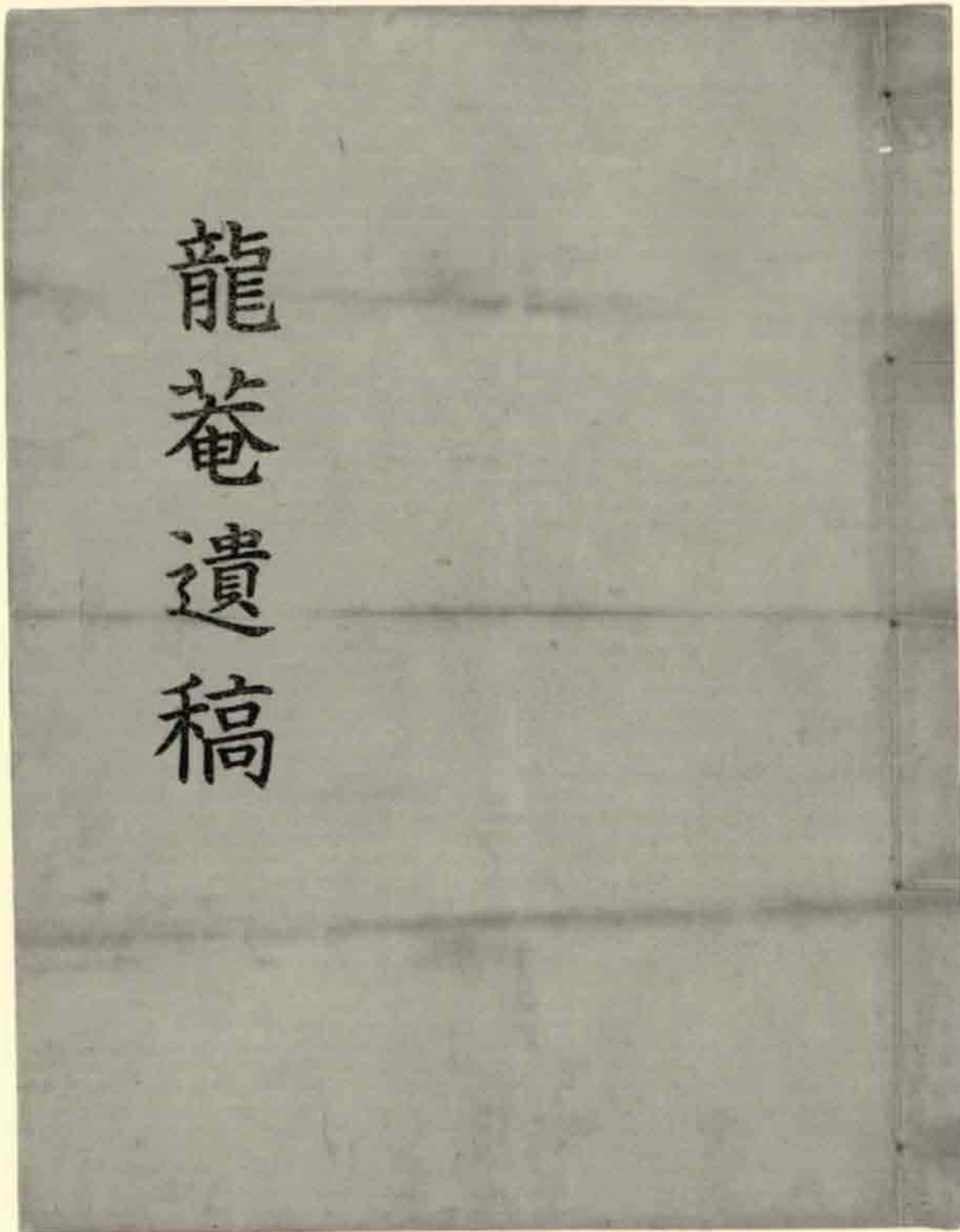
茶禮儀

正至朔望則祭前一日洒掃齊宿。厥明夙興。開祠堂門。設茅沙。若香案前每位設饌。脯果醴豆。或設餅亦可。變若正朔冬至則別。別設饌數。而冬至則加以豆粥。若冬至行。

尊家要訣序

人生斯世非學問無以為人。所謂學問者亦非異常別件物事也。只是為父當德。為子當孝。為臣當忠。為夫婦當別。為兄弟當友。為少者當敬。長為師友當有信。信於日用動靜之間。隨事各得其當而已。非馳心玄妙。希觀奇效者也。但不學之人。心地茅塞。識見茫昧。故必須讀書窮理。以明當行之路。然後進詣得正。而踐履得中矣。令人不知學問。在於日用而無意。高遠難行。故推別與人自安。暴棄豈不可哀也哉。予定居海山之陽。有一二學徒。問學於余。懇無以為師。而且恐初學不知向方。且無堅固之志。而泛泛請益。則彼此無補。及貽人譏。故略書一冊。于粗取之心。躬躬奉親。持物之方。名曰尊家要訣。欲使學徒以此。庶心之所當。日下功而余亦久忘。因隨感以自警。自為丁丑季冬。

27. 용암유고(龍菴遺稿)



용암유고 龍菴遺稿

23.5×25 1책 29장

용암유고(龍菴遺稿)는 진사(進士) 이공(李公) 휘(諱) 제현(霽鉉)의 문집이다. 집에 화재(火災)가 나서 어렵게 수집한 책으로 시(詩), 만(輓), 곡(哭), 서(書), 서후(書後), 기(記), 후서(後敘), 사적(事蹟), 전(傳), 제문(祭文), 행록(行錄) 가장(家狀)과 부록(附錄)으로 제문(祭文), 만사(輓詞), 용암기(龍菴記) 등이 있고, 행주(幸州) 기정진(奇正鎭)의 발문(跋文)이 있으며 후에 족후손(族後孫) 도형(道衡)이 서문(序文)을 썼다.

용암은 1764년(英祖甲申)에 광주(光州)에서 태어나 1795(正祖乙卯)에 성균진사(成均進士)에 합격하였으나 출사(出仕)에 뜻이 없고 스스로 임천(林泉)을 즐겨 본군 산서면 마평(馬坪)에 터를 잡고 아우 용강(龍岡) 휘(諱) 구현(久鉉)과 함께 이사하여 자손이 인거(因居)하고 있다.

1824년에 수(壽) 60으로 졸(卒)했는데 노사(蘆沙)는 유고발(遺稿跋)에서 “학식기개(學識氣概)가 우뚝 남사지망(南土之望)이 되었다.”고 극찬하고 있다.

龍菴遺稿序

國朝士大夫非科第不能發身故做古為詩文者絕少過：是習於舉子而達理圓熟者亦鮮其人故老白首不得志也惟龍菴李公諱霽鉉以舉子之雄手巨擘早年發解為進士蔚有南服之望焉秉性剛明而持心仁厚器局俊偉而抱負瞻裕處家庭而盡孝友在宗族而敦愛睦推之鄉黨朋友而一是敬信為務其一時舉子業則為門戶也既而見區：奔競競名利其如脫而寓樂溪山以卒其世於以見耿介拔俗之標瀟灑出塵之想矣後孫躬耕薄田以為衣食而尚持操勵廉耻鄉黨推以法家而述先裕後之節又為宗族之模楷皆公積累之陰也先是家有壽攸公之稿獨脫灰燼亦

跋龍菴遺稿

正鎮不省事已從家庭間聞龍菴李公學識氣槩傑然為南士之望蓋吾先子於公有少時雅契也一日公訪吾先人於福興山中正鎮是時年可十二三頗曉長者語句侍立終日夜不知疲公贈我二絕句遺稿中贈奇秀才金賜者即正鎮幼名也追思如昨日事而曾未幾時公棄後學先人亦棄不肖鬢上光陰居然五六年正鎮十志業摧頽但把風樹無涯之悲虛負公勸勉之意感昔愴今忸怩難勝自念朝暮且將從先人于九原吾不言兩家後孫安知昔日贈詩時事遂尾題其遺稿如此云戊辰孟夏先友子幸州奇正鎮謹書

28. 서산유묵(瑞山遺墨)



서산유묵瑞山遺墨

21×29 2권 1책 50장

서산(瑞山)은 전의(全義) 이풍호(李豐鎬 : 1867丁卯 ~ 1955乙未)의 호(號)이다. 재덕(才德)을 겸비(兼備)하고 설월(雪月) 같은 정신(精神)으로 경사자집(經史子集)을 두로 섭렵(涉獵), 이를 실천궁행(實踐躬行)하여 전가고풍(傳家古風)을 더욱 계승천양(繼承闡揚)하였다.

동학난(東學亂), 일제침략, 6·25동란 등 일생을 병화(兵火) 속에 살면서도 의리(義理)를 지키고 의연(毅然)히 대처하여 일족(一族)이 면화(免禍)하니 모두 공의 학덕(學德)을 칭송하였다.

유묵(遺墨) 몇 점 중에서 조고(祖考) 서초(瑞樵) 휘(諱) 희석(熙奭) 가장(家狀), 신평군(新豐君) 장유(張維)가 지은 우계선생(牛溪先生) 신도비명(神道碑銘), 그리고 판서(判書) 윤석촌(尹石叀) 답서(答書)를 추려 보았다.

• 蒼瑞山處士書 石印 尹判書用家

天降 白 川 猶 有 未 盡 哉
大行 白 一 遂 陟 雲 緲 因 此
過 環 臺 震 剝 一 遂 長 舉 為
朱 乳 一 赤 子 提 音 泣 血 訴 冤 喜
地 痛 哭 孝 子 固 極 孝 子 以 拜

高 一 卷 第 一

高 一 卷 第 一

惠 函 謹 審

雅 體 弟 重 仰 慰 區 弟 事
諱 一 刻 顛 瀕 入 園 一 赴 哭 綴 為
此 石 斃 命 一 心 被 矣 未 復 可 言
待 一 喜 祀 一 畢 即 歸 故 棧 而
姑 留 京 第 耳 一 神 奪 功 量

書 不 盡 之 以 此 不 備 謝 忱

已 未 二 月 初 六 日 尹 判 書 用 家 抄
去 函 於 此 點 三 日 而 今 才 得 孝 子 郵
禱 一 稽 涕 也

萬 柳 查 賜 以 種 謹 為
故 人 情 味 不 勝 感 頌

高 一 卷 第 一

家狀

瑞山遺墨

府君諱熙爽字周輔號瑞樵系出全義高麗三重大臣太師聖節公
諱棨之后也世陞榮顯與麗代同終始士世而至諱龜八我 朝官漢
城尹生諱直幹系列生諱宏植判書生諱侃燕山陰四山監役不就生諱
元孫諱無何翁 明廟朝建文科自史翰發羅閣掌 書命當世新之用
事屢勸調出為外補蓋元衡中傷之歷與才餘州皆有嫌 聲手壞有遺
愛祠春秋享焉收星州時與進漢諸賢有唱酬錄 贈吏曹參判西館提學生
諱慎儀以道逸立朝學問節義日星乎吾東士林稱石灘先生 諱文貞
生諱自吉宣務郎有至孝上撤方擬用而早世生諱龍仁廟時命錄用
除繕工監役時當丙子之後三浦碑役方興勢將董監故因謝病歸隱

瑞山遺墨

一一三

瑞山遺墨

牛溪先生神道碑銘

天祚斯文再生哲人 世山石潭隱別
名 諱 擬 字 生 號 在 勳 以 仁 道 德 之 妙
性 情 之 微 於 甲 一 而 三 則 瑞 富 向 以
辨 會 通 多 疑 也 接 而 和 之 微 且 蔽 送
見 仙 性 我 此 壘 之 先生 金 季 積 友
連 時 孔 躬 身 困 心 亨 人 喜 我 知 天 不 家
欺 人 後 而 沉 玉 空 乃 後 上 元 後 矣 不 疑 且
夫 子 之 侯 遠 文 煇 燿 道 而 終 誠 善
者 尚 品 凡 一 部 表 學 德 氏 鏡 石 堪 維

瑞山遺墨

王 一 三 年

瑞樵高生諱雲樽生諱潤生諱相奎瑞農高世世文章行誼為世所推金
農庵諸賢屢薦為 朝而以三世遺訓純意榮達以先事自任文貞公墓
田與碑碣始營立為生諱燁字時晦號農隱 莫廟登末進士 正廟丁
酉文科兵曹佐郎兼 實錄纂修官與李尚書命彬諸宰共修 國朝寶
鑑自未第時文章聲望已名洽下釋褐後為黨人娼疾竟卒于配所
系子諱志忠字以伯氏諱燾之弟二八承而文章學識為家庭所愛而見
父兄為黨人所忤官路怨滯因德不仕生諱齊鉉字鉉文鉉父
鉉齊鉉字高績號龍庵 正廟乙卯進士學識氣節為南服之望
諱昌植以圭鉉弟二為父鉉嗣是府君之者也字士蓮文章筆法
為家庭所愛平生不以才德示人隱居養親劄子以山水自誤有
考樂之樂此全州李火恭奉如稭之有賢德之 純廟庚辰正月

瑞山遺墨

一一四

二日生府君于光州獲柳弟二歲移于南原龍岡新基五歲受讀于家
庭穎悟絕倫七歲小學能曉文義鄉父老多遺虛奇愛之以宋鑑綱
目等書考文程句讀如風習莫不贊期速大十三八經傳上程不加鞭辟
而近裏儀範不待警勉而純禮科具大體皆其所能弱冠之年已有
聲名於場屋間府君以家戶落南後久滯立揚自期為學勤業焚
刻若凡十三經外家諸書無不誦而貯蓄時著詩賦論表義策至數
千首每入場見題手不傳筆同傷人雖生面來問題占如堵立方措思中
友酬石應如渡江河有知舊一人亦問題旨府君大責曰他人之問吾不
深咎矣子是吾鄉翹楚之士皆稱巨擘未知此者向人問之沒廉忘恥
僥倖托名士習之鮮恥莫甚也其人僕之謝之其後未公講業焉此時科
規已糾紐請托成例賂貨公行未克齊門抱琴之歎丁巳下第因述懷以歸

其詩曰寶鏡磨來四十年光輝迥照日中天三鴻待價無人識歸去龍岡學上懸自是漸絕科官之意已未連地李氏憂家痛刃極幾至滅性自少出入科場但始憂慈念而未得榮養為骨髓之痛壬戌自上問三政之弊公對策展盡底蘊而道伯惡其鯁直私為排去未得上達丙寅萬東廟撤額本鄉全漢忠李豐潤諸公舉疏叫閣公奏擊疏之草較許于孤山任長任長夢公掣曰此疏義理極為昭明因問掣疏人姓名曰此非科儒中人也云疏入既滿滯囚人皆喘公獨夷然入慰金公從容固旋於外送金公于懸山匪所是年與朴文龍休同為避世之意入長水長安山下結廬講學及沁都陷報至與朴文及長水縣監李義道同為舉義許方界已成指日行軍矣聞汗虜歸化而罷未久朴文病沒其子侄皆是妙年客土巨創倉皇無緒公痛其絕迫初終枯樞運喪諸具親自點檢使無餘

憾而公即還鄉處士公未年以烟崇恒在怒摸每發公負抱而安之百方托藥丁卯七月疾崇熾劇公不辭帶藥餅糜飲芽事身必親之不使家人八月五日竟丁憂公年五十二歲境自初終至虞卒哭不絕聲祈寒感暑不脫衰絰風雨霜雪不廢上牕以禮三年眠閣乃絕不行曰見科札仕為親在也今焉更誰為若選於鄉貢先切學之名足矣亦其可也乎自後日陪從叔樓雲公與丁桂峰昌夾李安命齋行州諸公逐日講唐公於諸公年差後皆以畏友稱之魯字有疑難處必輒相置焉洪文宜慶當曰吾輩中望字間實字其其人非科白中人物也丁文克味常去吾於李文後輩故未能盡知然學識談論平生見此文而已吾讀庸學再三周遍莫知其味自受讀于此文曉然庶幾其時杏齋夏課年感會桂峰為師而李文并輩數三十員共做課每日課畢李文整襟危坐

諸論體疑性理既歷代治亂則左右皆拱手堵聽而不敢贊一於此文之前云癸酉甲戌間在見勉庵崔文疏草必精瀟于案牘危坐兀讀輒嘆曰噫嘻曰幸此公存焉禮義東方廢幾有辭乎後世夜不孰寢者多矣當丙子大無之年統一科無一把之獲至情各家大小奴僕等生活方略曲盡備通一無飢餓流離之弊已印式李臨林重上素以清堂秀試南道拔公之卷為榜首辭語同列曰今苗榜首試卷豈非凡科儒而吾見快事者掛榜之滿場士流同聲大贊曰幾十年來初事李恭為首道內冤屈無遺真感德事萬口相應不是快事乎吾無愧於今當責任瀉公之文置案上而覽既為幸已和倭公與盧進士極壽兄弟共談文本鄉以舉叫閣之議而公有病症未能上京但製疏以送之壬午春又采鄉解初於兩場九月觀會試自有甲戌生特付之恩典觀試之儒或有冒年添歲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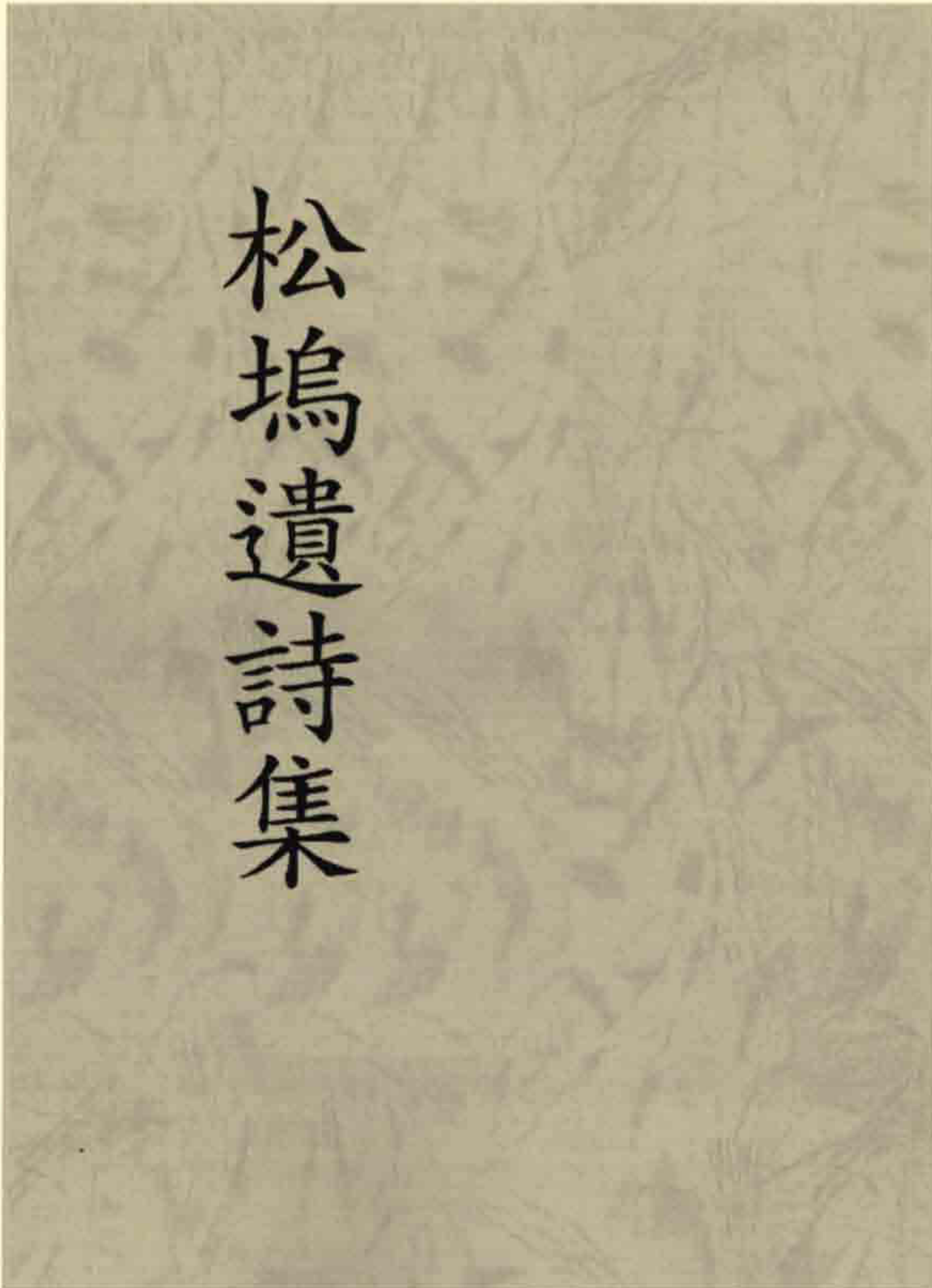
其時本鄉進士居齋儕友同八試園見公曰兄且衰老矣今之科掣元榜未可知也世皆于數年如減仕為之兄則三四年加年以此用權俾兒今榜如何兄若有意此等園旋弟等當設力矣勿慮為之公感然若兄等是何言也惟我 聖上 誨天 鴻淫 與甲戌諸生同國家之休慶此其感奮也無知士流熱於欲者委筆作甲欺天罔上吾卒年讀聖賢書一朔頁所學而八欺罔之地乎兄等出去兄等似為謀忠實陷戎于不義峻辭拒之諸公曰兄之志則可笑時勢不迷則何公曰進士一石何物耶吾夙昔為伎倆所使隨例觀光得之與否吾何問焉權榜竟滿公名諸公又未慰之公火無幾微色言笑自若諸公曰吾輩平素眼兄二探履今日見之果迥出吾輩萬一真君子人也云癸未自上選各郡才德之士本鄉以公名元選知萬多勸行公

笑曰兄弟不過漢時魏桓之友也立名行志此其時乎相為談笑久之
 七月以病症季席十日即挂靈公終喪遠近士友多造問慰起坐
 談論自若而臨別悵然有永訣之意其後疾漸劇一夕命不肯近前
 曰吾年踰六十死亦何恨但以汝兄弟為念矣吾家自先以來文種不
 絕以及于吾而汝父兄弟汨於家屢不違也事汝之兄弟年未成而舉
 未就吾家文憲未有所寄而悵此為恨身居處恭執事敬義明仁
 熟先祖之心法且祭祀之節見廟之禮迎送賓客正衣冠端坐讀書
 家庭訓道之言奴僕教使之事汝所目擊耳染於吾之所為汝雅
 文程未達年記尚幼潛心向意讀書為家之事一如我之所為因噓
 噓曰許多日也何特今日今日即曾祖考忌辰八日吾未明生盡欲語而
 未成先君兄弟分嚙指血血有頃更甦語音如常各處通卦文字與

曾祖考墓地所占處府君身右之地一遺訓而辰時考終梅陰倫舍
 嗚呼哀哉府君享年六十四有美于東面竹山丁百改葬于北面漢
 西堂之原配全州崔氏晚六先生之後士人世樂之女先公十五年而沒懿
 行淑德八人深矣至今老僕老婢嘖嘖歎慕故老相傳云某宅後進之
 婦某夫人之陰德云有二男一女男長先考諱教瞻暨通德即徐鎮
 益女次教風聖士人李圭鐸女女適全州李正儀先考生三男二女男長
 即不肖次壯錫永錫教風生四男三女長根錫次際錫祖錫俊錫內外孫
 若干姑不盡錄府君抱負宏博操履純正而布衣終老者蓋不肯隨俗
 俯仰皎潔獨行故不利世途然此乃傳家之心法自先世固然中年上京
 時本鄉士誦公詩文與行義於勢達、即欲要見公終不往見挂靈公哀
 禮時得護喪官吏之意見也至於焚樹驛于時履試之後各邑守宰多

會于此地也曰此火此道內巨壁手尚且違緩於成功因傳姓啣于座中有節
 谷城諸通姓名後因曰科前若見如我者尚且可圖公徐答曰吾平生以詩文
 觀科不以面目座中皆眼焉其明年泰初終傷者谷城倅於鄭翰林寔雅
 實有力焉此可見府君不隨俗之大舉也樂溪丁文尚圭督公文曰
 公沒千餘年至今士林誦公不怠莫不嚮風慕義樂為之稱曰君子
 一事足以擊手苦之行風凰一羽可以知全體之五色彼大冬松柏石春夏與
 衆亦無異而寒天草木黃落獨鬱鬱蒼翠者此可見公氣節
 亦可為為士勸也云府君平生著述文字不為不小而公不以類
 聚為意無家藏焉如于哀集皆出士友家而家中所存科
 具六體而已不肖文辭拙陋沉在草土神思枯落不足模瀆萬
 一而竊悲久而愈失方擬訪記于長者之門故叔拾手日耳目于

29. 송오유시집(松塢遺詩集)



송오유시집 松塢遺詩集

21×29.5 1책 69장

송오(松塢)는 전의(全義) 이한수(李漢秀: 1899己亥~1963癸卯)의 호(號)이다. 종숙(從叔) 서산(瑞山) 휘(諱) 풍호(澧鎬: 1867 高宗丁卯~1955 光復乙未)를 따라 은거행의(隱居行義)하여 법가유풍(法家遺風)을 지키면서 시문(詩文)은 별로 유념(留念)하지 않아 흩어진 것을 재종질(再從姪) 경근(庚根)이 수집(蒐輯)하고 권영팔(權寧八)이 국역(國譯)하여 성책(成冊)하고 만장(挽章) 몇 편과 유묵(遺墨)서(序)와 서(書)를 붙였다.

발문(跋文)은 손(孫) 부섭(富燮)이 하였다.

暮春雅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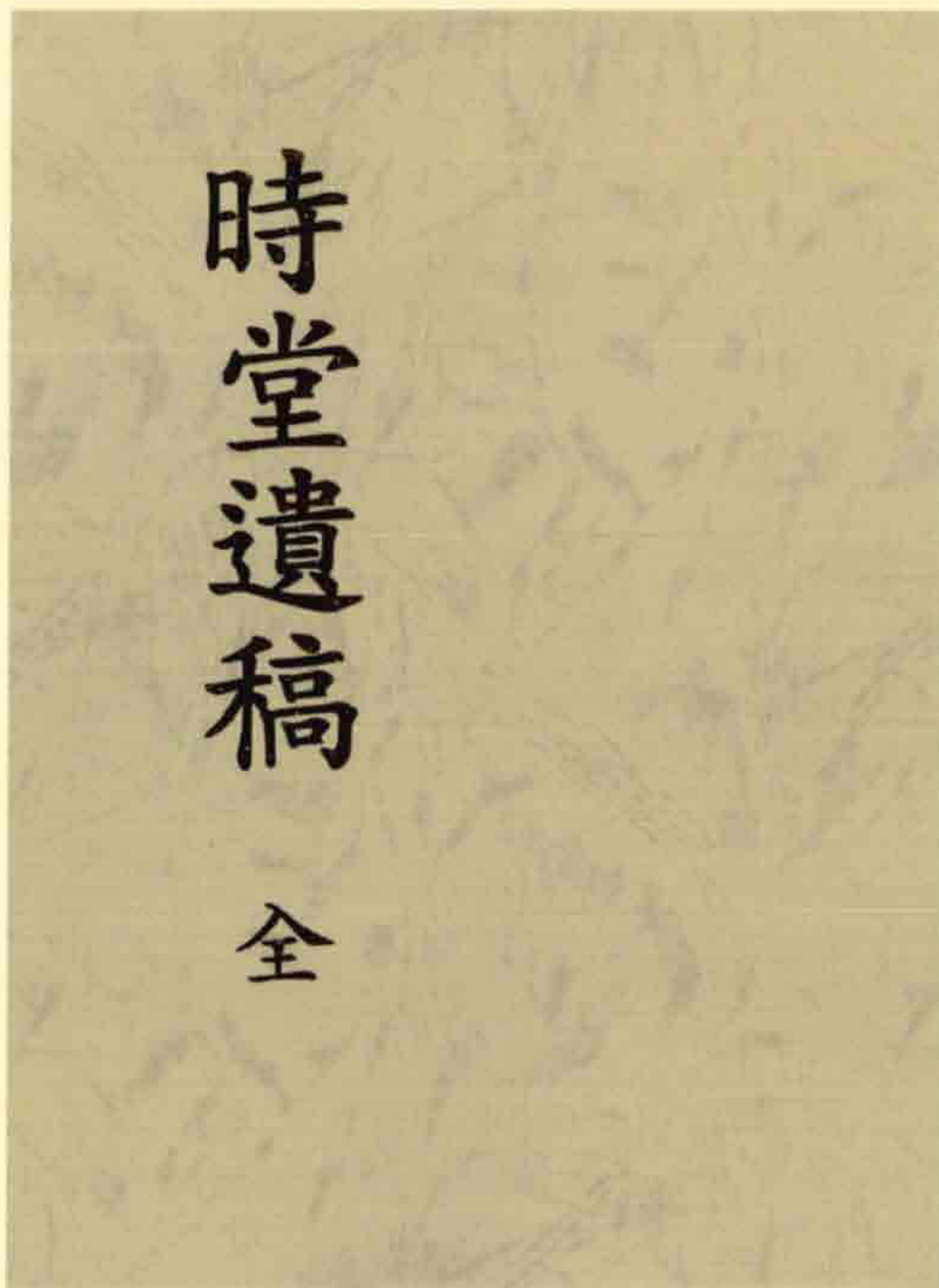
百綠千紅芸發天	은갓산 은갓물에 새봄이 와서 푸른잎 푸른꽃이 마암 피어나는 때
團樂此會又今年	團樂한 이 모임이 또 이제 이 환회를 맞이하였네
芳草平鋪蒼羅色	芳草는 푸르러 평평하게 푸른 비단빛 펼쳐지고
香風吹送玉階烟	香氣인은 봄바람玉성들의 외린 연기에 불어오네
花裡佳辰黃鳥轉	꽃은 時節 꽃이오소리에 피고리소리 흥겨워라
雲邊白日老僧眠	하늘엔 구름이건 하늘가에 높은 중 뜰음이 환창이구나
古來此地多逢別	에도 조차 이 땅에 만남과 離別이 갈기도 관대
別顏停步期後緣	아귀은 作別 別을 영추고 또다시 만나는 날 期約하네

註句解
 ①暮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②團樂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杖故未得收達書 金君
 子而伏想鄉校多士之調
 數如快事呈以以祖讀
 玩伏以了了
 庚子五月十五日李漢秀書

伏惟仲夏
 愈尊禮事萬寧 就
 書即處七世祖農隱文
 集及曾祖瑞德造福而
 今表即出於德果久其
 然幸能律法不飲多其部

30. 시당유고(時堂遺稿)



시당유고時堂遺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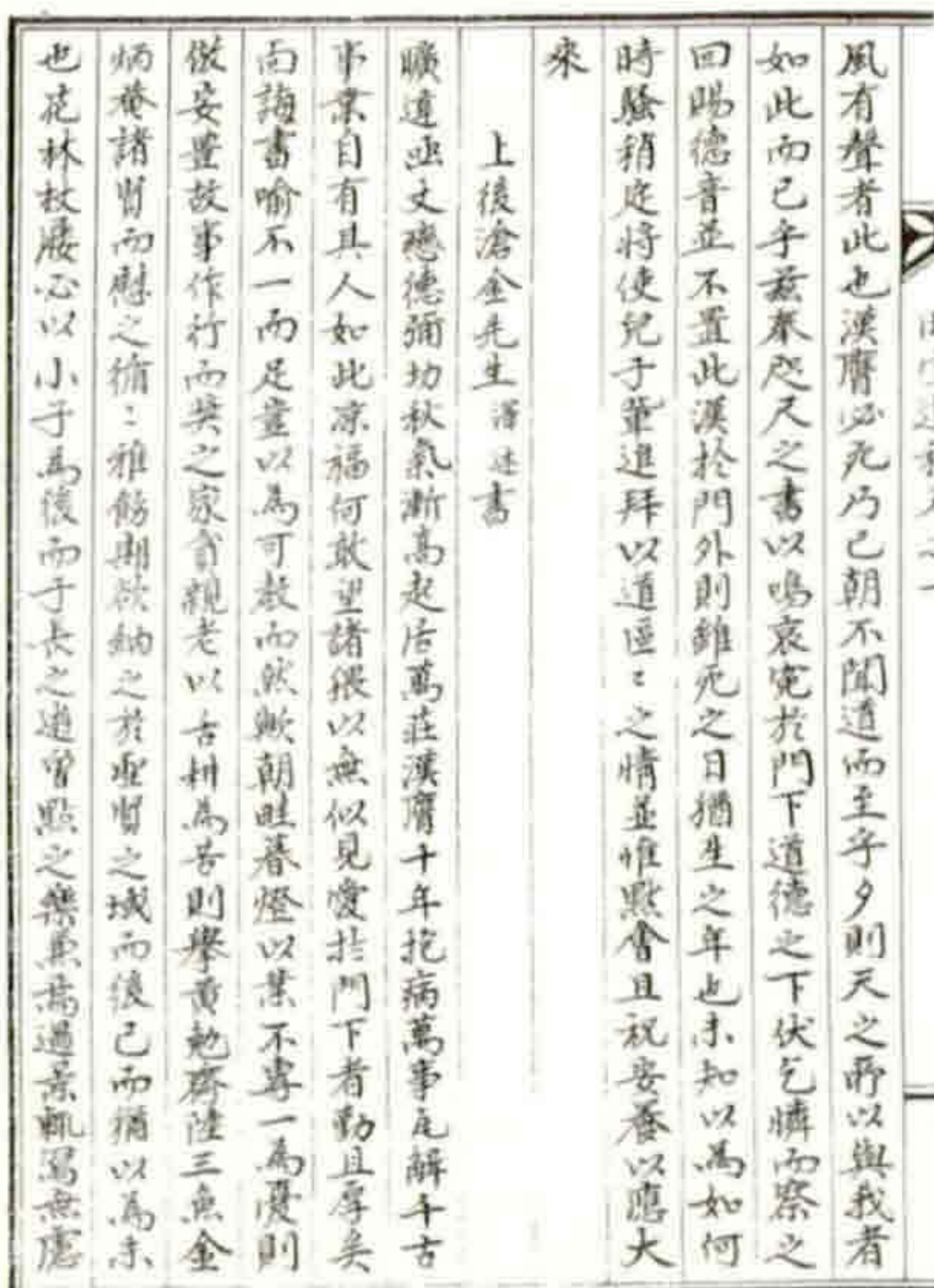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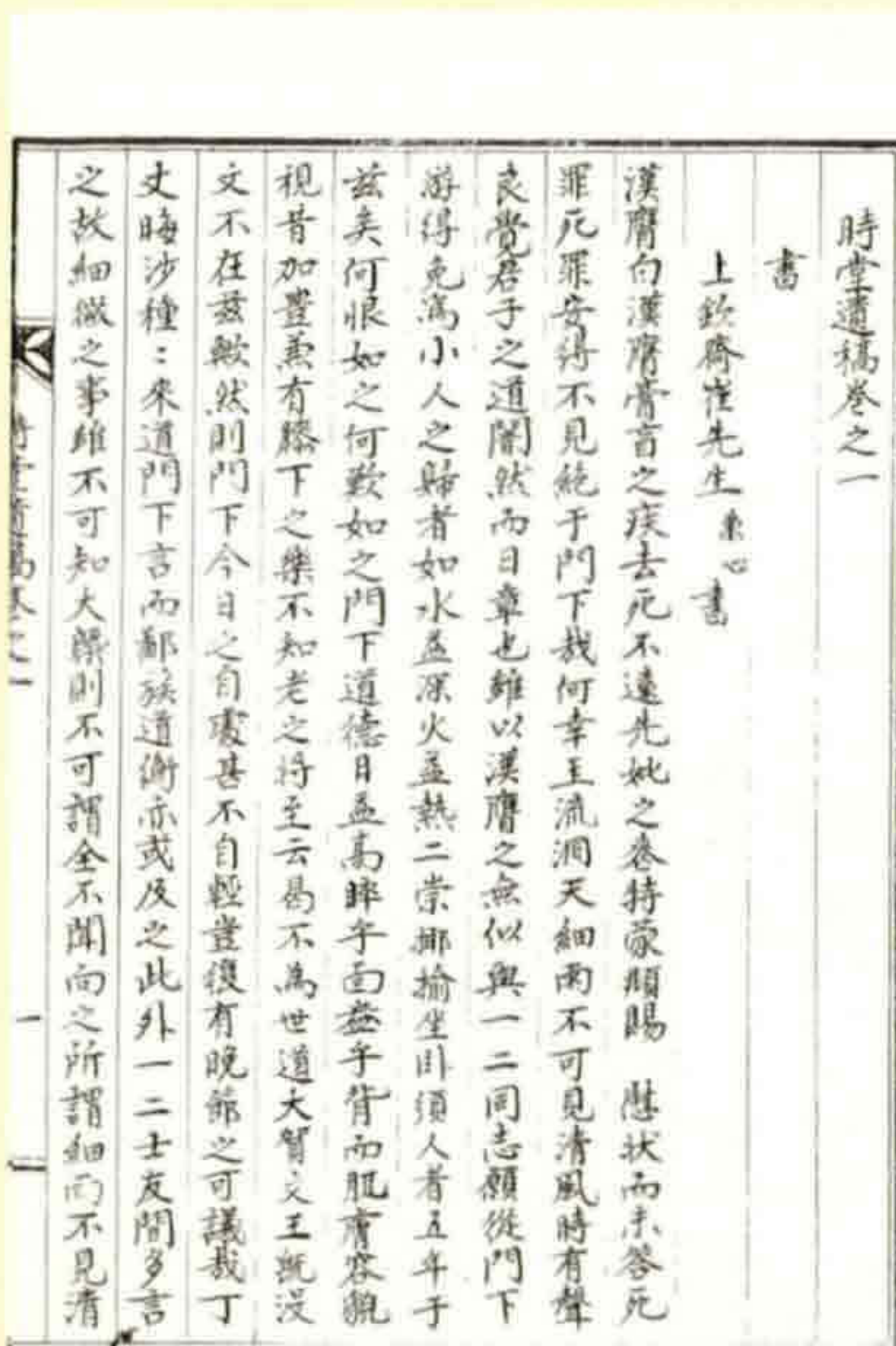
21×29 2권 1책 50장

시당(時堂) 전의(全義) 이한응(李漢膺: 1902 壬寅 ~1949 己丑)은 총명(聰明)이 과인(過人)하여 한 번 들으면 문득 기억하는 재주를 지녔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포부를 마음껏 펼치지 못한 채 짧은 생(生)을 마치니, 이는 청약(淸弱)한 체질(體質)에 주경야독(晝耕夜讀)의 과로 탓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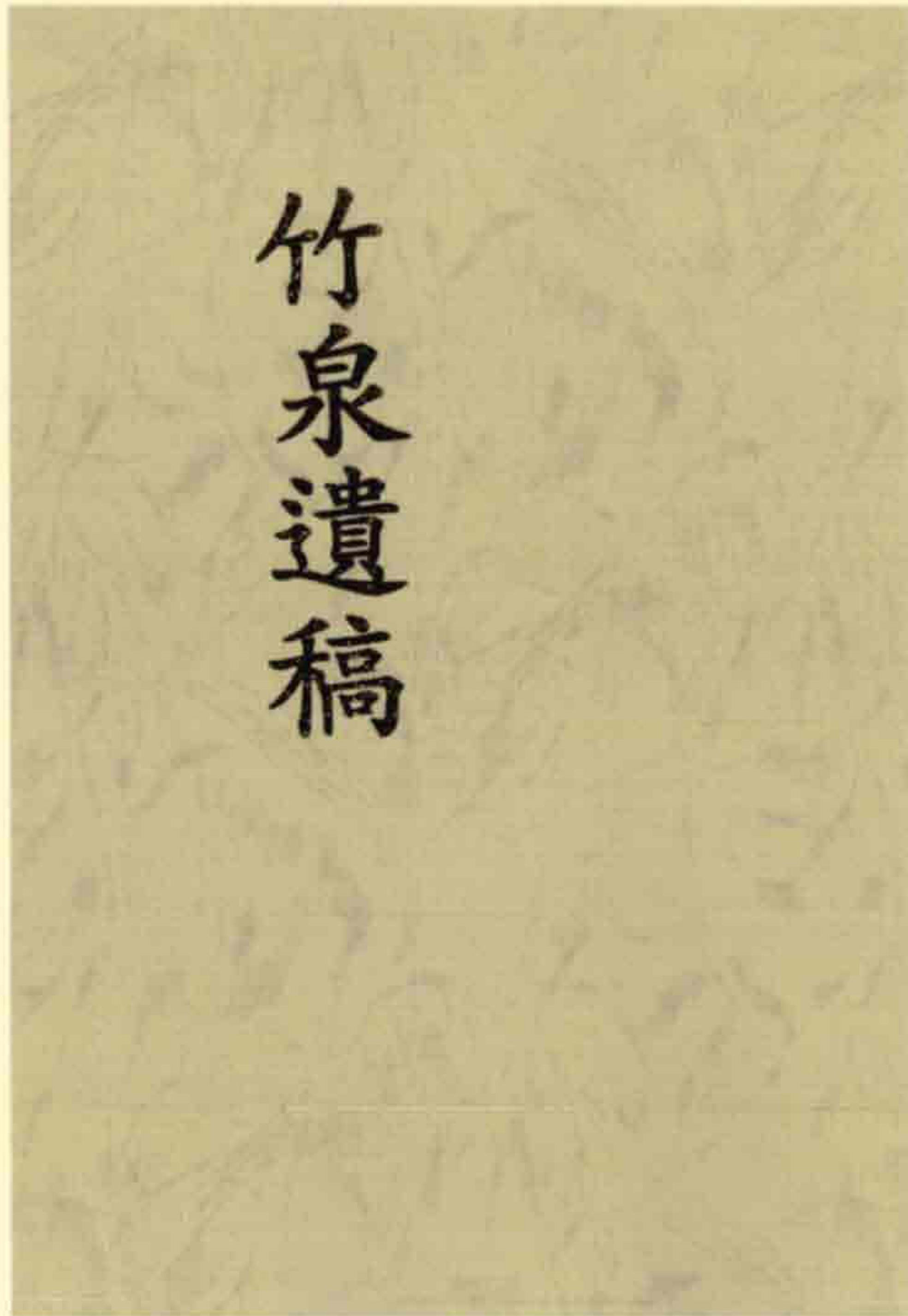
그의 시문(詩文)은 청아간결(淸雅簡潔)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을 떼지 못하게 한다.

1권은 서(書), 잡저(雜著), 기(記), 서(序), 발(跋), 제문(祭文), 상량문(上梁文), 혼서(婚書)로, 2권은 시(時), 시(詩)로 나누어 친필(親筆)로 남겼는데 글씨 또한 유려(流麗)하다.

서문(序文)은 족질(族姪) 도형(道衡)이 짓고 썼다.



31. 죽천유고(竹泉遺稿)



죽천(竹泉) 권봉규(權鳳奎 : 1865 高宗 乙丑 ~ 1946(光復 2年 丙戌)는 안동인(安東人) 윤수(允壽)의 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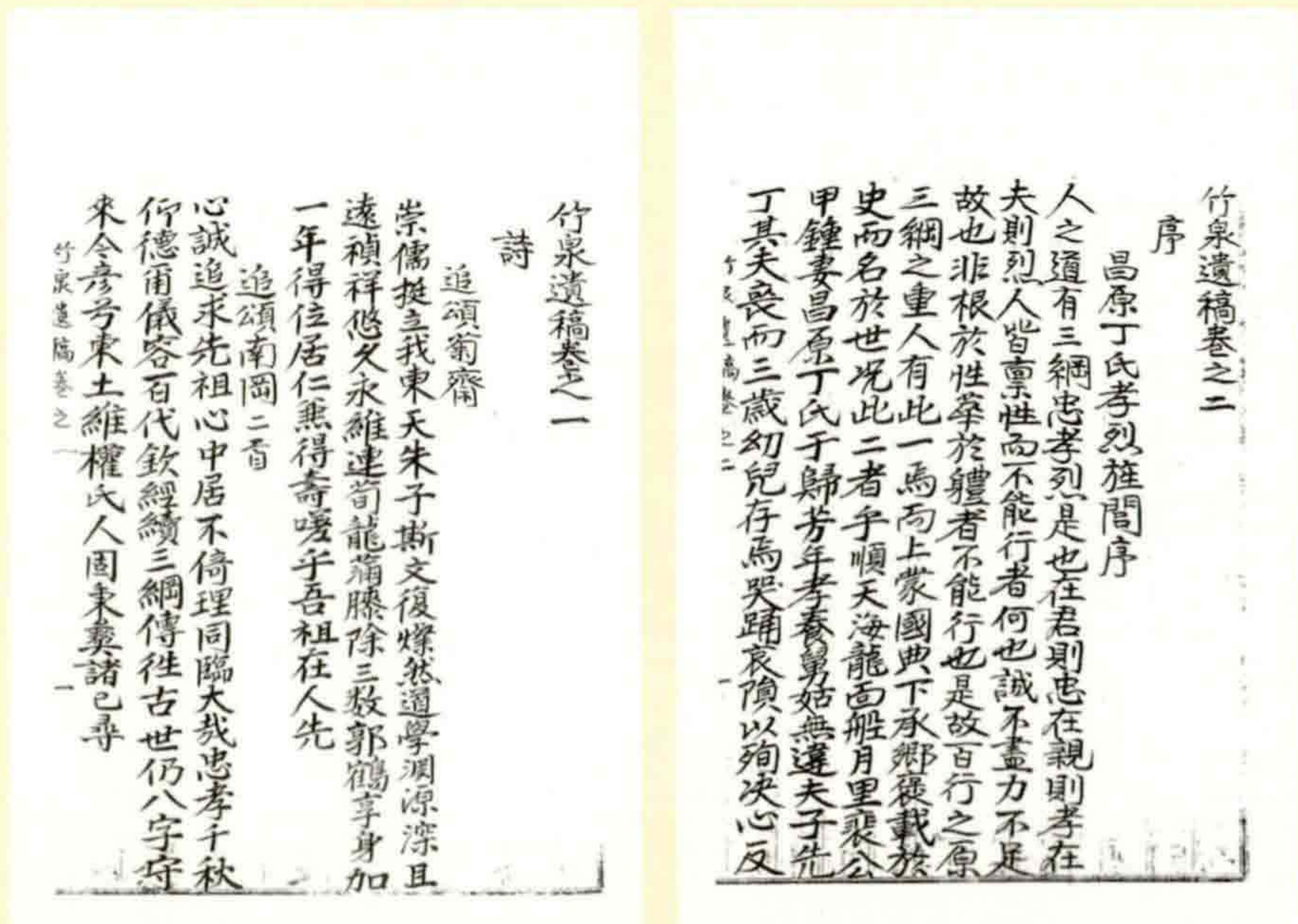
산서면 신창리(新昌里)에 살면서 오산(五山)의 족형(族兄) 청련재(靑蓮齋) 권진규(權晉奎) 문하(門下)에서 수학(受學)하였다.

1권은 시(詩), 2권은 서(序), 기(記), 잡저(雜著), 사(辭), 침(寢), 명(銘)으로 되어 있는데 청아정중(靑雅鄭重)하여 학문가(學問家)의 풍도(風度)를 알 수 있다.

글씨 또한 죽천(竹泉) 본인이 직접 쓴 것이다.

죽천유고竹泉遺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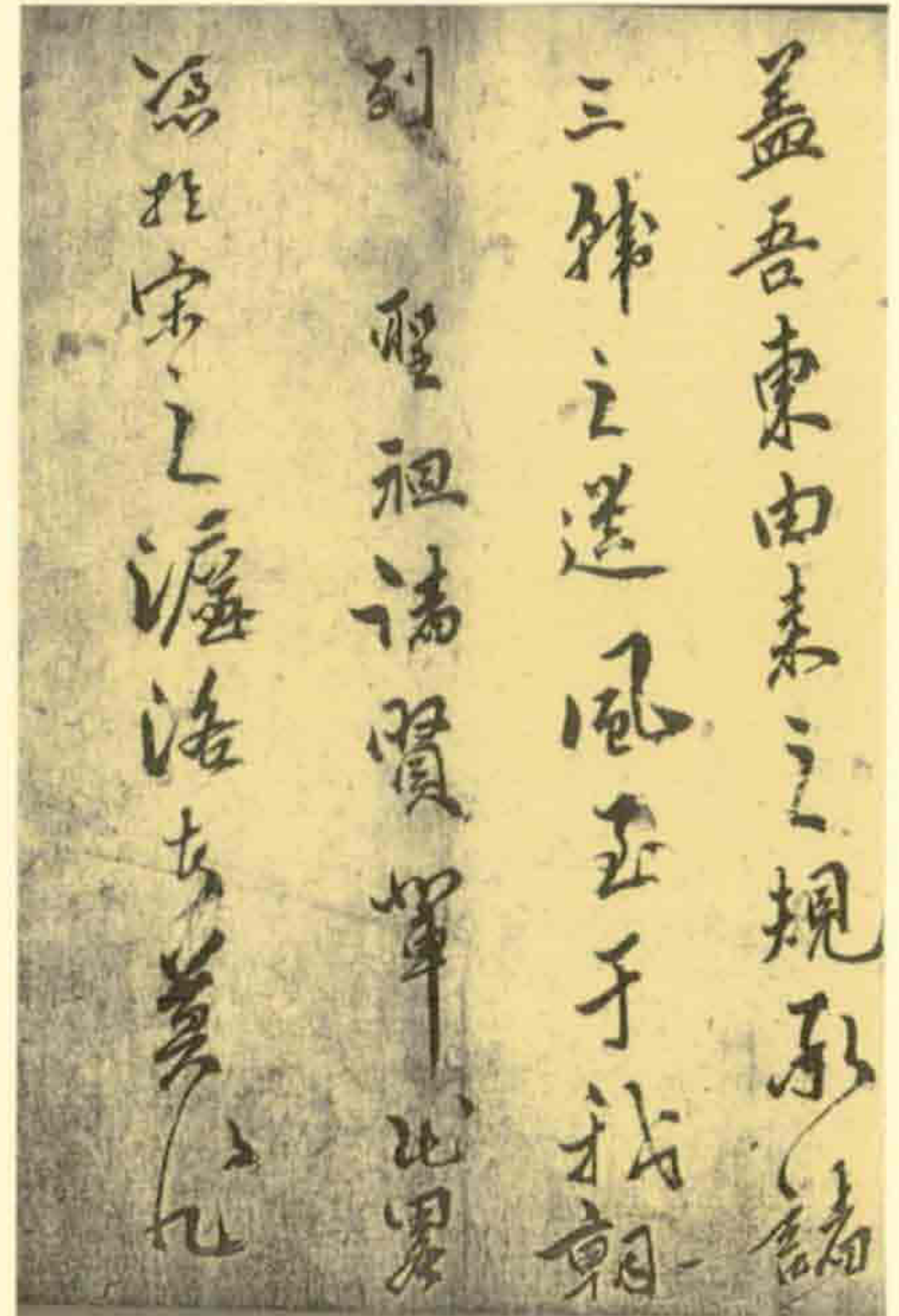
21×29.5 1책 64장



32. 구선동안(九仙洞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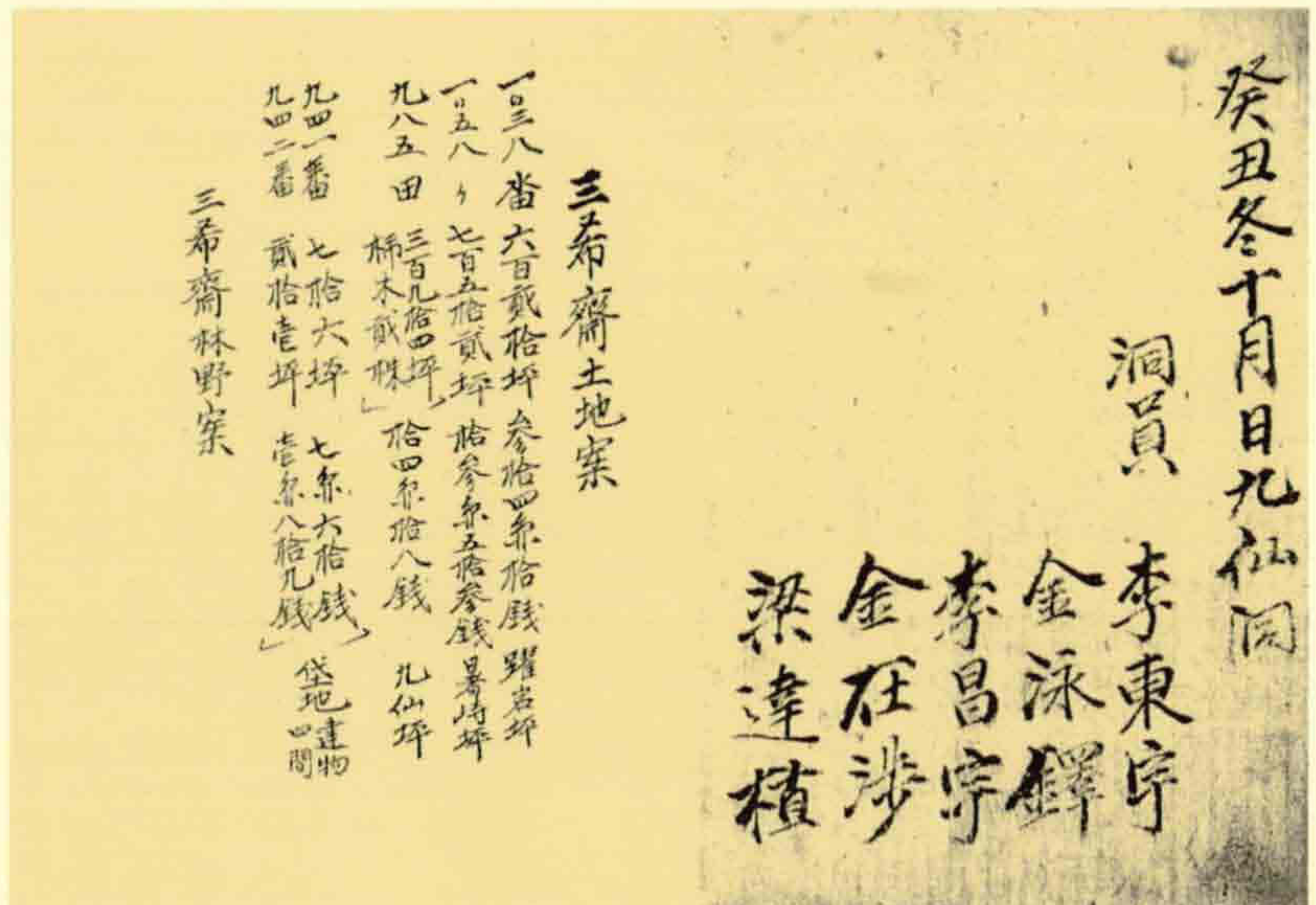


구선동안九仙洞案
23×30 1책 8장



반암면(蟠岩面) 구선동(九仙洞)에서 서당(書堂) 삼희재(三希齋)를 창건하여 자제(子弟)들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의연금(義捐金)을 청하는 글을 1913년 계축(癸丑) 10월 일에 동원(洞員) 5인 명의로 작성한 청의문(請義文)을 2년 뒤인 을묘(乙卯) 10월 일에 책으로 맨 것으로 추정되고, 뒤에는 삼희재 토지안(土地安), 식본안(殖本案), 토지 매매 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전집차용증(典執借用証)을 붙였다.

삼희(三希)란 선비는 현인을(土希賢) 바라고, 현인은 성인을 바라고(賢希聖), 성인은 하늘을 바란다(聖希天)는 뜻이다.



33. 전□□(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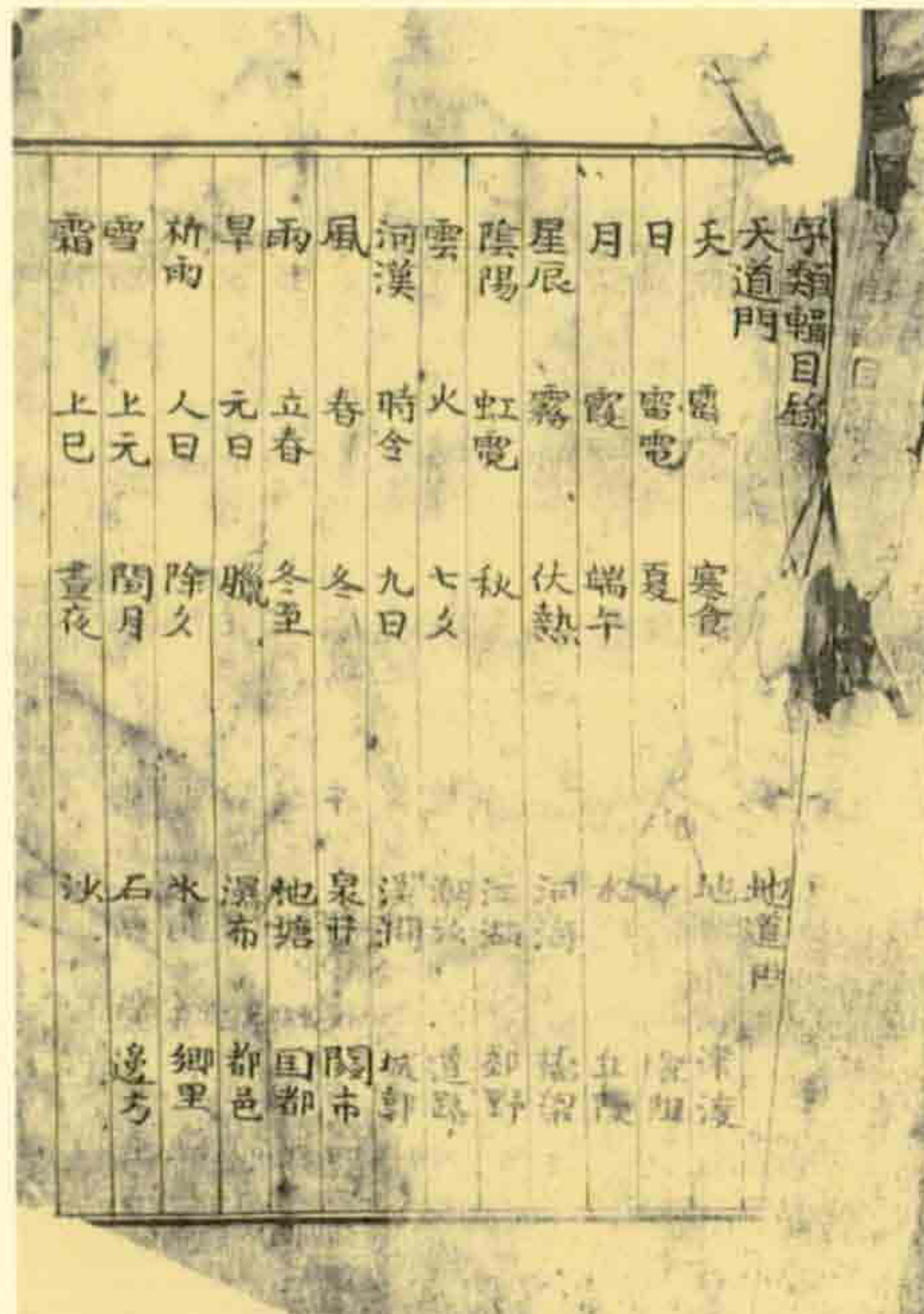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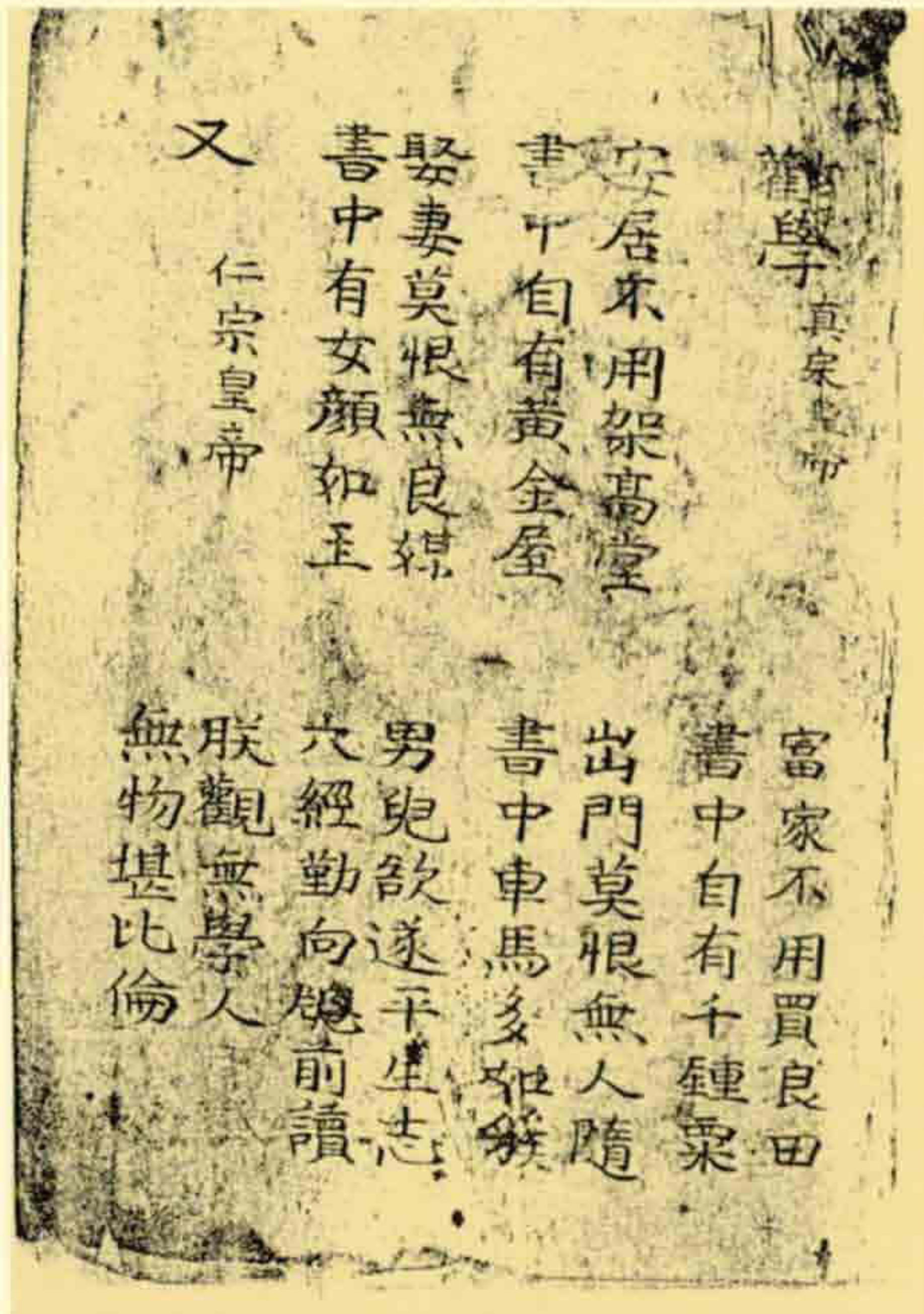


책이름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누구의 글씨인지 알 수 없으나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진종황제(眞宗皇帝)부터 동파(東坡)까지 여러 문장가(文章家)의 시부(詩賦)가 씌어 있다.

전□□前□□

16×22 1책 41장



34. 계하사목(啓下事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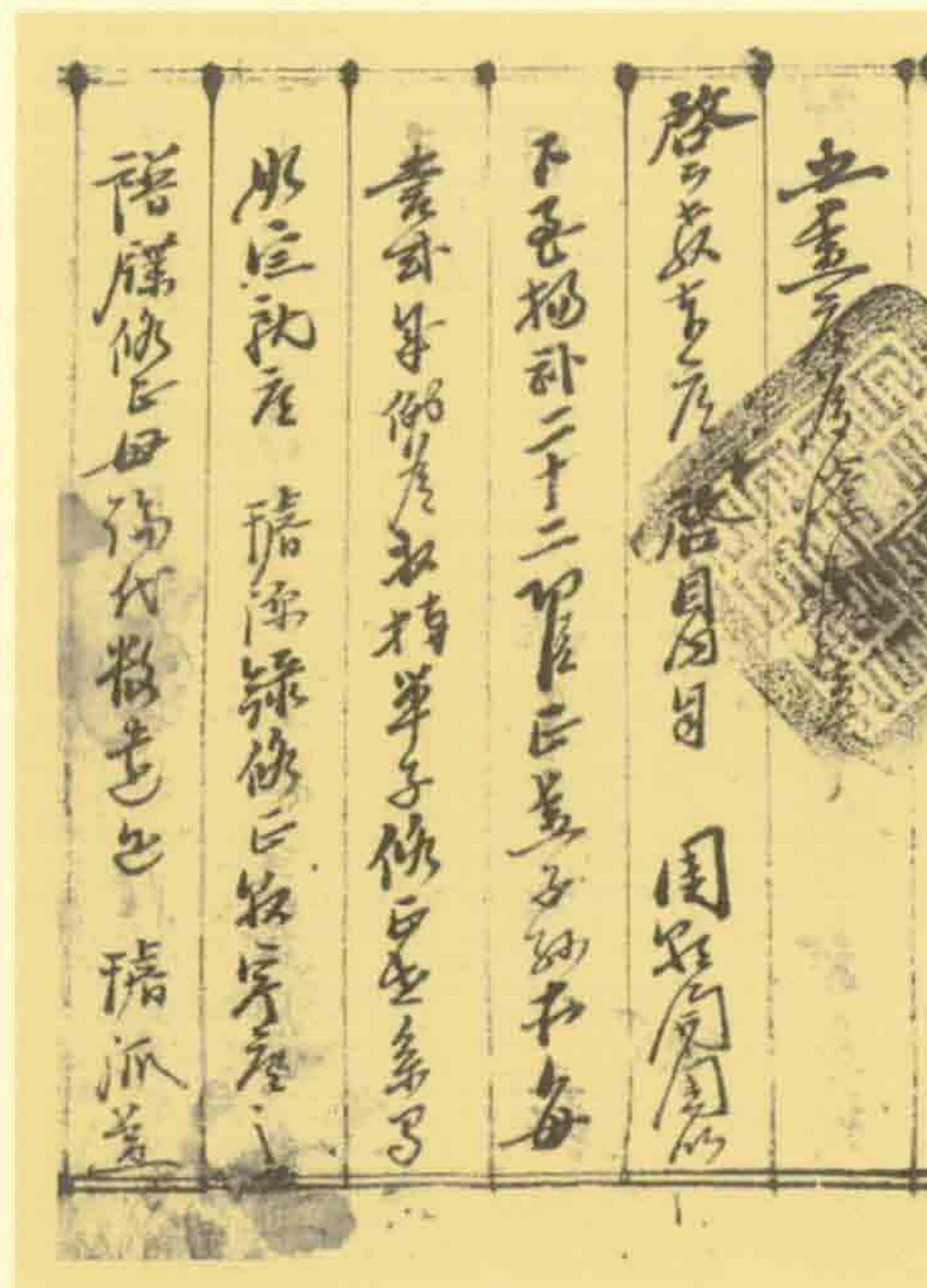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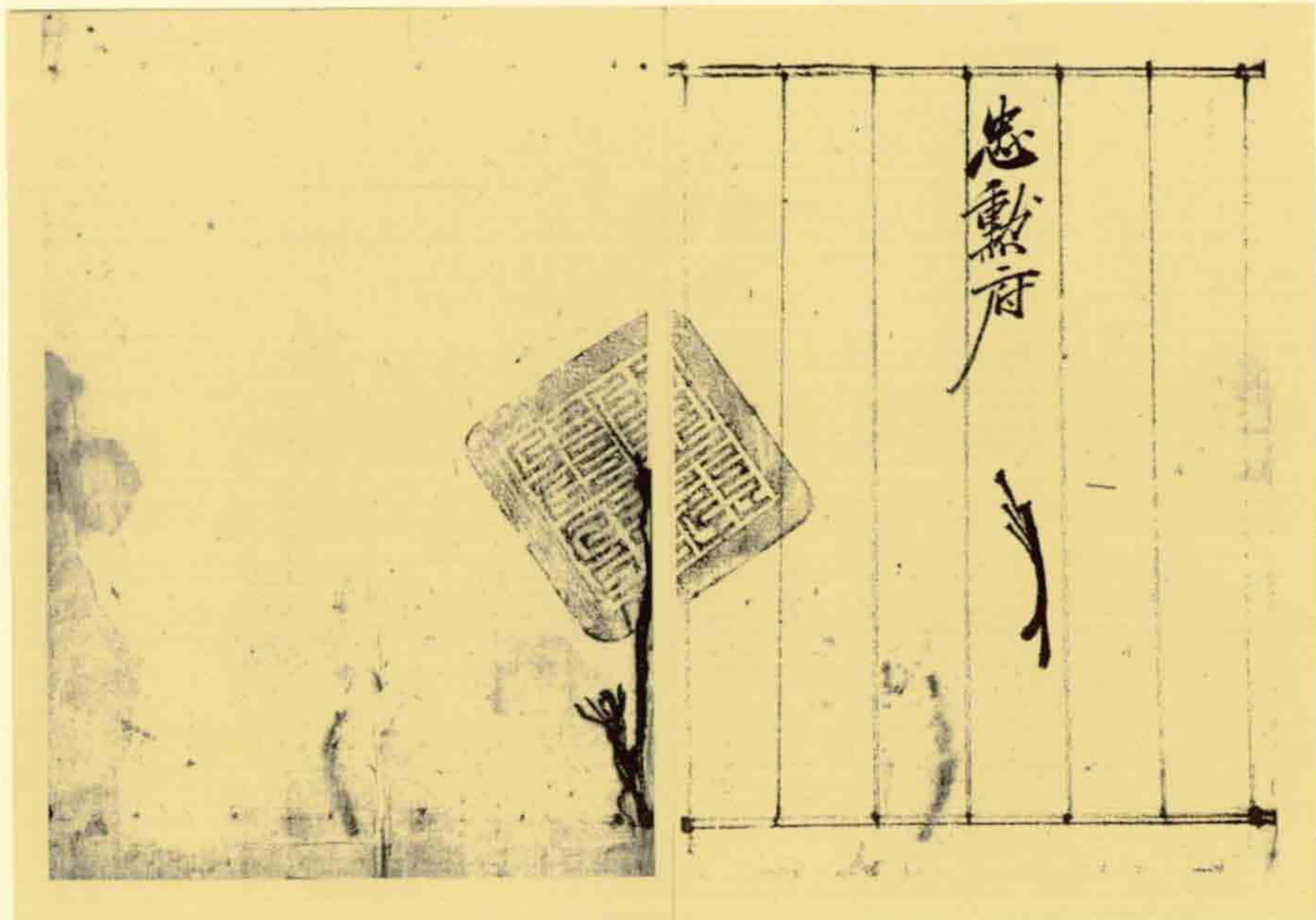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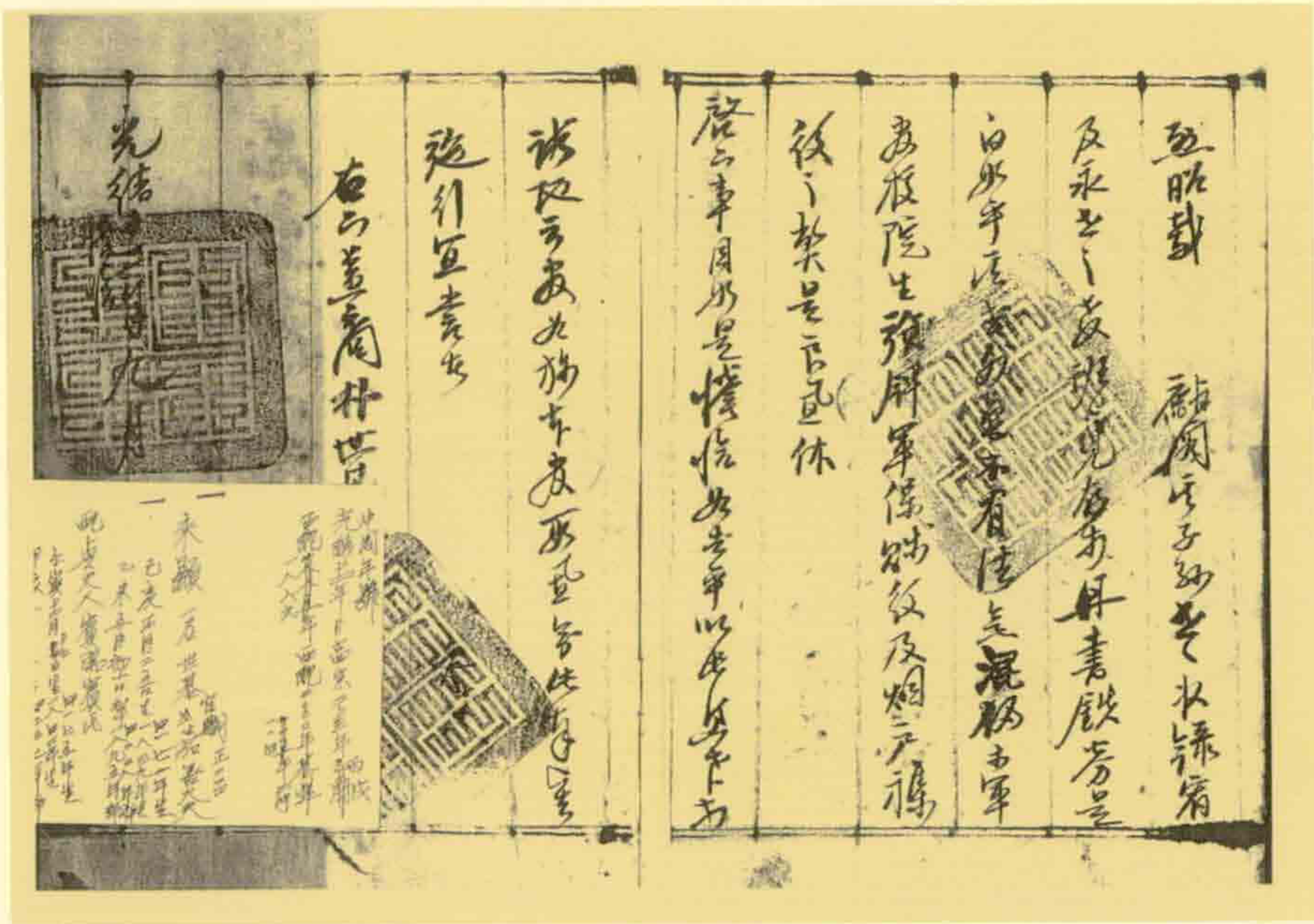
이 계하사목(啓下事目)은 가선대부(嘉善大夫) 박세기(朴世基 1839 憲宗己亥~1895高宗乙未)가 무주군 안성면 주고리(酒庫里)에 살 때 국조(國朝) 정훈공신(正勳功臣)의 자손(子孫)인 그에게 왕(王)이 하교(下敎)한 조목(條目)을 1886년(高宗丙戌) 9월에 충훈부(忠勳府)에서 등급(騰給)한 것인데, 그의 종손(從孫)인 계북면 임평리(林坪里) 박용덕(朴龍德)이 벽은(碧隱) 이인기(李寅器)의 손을 빌려 국역(國譯)하였다.

공신의 자손을 대대로 수록(收錄)하여 영세(永世)에 미치도록 우대(優待)하려는 뜻이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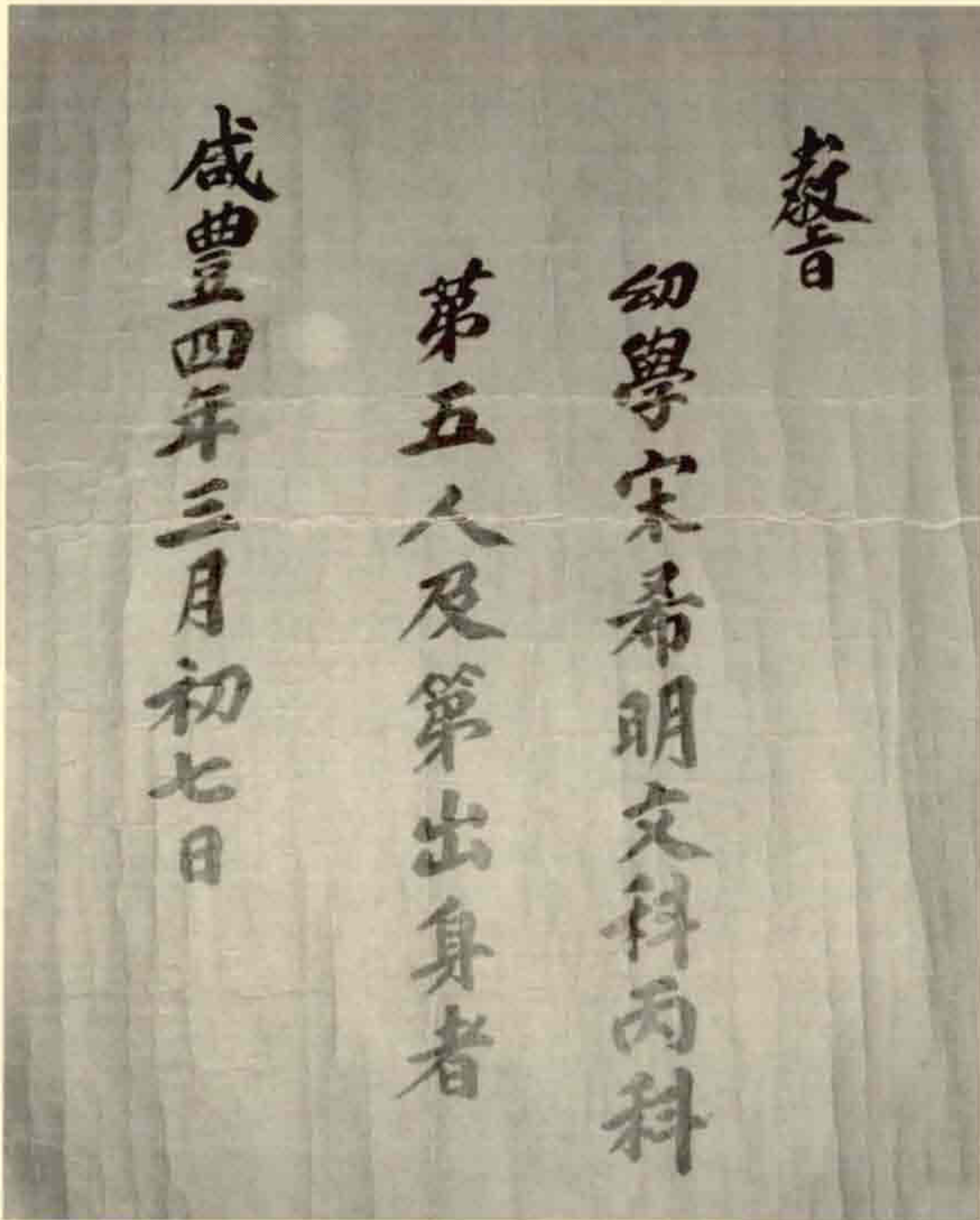
계하사목 啓下事目

21×29.6 7장, 번역본 6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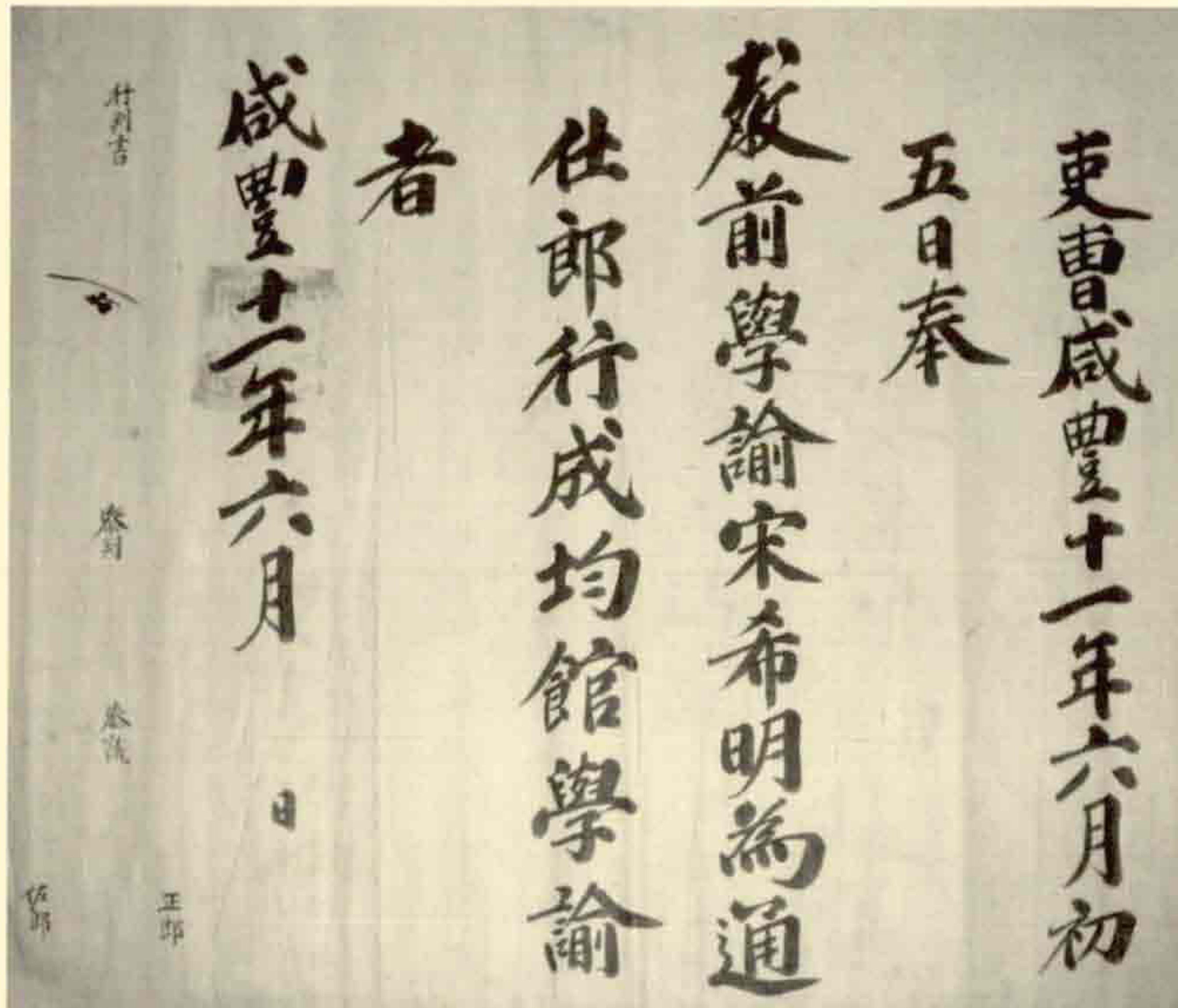


35. 송희명 교지(宋希明 教旨)



1. 송희명(宋希明 ~)은 연안인(延安人)으로 호(號)는 유초(裕樵)요 대사성(大司成) 광언(光彦)의 후(後) 의헌(義憲)의 아들이다.

천천면 연평리에 살면서 1854년(哲宗甲寅)에 문과 병과(文科丙科)에 급제(及第)한 교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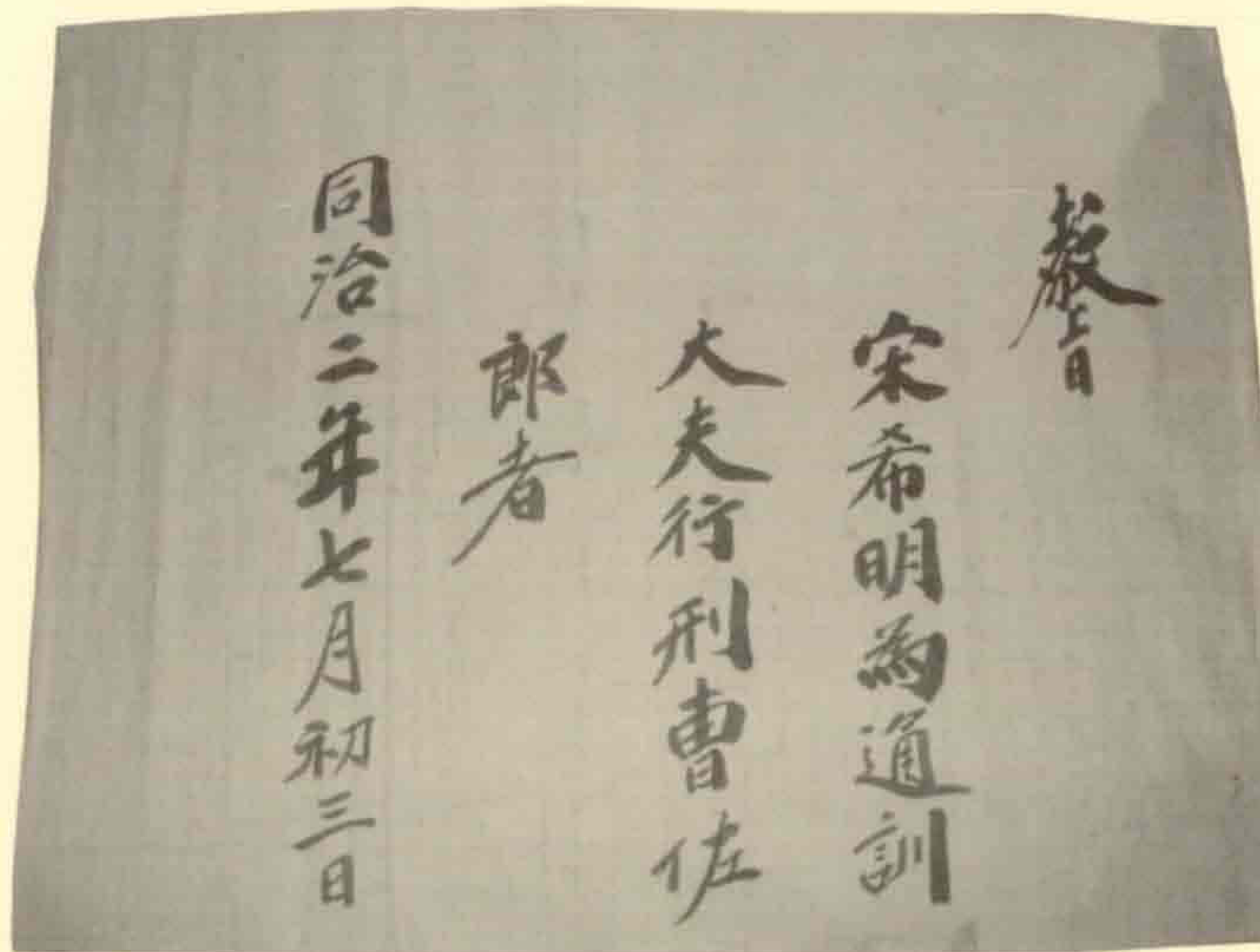
2. 1861년((哲宗辛酉)에 통사랑 행 성균관 학유(通仕郎行成均館學諭)에 제수(除授)된 교지이다. 일자(日子)는 6월 초 5일이다.

教旨
宋希明為通訓
大夫行祥雲道
察訪者
同治九年二月初七日

3. 통훈대부 행 형조좌랑(通勳大夫行刑曹佐廊)교지이다.(1863년 哲宗癸亥 7월 초 3일)

教旨
宋希明為通訓
大夫行司憲府
持平者
同治四年十月 日

4. 통훈대부 행 사헌부 지평(通勳大夫行司憲府持平)교지이다.(1864년 高宗甲子 10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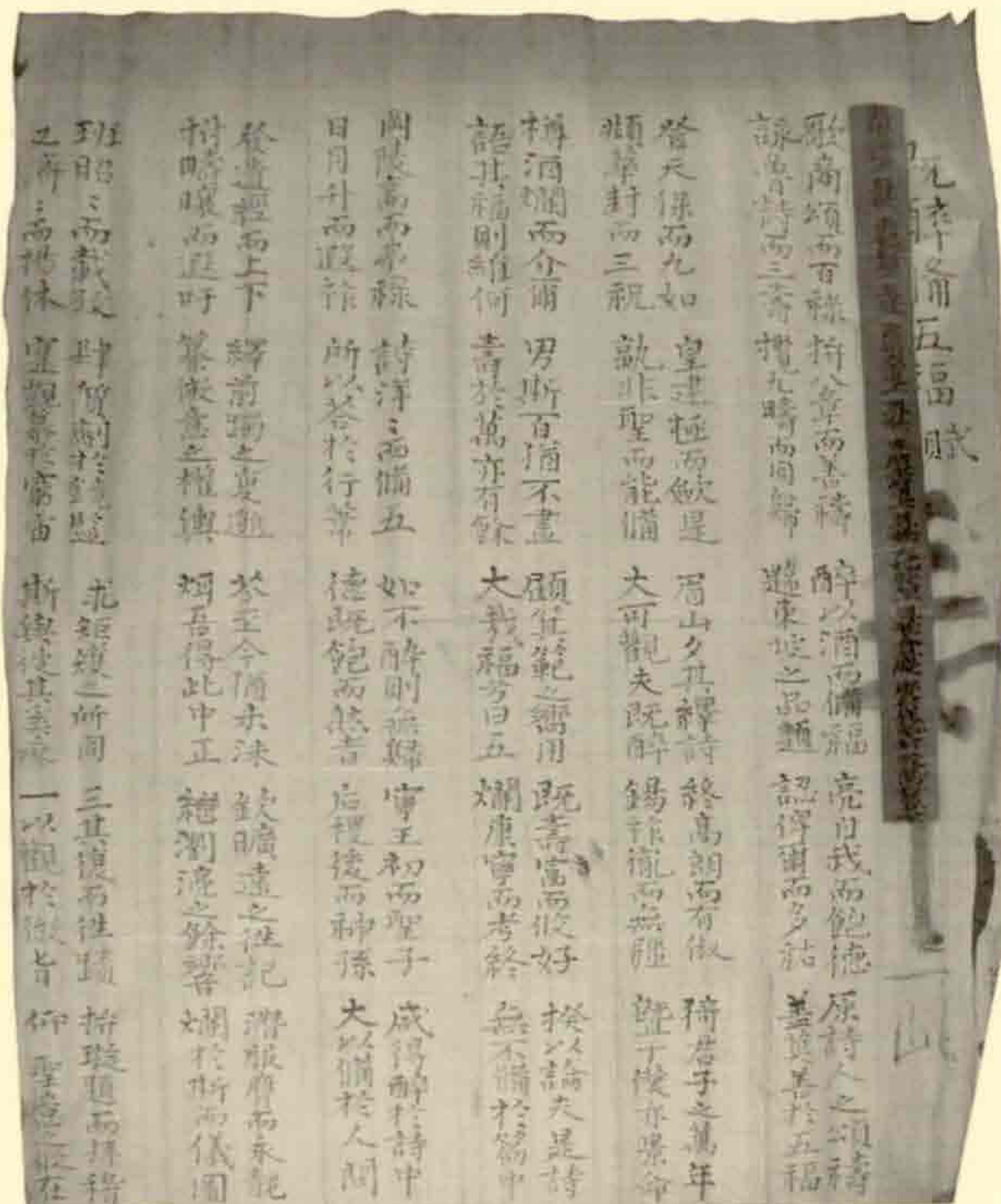
5. 통훈대부 행 상운도찰방(通訓大夫行祥雲道察訪)교지이다.(1870년 高宗庚午 2월 초 7일)

◎ 기취 비 오복 부(飢醉備五福賦)

부(賦)는 시(詩)의 류(流)이다. 시가 육의(六義)가 있는데 제2가 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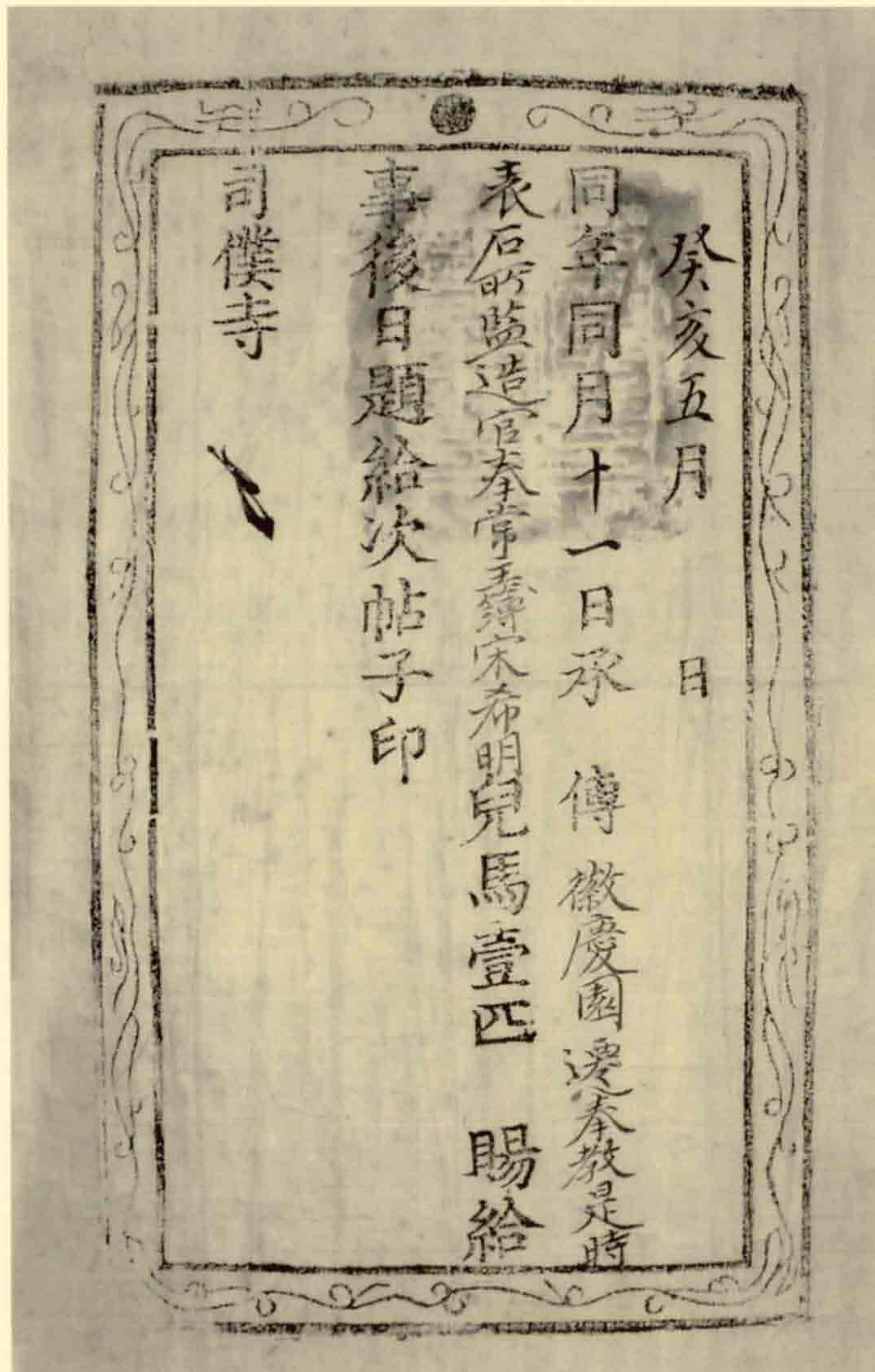
작자(作者)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송희명의 교지와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과제(科題)인 듯하다. 당시는 부(賦)로 과거를 보였다.

오복은 다섯 가지 복으로서 수(壽), 부귀(富貴), 강녕(康寧), 유희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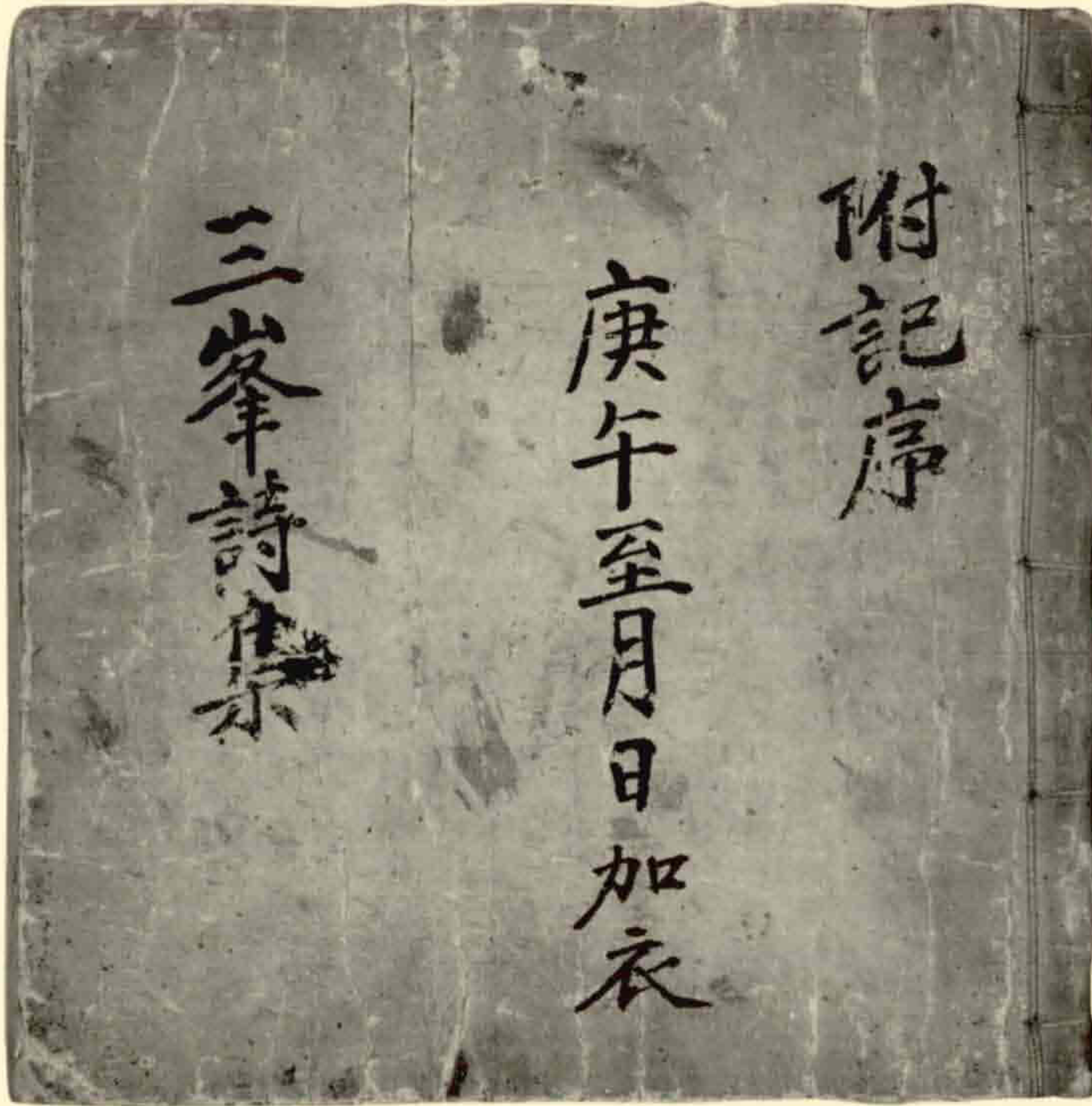


◎ 아마 사급첩(兒馬 賜給帖)

1863년(哲宗癸亥) 5월 11일에 봉상주부(奉常主簿) 송희명에게 어린 말 한 필을 사급(賜給)했는데 후일 사복사(司僕寺)에서 첩자(帖子)를 써준 것이다.



36. 삼봉시집(三峯詩集)



삼봉시집 三峯詩集
19.5×20.3 1책 60장

삼봉은 충주인(忠州人) 박치효(朴致效 : 1866~1931)의 호(號)이다. 시(詩)와 술(述)과 무전 여행(無錢旅行)으로 한평생을 보냈다.

현감(懸監) 권직상(權直相)이 시를 좋아하여 자주 교유(交遊)하였고 기발한 시상(詩想)과 호방한 성품으로 가는 곳마다 명성을 날렸다.

김삿갓처럼 모아놓지 않아 조카 상석(尙錫)이 아는 대로 적어둔 것이 한 권의 시집이 되었다.

칠언율시(七言律詩)가 주를 이루는데 때로는 낙운성시(落韻成詩)로 여러 수(首)를 짓기도 하였다.

금난정서(金蘭亭序)와 자락정 중건기(自樂亭重建記)가 있어 부록(附錄)으로 실었고 1980년 묘비(墓碑)를 세우면서 종손(宗孫) 수섭(洙燮)이 묘갈명(墓碣銘)을 지었는데 끝에 기록하였다.

公州佳遊其諸族共知

囂塵閱歷拜先山團會聿成花樹間老去
詩樽三月暮評未泉石一區閒幾年長水
相傳信是日公州喜對顏此地風烟惟在
目丁寧他夜夢中看

夜又

兩地迢々積水山杖頭轉路沒雲間青灯
古屋書聲在細柳虛汀鷺夢閒病俗多年
生白髮含杯盡日借紅顏源々宗誼深如
此花樹春風帶笑着

相逢今日社無量同醉故人盃鷺隨漁笛
留閒境風送林花繡碧苔牛羊漸下斜陽
晚跌宕羣帝去路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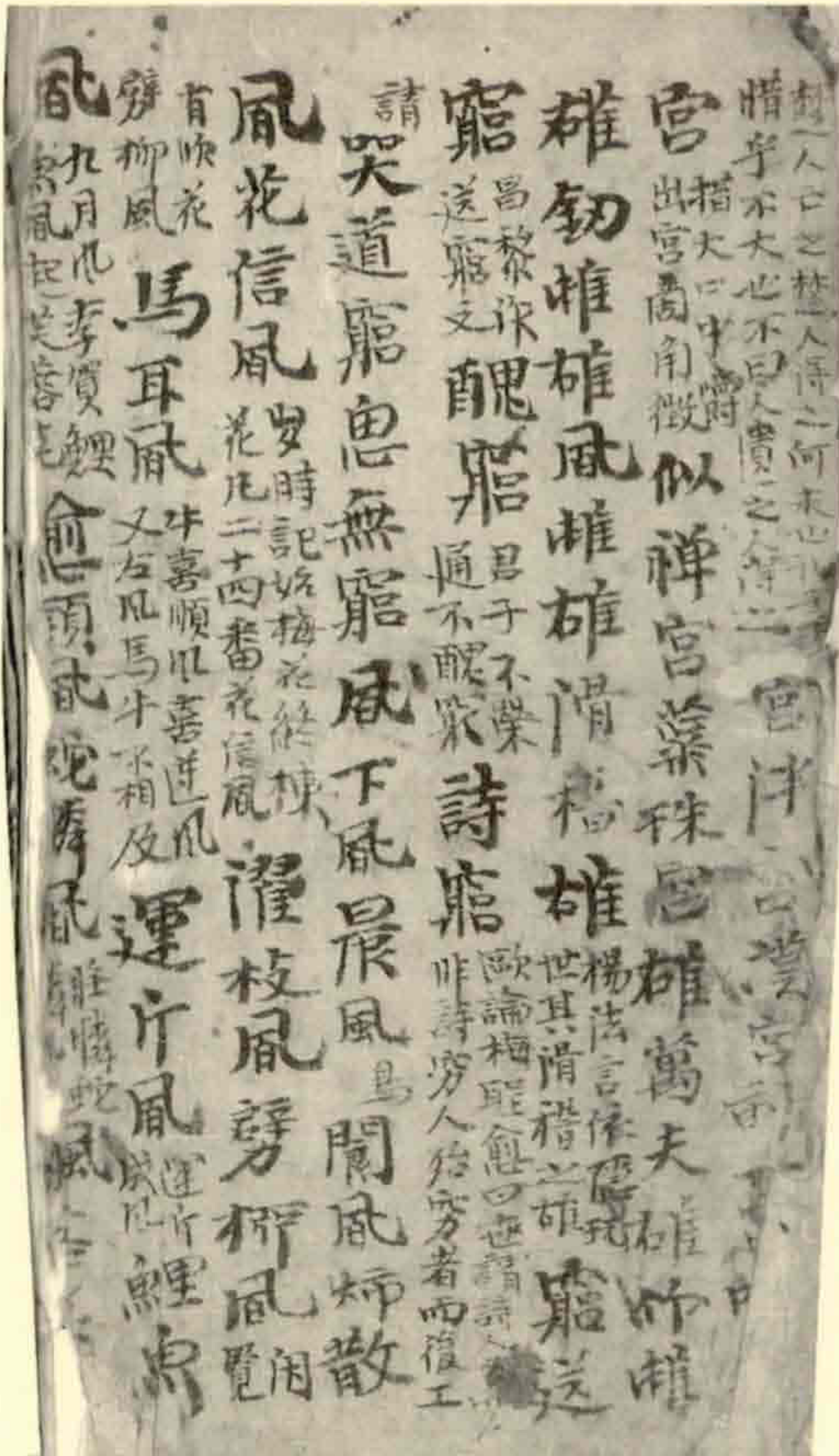
登安義愁送始

先生杖屨虬埵留春酒未人愁送遊沙鳥
亦知愁送意旋飛佇立水群流

留居昌郡兵山村

他鄉久在我鄉同到處無非慣面中大道
穿山橫走北長江鑿陸卧流東碁群一局
花朝兩酒氣三盃柳夕風偶入仙庄經十

37. 율가요람(律家要覽)



율가요람 律家要覽

14.7×22.2 1책 65장

회재(槐齋) 박치원(朴致元 : 1833~1878)은 경암(敬菴) 박근환(朴根煥)의 장자(長子)이다.

손수 운고(韻槁)를 쓰고, 뒤에 황석공소서(黃石公素書) 등을 순서 없이 써넣기도 하였다.

회재는 지극한 효행이 있었고 시문을 좋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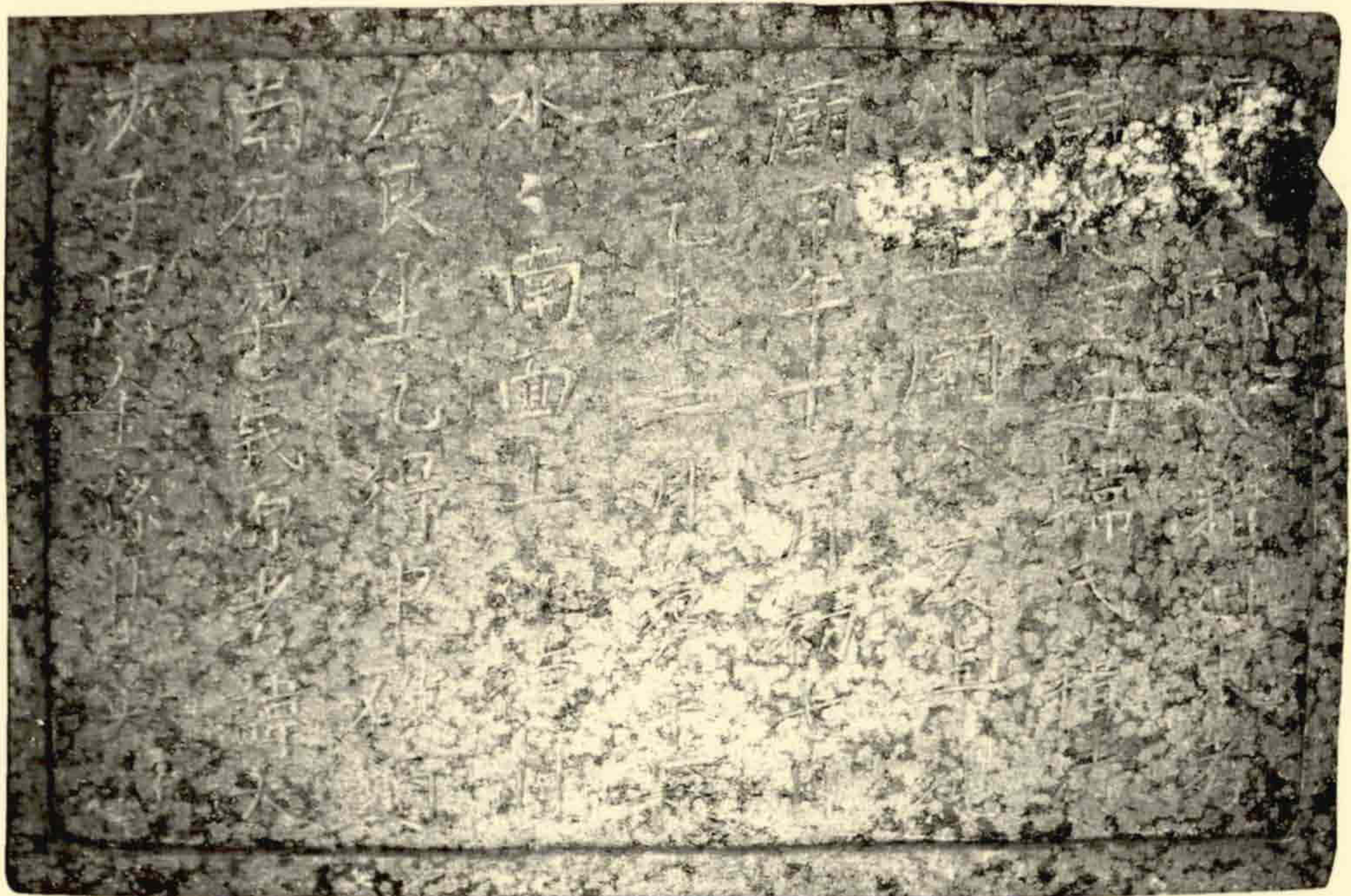
양재(陽齋) 권순명(權純命)이 공(公)과 아우 농와(龕窩) 박치종(朴致宗)의 구거비(舊居碑)를 찬(撰)하면서 형제분의 효행(孝行)을 상세히 기술했는데 구거지(舊居地)는 계남면 요전리(堯田里)이다.

38. 양의원(梁義源)의 배(配) 하동정씨(河東鄭氏) 지석(誌石)

정씨(鄭氏 : 1803 純祖癸亥 ~ 1834 純祖甲午)의 묘(墓)가 장수 수남면(水南面) 상필덕(上必德) 촌좌(村左) 간좌(艮坐) 을득신파(乙得申破 : 乙方에서 물이 나와 申方으로 빠짐)에 있었는데 계남면 가곡리(佳谷里) 부군(夫君)의 묘로 이장(移葬)하면서 곱돌 지석(誌石)이 나왔다. 정묘계해(正廟癸亥)는 순묘계해(純廟癸亥)로 했어야 옳을 것 같고 유인(孺人)의 고(考)는 희미하지만 덕연(德演)으로 보인다. 석남원 양의원(適南原梁義源)은 그에게 시집갔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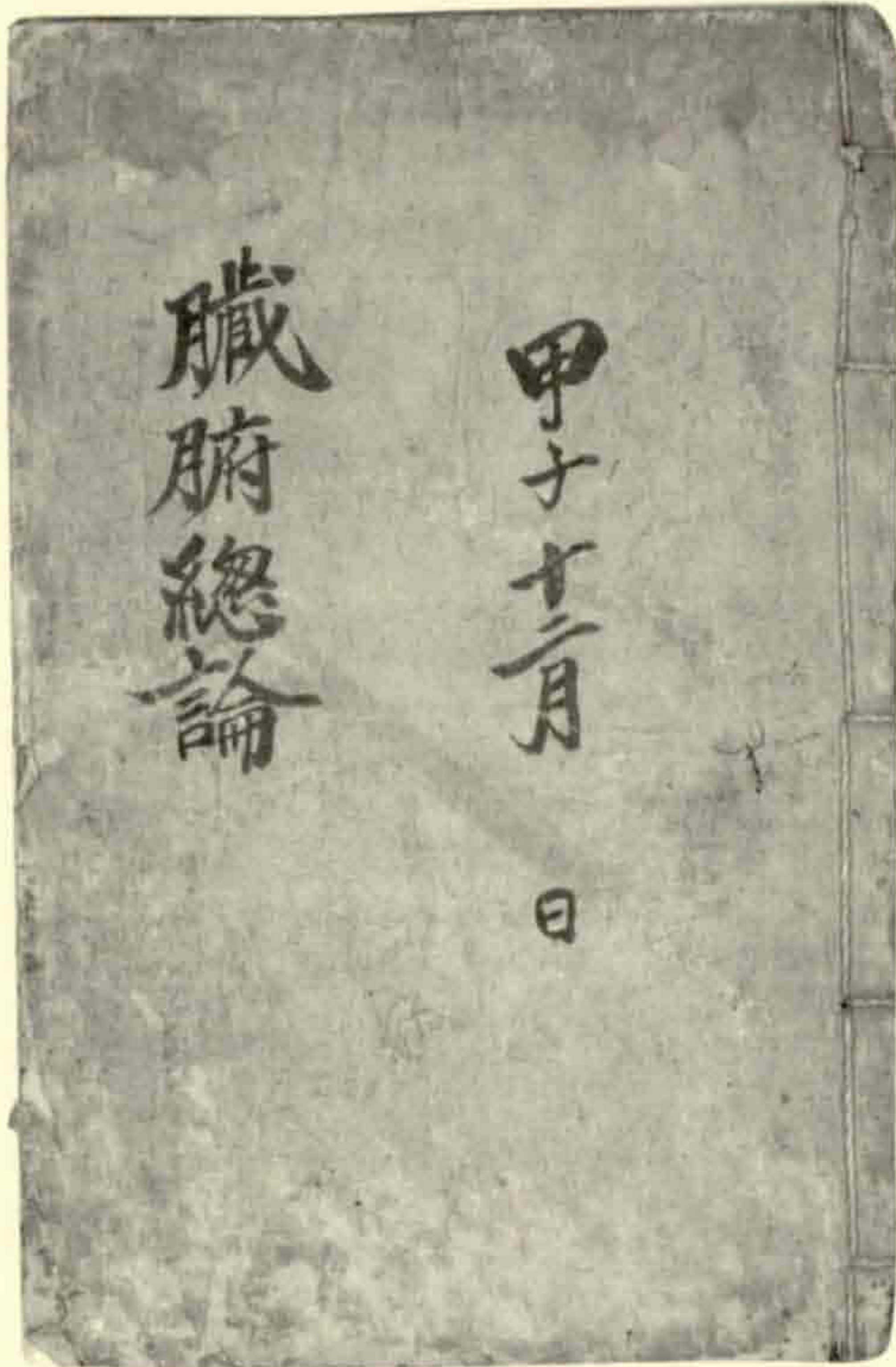
1834년 12월 졸(卒)인데 사서인(士庶人) 유월이장(逾月而葬 : 한 달 넘겨 장사함)의 예(禮)에 따라 이듬해 2월에 장사지냈다.

장수 지방에서 많이 나는 곱돌은 비교적 단단하지 않아 중기(重機) 작업 중에 개석(蓋石)이 깨어졌다.



양의원梁義源의 배配 하동정씨河東鄭氏 지석誌石
40×25

39. 장부총론(臟腑總論) 및 약성가(藥性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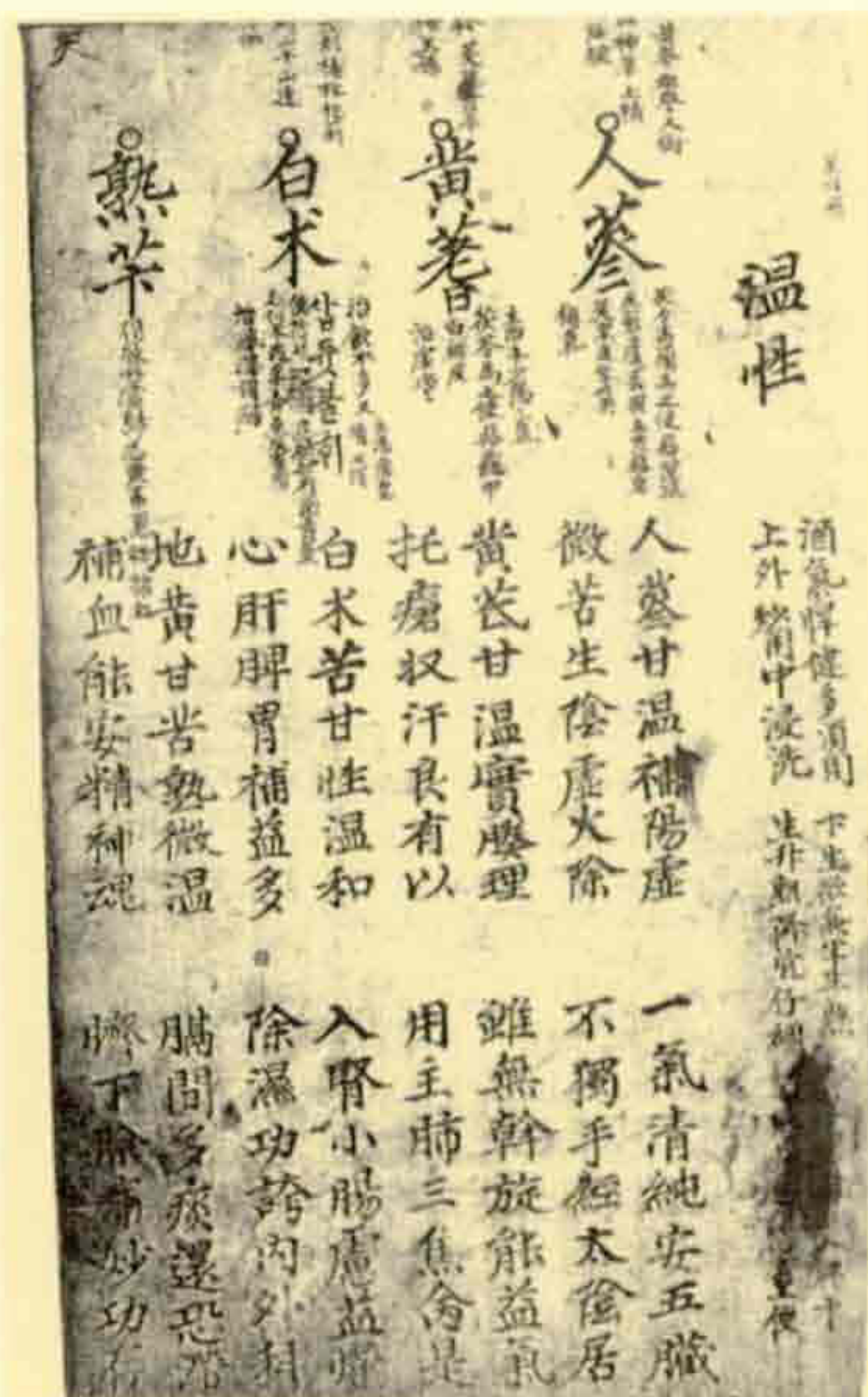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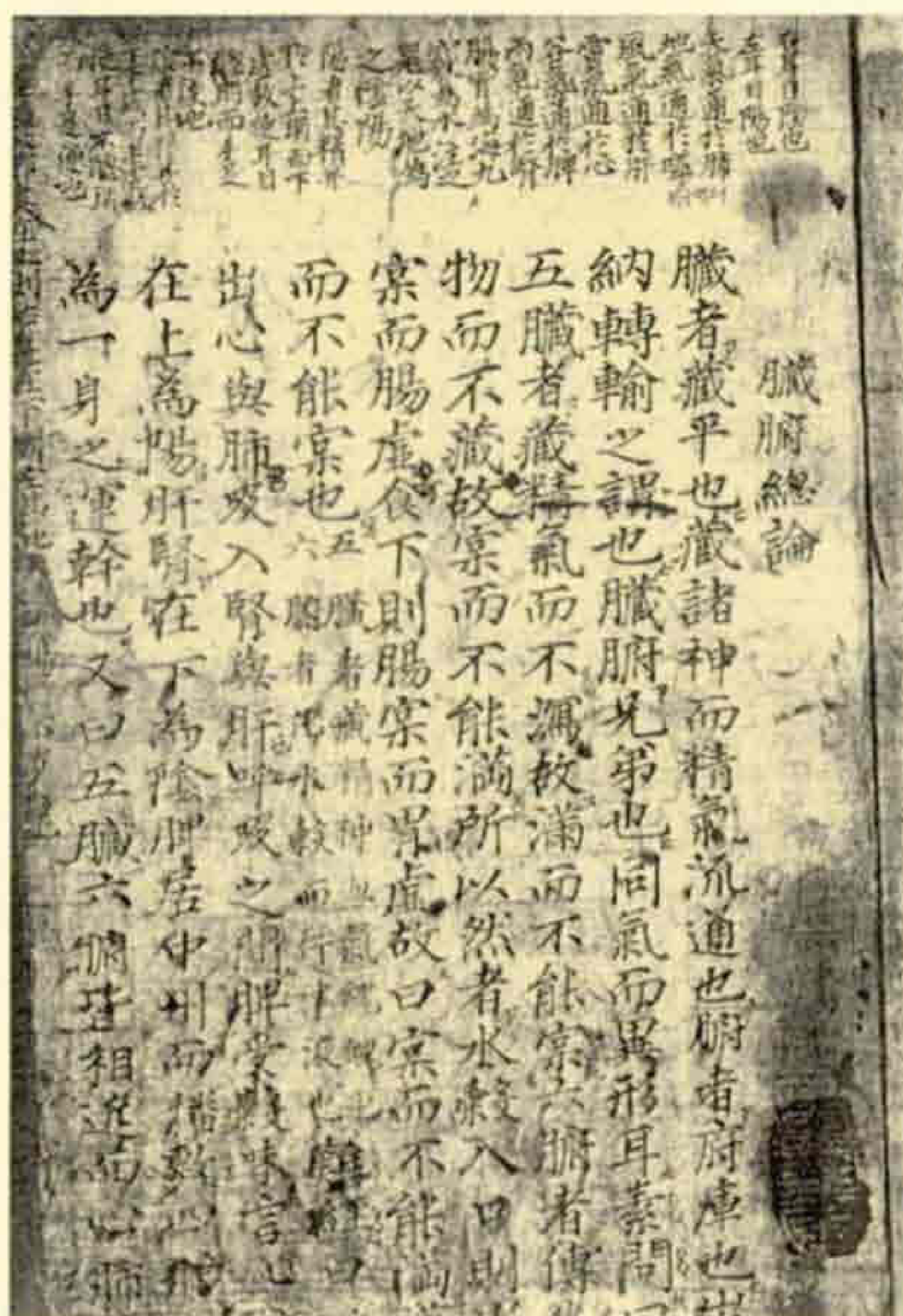


장부총론은 5장(肺, 心, 臟, 肝臟, 胃臟, 脾臟) 6부(大腸, 小腸, 胃, 膽, 膀胱, 三焦)를 총망라하여 해석한 것으로 현대의학에서도 연구하여 겸용(兼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책이다. 뒤에 약성가를 붙였는데 약의 성분을 적은 것이다. 부록이라 하지 않고 뒤 가의에다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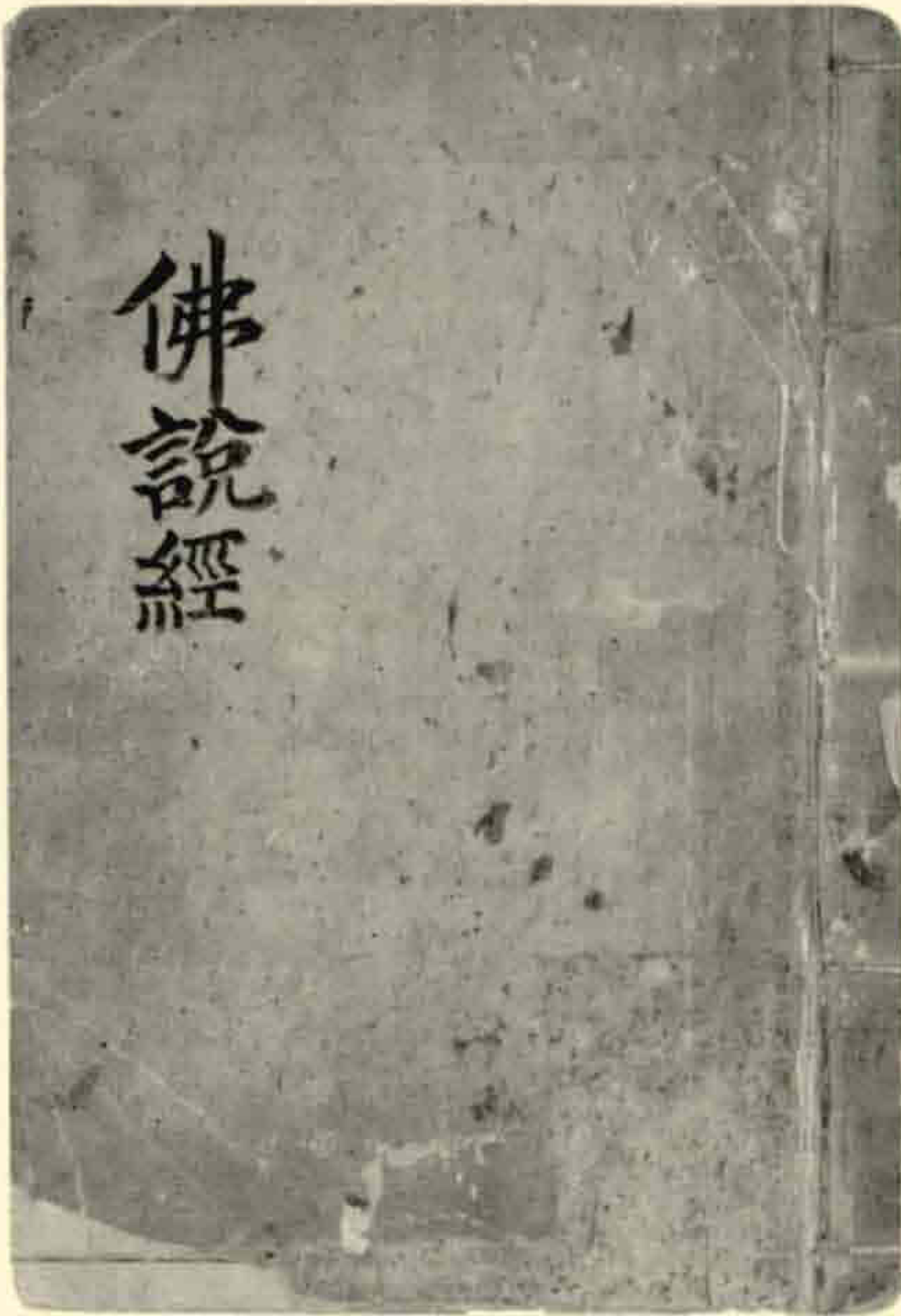
필사(筆寫)는 누구의 솜씨인지 모르겠고 갑자(甲子) 12월에 시작하여 을축(乙丑) 3월 14일에 가의(加衣)를 했다고 뒤에 연필(鉛筆)로 쓴 것으로 보아 1924년 갑자(甲子)가 아닌가 싶다.

장부총론(臟腑總論) 및 약성가(藥性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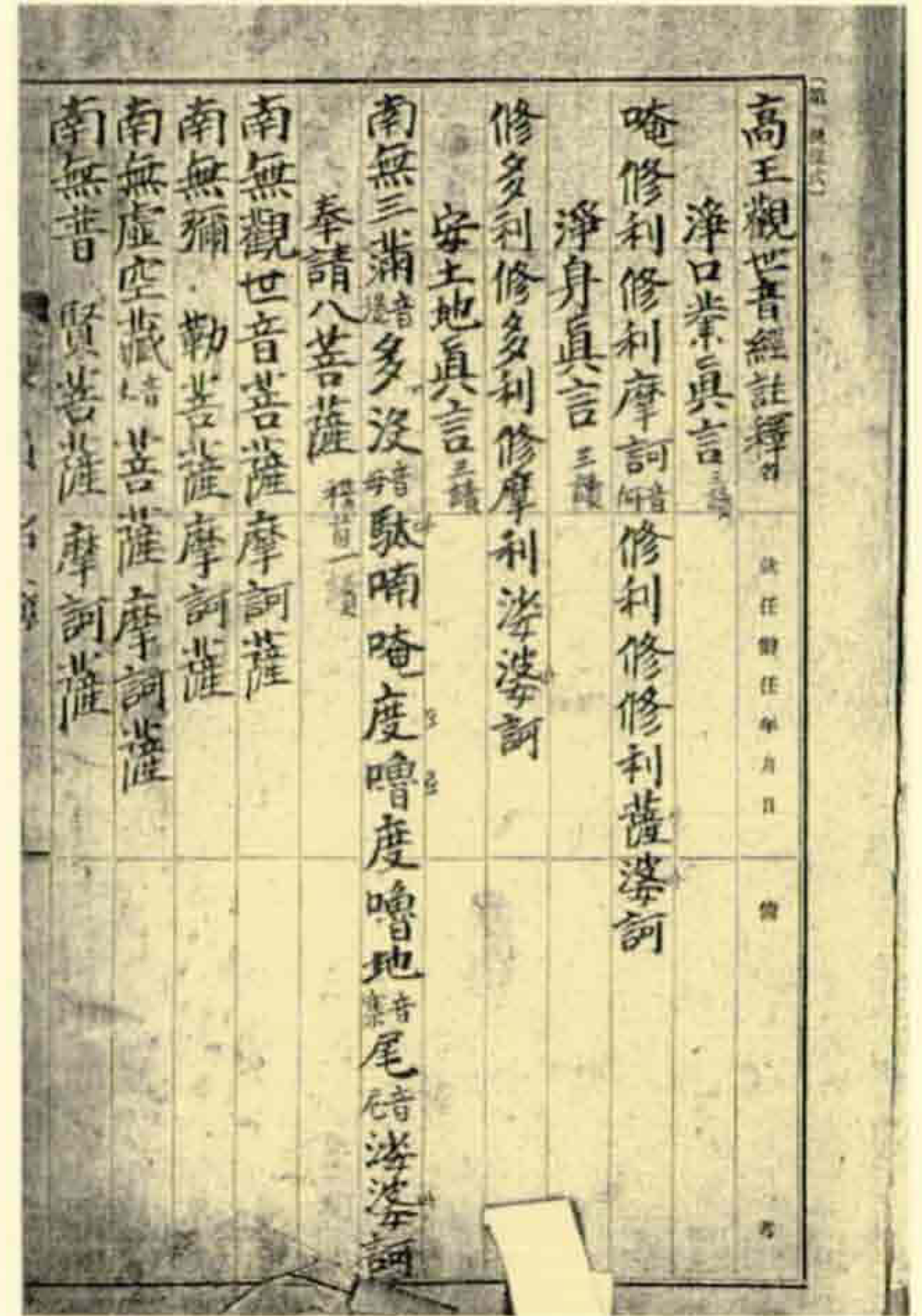
18×28 1권(장부총론 28장, 약성가 18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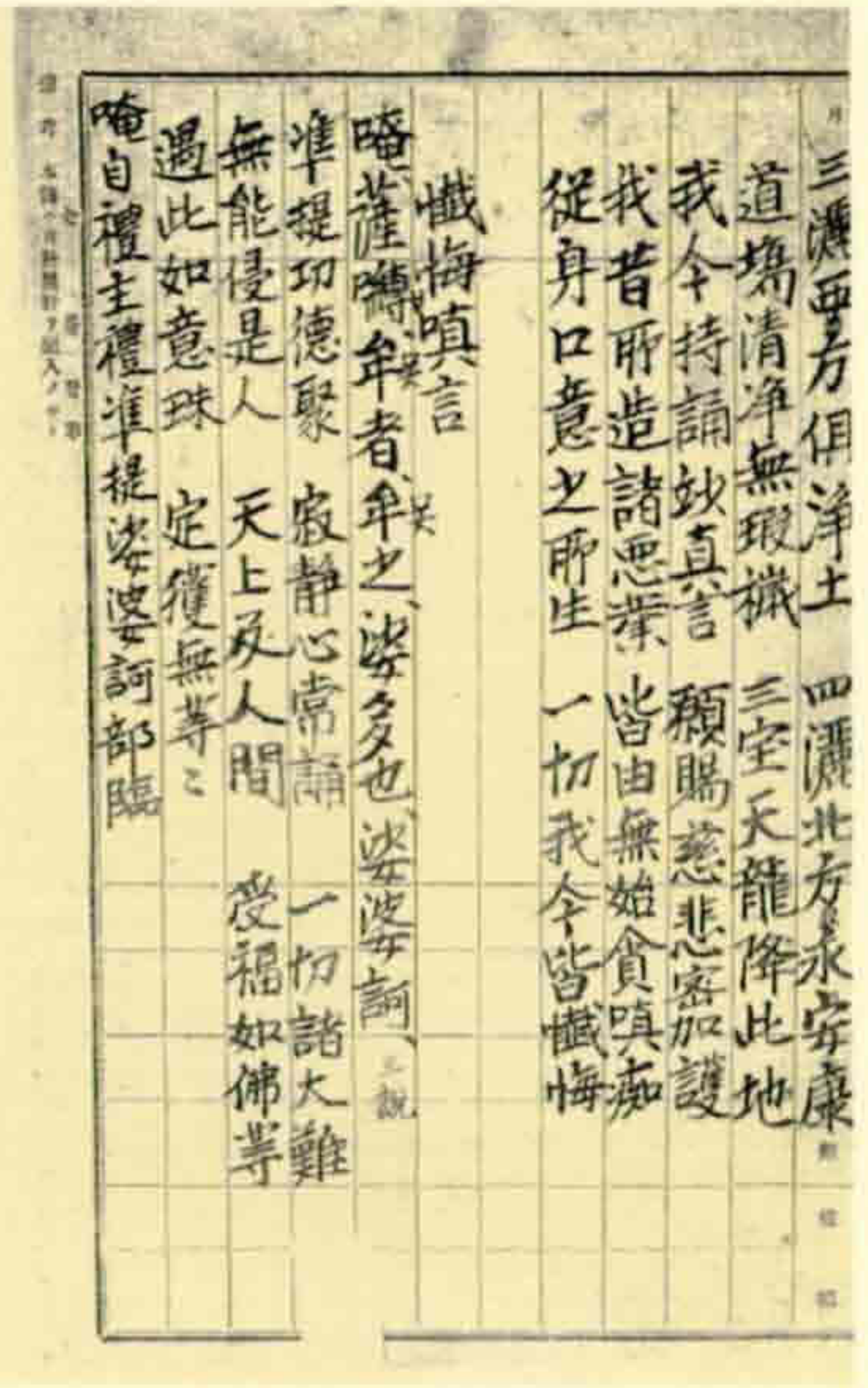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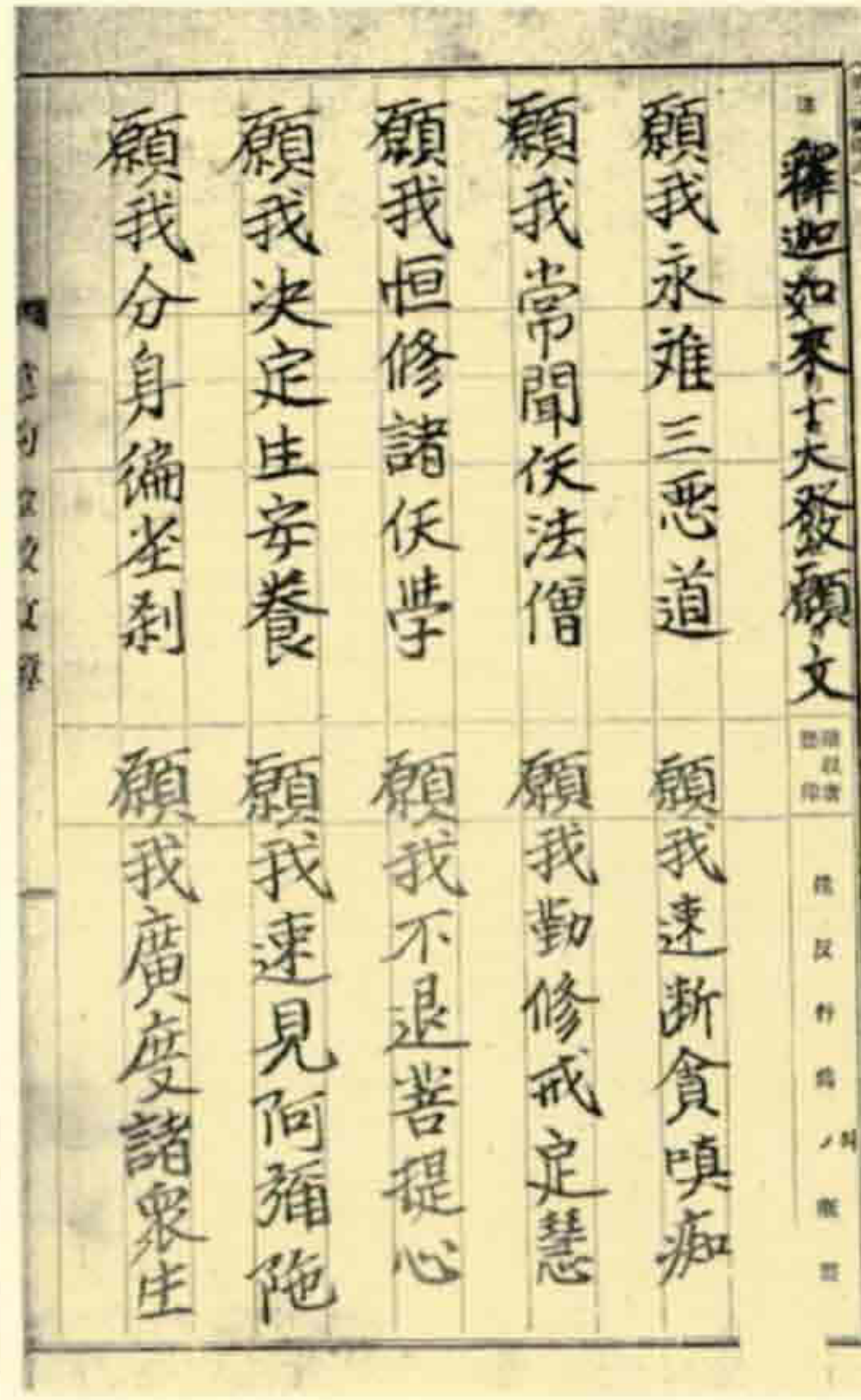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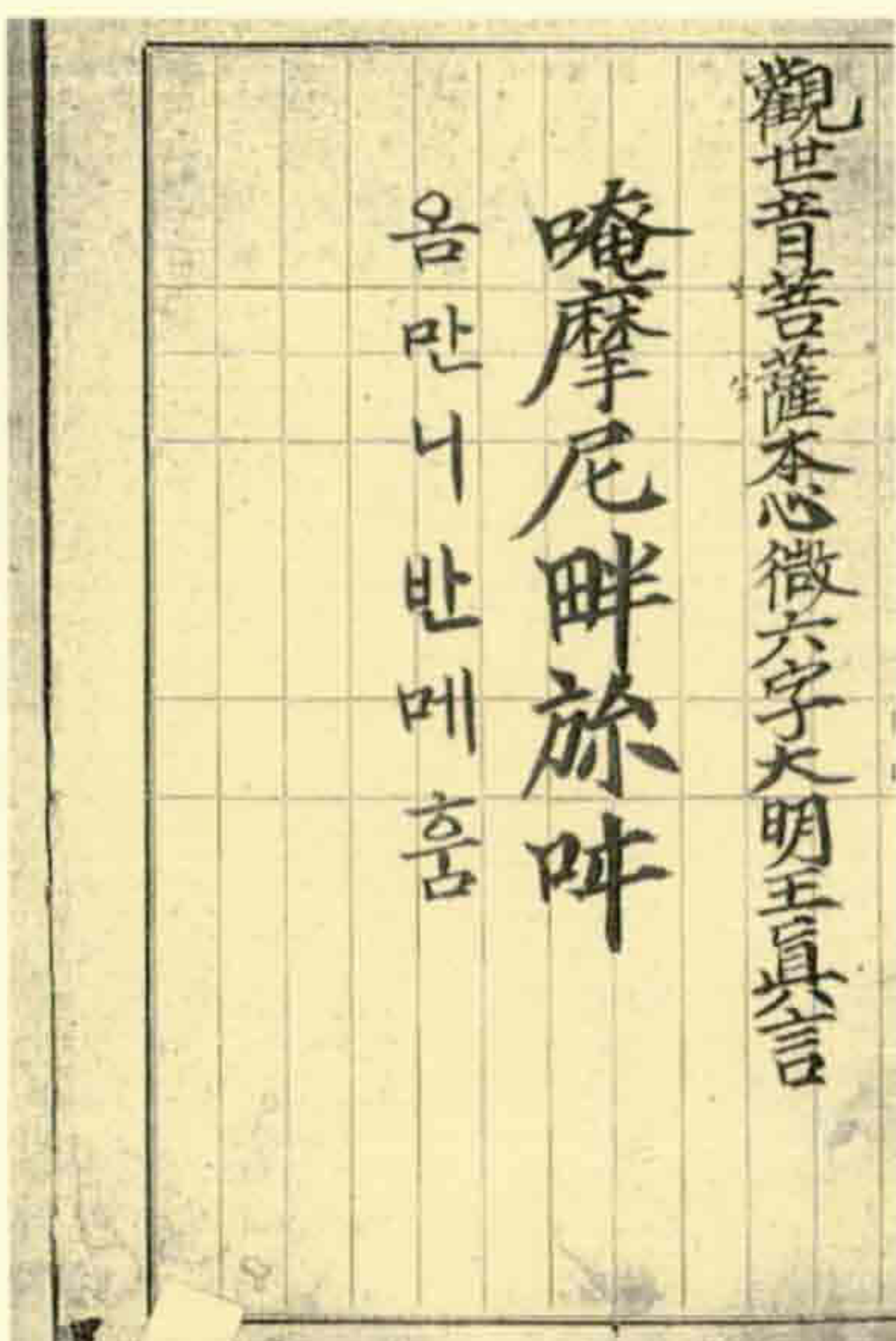
40. 불설경(佛說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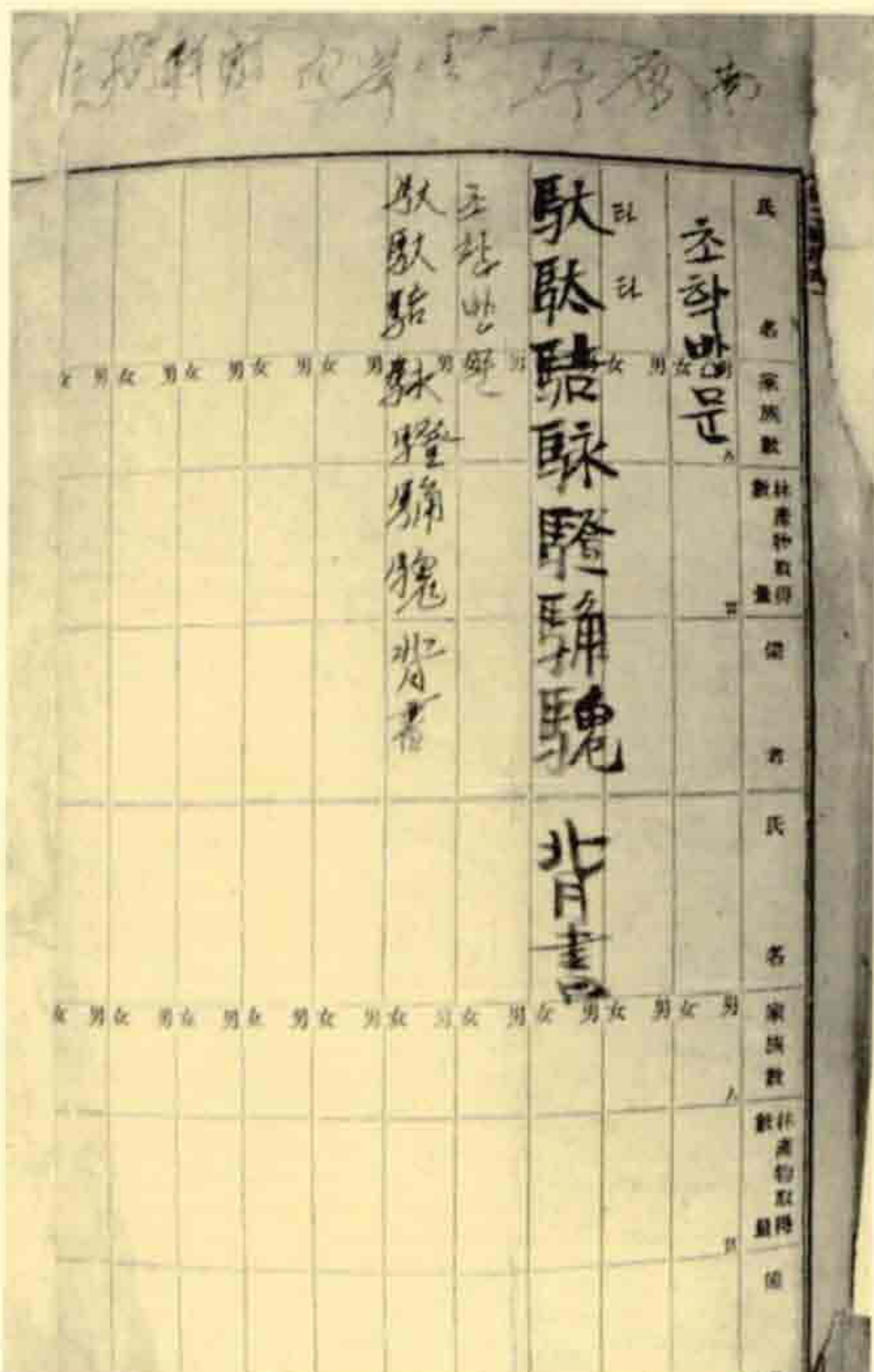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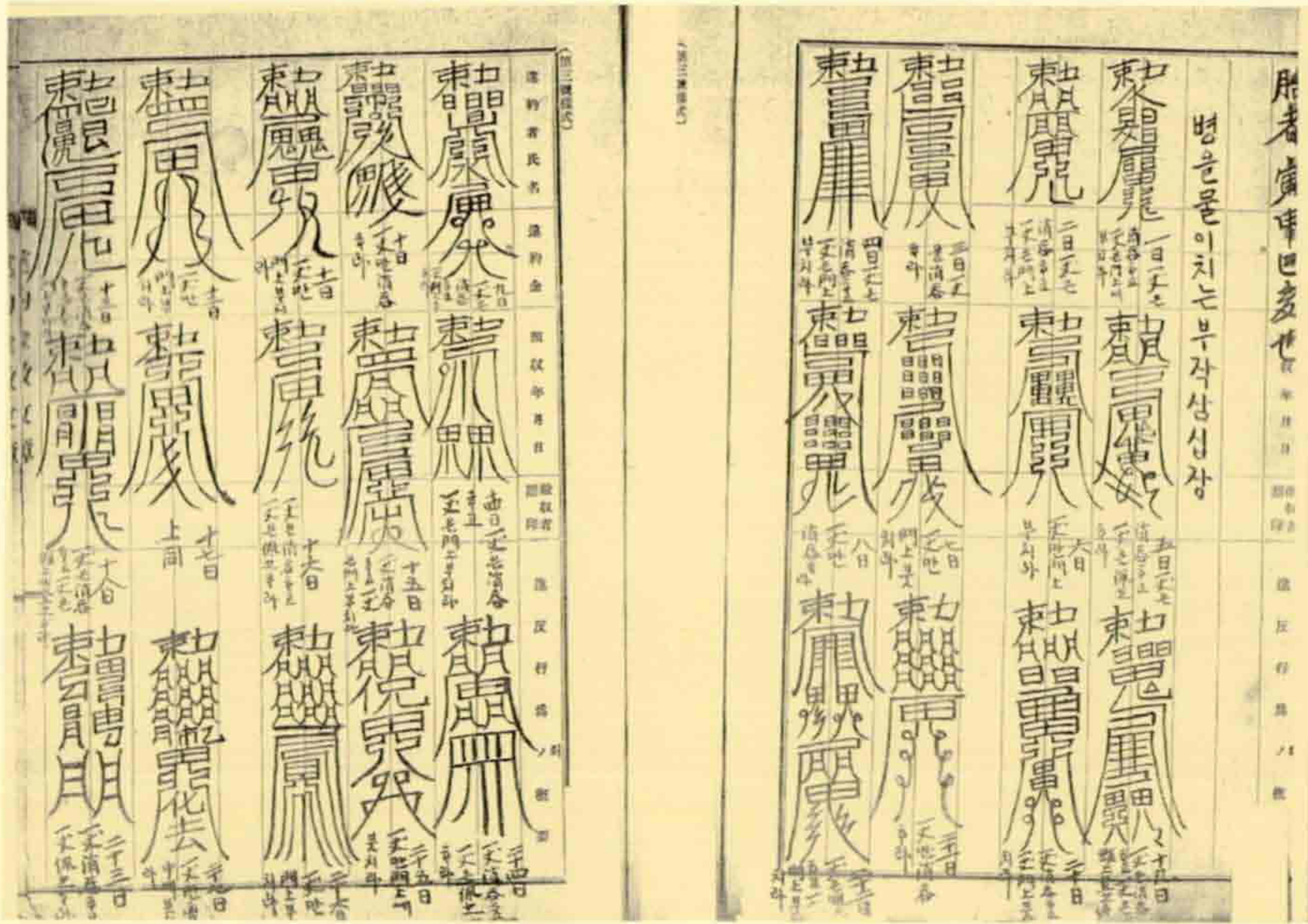
불설경佛說經
18.2×26.8 1책 2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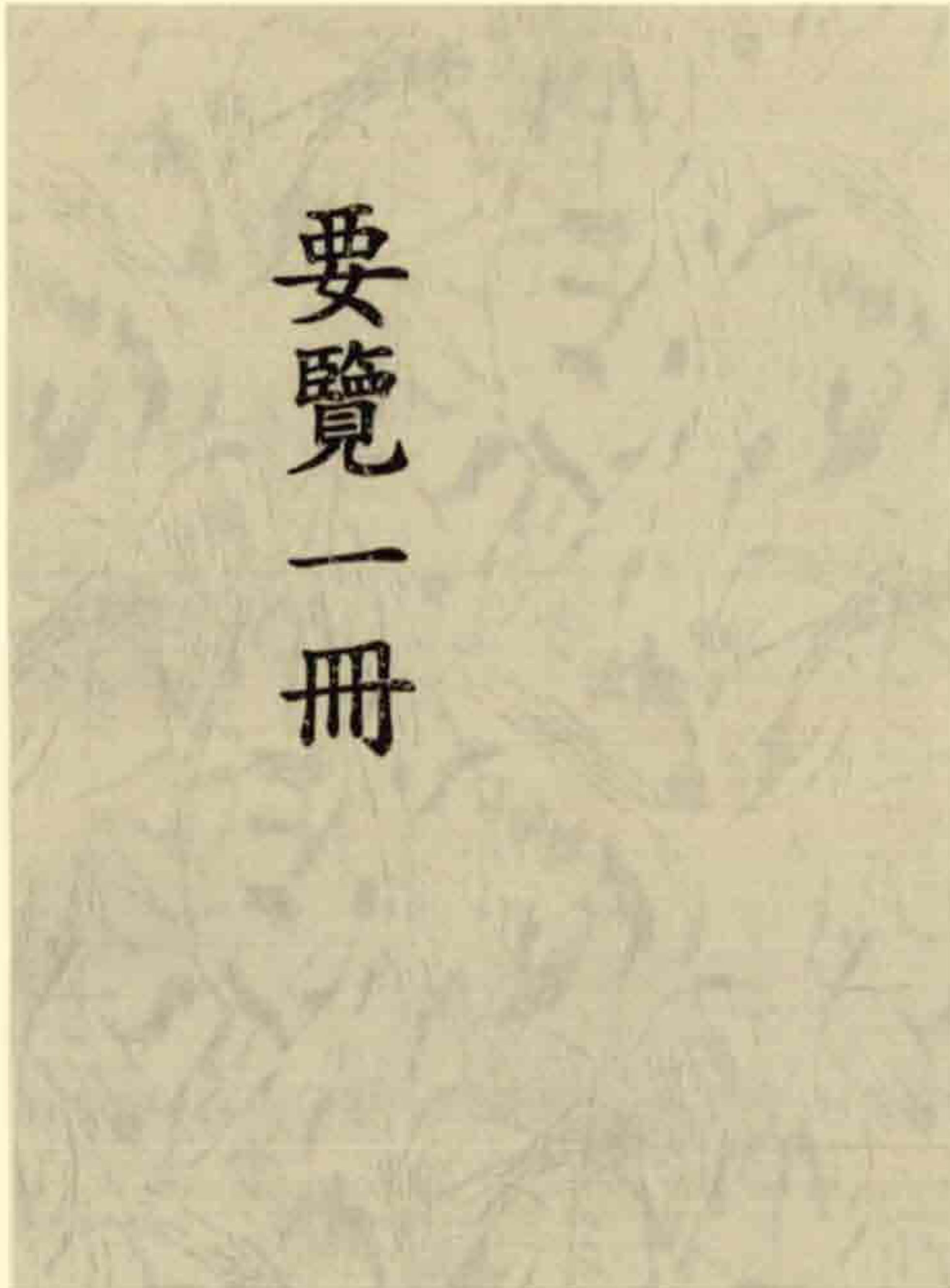
이 책은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일제시대 용지(用紙)들을 주워 모아 잡기장(雜記帳)을 만들어 여러 경(經)과 고(誥), 진언(眞言), 전문(呪文), 진언(眞言), 발원문(發願文), 부적(符籙), 풍수설(風水說) 등을 쓰고 토(吐)는 한글과 이두(吏讀)를 썼으며, 뒤 가의(加衣) 안쪽 초학방문 위 여백(餘



白)에 잉크로 남원군 운봉면(南原郡 雲峯面)이라고 쓴 다음 이어 조선독립(朝鮮獨立) 네 글자를 갈겨 쓴 것을 보면 비록 한지(韓紙) 살 돈도 없는 궁색한 삶이었지만 조선인의 얼을 잃지 않은 살아 있는 민초(民草)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전체 동포(同胞)의 똑같은 심정임을 추측하게 하여 자못 숙연(肅然)해짐을 느끼게 하는 책이다.



41. 요람일책(要覽一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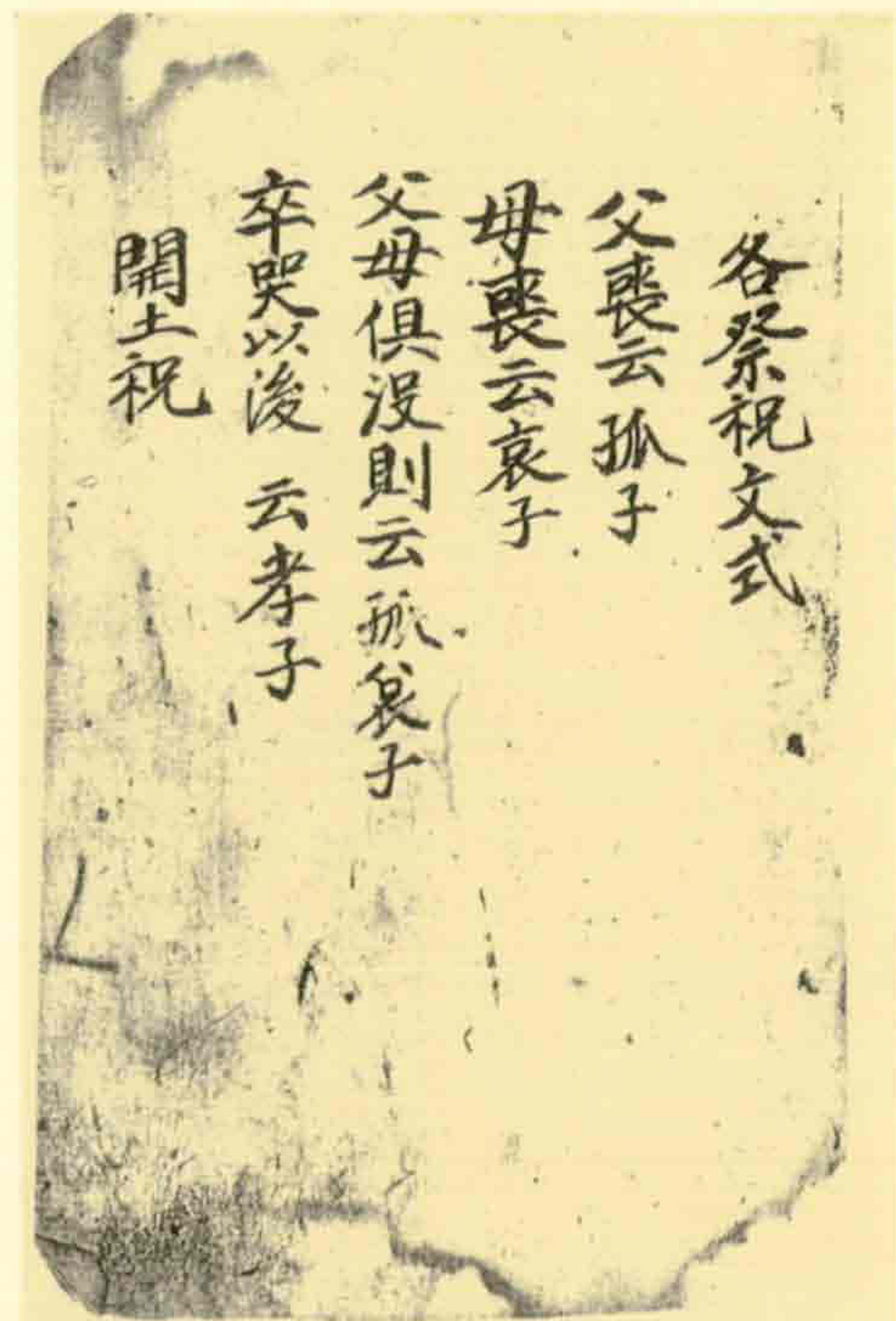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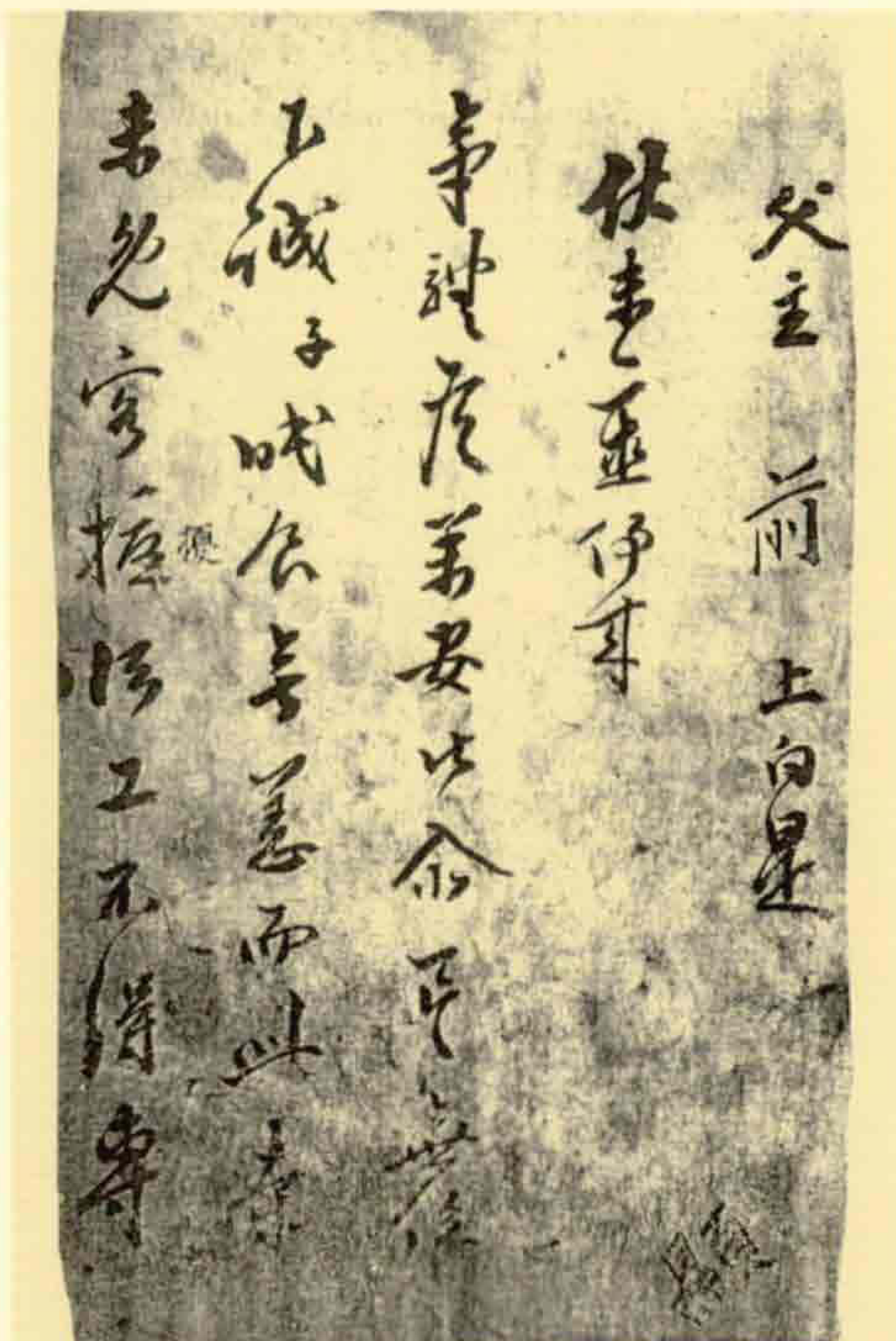
책 이름을 요람이라 하면 될 텐데 일책을 덧붙였었다.

축문(祝文), 문묘축문(文廟祝文), 창계사(滄溪祠) 단사 축문(壇祀祝文), 편지투(便紙套) 등을 순서 없이 써놓고 보던 책이다.

언제 누가 썼는지도 알 수 없다.

요람일책 要覽一冊

16×23 1책 37장



42. 요약대방(要藥大方)



모아 쓴 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책 이름이 말해주듯 중요한 약방문을 광범위하게 정리한 책이다. 모두 661가지의 처방을 내놓고 몇 가지를 더 써 넣기도 하였다. 좋은 것이면 하나도 빼놓지 않으려는 성실함과 꼼꼼함을 엿볼 수 있다.

요약대방 要藥大方

13.5×23.5 1책 49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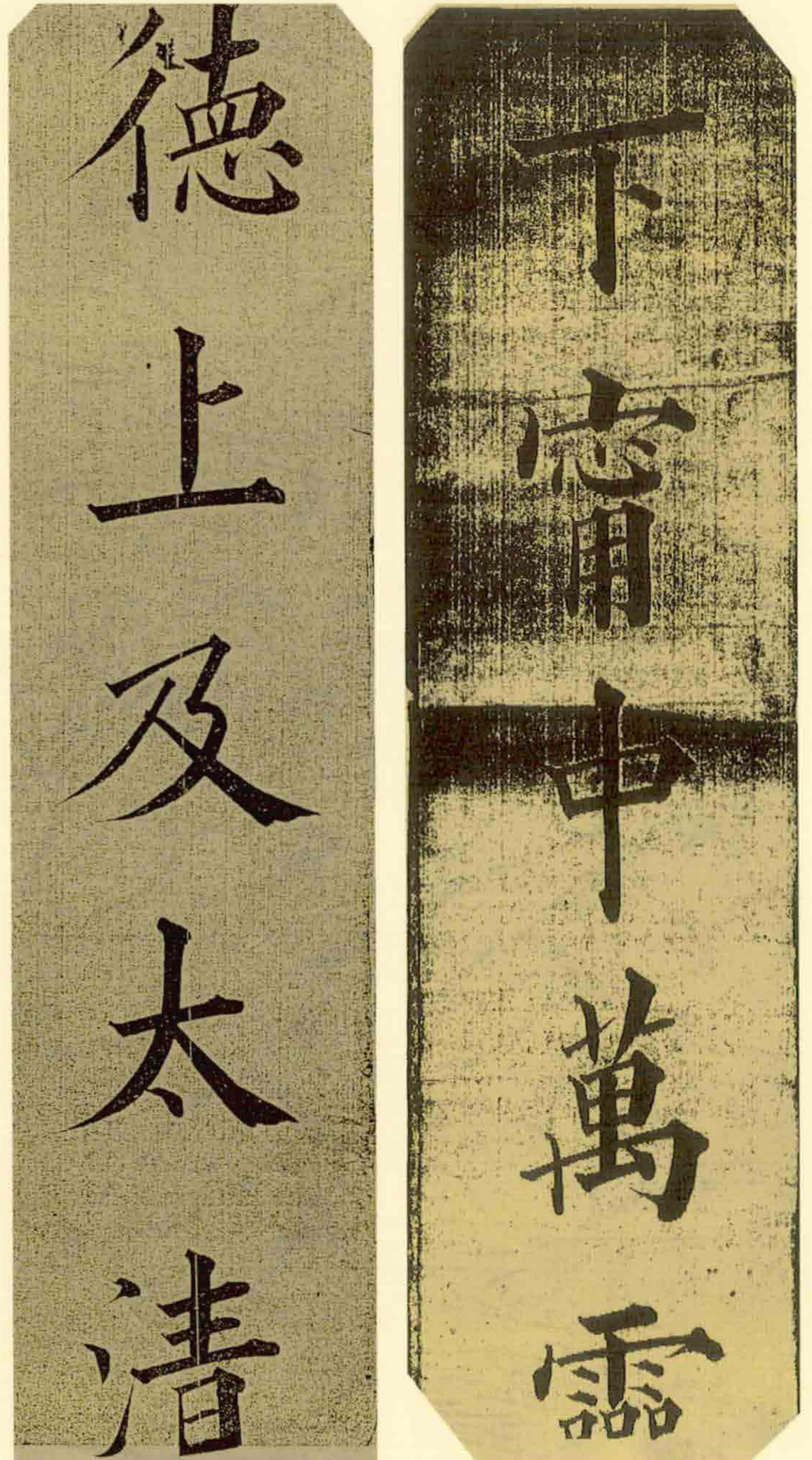
小兒門		婦人門	
地骨皮散 一	五粒	血	四物安神湯 二
參羌活散 二	德厚散 二	雞蘇散 二	熱病大血血雖是北
大連翹散 三	治諸瘡	三神丸 二十三	女怪候不調腹痛
拔毒散 四	丹毒流注瘰癧	升陽調經湯 四	內傷中氣下泄暴崩
調元散 五	行尾	升陽除濕湯 五	崩漏不止脾胃虛
五寶散 六	委異不能行	神附湯 六	白帶腥臭及寒寒
普濟丸 七	念不足天火并不言	清熱調血湯 七	經水將未腹中作痛
百木散 八	虫痛	清經物湯 八	經水不及未至
半文伏金湯 九	惡疽疔毒	通經物湯 九	經水過期
黃氏散 十	胎動不安	三和湯 三十	熱結血閉
佛手散 十一	胎動不安	加味母丸 四十	腹中自有孕
黃氏散 十二	胎動不安	今連理湯 十一	惡世背骨痛
佛手散 十三	胎動不安	散元散 五十一	惡世念不念
佛手散 十四	胎動不安	尺骨湯 五十三	胎痛下血
佛手散 十五	胎動不安	膠葛物湯 五十四	胎動下血
佛手散 十六	胎動不安	膠葛物湯 五十五	胎痛腹痛
佛手散 十七	胎動不安	曹改寄生湯 五十六	胎痛下血
佛手散 十八	胎動不安	曹改地黃湯 五十七	胎動痛
佛手散 十九	胎動不安	曹改湯 五十八	胎動不安
佛手散 二十	胎動不安	佛手散 五十九	孕婦胎月胎長
佛手散 二十一	胎動不安	佛手散 六十	孕婦產後腹痛

43. 구성궁예천명첩(九成宮醴泉銘帖)

이 서첩(書帖)은 석정(石亭) 이정직(李定稷)이 천하명필 구양순(歐陽詢)의 구성궁 예천명을 임모(臨摹)한 것인데 문하생을 가르치면서 매일 체본(體本)을 해 준 것이 모여서 첩이 된 것이다.

석정은 1841년 김제시 백산면 요교리(蓼橋里)에서 이계환(李啓煥)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유학자(儒學者)이면서 시서화(詩書畫)에 능통하였고, 동서사상(東西思想), 성력(星曆), 술수(術數), 예학(禮學), 산학(算學), 의약복서(醫藥卜筮), 음양풍수(陰陽風水), 제자백가(諸子百家) 등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다.

1910년에 70세를 1기로 즐겼는데 세상에서는 호남삼재(湖南三才)로 공과 해학(海鶴) 이기(李沂), 매천(梅泉) 황현(黃玹)을 일컫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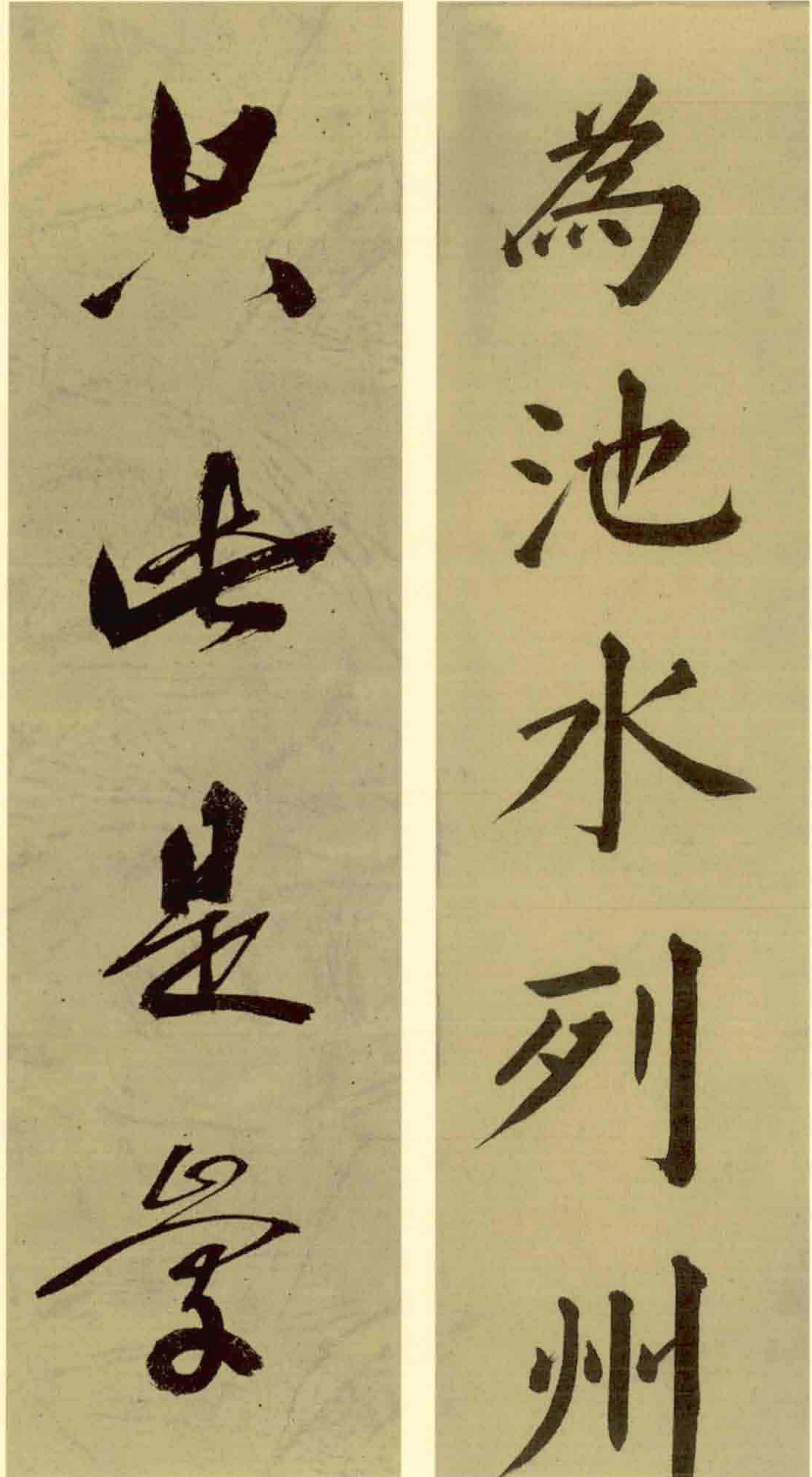


44. 지차시학(只此是學)

“다만 이것이 이 학문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이것은 글씨를 말한다. 습서(習書)는 정심단좌(正心端坐)하여 학문(學問)하는 자세를 익히는 것이다.

이 필첩(筆帖)은 백헌(栢軒) 이봉우(李奉雨) 선생(1919~1992)의 체본(體本)이다.

백헌은 선형옥골(仙形玉骨)로 재주가 초월하여 문필(文筆)에 능(能)했으나 나를 아는 이가 드물어야 귀하다는 생각으로 남에게 보이기를 꺼렸다. 문집(文集)을 정리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



45. 옥낭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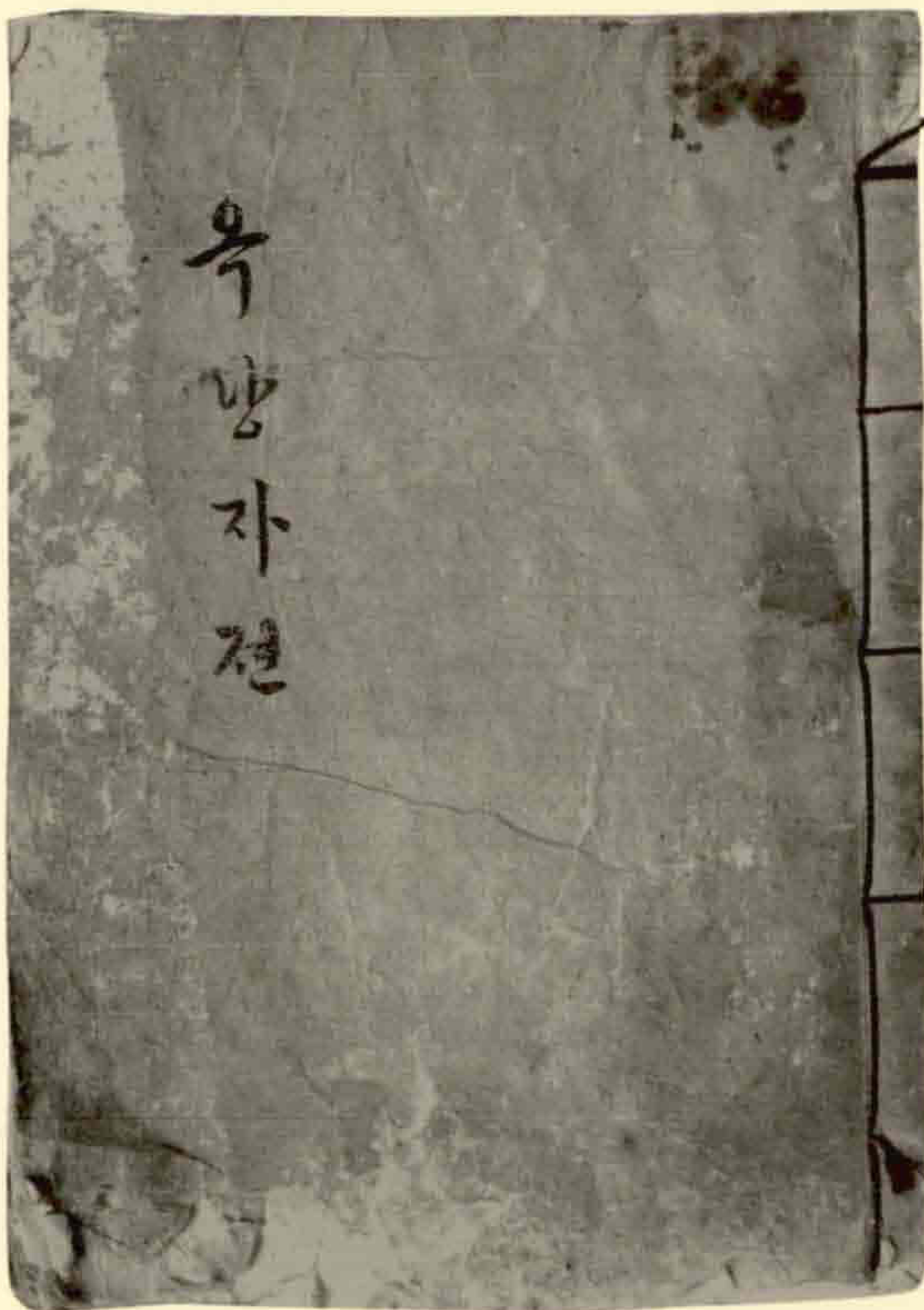
본 옥낭자전을 필사(筆寫)한 이는 충주(忠州) 박수호(朴洙皓)의 처(妻) 문화(文化) 류옥이(柳玉伊)(1916~1983) 여사이다.

사람들은 이 부부(夫婦)의 작품을 일러 쌍옥(雙玉)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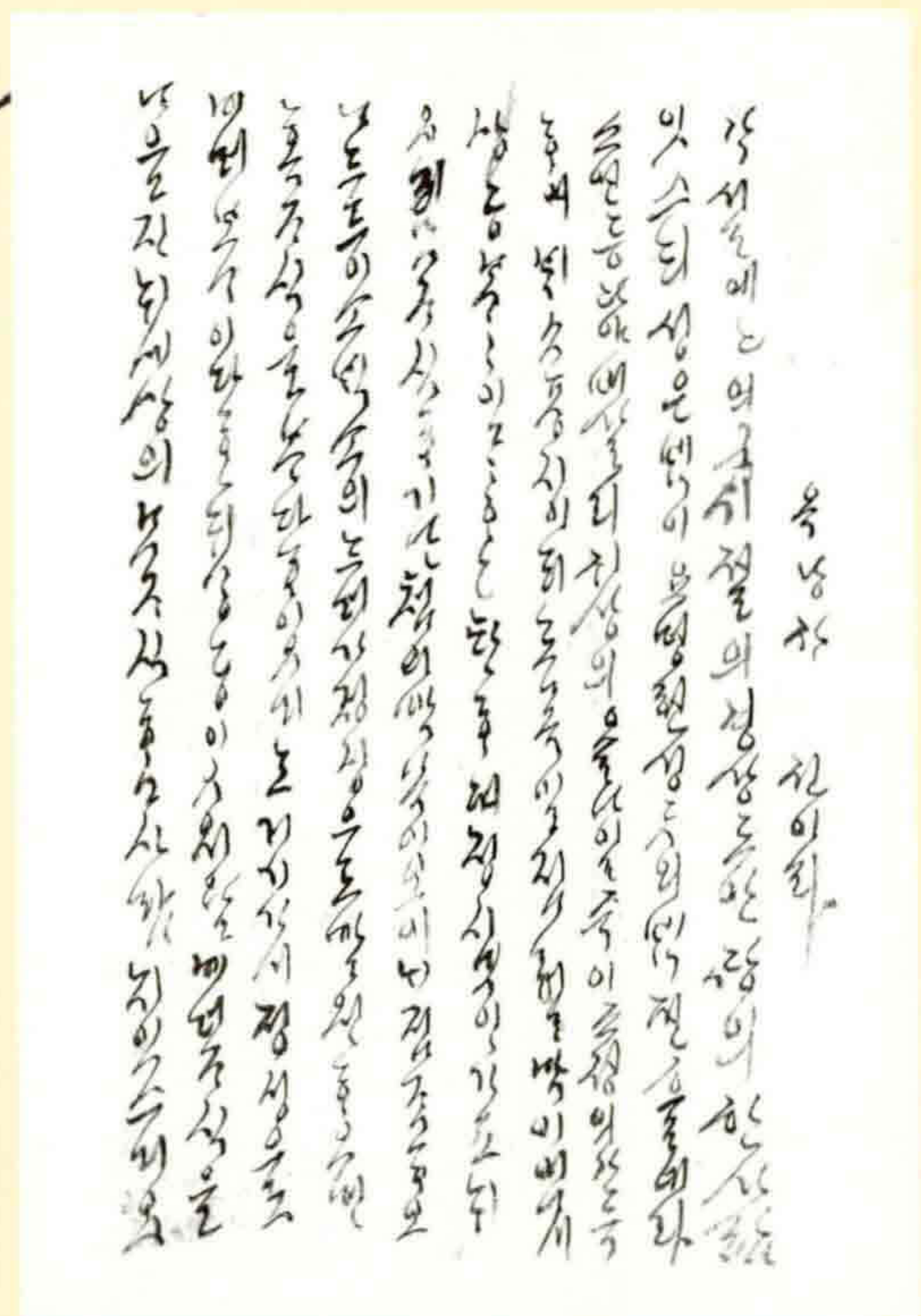
옥낭자전은 작자 연대 미상의 국문소설로 대략 19세기 경에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함경도 고원땅의 이시업과 영흥의 김옥랑 부부의 혼인의 존엄성과 희생적 인간애를 주제로 한公安소설(公安小說)로 풍속교화 측면이 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이 책의 무대는 경상도인 것으로 보아 여러 지방에서 비슷한 소설이 나와 풍속을 바꾸고자 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옥낭자전
14×22.2 1책 2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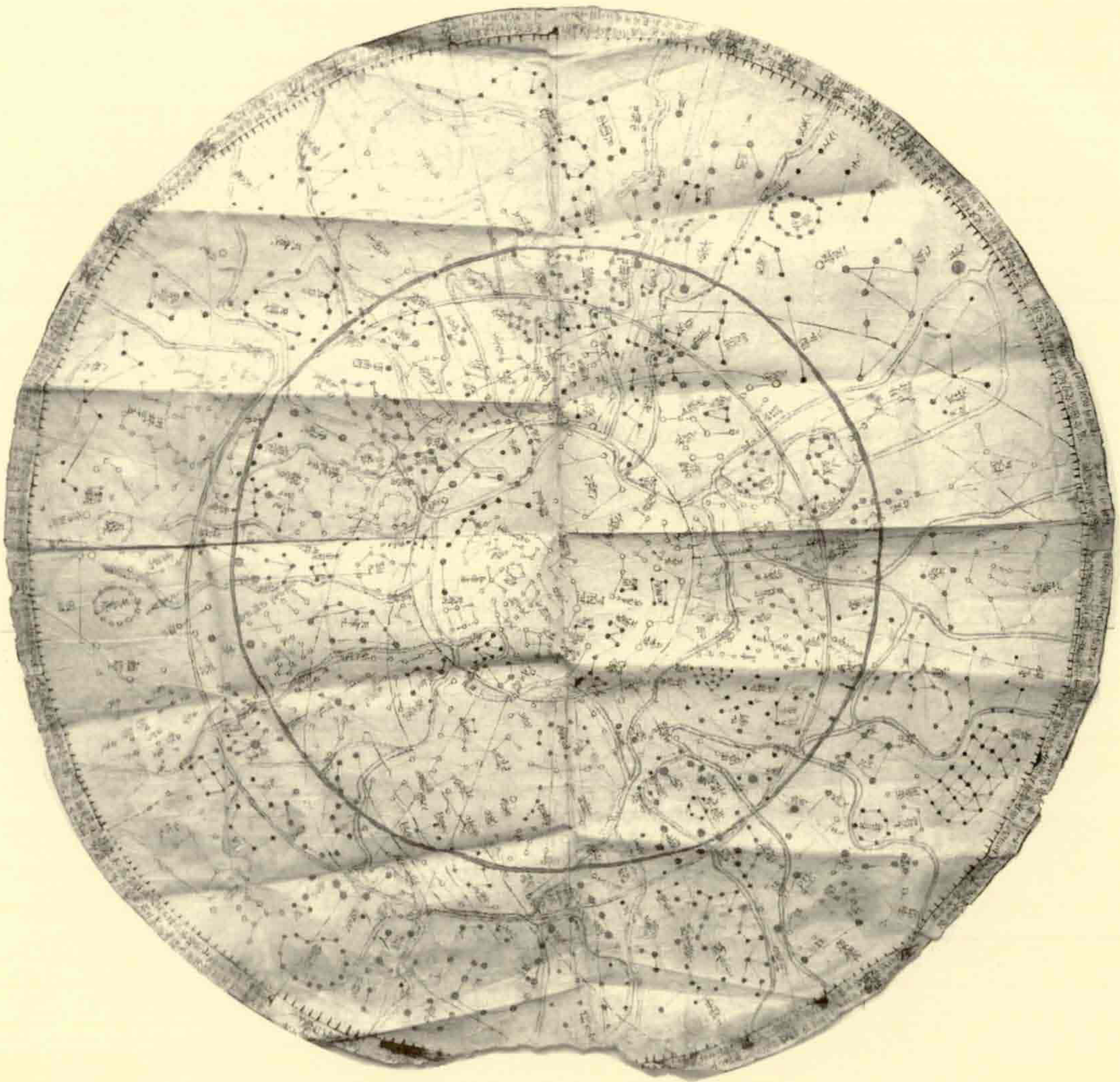


46. 천문도(天文圖)

이 천문도(天文圖)는 성신도(星辰圖)라고 해도 될 것 같다.

원형으로 전국 주군(州郡)을 썼는데 이는 그 지방에서 보는 것과 다른 지방에서 보는 차이를 알게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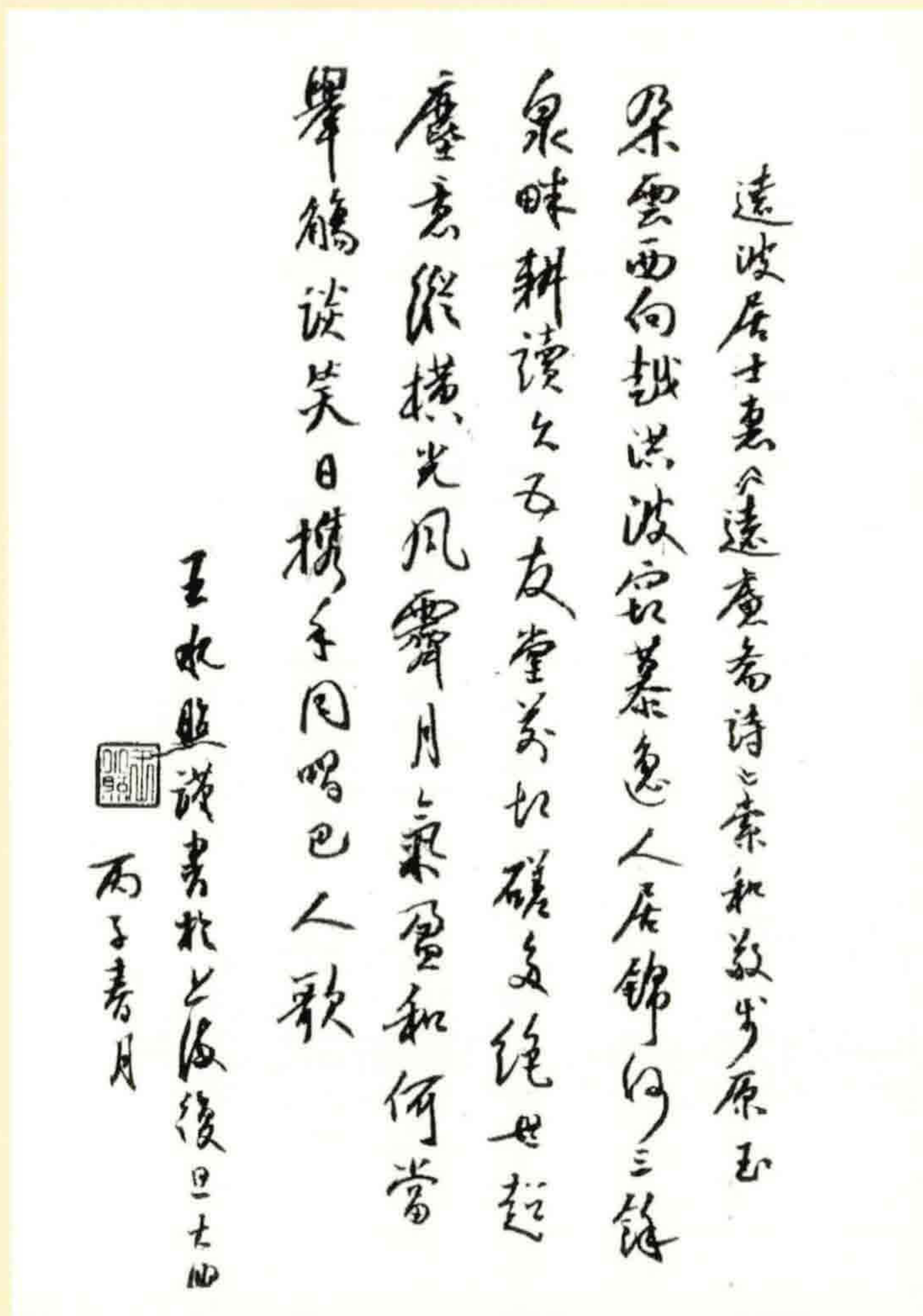
작자(作者)는 알 수 없으나 석학(碩學)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47. 원려재 차운(遠廬齋 次韻)

원려재는 원파(遠波) 박수섭(朴洙燮)의 서재(書齋)이다. 그가 54세 되는 1996년(丙子) 봄에 고락(告落)하고 기문(記文)과 원운(原韻)을 지었는데, 문인(門人) 류기영 박사(柳基榮 博士)가 중국 유학 중에 당대 석학인 상해(上海) 복단대학(復旦大學)의 왕수조 교수(王水照教授)에게 차운을 청(請)하자, “그윽히 사모하며 언제 한 잔 하면서 손잡고 함께 들노래를 불러 불고” 하는 뜻으로 즉석에서 써준 것인데 시도 좋으려니와 글씨 또한 명필이다.

편액(扁額)과 주련(柱聯)은 강암(剛菴) 송성용 옹(宋成鏞翁)이 써주었다.



원려재 차운 遠廬齋 次韻
13.3×29.5

遠慮齋

戊寅夏
河東書

但看目前

近憂可畏

聖慮慮在遠

慮千里外

장수 고문서 자료집

발행일 | 2009년 12월 10일

발행처 | 장수문화원

전북 장수읍 두산리 472

Tel (063) 351-5349

해설 | 박수섭

인쇄처 | 신아출판사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51-30

Tel (063) 275-4000

Fax (063) 274-3131

